
202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202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발행인

이규석

발행일

2020.12.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

교육연수센터

등록

KACES-2032-R003

ISBN

978-89-6748-362-3(93600)

문의

Tel. (02)6209-5900

Fax. (02)6209-1392

E-mail. contact@arte.or.kr

www.arte.or.kr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



제출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202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경석 글로벌알앤씨(주) 연구부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자

조아영 글로벌알앤씨(주) 연구부 연구원

정현혜 글로벌알앤씨(주) 연구부 연구원

연구보조원

김주원 글로벌알앤씨(주) 연구부 연구원

글로벌알앤씨(주)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

요약	1
I. 서론	11
II. 자격소지자	25
1. 종합분석	27
2. 고졸/비전공자	93
3. 예술강사	135
4. 예술전공자	183
5. 국가무형문화재	231
III. 문화예술 관련 기관	277
1. 종합분석(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 관련 기관)	279
2. 의무배치기관	290
3. 문화예술 관련 기관	321
4.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336
IV. 결론 및 제언	343
참고문헌	349
부록	353

표 목차

[표 1]	2016-202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개요	2
[표 2]	2016-2020 자격소지자 대상 설문 항목 비교	4
[표 3]	2016-2020 의무배치기관 대상 설문 항목 비교	5
[표 4]	2018-2020 문화예술 관련 기관 설문 항목 비교	6
[표 5]	자격소지자 대상 설문조사 응답 현황	7
[표 6]	의무배치기관 대상 설문조사 응답 현황	7
[표 7]	문화예술 관련 기관 대상 설문조사 응답 현황	8
[표 8]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관련 세부 법령	13
[표 9]	자격취득요건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상황	13
[표 10]	연도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상황	14
[표 11]	2016-202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개요	15
[표 12]	설문조사 개요	16
[표 13]	2016-2020 시계열자료 개요	17
[표 14]	2016-2020 자격소지자 대상 설문 항목 비교	19
[표 15]	2016-2020 의무배치기관 대상 설문 항목 비교	21
[표 16]	2018-2020 문화예술 관련 기관 설문 항목 비교	22
[표 17]	자격소지자 대상 설문조사 응답 현황	23
[표 18]	의무배치기관 대상 설문조사 응답 현황	24
[표 19]	문화예술 관련 기관 대상 설문조사 응답 현황	24
[표 20]	자격소지자 응답자 특성	27
[표 21]	자격증 취득 동기	29
[표 22]	2016-2020 자격요건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동기 비교 분석	30
[표 23]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당시 희망 직무	32
[표 24]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전후 직무 비교 분석	33
[표 25]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34
[표 26]	자격소지자의 과거 경제활동 여부	35

[표 27]	과거 경제활동 직업/소속기관	36
[표 28]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여부	37
[표 29]	2016-2020 경제활동 참가율 변동	38
[표 30]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형태	39
[표 31]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주요 업무	40
[표 32]	프리랜서 주요 업무	41
[표 33]	자격소지자의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여부	42
[표 34]	2016-2020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여부 비교 분석	43
[표 35]	현 근무 기관 유형(문화예술 관련 분야)	45
[표 36]	현 근무 기관 유형(타 분야)	46
[표 37]	현 소속기관/단체에서의 근무 형태(문화예술 관련 분야)	47
[표 38]	현 소속기관/단체에서의 근무 형태(타 분야)	48
[표 3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중인 예술강사 활동영역	49
[표 4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점	50
[표 4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	52
[표 42]	2017-202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 비교 분석	53
[표 4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55
[표 44]	2017-202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비교 분석	56
[표 45]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	58
[표 46]	2017-202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 비교 분석	59
[표 47]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도움 정도	61
[표 48]	2016-2020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도움 정도 비교 분석	62
[표 49]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64
[표 50]	2016-2020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비교 분석	65
[표 51]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된 이유	67
[표 52]	2016-2020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된 이유 비교 분석	68
[표 53]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	69
[표 54]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가능 또는 희망 지역	70
[표 55]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자격증 취득 동기 비교 분석	71

[표 56]	자격 분야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비교 분석	72
[표 57]	과거 직업과 현재 경제활동 형태 비교 분석	73
[표 58]	과거 경제활동과 현재 경제활동 비교 분석(문화예술 관련 분야)	73
[표 59]	현재 근무행태와 종사 기간 비교 분석	74
[표 60]	경제활동 형태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75
[표 61]	경제활동 형태에 따른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도움 정도	75
[표 62]	경제활동 분야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76
[표 63]	경제활동 분야에 따른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도움 정도	76
[표 64]	근무 형태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문화예술 관련 분야)	77
[표 65]	근무 형태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타 분야)	77
[표 66]	현재 담당업무별 근무 형태(문화예술 관련 분야)	78
[표 67]	현재 담당업무별 근무 형태(타 분야)	78
[표 68]	담당업무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79
[표 69]	예술강사 활동영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80
[표 70]	예술강사 활동영역에 따른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도움 정도	80
[표 71]	경제활동자/비활동자 응답자 특성 비교	81
[표 72]	경제활동자/비활동자 자격증 관련 사항 비교	82
[표 73]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응답자 특성 비교	83
[표 74]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자격증 관련 사항 비교	84
[표 75]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경제 활동 형태 비교	85
[표 76]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종사 분야 비교	85
[표 77]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담당 업무 비교	86
[표 78]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활동 영역 비교	86
[표 79]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업무/직무 비교	87
[표 80]	활동 전 취득자의 희망 직무와 현재 업무 비교	88
[표 81]	활동 후 취득자의 희망 직무와 현재 업무 비교	88
[표 82]	자격요건, 자격 취득 시점, 경제활동 형태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89
[표 83]	종사 분야, 근무 형태 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89
[표 84]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종사기관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90

[표 8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 프리랜서의 업무 도움 정도 비교	90
[표 86]	자격요건, 경제활동 형태별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91
[표 87]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종사 분야, 근무 형태별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91
[표 88]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92
[표 8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 프리랜서의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92
[표 90]	[고졸/비전공자] 자격소지자 응답자 특성	93
[표 91]	[고졸/비전공자] 자격증 취득 동기	95
[표 92]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당시 희망 직무	97
[표 93]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98
[표 94]	[고졸/비전공자]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원	99
[표 95]	[고졸/비전공자]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여부	100
[표 96]	[고졸/비전공자] 과거 경제활동 직업/소속기관	101
[표 97]	[고졸/비전공자] 자격소지자의 현재 경제활동 여부	102
[표 98]	[고졸/비전공자]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형태	103
[표 99]	[고졸/비전공자]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주요 업무	104
[표 100]	[고졸/비전공자] 프리랜서 주요 업무	105
[표 101]	[고졸/비전공자] 자격소지자의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여부	106
[표 102]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 직업/소속기관	108
[표 103]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의 근무 형태	109
[표 104]	[고졸/비전공자] 예술강사 활동 분야	110
[표 105]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점	111
[표 106]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	113
[표 107]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114
[표 108]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	116
[표 109]	[고졸/비전공자]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도움 정도	118
[표 110]	[고졸/비전공자]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119
[표 111]	[고졸/비전공자]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	120
[표 112]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	121
[표 113]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가능 또는 희망 지역	122

[표 114]	[고졸/비전공자] 경제활동자/비활동자 응답자 특성 비교	123
[표 115]	[고졸/비전공자] 경제활동자/비활동자 자격증 관련 사항 비교	124
[표 116]	[고졸/비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응답자 특성 비교	125
[표 117]	[고졸/비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자격증 관련 사항 비교	126
[표 118]	[고졸/비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경제 활동 형태 비교	127
[표 119]	[고졸/비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경제 종사 분야 비교	127
[표 120]	[고졸/비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담당 업무 비교	128
[표 121]	[고졸/비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활동 영역 비교	128
[표 122]	[고졸/비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업무/직무 비교	129
[표 123]	[고졸/비전공자] 활동 전 취득자의 희망 직무와 현재 업무 비교	130
[표 124]	[고졸/비전공자] 활동 후 취득자의 희망 직무와 현재 업무 비교	130
[표 125]	[고졸/비전공자] 자격 취득 시점, 경제활동 형태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131
[표 126]	[고졸/비전공자] 종사 분야, 근무 형태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131
[표 127]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종사기관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132
[표 128]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 프리랜서의 업무 도움 정도 비교	132
[표 129]	[고졸/비전공자] 경제활동 형태별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133
[표 130]	[고졸/비전공자]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종사 분야, 근무 형태별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133
[표 131]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134
[표 132]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 프리랜서의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134
[표 133]	[예술강사] 자격소지자 응답자 특성	135
[표 134]	[예술강사] 자격증 취득 동기	137
[표 135]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당시 희망 직무	139
[표 136]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140
[표 137]	[예술강사]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원	141
[표 138]	[예술강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여부	142
[표 139]	[예술강사] 과거 경제활동 직업/소속기관	143
[표 140]	[예술강사] 자격소지자의 현재 경제활동 여부	144
[표 141]	[예술강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형태	145
[표 142]	[예술강사]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주요 업무	146

[표 143]	[예술강사] 프리랜서 주요 업무	147
[표 144]	[예술강사] 자격소지자의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여부	148
[표 145]	[예술강사]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 직업/소속기관	150
[표 146]	[예술강사]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의 근무 형태	151
[표 147]	[예술강사] 타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 직업/소속기관	152
[표 148]	[예술강사] 타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의 근무 형태	153
[표 149]	[예술강사] 예술강사 활동 분야	154
[표 150]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점	155
[표 151]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	157
[표 152]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159
[표 153]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	161
[표 154]	[예술강사]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구직 시 도움 정도	163
[표 155]	[예술강사]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165
[표 156]	[예술강사]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 이유	167
[표 157]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	168
[표 158]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가능 또는 희망 지역(1)	169
[표 159]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가능 또는 희망 지역(2)	170
[표 160]	[예술강사] 경제활동자/비활동자 응답자 특성 비교	171
[표 161]	[예술강사] 경제활동자/비활동자 자격증 관련 사항 비교	172
[표 162]	[예술강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응답자 특성 비교	173
[표 163]	[예술강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자격증 관련 사항 비교	174
[표 164]	[예술강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경제 활동 형태 비교	175
[표 165]	[예술강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종사 분야 비교	175
[표 166]	[예술강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담당 업무 비교	176
[표 167]	[예술강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활동 영역 비교	176
[표 168]	[예술강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업무/직무 비교	177
[표 169]	[예술강사] 활동 전 취득자의 희망 직무와 현재 업무 비교	178
[표 170]	[예술강사] 활동 후 취득자의 희망 직무와 현재 업무 비교	178
[표 171]	[예술강사] 자격 취득 시점, 경제활동 형태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179

[표 172]	[예술강사] 종사 분야, 근무 형태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179
[표 173]	[예술강사]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종사기관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180
[표 174]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 프리랜서의 업무 도움 정도 비교	180
[표 175]	[예술강사] 경제활동 형태별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181
[표 176]	[예술강사]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종사 분야, 근무 형태별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181
[표 177]	[예술강사]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182
[표 178]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 프리랜서의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182
[표 179]	[예술전공자] 자격소지자 응답자 특성	183
[표 180]	[예술전공자] 자격증 취득 동기	185
[표 181]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당시 희망 직무	187
[표 182]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188
[표 183]	[예술전공자]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원	189
[표 184]	[예술전공자]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여부	190
[표 185]	[예술전공자] 과거 경제활동 직업/소속기관	191
[표 186]	[예술전공자]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여부	192
[표 187]	[예술전공자]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형태	193
[표 188]	[예술전공자]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주요 업무	194
[표 189]	[예술전공자] 프리랜서 주요 업무	195
[표 190]	[예술전공자] 자격소지자의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여부	196
[표 191]	[예술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 직업/소속기관	198
[표 192]	[예술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의 근무 형태	199
[표 193]	[예술전공자] 타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 직업/소속기관	200
[표 194]	[예술전공자] 타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의 근무 형태	201
[표 195]	[예술전공자] 예술강사 활동 분야	202
[표 196]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점	203
[표 197]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	205
[표 198]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207
[표 199]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	209
[표 200]	[예술전공자]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도움 정도	211

[표 201]	[예술전공자]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213
[표 202]	[예술전공자]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 이유	215
[표 203]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	216
[표 204]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가능 또는 희망 지역(1)	217
[표 205]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가능 또는 희망 지역(2)	218
[표 206]	[예술전공자] 경제활동자/비활동자 응답자 특성 비교	219
[표 207]	[예술전공자] 경제활동자/비활동자 자격증 관련 사항 비교	220
[표 208]	[예술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응답자 특성 비교	221
[표 209]	[예술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자격증 관련 사항 비교	222
[표 210]	[예술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경제 활동 형태 비교	223
[표 211]	[예술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종사 분야 비교	223
[표 212]	[예술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담당 업무 비교	224
[표 213]	[예술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활동 영역 비교	224
[표 214]	[예술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업무/직무 비교	225
[표 215]	[예술전공자] 활동 전 취득자의 희망 직무와 현재 업무 비교	226
[표 216]	[예술전공자] 활동 후 취득자의 희망 직무와 현재 업무 비교	226
[표 217]	[예술전공자] 자격 취득 시점, 경제활동 형태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227
[표 218]	[예술전공자] 종사 분야, 근무 형태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227
[표 219]	[예술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종사기관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228
[표 220]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 프리랜서의 업무 도움 정도 비교	228
[표 221]	[예술전공자] 경제활동 형태별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229
[표 222]	[예술전공자]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종사 분야, 근무 형태별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229
[표 223]	[예술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230
[표 224]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 프리랜서의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230
[표 225]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소지자 응답자 특성	231
[표 226]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증 취득 동기	233
[표 227]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당시 희망 직무	235
[표 228]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여부	236

[표 229]	[국가무형문화재] 과거 경제활동 직업/소속기관	237
[표 230]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여부	238
[표 231]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형태	239
[표 232]	[국가무형문화재]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주요 업무	240
[표 233]	[국가무형문화재] 프리랜서 주요 업무	241
[표 234]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소지자의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여부	242
[표 235]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 직업/소속기관	244
[표 236]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의 근무 형태	245
[표 237]	[국가무형문화재] 타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 직업/소속기관	246
[표 238]	[국가무형문화재] 타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의 근무 형태	247
[표 239]	[국가무형문화재] 예술강사 활동 분야	248
[표 240]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점	249
[표 241]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	251
[표 242]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253
[표 243]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	255
[표 244]	[국가무형문화재]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도움 정도	257
[표 245]	[국가무형문화재]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259
[표 246]	[국가무형문화재]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 이유	261
[표 247]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	262
[표 248]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가능 또는 희망 지역(1)	263
[표 249]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가능 또는 희망 지역(2)	264
[표 250]	[국가무형문화재] 경제활동자/비활동자 응답자 특성 비교	265
[표 251]	[국가무형문화재] 경제활동자/비활동자 자격증 관련 사항 비교	266
[표 252]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응답자 특성 비교	267
[표 253]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자격증 관련 사항 비교	268
[표 254]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경제 활동 형태 비교	269
[표 255]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종사 분야 비교	269
[표 256]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담당 업무 비교	270
[표 257]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활동 영역 비교	270

[표 258]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업무/직무 비교	271
[표 259]	[국가무형문화재] 활동 전 취득자의 희망 직무와 현재 업무 비교	272
[표 260]	[국가무형문화재] 활동 후 취득자의 희망 직무와 현재 업무 비교	272
[표 261]	[국가무형문화재] 자격 취득 시점, 경제활동 형태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273
[표 262]	[국가무형문화재] 종사 분야, 근무 형태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273
[표 263]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종사기관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274
[표 264]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 프리랜서의 업무 도움 정도 비교	274
[표 265]	[국가무형문화재] 경제활동 형태별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275
[표 266]	[국가무형문화재]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종사 분야, 근무 형태별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275
[표 267]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276
[표 268]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 프리랜서의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276
[표 26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비교 분석	280
[표 27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비교 분석	280
[표 27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비교 분석	280
[표 27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비교 분석	281
[표 27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율 비교 분석	281
[표 274]	문화예술교육사 인지 여부 비교 분석	281
[표 275]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비교 분석	282
[표 27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비교 분석	282
[표 277]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인원 비교 분석	283
[표 278]	자격증 소지자 주 담당 업무 비교 분석	283
[표 279]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업무 수행 만족도 비교 분석	283
[표 280]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비교 분석	284
[표 281]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형태 비교 분석	284
[표 282]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시점 및 배치 예상 인원 수 비교 분석	284
[표 283]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향이 없는 이유	285
[표 284]	[의무배치기관] 자격소지자 담당 업무별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286
[표 285]	[의무배치기관] 자격소지자 담당 업무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비소지자 대비 업무수행 만족도	286

[표 286]	[의무배치기관] 운영 중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향	287
[표 287]	[의무배치기관] 프로그램 운영 횟수별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향	287
[표 288]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별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향	288
[표 289]	[문화예술 관련 기관] 자격소지자 담당 업무별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289
[표 290]	[문화예술 관련 기관] 자격소지자 담당 업무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비소지자 대비 업무수행 만족도	289
[표 291]	[의무배치기관] 소속기관 유형	290
[표 292]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291
[표 293]	[의무배치기관] 2019~202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비교 분석	292
[표 294]	[의무배치기관]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293
[표 295]	[의무배치기관] 2019~202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비교 분석	294
[표 296]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295
[표 297]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296
[표 298]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율	297
[표 299]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인지 여부	298
[표 300]	[의무배치기관] 2019~2020 문화예술교육사 인지여부 비교 분석	299
[표 301]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300
[표 302]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301
[표 303]	[의무배치기관] 2019~202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비교 분석	302
[표 304]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인원	303
[표 305]	[의무배치기관] 2019~202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인원 비교 분석	304
[표 306]	[의무배치기관] 자격증 소지자 주 담당 업무	305
[표 307]	[의무배치기관] 2019~202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주 담당 업무 비교 분석	306
[표 308]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소지자 업무 수행 만족도	307
[표 309]	[의무배치기관] 2019~2020 문화예술교육사 소지자 업무 수행 만족도 비교 분석	308
[표 310]	[의무배치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309
[표 311]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형태	310
[표 312]	[의무배치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예상 인원 수	310
[표 313]	[의무배치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시점	310

[표 314]	[의무배치기관] 2019-2020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향 비교 분석	311
[표 315]	[의무배치기관] 2019-2020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계획 인원 수 비교 분석	312
[표 316]	[의무배치기관] 배치의향이 없는 이유	313
[표 317]	[의무배치기관] 2019-2020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의향 없는 이유 비교 분석	314
[표 318]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	315
[표 319]	[의무배치기관] 원활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을 위한 필요사항	316
[표 320]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이 없는 이유	317
[표 321]	[의무배치기관] 배치를 및 배치의향률	318
[표 322]	[의무배치기관] 기관유형별 운영중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319
[표 323]	[의무배치기관] 기관유형별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횟수	319
[표 324]	[의무배치기관] 기관유형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인지를	320
[표 325]	[의무배치기관] 기관유형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없는 이유	320
[표 326]	[문화예술 관련 기관] 소속기관 유형	321
[표 327]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322
[표 328]	[문화예술 관련 기관]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횟수	323
[표 329]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324
[표 330]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325
[표 331]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율	326
[표 332]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인지 여부	326
[표 333]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327
[표 334]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인원	327
[표 335]	[문화예술 관련 기관] 자격증 소지자 주 담당 업무	328
[표 336]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소지자 업무 수행 만족도	329
[표 337]	[문화예술 관련 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330
[표 338]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형태	331
[표 339]	[문화예술 관련 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예상 인원 수	331
[표 340]	[문화예술 관련 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시점	331
[표 341]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배치의향이 없는 이유	332

[표 342]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333
[표 343]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배치율 및 배치의향률	334
[표 344]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335
[표 345]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336
[표 346]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횟수	336
[표 347]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337
[표 348]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338
[표 349]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율	338
[표 350]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사 인지 여부	338
[표 35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339
[표 352]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340
[표 353]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인원	340
[표 354]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자격증 소지자 주 담당 업무	340
[표 355]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사 소지자 업무 수행 만족도	341

그림 목차

[그림 1]	자격취득 동기	28
[그림 2]	자격취득 당시 희망직무	31
[그림 3]	현 근무 기관 유형	44
[그림 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	51
[그림 5]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54
[그림 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	57
[그림 7]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도움 정도	60
[그림 8]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63
[그림 9]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된 이유	66
[그림 10]	[고졸/비전공자] 자격증 취득 동기	94
[그림 11]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당시 희망 직무	96
[그림 12]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 직업/소속기관	107
[그림 13]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	112
[그림 14]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114
[그림 15]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	115
[그림 16]	[고졸/비전공자]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	117
[그림 17]	[예술강사] 자격증 취득 동기	136
[그림 18]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당시 희망 직무	138
[그림 19]	[예술강사]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 직업/소속기관	149
[그림 20]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	156
[그림 21]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158
[그림 22]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	160
[그림 23]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구직 시 도움 정도	162
[그림 24]	[예술강사]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164
[그림 25]	[예술강사]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 이유	166
[그림 26]	[예술전공자] 자격증 취득 동기	184

[그림 27]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당시 희망 직무	186
[그림 28]	[예술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 직업/소속기관	197
[그림 29]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도움 정도	204
[그림 30]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206
[그림 31]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	208
[그림 32]	[예술전공자] 구직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도움 정도	210
[그림 33]	[예술전공자]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212
[그림 34]	[예술전공자]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 이유	214
[그림 35]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증 취득 동기	232
[그림 36]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당시 희망 직무	234
[그림 37]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 직업/소속기관	243
[그림 38]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	250
[그림 39]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252
[그림 40]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	254
[그림 41]	[국가무형문화재]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도움 정도	256
[그림 42]	[국가무형문화재]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258
[그림 43]	[국가무형문화재]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된 이유	260
[그림 44]	문화예술 관련 기관 유형	279
[그림 45]	소속기관 유형	290
[그림 46]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295
[그림 47]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300
[그림 48]	[의무배치기관] 자격증 소지자 주 담당 업무	305
[그림 49]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소지자 업무 수행 만족도	307
[그림 50]	[의무배치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및 배치 시점	309
[그림 51]	[의무배치기관] 배치의향이 없는 이유	313
[그림 52]	[문화예술 관련 기관] 소속기관 유형	321
[그림 53]	[문화예술 관련 기관]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횟수	323
[그림 54]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324

[그림 55]	[문화예술 관련 기관] 자격증 소지자 주 담당 업무	328
[그림 56]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소지자 업무 수행 만족도	329
[그림 57]	[문화예술 관련 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및 배치 시점	330
[그림 58]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배치의향이 없는 이유	332
[그림 59]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333
[그림 60]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337
[그림 6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339
[그림 62]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사 소지자 업무 수행 만족도	341

요약

1. 조사 목적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후 경제활동 조사와 문화예술 관련 기관(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관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인력 현황조사의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 기획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조사 개요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이후에 관한 연구로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와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경제활동 및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등에 대해 2016년 시작하여 2020년까지 총 다섯 차례 조사를 진행함
 - 1차 연도(2016년)와 2차 연도(2017년)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와 의무배치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3차 연도(2018년)부터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문화예술 관련 사업 참여 단체로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5차 연도(2020년)에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 참여단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5차 연도(2020년)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의 조사 대상을 기존 ‘20년 제1차 누적 기준 20,475명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로 한정하였고, ‘20년 제2차 정규 기준 신규 자격취득자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가 추가되었음. 따라서 4차 연도(2019년)까지의 조사 대상과 차이가 있으므로, 시계열 분석에 주의를 요함

[표 1] 2016-202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개요

구분	1차 연도(2016년)	2차 연도(2017년)	3차 연도(2018년)	4차 연도(2019년)	5차 연도(2020년)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소지자 - 의무배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소지자 - 의무배치기관 - 문화예술 관련 기관 - 문화예술 관련 사업 참여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소지자 - 의무배치기관 - 문화예술 관련 기관
조사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소지자 10,069명 - 의무배치기관 1,84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소지자 12,284명 - 의무배치기관 1,91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소지자 14,820명 - 의무배치기관 1,951개 - 문화예술 관련 기관 794개 - 문화예술 관련 사업 참여단체 42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소지자 17,586명 - 의무배치기관 2,082개 - 문화예술 관련 기관 1,147개 - 문화예술 관련 사업 참여단체 32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소지자 6,368명 - 의무배치기관 2,135개 - 문화예술 관련 기관 1,152개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 FGD(Focus Group Discu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조사 기간	- 2016년 8월~9월	- 2017년 8월~9월	- 2018년 7월~8월	- 2019년 9월~10월	- 2020년 9월~11월

3. 조사 방법

- 설문조사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와 문화예술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및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으며, 1차 연도(2016년)에서 5차 연도(2020년)까지 취합된 자료를 시계열로 분석함

4. 설문 구성

가. 설문조사

- 본 조사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의 배치현황 파악을 위해 설계된 조사로 매년 동일한 설문구조가 반복되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연도별로 조사내용에 부분적인 차이를 보임
 - 1차 연도(2016년)에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현황과 의무배치기관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함. 자격소지자용 설문은 자격요건별로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자격취득 동기, 경제활동 현황, 자격증의 업무 및 구직 시 도움 정도 등을 조사함. 의무배치기관용 설문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 배치현황, 배치 형태, 담당업무, 향후 배치의향 등을 조사함
 - 2차 연도(2017년)는 1차 연도 조사 결과 검토를 통해 설문내용과 구조를 일부 변경함. 자격소지자의 경우, 자격요건별로 통합설문지 형태로 설문구조를 변경하였고, 결과활용도가 낮은 자격취득 이전 경력과 구직기간에 관한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1급 문화예술교육사 수요와 문화예술교육사 역량에 관한 내용을 한시적으로 추가함. 의무배치기관용 설문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운영 인력 소속에 관한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변화를 추적하도록 변경함
 - 3차 연도(2018년)의 자격소지자 대상 설문은 2차 연도 설문 형태를 유지하되 자격취득 전후 직무 및 과거 경제활동 형태 등을 포함했으며, 2급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을 한시적으로 추가함. 의무배치기관 외에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사업 참여단체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조사 결과 활용도가 낮은 배치인원의 자격취득 시기 및 4대 보험적용 여부, 연봉 수준에 관한 문항을 삭제하였고, 그 외의 설문구조는 거의 일치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및 인력 등의 항목을 추가함
 - 4차 연도(2019년)는 3차 연도 설문 형태를 유지하되,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자격소지자 대상 설문에서는 사업 참여의향, 사업 참여 및 활동 희망 지역을 묻는 문항과 의무배치기관 대상 설문에서는 사업 참여의향,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묻는 문항을 구성함
 - 5차 연도(2020년)는 인턴십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4차 연도 설문 형태를 유지하였고, 자격소지자 대상 설문에서는 모집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수 분야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였음. 또한, 코로나 19 상황 반영 및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부 문항에 관련 보기를 추가하였음

[표 2] 2016-2020 자격소지자 대상 설문 항목 비교

항목	세부 문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 유
		가,나	다,라	마					
일반 사항	자격증 취득 동기	○	○	○	○	○	○	○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당시 희망직무					○	○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	○	○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원	○			○	○	○	○	
	이수분야			○	○	○	○	삭제	모집단 정보로 확인 가능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경제 활동	경제활동 여부	○	○	○	○	○	○	○	
	과거 경제활동 여부					○	○	○	
	과거 경제활동 직무유형					○	○	○	
	[비경제활동] 구직 활동 여부 및 분야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비경제활동] 구직 기간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비경제활동] 구직 희망 기관유형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경제활동] 경제활동 형태					○	○	○	
	[경제활동]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여부	○	○	○	○	○	○	○	
	[경제활동] 현 근무 기관 유형	○	○	○	○	○	○	○	
	[경제활동] 현 근무 기관 또는 단체명	○	○	○	○	○	삭제	○	
	[경제활동] 소속기관/단체에서의 근무 형태	○	○	○	○	○	○	○	
	[경제활동] 총 활동(근무) 기간	○	○	○	○	○	○	○	
	[경제활동] 소속기관/단체에서의 주요업무	○		○	○	○	○	○	
	[경제활동] 예술강사 구분		○		○	삭제	삭제	삭제	
	[경제활동] 예술강사 활동기간		○		○	삭제	삭제	삭제	
	[경제활동] 예술강사 활동영역					○	○	○	
	[경제활동] 예술강사 활동영역별 참여기간					○	○	○	
	[경제활동]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			○	○	○	○	
	[경제활동]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	○			○	○	○	○	
	[경제활동]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			○	○	○	○	
구직시 도움 정도	자격증 취득 시기	○	○	○	○	○	○	○	
	구직 시 도움 정도	○	○	○	○	○	○	○	
	구직 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	○	○	○	○	○	○	
	구직 시 도움이 되는 이유	○	○	○	○	○	○	○	
문화 예술 교육사 2급 교육 과정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이수유형					○	삭제	삭제	
	교육과정 이수기관의 프로그램 만족도					○	삭제	삭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과목의 문화예술교육 현장 이해 도움여부					○	삭제	삭제	
	문화예술교육 현장 이해에 도움이 되는 이유					○	삭제	삭제	
	문화예술교육 현장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	삭제	삭제	

항목	세부 문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유
		가,나	다,라	마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과목의 문화예술교육 현장 효과적인 교육방법					○	삭제	삭제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추가/보충과목					○	삭제	삭제	
인턴십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						신규	○	
지원사업	지원사업 참여희망 지역						신규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 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호에 따른 대학원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에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표 3] 2016-2020 의무배치기관 대상 설문 항목 비교

항목	세부 문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유
일반 사항	기관 유형	○	○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여부		○	○	○	○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신규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의 자격소지 유무			신규	○	○	
	문화예술교육사 인지 여부	○	○	○	○	○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신규	○	○	
배치 현황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	○	○	○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인원 및 근무 형태	○	○	○	○	○	
	문화교육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의 자격 취득 시기	○	○	삭제	삭제	삭제	
	문화교육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대상 4대 보험 적용 여부	○	○	삭제	삭제	삭제	
	문화예술교육사 1년 평균 연봉 수준	○	○	삭제	삭제	삭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주 담당업무	○	○	○	○	○	
	문화예술교육사 업무수행 만족도	○	○	○	○	○	
배치 계획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향	○	○	○	○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형태			신규	○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계획 인원	○	○	○	○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시점	○	○	○	○	○	
	문화예술교육사 미배치 이유	○	○	○	○	○	
인턴십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				신규	○	

※ 1차 연도(2016년)와 2차 연도(2017년)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이라고 명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3차 연도(2018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로 설문 위당을 수정하여 조사를 진행함

[표 4] 2018-2020 문화예술 관련 기관 설문 항목 비교

항 목	세부 문항	2018년	2019년	2020년
일반사항	기관/단체 유형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여부	○	○	○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의 자격소지 유무	○	○	○
	문화예술교육사 인지도	○	○	○
문화예술 교육사 배치현황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	○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인원 및 근무 형태	○	○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주 담당업무	○	○	○
	문화예술교육사 업무수행 만족도	○	○	○
문화예술 교육사 배치계획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향	○	○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형태(상근/비상근, 기간제/무기계약, 전일제/단시간)	○	○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계획 인원	○	○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시점	○	○	○
	문화예술교육사 미배치 이유	○	○	○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	○	○

※ 2018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외에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단체로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2020년에는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단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 의무배치기관 대상 조사와의 결과 비교를 위해 설문 항목을 동일하게 구성함

5. 조사 응답 현황

가. 설문조사

- 자격소지자 6,368명('20년 제1차 누적 기준 20,475명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5,299명 + '20년 제2차 정규기준 신규 자격취득자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1,06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응답률은 77.5%로 나타남

[표 5] 자격소지자 대상 설문조사 응답 현황

취득자 구분		조사 방법	조사 대상자 (A)	응답자 (B)	응답률 (B)/(A)*100
전 체		온라인+전화조사	6,368	4,934	77.5
기존/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온라인+전화조사	5,299	4,078	77.0
	신규 자격취득자	온라인+전화조사	1,069	856	80.1
자격 취득 요건	고졸/비전공자	온라인+전화조사	69	59	85.5
	예술강사	온라인+전화조사	1,144	808	70.6
	예술전공자	온라인+전화조사	4,744	3,712	78.2
	국가무형문화재	온라인+전화조사	411	355	86.4

- 의무배치기관 2,135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가운데 1,278곳(응답률 59.9%) 이 조사에 참여함.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기타 법령상¹⁾ 의무배치기관에 포함됨.

[표 6] 의무배치기관 대상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공연장)	문화의 집	전수 회관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기타 ²⁾	합계
조사 리스트 기준 (곳)	1,076	445	79	256	101	157	17	4	2,135
	-국립 : 3 -지자체 : 840 -교육청 : 233	-국공립 : 416 -대학 : 29	-국공립 : 76 -대학 : 3						
응답 기관 (곳)	652	268	51	164	56	67	16	4	1,278
응답률 (%)	60.6	60.2	64.6	64.1	55.4	42.7	94.1	100.0	59.9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3호

2) 4차 연도(2019년)에는 문화예술교육사 배치(활용)와 관련한 국가 정책사업인 '2019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관 중

- 문화예술 관련 기관 1,15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가운데 618곳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조사 응답률은 53.6%로 나타남

[표 7] 문화예술 관련 기관 대상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 분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미디어센터	평생교육기관	합 계
조사리스트 기준(곳)	191	231	49	681	1,152
응답기관(곳)	84	167	28	339	618
응답률(%)	44.0	72.3	57.1	49.8	53.6

6. 조사 결과

가. 자격소지자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동기

- 설문조사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동기로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와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의무배치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전후 직무

-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를 희망한 반면, 실제 자격취득 후에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외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창작활동’,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컨설팅’,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등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 참가율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6년 85.8%, 2017년 79.6%, 2018년 70.8%, 2019년 65.9%, 2020년 44.8%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임

○ 경제활동 형태 및 활동 분야

- 경제활동을 하는 자격소지자의 61.5%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38.5%는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고 있음. 기관·시설·단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격소지자의 90.4%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타 분야는 9.6%로 나타났고,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비정규직 비율(76.6%)이 타 분야(67.1%)보다 높게 나타남

「문화기반시설총람」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이었으나, 5차 연도(2020년)에는 응답을 완료한 기관 중 「문화기반시설총람」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으로 분류의 기준이 변경되었음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2017년 평균 2.84점, 2018년 평균 2.95점, 2019년 평균 3.07점, 2020년 평균 3.33점으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낮아서’,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커리큘럼이 부족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의 도움 정도

- 경제활동을 하기 전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격소지자 대상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도움 정도(5점 만점 기준)는 2017년 평균 2.63점, 2018년 평균 3.00점, 2019년 평균 3.23점, 2020년 3.48점으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자격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곳이 많아서’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나. 의무배치기관³⁾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률 및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배치 형태

-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률은 74.7%임
-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인지도는 2019년 55.3%, 2020년 46.9%임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율은 2019년 18.2%, 2020년 16.3%임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비소지자 대비 소지자의 업무수행 만족도

- 2019년, 2020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비소지자 대비 소지자의 업무수행 만족도를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2019년 평균 3.90점에서 소폭 상승하여 2020년은 평균 4.06점으로 나타남

○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향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지 않은 의무배치기관의 85.0%는 향후에도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는 ‘배치 권한이 없어서(상급기관에서 인력관리)’로 나타남

3)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5차 연도(2020년) 결과 분석부터 전체 기관 구분에 포함되어 4차 연도(2019년) 결과를 재산출하였으며, 해당 2개년만 시계열 분석함

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률 및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배치 형태
 -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률은 82.8%로 나타났으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율은 15.2%로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비소지자 대비 소지자의 업무수행 만족도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비소지자 대비 소지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8.7% (평균 4.19점(5점 만점))임
-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향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지 않은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86.5%는 향후에도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격소지자 배치의향이 없는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남

I. 서론

I. 서론

1. 조사배경 및 목적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시민의 문화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문화예술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즉 문화 복지의 동력이 될 ‘전문 매개 인력 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도입되었다. 또한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맞닿아 악화되었던 예술전공자의 미취업과 그동안 미비했던 문화예술 인력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역량 강화 및 효율적 경력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2012년 2월에 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법적 근거로 하여 시작하였다.

법률에 의하면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 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2013년 2월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가 이루어졌으며, 2020년 제2차 누적 기준 21,556명의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출되었다. 또한 31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전수회관과 같은 국·공립 교육 시설은 최소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표 8]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관련 세부 법령

의무배치 기관	관련 세부 법령
국·공립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
공립 공공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문화의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전수회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표 9] 자격취득요건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상황

예술전공자	예술강사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비전공자	합 계
15,637명	4,194명	1,431명	294명	21,556명
72.5%	19.5%	6.6%	1.4%	100.0%

※ 2020년도 제2차 기준

[표 10] 연도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상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계
3,469명	2,117명	2,196명	3,023명	2,567명	2,316명	2,778명	3,090명	21,556명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방안 연구(양현미 외, 2004)」를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인력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제도의 도입에 대한 기본 방향성을 제공한 임학순 외(2011)의 연구와 해당 자격제도의 교육과정을 개발한 이경화 외(2012)의 연구,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 통과 이후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개발 방향을 탐색한 임학순·선결(2012) 연구와 같이 거시적 차원에서 정책적 담론이나 전문성 또는 역량개발에 관한 연구 등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정착을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가치와 발전방안(권영임·차수정, 2015)」은 교육과정 및 연수 교육의 발전방안, 현장에서의 발전방안 등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연구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한 이후에 관한 연구로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와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경제활동 및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며, 2016년 시작하여 2020년까지 총 다섯 차례 조사가 진행되었다. 1차 연도(2016년)와 2차 연도(2017년)에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와 의무배치기관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3차 연도(2018년)부터 조사내용과 조사대상, 조사방법에 변동이 있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는 자격취득 전후 비교를 위한 설문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의무배치기관 외에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단체로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했다. 본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활성화 요인과 배치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4차 연도(2019년) 조사설계 당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총 15,688명('19년 3월 기준)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사 기간이 9월로 변경됨에 따라 '19년 제1차 자격소지자까지 포함한 총 17,586명으로 표본 수를 확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표본 수가 많아진 만큼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사업 참여단체 표본 수는 축소하였다.

5차 연도(2020년) 조사설계 당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6,368명('20년 제1차 누적 기준 20,475명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5,299명 + '20년 제2차 정규기준 신규 자격취득자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1,06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신규 자격취득자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실사 기간을 11월까지 확대하여 진행하였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4차 연도(2019년)까지 별도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기타 법령상⁴⁾ 의무배치기관에 포함되므로 5차 연도

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3호

(2020년)부터는 기존 의무배치기관 구분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표 11] 2016~202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개요

구분	1차 연도(2016년)	2차 연도(2017년)	3차 연도(2018년)	4차 연도(2019년)	5차 연도(2020년)
조사 대상	- 자격소지자 - 의무배치기관		- 자격소지자 - 의무배치기관 - 문화예술 관련 기관 - 문화예술 관련 사업 참여단체		- 자격소지자 - 의무배치기관 - 문화예술 관련 기관
조사 규모	- 자격소지자 10,069명 - 의무배치기관 1,847개	- 자격소지자 12,284명 - 의무배치기관 1,918개	- 자격소지자 14,820명 - 의무배치기관 1,951개 - 문화예술 관련 기관 794개 - 문화예술 관련 사업 참여단체 429개	- 자격소지자 17,586명 - 의무배치기관 2,082개 - 문화예술 관련 기관 1,147개 - 문화예술 관련 사업 참여단체 322개	- 자격소지자 6,368명 - 의무배치기관 2,131개 - 문화예술 관련 기관 1,152개
조사 방법	-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 FGD(Focus Group Discussion)	-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조사 기간	- 2016년 8월~9월	- 2017년 8월~9월	- 2018년 7월~8월	- 2019년 9월~10월	- 2020년 9월~11월

2. 조사 방법

5차 연도(2020년)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활성화 방안을 위해 설문조사, 5차 연도(2020년)까지 취합된 자료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와 문화예술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방법은 온라인 및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조사는 2020년 9월 1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하였다.

가. 설문조사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대상 경제활동 실태조사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에 대한 만족도 및 경제활동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를 기본방식으로 하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응답자 편의에 따라 전화 및 모바일조사를 병행하였다.

○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실태조사

- 의무배치기관의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실태, 만족도 및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를 의무배치해야 하는 기관 담당자⁵⁾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응답률을 제고를 위해 응답자 편의에 따라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방식을 병행하였다.

○ 문화예술 관련 기관 대상 운영현황 실태조사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범위를 확대를 위해 의무배치기관 외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인력 현황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12] 설문조사 개요

구 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 관련 기관
조사규모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중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6,368명	-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2,135개	- 문화예술 관련 기관 1,152개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조사내용	- 경제활동 현황, - 업무 연관성 등	- 문화예술교육사 소지자 배치인원, 근무 형태, 담당업무 등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가능여부 등	
조사기간	- 2020년 9월 17일 ~ 10월 23일 (약 5주) - [추가] 2020년 11월 5일 ~ 11월 17일 (약 2주)	- 2020년 10월 19일 ~ 11월 17일 (약 4주)	- 2020년 10월 7일 ~ 10월 30일 (약 3주)

5) 기관담당자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관여하고 있고, 정확한 응답을 해줄 수 있는 담당자를 의미함

나. 시계열자료 분석

객관적인 현황 분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는 1차 연도(2016년)에서 5차 연도(2020년)까지 조사가 진행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와 의무배치기관의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5차 연도(2020년) 자격소지자는 모집단의 변화(기존 자격소지자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 대상으로 축소 및 신규 자격취득자의 추가)로 인해 시계열 분석의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의무배치기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전체 기관 구분 내 포함으로 4차 연도(2019년) 데이터를 5차 연도(2020년)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산출하여 2개년 자료만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4차 연도(2019년) 보고서의 결과값과 다를 수 있으며,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표 13] 2016-2020 시계열자료 개요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 소지자	총 4,606명 - 고졸/비전공자 89명 - 예술전공자 2,103명 - 예술강사 2,048명 - 국가무형문화재 366명	총 4,447명 - 고졸/비전공자 138명 - 예술전공자 2,261명 - 예술강사 1,430명 - 국가무형문화재 618명	총 4,642명 - 고졸/비전공자 135명 - 예술전공자 2,891명 - 예술강사 1,074명 - 국가무형문화재 542명	총 4,864명 - 고졸/비전공자 125명 - 예술전공자 3,154명 - 예술강사 1,093명 - 국가무형문화재 492명	총 4,934명 - 고졸/비전공자 59명 - 예술전공자 3,712명 - 예술강사 808명 - 국가무형문화재 355명
문화예술 교육사 의무배치 기관	총 1,116개 - 공립도서관 594개 - 국·공립박물관 291개 - 국·공립미술관 43개 - 문예회관(공연장) 164개 - 문화의집 16개 - 전수회관 8개	총 625개 - 공립도서관 301개 - 국·공립박물관 107개 - 국·공립미술관 22개 - 문예회관(공연장) 127개 - 문화의집 25개 - 전수회관 43개	총 941개 - 공립도서관 473개 - 국·공립박물관 196개 - 국·공립미술관 33개 - 문예회관(공연장) 117개 - 문화의집 46개 - 전수회관 76개	총 930개 - 공립도서관 390개 - 국·공립박물관 191개 - 국·공립미술관 57개 - 문예회관(공연장) 140개 - 문화의집 63개 - 전수회관 64개 - 기타 25개	총 1,278개 - 도서관 652개 - 박물관 268개 - 미술관 51개 - 문예회관(공연장) 164개 - 문화의집 56개 - 전수회관 67개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6개 - 기타 4개

※ 2020년 의무배치기관의 기관구분 '기타'는 데이터를 집계하였으나, 2019년과 기관 구분의 정의가 다르고, 사례수가 적어 시계열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음

3. 설문 구성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는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의 배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된 조사이므로 매년 동일한 내용의 설문구조가 반복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다만 연도별로 부분적으로 조사내용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설문지는 크게 자격소지자 용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용으로 나뉜다.

1) 1차 연도(2016년)

설문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사의 경제활동 현황과 의무배치기관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대상에 따라 설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격소지자용 설문은 자격요건별로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자격취득 동기, 경제활동 현황, 자격증의 업무 및 구직 시 도움 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의무배치기관용 설문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 배치현황, 배치 형태, 담당업무, 향후 배치의향 등을 조사하였다.

2) 2차 연도(2017년)

이전 조사내용 및 결과검토를 통해 설문내용과 구조를 일부 변경하였다. 자격소지자의 경우, 자격소지자 자격요건별로 통합설문지 형태로 설문구조를 변경하였다.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과 구직 기관에 관한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1급 문화예술교육사 수요와 문화예술교육사 역량에 관한 내용을 한시적으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의무배치기관용 설문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운영 인력 소속에 관한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변화를 추적하도록 변경하였다.

3) 3차 연도(2018년)

설문은 크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용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용으로 나뉜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용 설문은 2차 연도까지 조사를 진행한 의무배치기관과 새롭게 추가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 관련 사업 참여단체용 설문으로 나뉘는데 그 구조가 거의 일치한다. 자격소지자용 설문은 2차 연도 설문 형태를 유지하되 자격취득 전후 희망직무 및 과거 경제활동 형태 등을 포함했으며, 2급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을 한시적으로 추가하였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용 설문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및 인력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결과 활용도가 낮은 배치인원의 자격취득 시기 및 4대 보험적용 여부, 연봉 수준에 관한 문항을 삭제하였다.

4) 4차 연도(2019년)

3차 연도 설문 형태를 유지하되,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자격소지자 대상 설문에서는 사업 참여의향, 사업 참여 및 활동 희망 지역을 묻는 문항과 의무배치기관 대상 설문에서는 사업 참여의향,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묻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5) 5차 연도(2020년)

인턴십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4차 연도 설문 형태를 유지하였고, 자격소지자 대상 설문에서는 모집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수 분야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였다. 코로나 19 상황 반영 및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부 문항에 관련 보기를 추가하였다.

[표 14] 2016-2020 자격소지자 대상 설문 항목 비교

항목	세부 문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유
		가,나	다,라	마					
일반 사항	자격증 취득 동기	○	○	○	○	○	○	○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당시 희망직무					○	○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	○	○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원	○			○	○	○	○	
	이수분야			○	○	○	○	삭제	모집단 정보로 확인 가능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경제 활동	경제활동 여부	○	○	○	○	○	○	○	
	과거 경제활동 여부					○	○	○	
	과거 경제활동 직무유형					○	○	○	
	[비경제활동] 구직 활동 여부 및 분야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비경제활동] 구직 기간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비경제활동] 구직 희망 기관유형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경제활동] 경제활동 형태					○	○	○	
	[경제활동]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여부	○	○	○	○	○	○	○	
	[경제활동] 현 근무 기관 유형	○	○	○	○	○	○	○	
	[경제활동] 현 근무 기관 또는 단체명	○	○	○	○	○	삭제	○	
	[경제활동] 소속기관/단체에서의 근무 형태	○	○	○	○	○	○	○	
	[경제활동] 총 활동(근무) 기간	○	○	○	○	○	○	○	
	[경제활동] 소속기관/단체에서의 주요업무	○		○	○	○	○	○	
	[경제활동] 예술강사 구분		○		○	삭제	삭제	삭제	
	[경제활동] 예술강사 활동기간		○		○	삭제	삭제	삭제	
	[경제활동] 예술강사 활동영역					○	○	○	

항목	세부 문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유
		가,나	다,라	마					
	[경제활동] 예술강사 활동영역별 참여기간					○	○	○	
	[경제활동]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			○	○	○	○	
	[경제활동]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	○			○	○	○	○	
	[경제활동]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			○	○	○	○	
구직시 도움 정도	자격증 취득 시기	○	○	○	○	○	○	○	
	구직 시 도움 정도	○	○	○	○	○	○	○	
	구직 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	○	○	○	○	○	○	
	구직 시 도움이 되는 이유	○	○	○	○	○	○	○	
문화 예술 교육사 2급 교육 과정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이수유형					○	삭제	삭제	
	교육과정 이수기관의 프로그램 만족도					○	삭제	삭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과목의 문화예술교육 현장 이해 도움여부					○	삭제	삭제	
	문화예술교육 현장 이해에 도움이 되는 이유					○	삭제	삭제	
	문화예술교육 현장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	삭제	삭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과목의 문화예술교육 현장 효과적인 교육방법					○	삭제	삭제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추가/보충과목					○	삭제	삭제	
인턴십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						신규	○	
지원사업	지원사업 참여희망 지역						신규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 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호에 따른 대학원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에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표 15] 2016-2020 의무배치기관 대상 설문 항목 비교

항목	세부 문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유
일반 사항	기관 유형	○	○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여부		○	○	○	○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신규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의 자격소지 유무			신규	○	○	
	문화예술교육사 인지 여부	○	○	○	○	○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신규	○	○	
배치 현황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	○	○	○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인원 및 근무 형태	○	○	○	○	○	
	문화교육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의 자격 취득 시기	○	○	삭제	삭제	삭제	
	문화교육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대상 4대 보험 적용 여부	○	○	삭제	삭제	삭제	
	문화예술교육사 1년 평균 연봉 수준	○	○	삭제	삭제	삭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주 담당업무	○	○	○	○	○	
	문화예술교육사 업무수행 만족도	○	○	○	○	○	
배치 계획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향	○	○	○	○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형태			신규	○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계획 인원	○	○	○	○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시점	○	○	○	○	○	
	문화예술교육사 미배치 이유	○	○	○	○	○	
인턴십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				신규	○	

※ 1차 연도(2016년)와 2차 연도(2017년)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이라고 명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3차 연도(2018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로 설문 워딩을 수정하여 조사를 진행함

[표 16] 2018-2020 문화예술 관련 기관 설문 항목 비교

항 목	세부 문항	2018년	2019년	2020년
일반사항	기관/단체 유형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여부	○	○	○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의 자격소지 유무	○	○	○
	문화예술교육사 인지요부	○	○	○
문화예술 교육사 배치현황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	○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인원 및 근무 형태	○	○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주 담당업무	○	○	○
	문화예술교육사 업무수행 만족도	○	○	○
문화예술 교육사 배치계획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향	○	○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형태(상근/비상근, 기간제/무기계약, 전일제/단시간)	○	○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계획 인원	○	○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시점	○	○	○
	문화예술교육사 미배치 이유	○	○	○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	○	○

※ 2018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외에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단체로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를 진행함

※ 의무배치기관 대상 조사와의 결과 비교를 위해 설문 항목을 동일하게 구성함

4. 조사 응답 현황

자격소지자 조사 대상자는 ‘20년 제1차 누적 기준 20,475명이었으나, 이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5,299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하였다. 2차 조사는 ‘20년 제2차 정규기준 신규 자격취득자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1,0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6,368명(응답률 77.5%)으로 완료하였다.

[표 17] 자격소지자 대상 설문조사 응답 현황

취득자 구분		조사 방법	조사 대상자 (A)	응답자 (B)	응답률 (B)/(A)*100
전 체		온라인+전화조사	6,368	4,934	77.5
기준/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온라인+전화조사	5,299	4,078	77.0
	신규 자격취득자	온라인+전화조사	1,069	856	80.1
자격 취득 요건	고졸/비전공자	온라인+전화조사	69	59	85.5
	예술강사	온라인+전화조사	1,144	808	70.6
	예술전공자	온라인+전화조사	4,744	3,712	78.2
	국가무형문화재	온라인+전화조사	411	355	86.4

의무배치기관은 일차적으로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대학’의 경우, 사립을 제외한 국·공립 대학으로 한정하였다. 문예회관의 경우, 민간기업에서 건립한 문예회관은 제외하였다. 전수회관의 경우,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내 게재된 전수교육관 리스트에서 발췌하였다. 조사를 진행하며 문화예술교육사 배치(활용)와 관련한 국가 정책사업인 ‘2020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기관 리스트 3곳과 전수교육관 5곳을 추가하였다. 응답을 완료한 기관 중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을 ‘기타’로 분류하였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17개 광역지역센터 중 16개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4차 연도(2019년)까지는 의무배치기관 응답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기타 법령상⁶⁾ 의무배치기관에 해당하므로 5차 연도(2020)부터 전체 기관 구분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2,135곳의 의무배치기관에 전자공문 발송을 통해 조사목적 및 참여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자기기업식 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응답률 제고를 위해 응답자 편의에 따라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방식을 병행하였다. 최종적으로 1,278곳의 의무배치기관이 조사에 참여하여 응답률 59.9%로 완료하였다.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9조 3항

[표 18] 의무배치기관 대상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공연장)	문화의 집	전수 회관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기타	합계
조사 리스트 기준 (곳)	1,076	445	79	256	101	157	17	4	2,135
	-국립 : 3 -지자체 : 840 -교육청 : 233	-국공립 : 416 -대학 : 29	-국공립 : 76 -대학 : 3						
응답 기관 (곳)	652	268	51	164	56	67	16	4	1,278
응답률 (%)	60.6	60.2	64.6	64.1	55.4	42.7	94.1	100.0	59.9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내 「생활문화센터 현황」, 「2019년 전국 문화 기반시설 총람」,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홈페이지 내 「전국미디어센터 현황」, 「2019 평생교육통계자료집」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1,152곳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공문 발송을 통해 조사목적 및 참여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응답자 편의에 따른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를 병행하였다. 최종적으로 618곳에서 조사에 참여하여 53.6%로 완료하였다.

[표 19] 문화예술 관련 기관 대상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 분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미디어센터	평생교육기관	합 계
조사리스트 기준(곳)	191	231	49	681	1,152
응답기관(곳)	84	167	28	339	618
응답률(%)	44.0	72.3	57.1	49.8	53.6

5. 일러두기

본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해석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각 통계표 내 비율 및 평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표기된 수치로 단순 합산, 계산할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표본 수 30명에 못 미치는 분석은 해석에 유의하여야 한다.

Ⅱ. 자격소지자

1. 종합분석
2. 고졸/비전공자
3. 예술강사
4. 예술전공자
5. 국가무형문화재

Ⅱ. 자격소지자_종합분석

1. 자격취득 현황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의 응답자 특성을 자격요건별로 살펴보면, ‘예술전공자’가 7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술강사’(16.4%)가 뒤를 이어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80.8%)이 남성(19.2%)보다 많고, 연령별로는 20~30대가 64.8%(20대 42.7% + 30대 22.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이 52.5%로 가장 많고, 학력별로는 ‘대학 졸업(학사)’이 60.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자격소지자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비율(%)
전 체		(4,934)	100.0
기존/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4,078)	82.7
	신규 자격취득자	(856)	17.3
자격요건별	고졸/비전공자	(59)	1.2
	예술강사	(808)	16.4
	예술전공자	(3,712)	75.2
	국가무형문화재	(355)	7.2
성별	남성	(945)	19.2
	여성	(3,989)	80.8
연령별	20대	(2,107)	42.7
	30대	(1,091)	22.1
	40대	(935)	19.0
	50대	(598)	12.1
	60대 이상	(203)	4.1
거주지별 ⁷⁾	수도권	(2,592)	52.5
	부산/경남권	(670)	13.6
	대구/경북권	(444)	9.0
	대전/충청권	(474)	9.6
	광주/전라권	(609)	12.3
	강원,제주	(145)	2.9
학력별	고등학교 졸업 이하	(91)	1.8
	전문대 졸업	(406)	8.2
	대학 졸업(학사)	(2,994)	60.7
	대학원 졸업(석사)	(1,283)	26.0
	대학원 졸업(박사)	(160)	3.2

7)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부산/경남권(부산,경남,울산), 대전/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라권(광주,전북,전남)

2. 자격취득 동기 및 준비과정

가. 자격취득 동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44.7%)와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44.5%) 취득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33.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29.4%)가 뒤를 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전공 수업 이수 후 취득할 수 있어서’, ‘국가자격증이라서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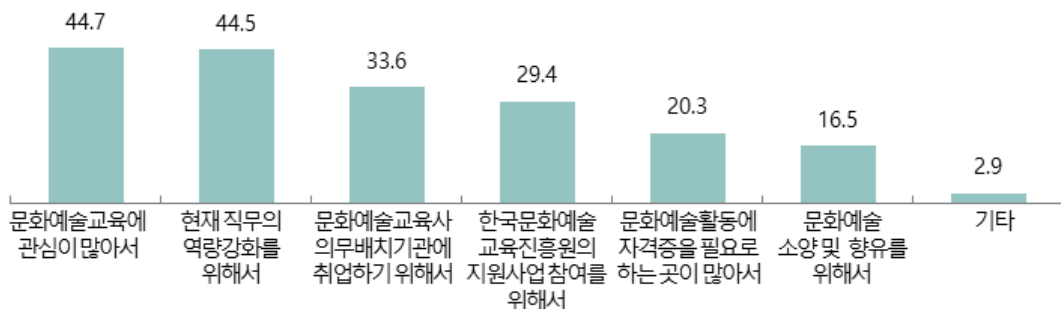
자격요건별로 자격취득 동기를 살펴보면, 고졸/비전공자와 예술전공자는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각각 49.2%, 46.7%) 자격을 취득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예술강사와 국가무형문화재는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각각 49.3%, 51.0%)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응답은 연령이 20대(46.7%)와 60대 이상(50.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는 응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60대 이상 제외)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신규 자격취득자(37.7%)에 비해 기존 자격소지자(46.2%)가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자격을 취득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자격취득 동기

(n=4,934, 복수응답, 단위 : %)



[표 21] 자격증 취득 동기

		사례 수 (명)	문화예술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문화예술 소양 및 향유를 위해서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4,934)	(2,205)	44.7	(2,194)	44.5	(1,658)	33.6	(1,452)	29.4	(1,003)	20.3	(813)	16.5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4,078)	(1,882)	46.2	(1,829)	44.9	(1,382)	33.9	(1,242)	30.5	(830)	20.4	(681)	16.7
	신규 자격취득자	(856)	(323)	37.7	(365)	42.6	(276)	32.2	(210)	24.5	(173)	20.2	(132)	15.4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59)	(29)	49.2	(20)	33.9	(24)	40.7	(11)	18.6	(10)	16.9	(3)	5.1
	예술강사	(808)	(286)	35.4	(398)	49.3	(182)	22.5	(351)	43.4	(140)	17.3	(96)	11.9
	예술전공자	(3,712)	(1,735)	46.7	(1,595)	43.0	(1,382)	37.2	(985)	26.5	(748)	20.2	(634)	17.1
	국가무형문화재	(355)	(155)	43.7	(181)	51.0	(70)	19.7	(105)	29.6	(105)	29.6	(80)	22.5
성별	남성	(945)	(432)	45.7	(412)	43.6	(267)	28.3	(261)	27.6	(175)	18.5	(178)	18.8
	여성	(3,989)	(1,773)	44.4	(1,782)	44.7	(1,391)	34.9	(1,191)	29.9	(828)	20.8	(635)	15.9
연령별	20대	(2,107)	(985)	46.7	(859)	40.8	(759)	36.0	(454)	21.5	(446)	21.2	(365)	17.3
	30대	(1,091)	(473)	43.4	(498)	45.6	(400)	36.7	(351)	32.2	(191)	17.5	(136)	12.5
	40대	(935)	(384)	41.1	(440)	47.1	(259)	27.7	(330)	35.3	(155)	16.6	(124)	13.3
	50대	(598)	(261)	43.6	(300)	50.2	(184)	30.8	(246)	41.1	(157)	26.3	(125)	20.9
	60대 이상	(203)	(102)	50.2	(97)	47.8	(56)	27.6	(71)	35.0	(54)	26.6	(63)	31.0
거주지 별	수도권	(2,592)	(1,192)	46.0	(1,122)	43.3	(892)	34.4	(717)	27.7	(494)	19.1	(440)	17.0
	부산/경남권	(670)	(291)	43.4	(321)	47.9	(232)	34.6	(230)	34.3	(145)	21.6	(126)	18.8
	대구/경북권	(444)	(188)	42.3	(206)	46.4	(149)	33.6	(131)	29.5	(112)	25.2	(62)	14.0
	대전/충청권	(474)	(210)	44.3	(207)	43.7	(163)	34.4	(136)	28.7	(84)	17.7	(72)	15.2
	광주/전라권	(609)	(274)	45.0	(265)	43.5	(182)	29.9	(188)	30.9	(138)	22.7	(90)	14.8
	강원, 제주	(145)	(50)	34.5	(73)	50.3	(40)	27.6	(50)	34.5	(30)	20.7	(23)	15.9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91)	(45)	49.5	(51)	56.0	(26)	28.6	(32)	35.2	(34)	37.4	(27)	29.7
	전문대졸업	(406)	(194)	47.8	(155)	38.2	(144)	35.5	(119)	29.3	(78)	19.2	(72)	17.7
	대학 졸업(학사)	(2,994)	(1,365)	45.6	(1,289)	43.1	(1,025)	34.2	(812)	27.1	(608)	20.3	(523)	17.5
	대학원졸업(석사)	(1,283)	(533)	41.5	(630)	49.1	(428)	33.4	(436)	34.0	(249)	19.4	(167)	13.0
	대학원졸업(박사)	(160)	(68)	42.5	(69)	43.1	(35)	21.9	(53)	33.1	(34)	21.3	(24)	15.0

※ base : 전체(n=4,834), 복수응답, 기타 2.9%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 4, 5차 연도(2017년, 2019년, 2020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동기는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차 연도(2016년)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3차 연도(2018년)는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차이가 있었다.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응답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표 22] 2016~2020 자격요건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동기 비교 분석

		사례수 (곳)	문화예술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사 의무 배치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교육 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문화예술 소양 및 향유를 위해서	
			%	GAP ⁸⁾	%	GAP	%	GAP	%	GAP	%	GAP	%	GAP
전체	2016년	(4,606)	30.5		31.8		20.8		44.1		12.3		0.0	
	2017년	(4,447)	39.1	8.6	38.1	6.3	27.2	6.4	37.6	-6.5	14.6	2.3	0.0	0.0
	2018년	(4,642)	43.3	4.2	44.5	6.4	26.3	-0.9	26.7	-10.9	18.1	3.5	15.1	15.1
	2019년	(4,684)	45.8	2.5	44.6	0.1	28.8	2.5	31.7	5.0	19.1	1.0	17.0	1.9
	2020년	(4,934)	44.7	-1.1	44.5	-0.1	33.6	4.8	29.4	-2.3	20.3	1.2	16.5	-0.5
고졸/ 비전공자	2016년	(89)	44.9		20.2		28.1		30.3		18.0		0.0	
	2017년	(138)	47.8	2.9	36.2	16.0	35.5	7.4	16.7	-13.6	18.8	0.8	0.0	0.0
	2018년	(135)	51.9	4.1	37.0	0.8	34.1	-1.4	19.3	2.6	11.1	-7.7	15.6	15.6
	2019년	(125)	47.2	-4.7	32.8	-4.2	36.0	1.9	17.6	-1.7	14.4	3.3	11.2	-4.4
	2020년	(59)	49.2	2.0	33.9	1.1	40.7	4.7	18.6	1.0	16.9	2.5	5.1	-6.1
예술 강사	2016년	(2,048)	23.6		33.2		14.9		57.8		8.5		0.0	
	2017년	(1,430)	29.8	6.2	38.5	5.3	19.0	4.1	55.9	-1.9	12.2	3.7	0.0	0.0
	2018년	(1,074)	33.4	3.6	41.9	3.4	20.6	1.6	49.9	-6.0	15.9	3.7	13.2	13.2
	2019년	(1,093)	41.4	8.0	46.0	4.1	21.4	0.8	53.9	4.0	15.6	-0.3	14.6	1.4
	2020년	(808)	35.4	-6.0	49.3	3.3	22.5	1.1	43.4	-10.5	17.3	1.7	11.9	-2.7
예술 전공자	2016년	(2,103)	36.4		29.0		29.9		39.0		17.9		0.0	
	2017년	(2,261)	41.1	4.7	35.9	6.9	34.7	4.8	31.4	-7.6	13.2	-4.7	0.0	0.0
	2018년	(2,891)	45.5	4.4	44.5	8.6	30.8	-3.9	20.8	-10.6	18.9	5.7	15.3	15.3
	2019년	(3,154)	46.3	0.8	43.6	-0.9	32.8	2.0	26.8	6.0	20.1	1.2	18.3	3.0
	2020년	(3,712)	46.7	0.4	43.0	-0.6	37.2	4.4	26.5	-0.3	20.2	0.1	17.1	-1.2
국가 무형 문화재	2016년	(366)	31.1		42.6		0.0		0.0		0.0		0.0	
	2017년	(618)	51.3	20.2	45.8	3.2	17.2	17.2	22.5	22.5	24.3	24.3	0.0	0.0
	2018년	(542)	48.7	-2.6	51.5	5.7	11.6	-5.6	14.6	-7.9	20.1	-4.2	17.5	17.5
	2019년	(492)	51.6	2.9	50.4	-1.1	17.5	5.9	17.9	3.3	20.9	0.8	15.4	-2.1
	2020년	(355)	43.7	-7.9	51.0	0.6	19.7	2.2	29.6	11.7	29.6	8.7	22.5	7.1

※ 2016년 국가무형문화재 대상 설문지의 경우, 다른 조사대상 설문 보기항목과 차이가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8) GAP :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와의 차이

나. 자격취득 당시 희망직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당시, 희망 직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가 6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43.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32.7%),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예술행정’(2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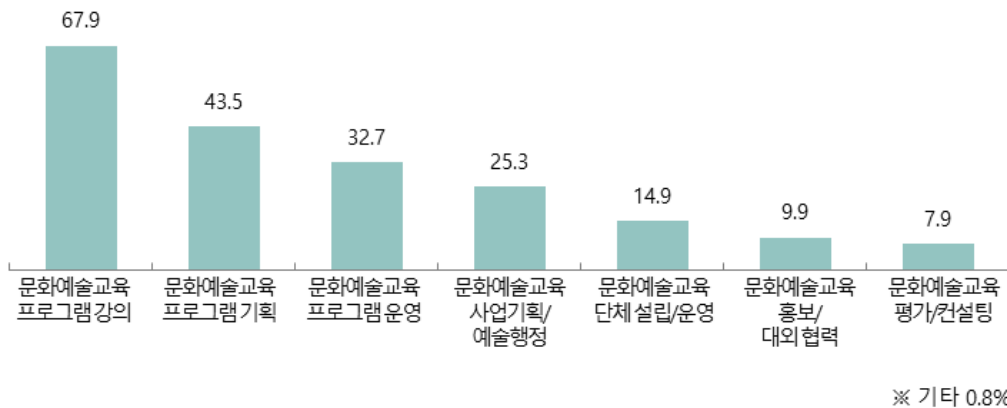
자격요건별로 자격취득 당시 희망 직무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는 예술전공자를 제외한 모든 자격요건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예술전공자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47.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60대 이상 제외)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예술행정’은 연령이 낮아질수록(40대 제외)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기존 자격소지자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70.8%)를, 신규 자격소지자는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예술행정’(28.4%)을 희망했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자격취득 당시 희망직무

(n=4,934, 복수응답, 단위 : %)



[표 23]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당시 희망 직무

		사례 수 (명)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육 사업기획 /예술행정		문화예술 교육 단체 설립/운영		문화예술 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문화예술 교육 평가 및 컨설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4,934)	(3,351)	67.9	(2,148)	43.5	(1,615)	32.7	(1,246)	25.3	(736)	14.9	(489)	9.9	(390)	7.9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4,078)	(2,888)	<u>70.8</u>	(1,769)	43.4	(1,375)	33.7	(1,003)	24.6	(616)	15.1	(398)	9.8	(334)	8.2
	신규 자격취득자	(856)	(463)	54.1	(379)	44.3	(240)	28.0	(243)	<u>28.4</u>	(120)	14.0	(91)	10.6	(56)	6.5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59)	(41)	<u>69.5</u>	(29)	<u>49.2</u>	(16)	27.1	(19)	<u>32.2</u>	(9)	15.3	(5)	8.5	(7)	11.9
	예술강사	(808)	(696)	<u>86.1</u>	(259)	32.1	(216)	26.7	(124)	15.3	(106)	13.1	(42)	5.2	(67)	8.3
	예술전공자	(3,712)	(2,351)	63.3	(1,746)	<u>47.0</u>	(1,285)	<u>34.6</u>	(1,032)	<u>27.8</u>	(556)	15.0	(399)	10.7	(284)	7.7
	국가무형문화재	(355)	(263)	<u>74.1</u>	(114)	32.1	(98)	27.6	(71)	20.0	(65)	18.3	(43)	12.1	(32)	9.0
성별	남성	(945)	(662)	<u>70.1</u>	(347)	36.7	(302)	32.0	(241)	25.5	(170)	18.0	(99)	10.5	(94)	9.9
	여성	(3,989)	(2,689)	67.4	(1,801)	<u>45.1</u>	(1,313)	32.9	(1,005)	25.2	(566)	14.2	(390)	9.8	(296)	7.4
연령 별	20대	(2,107)	(1,280)	60.7	(912)	43.3	(659)	31.3	(588)	<u>27.9</u>	(274)	13.0	(250)	11.9	(136)	6.5
	30대	(1,091)	(781)	<u>71.6</u>	(510)	<u>46.7</u>	(382)	<u>35.0</u>	(287)	26.3	(143)	13.1	(69)	6.3	(81)	7.4
	40대	(935)	(693)	<u>74.1</u>	(420)	44.9	(288)	30.8	(202)	21.6	(139)	14.9	(75)	8.0	(92)	9.8
	50대	(598)	(452)	<u>75.6</u>	(242)	40.5	(215)	<u>36.0</u>	(133)	22.2	(128)	21.4	(63)	10.5	(60)	10.0
	60대 이상	(203)	(145)	<u>71.4</u>	(64)	31.5	(71)	<u>35.0</u>	(36)	17.7	(52)	25.6	(32)	15.8	(21)	10.3
거주지 별	수도권	(2,592)	(1,803)	69.6	(1,134)	43.8	(825)	31.8	(634)	24.5	(360)	13.9	(246)	9.5	(200)	7.7
	부산/경남권	(670)	(454)	67.8	(298)	44.5	(219)	32.7	(166)	24.8	(101)	15.1	(77)	11.5	(60)	9.0
	대구/경북권	(444)	(299)	67.3	(181)	40.8	(136)	30.6	(112)	25.2	(85)	19.1	(46)	10.4	(34)	7.7
	대전/충청권	(474)	(312)	65.8	(203)	42.8	(154)	32.5	(112)	23.6	(69)	14.6	(48)	10.1	(43)	9.1
	광주/전라권	(609)	(386)	63.4	(263)	43.2	(225)	36.9	(186)	30.5	(90)	14.8	(57)	9.4	(44)	7.2
	강원, 제주	(145)	(97)	66.9	(69)	47.6	(56)	38.6	(36)	24.8	(31)	21.4	(15)	10.3	(9)	6.2
학력 별	고등학교졸업이하	(91)	(64)	70.3	(35)	38.5	(32)	35.2	(19)	20.9	(16)	17.6	(15)	16.5	(6)	6.6
	전문대졸업	(406)	(279)	68.7	(151)	37.2	(150)	36.9	(87)	21.4	(56)	13.8	(50)	12.3	(39)	9.6
	대학 졸업(학사)	(2,994)	(1,971)	65.8	(1,277)	42.7	(916)	30.6	(795)	26.6	(404)	13.5	(309)	10.3	(209)	7.0
	대학원졸업(석사)	(1,283)	(929)	72.4	(608)	47.4	(466)	36.3	(306)	23.9	(221)	17.2	(102)	8.0	(119)	9.3
	대학원졸업(박사)	(160)	(108)	67.5	(77)	48.1	(51)	31.9	(39)	24.4	(39)	24.4	(13)	8.1	(17)	10.6

※ base : 전체(n=4,834),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전후의 직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자격 취득 전 희망 직무가 현재 업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를 희망한 경우, 자격 취득 후에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를 담당하거나 ‘문화예술교육 관련 창작활동’을 담당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격 취득 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를 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희망 직무와 관계없이 자격취득 후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전후 직무 비교 분석

자격을 취득 전 희망 직무 자격을 취득 후 현재 직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육 사업기획/ 예술행정	문화예술 교육 단체 설립/운영	문화예술 교육 홍보 /대외협력	문화예술 교육 평가/ 컨설팅
전체	73.9	47.1	39.7	28.6	18.7	9.4	10.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85.3	41.8	37.6	22.3	18.6	8.6	11.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65.6	76.0	58.6	42.2	25.7	13.9	18.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64.7	68.9	66.6	44.3	27.8	15.3	19.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기획/예술행정	53.6	70.4	59.3	69.6	30.7	15.7	19.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단체 설립/운영	64.7	57.3	59.3	54.7	60.7	27.3	28.0
문화예술교육 홍보/ 대외협력	58.0	72.8	66.7	58.0	42.0	40.7	22.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평가/컨설팅	75.0	76.8	75.0	66.1	55.4	30.4	57.1
문화예술교육 관련 창작활동	83.5	52.7	47.5	29.6	25.4	15.5	16.9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74.8	61.3	55.1	38.7	29.9	18.6	16.4

※ base : 자격취득 후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자(n=2,210),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의 59.4%는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원’(28.1%), ‘기본연수 과정 이수 예술강사’(14.3%) 등의 순이었다.

자격요건별로 살펴보면 고졸/비전공자는 ‘문화예술교육원’(79.7%), ‘예술강사’는 ‘기본연수 과정 이수’(81.1%), 예술전공자는 ‘대학’(76.9%)과 ‘문화예술교육원’(32.2%),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는 ‘국가무형문화재’(95.2%)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5]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사례수 (명)	대 학		문화예술 교육원		기본연수 과정 이수		국가무형 문화재		학점은행제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4,934)	(2,930)	59.4	(1,384)	28.1	(706)	14.3	(354)	7.2	(60)	1.2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4,078)	(2,381)	58.4	(1,006)	24.7	(696)	17.1	(311)	7.6	(50)	1.2
	신규 자격취득자	(856)	(549)	64.1	(378)	44.2	(10)	1.2	(43)	5.0	(10)	1.2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59)	(19)	32.2	(47)	79.7	(1)	1.7	(1)	1.7	(4)	6.8
	예술강사	(808)	(39)	4.8	(131)	16.2	(655)	81.1	(10)	1.2	(3)	0.4
	예술전공자	(3,712)	(2,853)	76.9	(1,196)	32.2	(35)	0.9	(5)	0.1	(48)	1.3
	국가무형문화재	(355)	(19)	5.4	(10)	2.8	(15)	4.2	(338)	95.2	(5)	1.4
성별	남성	(945)	(528)	55.9	(210)	22.2	(135)	14.3	(149)	15.8	(16)	1.7
	여성	(3,989)	(2,402)	60.2	(1,174)	29.4	(571)	14.3	(205)	5.1	(44)	1.1
연령 별	20대	(2,107)	(1,852)	87.9	(407)	19.3	(13)	0.6	(9)	0.4	(10)	0.5
	30대	(1,091)	(477)	43.7	(455)	41.7	(209)	19.2	(60)	5.5	(26)	2.4
	40대	(935)	(294)	31.4	(315)	33.7	(312)	33.4	(85)	9.1	(10)	1.1
	50대	(598)	(233)	39.0	(171)	28.6	(139)	23.2	(110)	18.4	(6)	1.0
	60대 이상	(203)	(74)	36.5	(36)	17.7	(33)	16.3	(90)	44.3	(8)	3.9
거주지 별	수도권	(2,592)	(1,622)	62.6	(746)	28.8	(278)	10.7	(147)	5.7	(34)	1.3
	부산/경남권	(670)	(360)	53.7	(141)	21.0	(138)	20.6	(96)	14.3	(5)	0.7
	대구/경북권	(444)	(282)	63.5	(116)	26.1	(55)	12.4	(39)	8.8	(7)	1.6
	대전/충청권	(474)	(279)	58.9	(130)	27.4	(82)	17.3	(21)	4.4	(6)	1.3
	광주/전라권	(609)	(327)	53.7	(200)	32.8	(112)	18.4	(37)	6.1	(8)	1.3
	강원, 제주	(145)	(60)	41.4	(51)	35.2	(41)	28.3	(14)	9.7	(0)	0.0
학력 별	고등학교졸업이하	(91)	(19)	20.9	(9)	9.9	(13)	14.3	(56)	61.5	(2)	2.2
	전문대졸업	(406)	(309)	76.1	(68)	16.7	(22)	5.4	(24)	5.9	(2)	0.5
	대학 졸업(학사)	(2,994)	(2,030)	67.8	(815)	27.2	(306)	10.2	(125)	4.2	(38)	1.3
	대학원졸업(석사)	(1,283)	(527)	41.1	(448)	34.9	(323)	25.2	(112)	8.7	(16)	1.2
	대학원졸업(박사)	(160)	(45)	28.1	(44)	27.5	(42)	26.3	(37)	23.1	(2)	1.3

※ base : 전체(n=4,934),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3. 경제활동 현황

가. 과거 경제활동 여부

현재 보수를 받고 경제활동을 하는 자격소지자의 82.4%는 과거에도 경제활동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요건별로 과거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예술강사가 76.5%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비전공자가 59.3%로 뒤를 이어 나타났다. 반면 예술전공자의 과거 경제 활동 참가율은 41.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 자격취득자는 38.4%만이 과거 경제활동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자격소지자의 과거 경제활동 여부

		사례수 (명)	활동한 적 있었다 (프리랜서 포함)		활동한 적 없었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4,934)	(2,419)	49.0	(2,515)	51.0
현 경제활동 여부	활동하고 있다	(2,210)	(1,820)	82.4	(390)	17.6
	활동하지 않고 있다	(2,724)	(599)	22.0	(2,125)	78.0
기존/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4,078)	(2,090)	51.3	(1,988)	48.7
	신규 자격취득자	(856)	(329)	38.4	(527)	61.6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59)	(35)	59.3	(24)	40.7
	예술강사	(808)	(618)	76.5	(190)	23.5
	예술전공자	(3,712)	(1,557)	41.9	(2,155)	58.1
	국가무형문화재	(355)	(209)	58.9	(146)	41.1
성별	남성	(945)	(427)	45.2	(518)	54.8
	여성	(3,989)	(1,992)	49.9	(1,997)	50.1
연령별	20대	(2,107)	(633)	30.0	(1,474)	70.0
	30대	(1,091)	(677)	62.1	(414)	37.9
	40대	(935)	(621)	66.4	(314)	33.6
	50대	(598)	(377)	63.0	(221)	37.0
	60대 이상	(203)	(111)	54.7	(92)	45.3
거주지별	수도권	(2,592)	(1,203)	46.4	(1,389)	53.6
	부산/경남권	(670)	(335)	50.0	(335)	50.0
	대구/경북권	(444)	(232)	52.3	(212)	47.7
	대전/충청권	(474)	(230)	48.5	(244)	51.5
	광주/전라권	(609)	(329)	54.0	(280)	46.0
	강원, 제주	(145)	(90)	62.1	(55)	37.9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91)	(52)	57.1	(39)	42.9
	전문대졸업	(406)	(142)	35.0	(264)	65.0
	대학 졸업(학사)	(2,994)	(1,282)	42.8	(1,712)	57.2
	대학원졸업(석사)	(1,283)	(844)	65.8	(439)	34.2
	대학원졸업(박사)	(160)	(99)	61.9	(61)	38.1

※ base : 전체(n=4,93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과거에 보수를 받고 활동한 자격소지자의 직업 혹은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가 62.0%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예술단체’(23.1%), ‘초·중·고등학교’(17.9%), ‘국·공립·공공기관’(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과거 경제활동 직업/소속기관

		사례 수 (명)	프리랜서 (예술강사 포함)	예술 단체	초·중, 고등학교	국·공립· 공공기관	사기업	대학교	정부부처 /지자체	기타
			%	%	%	%	%	%	%	%
전 체		(2,419)	62.0	23.1	17.9	15.1	8.1	8.1	5.7	1.7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2,090)	63.7	23.2	18.3	15.2	7.2	7.7	5.7	1.5
	신규 자격취득자	(329)	51.1	22.5	15.5	14.9	14.3	10.9	5.5	3.0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35)	40.0	34.3	17.1	22.9	5.7	11.4	8.6	2.9
	예술강사	(618)	78.5	27.3	17.8	7.4	2.1	7.3	4.5	0.2
	예술전공자	(1,557)	56.5	18.6	18.5	17.5	11.0	7.8	6.0	2.1
	국가무형문화재	(209)	57.9	42.1	13.9	18.7	4.8	12.0	6.2	3.8
성별	남성	(427)	57.4	30.4	15.0	14.3	7.7	8.0	6.6	3.5
	여성	(1,992)	63.0	21.5	18.5	15.3	8.2	8.1	5.5	1.4
연령별	20대	(633)	56.1	18.6	15.8	15.6	13.3	10.1	2.8	2.7
	30대	(677)	61.7	22.6	17.1	16.5	7.4	4.1	7.2	1.3
	40대	(621)	66.5	22.9	17.9	13.7	4.8	9.2	6.6	1.3
	50대	(377)	66.3	27.3	21.8	13.0	7.7	9.0	4.0	1.3
	60대 이상	(111)	57.7	38.7	21.6	18.9	3.6	11.7	13.5	2.7
거주지 별	수도권	(1,203)	60.6	21.9	18.2	16.8	10.7	8.8	5.2	1.7
	부산/경남권	(335)	66.3	26.0	18.2	13.1	5.1	8.7	4.8	2.1
	대구/경북권	(232)	62.1	23.3	18.5	12.5	5.2	9.5	7.3	1.7
	대전/충청권	(230)	67.0	26.1	18.3	14.3	4.3	8.3	5.2	0.4
	광주/전라권	(329)	59.3	19.1	17.6	14.3	7.0	5.2	6.7	2.4
	강원, 제주	(90)	62.2	34.4	11.1	12.2	6.7	3.3	8.9	2.2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52)	63.5	51.9	15.4	9.6	7.7	3.8	5.8	5.8
	전문대졸업	(142)	67.6	24.6	15.5	12.0	9.9	6.3	4.9	3.5
	대학 졸업(학사)	(1,282)	61.6	22.2	16.5	15.2	9.6	5.6	5.5	2.0
	대학원졸업(석사)	(844)	63.0	21.8	20.5	15.6	5.7	9.5	6.2	1.1
	대학원졸업(박사)	(99)	49.5	29.3	19.2	17.2	8.1	33.3	6.1	0.0

※ base :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n=2,419),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기

나. 경제활동 여부

2020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4.8%로 2019년 경제활동 참가율(65.9%)보다 21.1% 하락하였다. 자격요건별로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예술강사가 7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무형문화재가 54.1%로 뒤를 이었다. 반면, 예술전공자의 경제활동 참가율(37.8%)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8.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존 자격소지자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48.6%로 나타난 반면, 신규 자격취득자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26.9%로, 경제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8]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여부

		사례수 (명)	활동하고 있다 (프리랜서 포함)		활동하지 않고 있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4,934)	(2,210)	44.8	(2,724)	55.2
기존/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4,078)	(1,980)	<u>48.6</u>	(2,098)	51.4
	신규 자격취득자	(856)	(230)	26.9	(626)	<u>73.1</u>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59)	(27)	45.8	(32)	54.2
	예술강사	(808)	(587)	<u>72.6</u>	(221)	27.4
	예술전공자	(3,712)	(1,404)	37.8	(2,308)	<u>62.2</u>
	국가무형문화재	(355)	(192)	<u>54.1</u>	(163)	45.9
성별	남성	(945)	(380)	40.2	(565)	<u>59.8</u>
	여성	(3,989)	(1,830)	45.9	(2,159)	54.1
연령별	20대	(2,107)	(651)	30.9	(1,456)	<u>69.1</u>
	30대	(1,091)	(605)	<u>55.5</u>	(486)	44.5
	40대	(935)	(543)	<u>58.1</u>	(392)	41.9
	50대	(598)	(321)	<u>53.7</u>	(277)	46.3
	60대 이상	(203)	(90)	<u>44.3</u>	(113)	55.7
거주지별	수도권	(2,592)	(1,073)	41.4	(1,519)	58.6
	부산/경남권	(670)	(316)	47.2	(354)	52.8
	대구/경북권	(444)	(218)	49.1	(226)	50.9
	대전/충청권	(474)	(224)	47.3	(250)	52.7
	광주/전라권	(609)	(296)	48.6	(313)	51.4
	강원, 제주	(145)	(83)	57.2	(62)	42.8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91)	(45)	49.5	(46)	50.5
	전문대졸업	(406)	(119)	29.3	(287)	70.7
	대학 졸업(학사)	(2,994)	(1,224)	40.9	(1,770)	59.1
	대학원졸업(석사)	(1,283)	(738)	57.5	(545)	42.5
	대학원졸업(박사)	(160)	(84)	52.5	(76)	47.5

※ base : 전체(n=4,93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6년 85.8%, 2017년 79.6%, 2018년 70.8%, 2019년 65.9%, 2020년 44.8%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대비 국가무형 문화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8.2% 하락해 가장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2016-2020 경제활동 참가율 변동

		사례수 (곳)	활동하고 있다(프리랜서 포함)		활동하지 않고 있다	
			%	GAP ⁹⁾	%	GAP
전 체	2016년	(4,606)	85.8		14.2	
	2017년	(4,447)	79.6	-6.2	20.4	6.2
	2018년	(4,642)	70.8	-8.8	29.2	8.8
	2019년	(4,864)	65.9	-4.9	34.1	4.9
	2020년	(4,934)	44.8	-21.1	55.2	21.1
고졸/비전공자	2016년	(89)	69.7		30.3	
	2017년	(138)	62.3	-7.4	37.7	7.4
	2018년	(135)	57.8	-4.5	42.2	4.5
	2019년	(125)	57.6	-0.2	42.4	0.2
	2020년	(59)	45.8	-11.8	54.2	11.8
예술강사	2016년	(2,048)	98.3		1.7	
	2017년	(1,430)	93.1	-5.2	6.9	5.2
	2018년	(1,074)	90.8	-2.3	9.2	2.3
	2019년	(1,093)	88.4	-2.4	11.6	2.4
	2020년	(808)	<u>72.6</u>	-15.8	27.4	15.8
예술전공자	2016년	(2,103)	73.3		26.7	
	2017년	(2,261)	71.0	-2.3	29.0	2.3
	2018년	(2,891)	61.3	-9.7	38.7	9.7
	2019년	(3,154)	55.9	-5.4	44.1	5.4
	2020년	(3,712)	37.8	-18.1	62.2	18.1
국가무형 문화재	2016년	(366)	91.8		8.2	
	2017년	(618)	83.8	-8.0	16.2	8.0
	2018년	(542)	85.6	1.8	14.4	-1.8
	2019년	(492)	82.3	-3.3	17.7	3.3
	2020년	(355)	<u>54.1</u>	-28.2	45.9	28.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9) GAP :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와의 차이

다. 경제활동 형태

경제활동을 하는 자격소지자의 61.5%는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로 활동하고 있으며, 38.5%는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요건별로 살펴보면, 예술강사는 ‘프리랜서’(77.9%), 예술전공자와 국가무형문화재는 ‘기관·시설·단체’(각각 44.8%, 41.7%)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50.1%)는 ‘기관·시설·단체’에서, 40대~60대 이상은 ‘프리랜서’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규 자격취득자의 46.1%는 ‘기관·시설·단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형태

		사례수 (명)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기관·시설·단체 종사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2,210)	(1,359)	61.5	(851)	38.5
기존/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1,980)	(1,235)	62.4	(745)	37.6
	신규 자격취득자	(230)	(124)	53.9	(106)	<u>46.1</u>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27)	(15)	55.6	(12)	44.4
	예술강사	(587)	(457)	<u>77.9</u>	(130)	22.1
	예술전공자	(1,404)	(775)	55.2	(629)	<u>44.8</u>
	국가무형문화재	(192)	(112)	58.3	(80)	<u>41.7</u>
성별	남성	(380)	(223)	58.7	(157)	<u>41.3</u>
	여성	(1,830)	(1,136)	62.1	(694)	37.9
연령별	20대	(651)	(325)	49.9	(326)	<u>50.1</u>
	30대	(605)	(377)	62.3	(228)	37.7
	40대	(543)	(380)	<u>70.0</u>	(163)	30.0
	50대	(321)	(219)	<u>68.2</u>	(102)	31.8
	60대 이상	(90)	(58)	<u>64.4</u>	(32)	35.6
거주지별	수도권	(1,073)	(674)	62.8	(399)	37.2
	부산/경남권	(316)	(198)	62.7	(118)	37.3
	대구/경북권	(218)	(135)	61.9	(83)	38.1
	대전/충청권	(224)	(125)	55.8	(99)	44.2
	광주/전라권	(296)	(173)	58.4	(123)	41.6
	강원, 제주	(83)	(54)	65.1	(29)	34.9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45)	(29)	64.4	(16)	35.6
	전문대졸업	(119)	(78)	65.5	(41)	34.5
	대학 졸업(학사)	(1,224)	(728)	59.5	(496)	40.5
	대학원졸업(석사)	(738)	(478)	64.8	(260)	35.2
	대학원졸업(박사)	(84)	(46)	54.8	(38)	45.2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n=2,21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기

1)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주요 업무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주요 업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가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 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44.4%)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37.2%)을, 비정규직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54.0%)를 상대적으로 많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자격취득자는 ‘문화예술교육 홍보/대외협력’(12.3%)과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11.3%) 업무를 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일반 행정 및 사무’, ‘디자인’, ‘공연’ 등이 있었다.

[표 31]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주요 업무

		사례 수 (명)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육사업 기획/ 예술행정	문화예술 교육 자원조사	문화예술 교육 홍보/ 대외협력	문화예술 교육단체 설립/ 운영	문화예술 교육 평가/ 컨설팅
			%	%	%	%	%	%	%	%
전 체		(851)	49.4	35.1	30.3	22.4	9.9	7.2	6.9	3.8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745)	50.5	35.6	31.0	22.6	9.7	6.4	6.8	3.8
	신규 자격취득자	(106)	41.5	32.1	25.5	21.7	<u>11.3</u>	<u>12.3</u>	7.5	3.8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12)	50.0	66.7	33.3	50.0	0.0	0.0	8.3	16.7
	예술강사	(130)	<u>83.1</u>	20.0	13.8	10.8	2.3	0.0	6.9	4.6
	예술전공자	(629)	41.8	<u>37.7</u>	<u>32.6</u>	<u>24.2</u>	<u>12.1</u>	8.4	5.2	3.2
	국가무형문화재	(80)	<u>53.8</u>	35.0	<u>38.8</u>	23.8	6.3	<u>10.0</u>	<u>20.0</u>	5.0
성별	남성	(157)	<u>51.6</u>	33.8	<u>33.1</u>	22.3	8.3	<u>10.2</u>	<u>10.8</u>	5.1
	여성	(694)	48.8	35.4	29.7	22.5	10.2	6.5	6.1	3.5
연령별	20대	(326)	34.0	35.0	28.5	23.6	<u>14.4</u>	8.0	3.4	1.2
	30대	(228)	48.7	<u>40.4</u>	<u>35.1</u>	<u>28.9</u>	7.0	<u>8.8</u>	3.5	2.6
	40대	(163)	<u>66.3</u>	33.7	25.8	17.8	5.5	5.5	6.1	3.7
	50대	(102)	<u>68.6</u>	28.4	25.5	15.7	8.8	3.9	<u>19.6</u>	<u>12.7</u>
	60대 이상	(32)	<u>62.5</u>	28.1	<u>53.1</u>	9.4	9.4	6.3	<u>31.3</u>	<u>9.4</u>
거주지 별	수도권	(399)	46.9	32.1	26.6	22.6	10.5	7.0	6.5	3.8
	부산/경남권	(118)	50.8	40.7	37.3	21.2	12.7	9.3	7.6	4.2
	대구/경북권	(83)	50.6	33.7	34.9	24.1	7.2	6.0	8.4	4.8
	대전/충청권	(99)	57.6	38.4	30.3	25.3	7.1	6.1	4.0	2.0
	광주/전라권	(123)	48.8	35.0	30.9	22.0	9.8	7.3	8.9	4.9
학력별	강원, 제주	(29)	48.3	48.3	37.9	13.8	6.9	6.9	6.9	0.0
	고등학교졸업이하	(16)	68.8	37.5	50.0	12.5	0.0	6.3	12.5	6.3
	전문대졸업	(41)	48.8	24.4	19.5	17.1	19.5	9.8	2.4	4.9
	대학 졸업(학사)	(496)	44.4	32.1	27.8	22.4	11.5	6.7	5.6	1.8
	대학원졸업(석사)	(260)	55.8	42.7	36.9	24.2	6.5	7.7	7.7	5.4
활동 분야	대학원졸업(박사)	(38)	63.2	34.2	21.1	21.1	5.3	7.9	21.1	15.8
	문화예술 분야	(769)	50.5	<u>37.2</u>	<u>31.7</u>	<u>24.2</u>	10.4	7.4	7.3	3.9
근무 형태	타 분야	(82)	39.0	15.9	17.1	6.1	4.9	4.9	3.7	2.4
	정규직	(207)	34.8	<u>44.4</u>	<u>37.2</u>	<u>32.9</u>	6.3	<u>11.6</u>	<u>9.2</u>	<u>6.8</u>
	비정규직	(644)	<u>54.0</u>	32.1	28.1	19.1	11.0	5.7	6.2	2.8

※ base : 기관·시설·단체 종사자(n=851), 복수응답, 기타 10.2%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 프리랜서 주요 업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자격소지자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가 82.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31.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19.7%),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프리랜서 주요 업무

		사례 수 (명)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의	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육 자원조사	문화예술 교육단체 설립 /운영	문화예술 교육사업 기획/ 예술행정	문화예술 교육 평가/ 컨설팅	문화예술 교육 홍보/ 대외협력
			%	%	%	%	%	%	%	%	%
전 체		(1,359)	82.4	31.3	19.7	16.7	14.0	6.7	6.5	1.8	1.5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1,235)	83.7	31.8	20.3	17.4	14.5	7.0	7.0	1.9	1.5
	신규 자격취득자	(124)	69.4	25.8	13.7	9.7	8.9	3.2	2.4	0.8	0.8
자격 요건 별	고졸/비전공자	(15)	80.0	53.3	53.3	53.3	13.3	20.0	20.0	0.0	6.7
	예술강사	(457)	94.5	33.9	21.0	16.2	10.5	8.5	6.3	2.2	1.1
	예술전공자	(775)	75.7	27.4	18.1	16.1	16.0	4.1	6.2	1.0	1.0
	국가무형문화재	(112)	79.5	44.6	21.4	17.9	14.3	15.2	8.0	5.4	5.4
성별	남성	(223)	80.3	43.9	18.8	16.1	9.0	9.0	7.6	4.0	2.7
	여성	(1,136)	82.8	28.8	19.9	16.8	15.0	6.3	6.3	1.3	1.2
연령 별	20대	(325)	67.4	24.3	12.3	11.7	17.5	1.5	6.2	0.3	0.6
	30대	(377)	85.1	28.9	18.0	13.3	14.1	4.0	4.8	1.1	0.5
	40대	(380)	88.2	35.3	21.8	18.9	11.8	6.8	6.1	2.6	1.3
	50대	(219)	90.0	35.2	27.9	23.3	11.9	13.2	10.5	2.7	3.7
	60대 이상	(58)	82.8	44.8	27.6	27.6	15.5	27.6	8.6	5.2	5.2
거주 지별	수도권	(674)	82.3	30.1	19.6	15.6	15.9	4.9	4.6	1.5	1.3
	부산/경남권	(198)	83.8	30.8	14.6	12.6	11.1	4.5	5.6	1.0	2.0
	대구/경북권	(135)	78.5	32.6	17.0	14.8	13.3	7.4	5.9	1.5	0.7
	대전/충청권	(125)	84.0	20.0	21.6	20.0	16.0	8.8	7.2	2.4	0.0
	광주/전라권	(173)	80.3	39.9	22.0	22.5	10.4	10.4	11.6	3.5	2.3
	강원, 제주	(54)	90.7	42.6	35.2	24.1	9.3	18.5	18.5	1.9	3.7
학력 별	고등학교졸업이하	(29)	86.2	44.8	31.0	27.6	3.4	20.7	13.8	3.4	10.3
	전문대졸업	(78)	78.2	33.3	10.3	11.5	10.3	3.8	1.3	0.0	0.0
	대학 졸업(학사)	(728)	78.4	30.1	17.3	15.0	16.1	5.1	6.9	1.4	1.4
	대학원졸업(석사)	(478)	88.3	32.2	22.8	19.2	12.6	8.4	5.9	2.3	1.5
	대학원졸업(박사)	(46)	89.1	28.3	34.8	19.6	8.7	10.9	13.0	4.3	0.0

※ base :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종사자(n=1,359), 복수응답, 기타 3.6%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기

라. 관련 분야 종사 여부

경제활동을 하는 자격소지자의 90.4%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관련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9.6%로 나타났다. 자격요건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한다는 응답은 예술강사(98.5%)와 국가무형문화재(93.8%)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96.9%),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석사)(93.1%)에서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격소지자의 근무 기간은 평균 7년 4개월(87.5개월)로 타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평균 3년 4개월(39.7개월))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자격소지자의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여부

		사례수 (명)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타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사례수	%	평균(개월)	사례수	%	평균(개월)
전 체		(851)	(769)	90.4	87.5	(82)	9.6	39.7
기존/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745)	(674)	90.5	91.6	(71)	9.5	41.5
	신규 자격취득자	(106)	(95)	89.6	58.4	(11)	10.4	28.1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12)	(12)	100.0	150.0	(0)	-	-
	예술강사	(130)	(128)	<u>98.5</u>	165.1	(2)	1.5	138.0
	예술전공자	(629)	(554)	88.1	52.4	(75)	11.9	34.0
	국가무형문화재	(80)	(75)	<u>93.8</u>	204.3	(5)	6.3	85.6
성별	남성	(157)	(142)	90.4	120.0	(15)	9.6	62.8
	여성	(694)	(627)	90.3	80.1	(67)	9.7	34.6
연령별	20대	(326)	(278)	85.3	21.1	(48)	14.7	13.5
	30대	(228)	(214)	93.9	72.8	(14)	6.1	42.6
	40대	(163)	(151)	92.6	139.5	(12)	7.4	93.8
	50대	(102)	(95)	93.1	173.8	(7)	6.9	107.9
	60대 이상	(32)	(31)	<u>96.9</u>	265.5	(1)	3.1	130.0
거주지별	수도권	(399)	(345)	86.5	82.0	(54)	13.5	42.8
	부산/경남권	(118)	(111)	94.1	102.5	(7)	5.9	43.0
	대구/경북권	(83)	(78)	94.0	77.1	(5)	6.0	29.4
	대전/충청권	(99)	(96)	97.0	81.0	(3)	3.0	14.0
	광주/전라권	(123)	(114)	92.7	96.6	(9)	7.3	42.7
	강원, 제주	(29)	(25)	86.2	111.6	(4)	13.8	18.5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6)	(16)	100.0	174.4	(0)	-	-
	전문대졸업	(41)	(31)	75.6	85.6	(10)	24.4	39.8
	대학 졸업(학사)	(496)	(445)	89.7	60.5	(51)	10.3	20.2
	대학원졸업(석사)	(260)	(242)	<u>93.1</u>	113.7	(18)	6.9	75.9
	대학원졸업(박사)	(38)	(35)	92.1	210.9	(3)	7.9	154.0

※ base : 기관·시설·단체 종사자(n=851)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경제활동을 하는 자격소지자 중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응답은 2016년 89.4%, 2017년 88.8%, 2018년 86.2%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87.8%, 2020년 90.4%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예술전공자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응답이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대비 4.1% 상승하였다.

[표 34] 2016~2020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여부 비교 분석

		사례수 (곳)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문화예술 관련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	GAP ¹⁰⁾	%	GAP
전 체	2016년	(3,952)	89.4		10.6	
	2017년	(3,542)	88.8	-0.6	11.2	0.6
	2018년	(1,381)	86.2	-2.6	13.8	2.6
	2019년	(1,188)	87.8	1.6	12.2	-1.6
	2020년	(851)	90.4	2.6	9.6	-2.6
고졸/비전공자	2016년	(62)	77.4		22.6	
	2017년	(86)	70.9	-6.5	29.1	6.5
	2018년	(50)	68.0	-2.9	32.0	2.9
	2019년	(28)	85.7	17.7	14.3	-17.7
	2020년	(12)	100.0	14.3	0.0	-14.3
예술강사	2016년	(2,013)	97.9		2.1	
	2017년	(1,332)	97.4	-0.5	2.6	0.5
	2018년	(229)	95.6	-1.8	4.4	1.8
	2019년	(228)	96.5	0.9	3.5	-0.9
	2020년	(130)	<u>98.5</u>	2.0	1.5	-2.0
예술전공자	2016년	(1,541)	78.4		21.6	
	2017년	(1,606)	81.6	3.2	18.4	-3.2
	2018년	(853)	82.2	0.6	17.8	-0.6
	2019년	(750)	84.0	1.8	16.0	-1.8
	2020년	(629)	88.1	4.1	11.9	-4.1
국가무형 문화재	2016년	(336)	91.4		8.6	
	2017년	(518)	91.9	0.5	8.1	-0.5
	2018년	(249)	95.2	3.3	4.8	-3.3
	2019년	(182)	92.9	-2.3	7.1	2.3
	2020년	(80)	<u>93.8</u>	0.8	6.3	-0.9

※ 2018년부터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10) GAP :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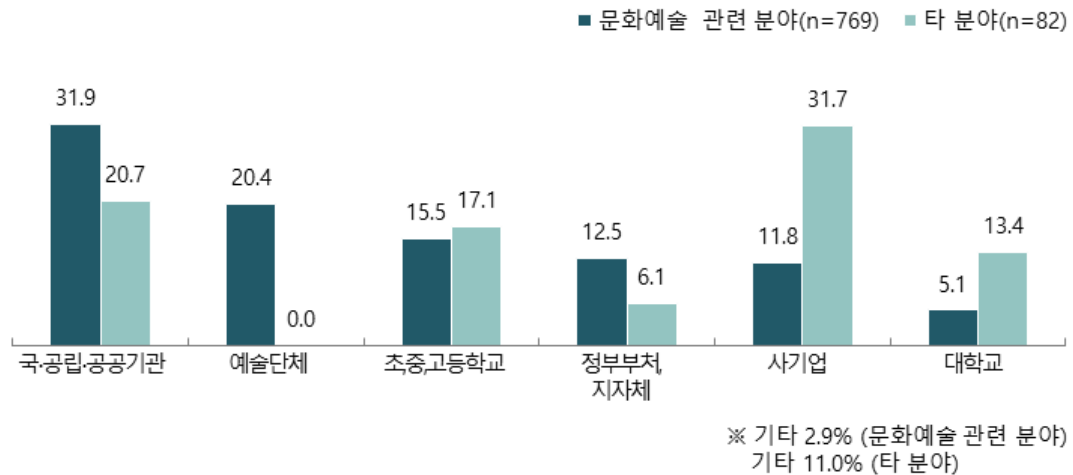
마. 자격소지자 근무 유형 및 형태

1) 근무 기관 유형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현 근무 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국·공립·공공기관’이 31.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예술단체’(20.4%), ‘초·중·고등학교’(15.5%), ‘정부부처,지자체’(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요건별로 살펴보면, 예술강사는 ‘예술단체’(33.6%), 예술전공자는 ‘국·공립·공공기관’(36.5%)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국·공립·공공기관’(각각 34.5%, 39.7%)에서, 40대는 ‘예술단체’(26.5%)에서의 종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타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현 근무 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사기업’이 3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공립·공공기관’(20.7%), ‘초·중·고등학교’(1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현 근무 기관 유형



※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준 내림차순 정렬

[표 35] 현 근무 기관 유형(문화예술 관련 분야)

		사례 수 (명)	국·공립· 공공기관		예술단체		초·중· 고등학교		정부부처, 지자체		사기업		대학교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769)	(245)	31.9	(157)	20.4	(119)	15.5	(96)	12.5	(91)	11.8	(39)	5.1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674)	(217)	32.2	(143)	21.2	(103)	15.3	(88)	13.1	(72)	10.7	(35)	5.2
	신규 자격취득자	(95)	(28)	29.5	(14)	14.7	(16)	16.8	(8)	8.4	(19)	20.0	(4)	4.2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12)	(5)	41.7	(4)	33.3	(1)	8.3	(1)	8.3	(1)	8.3	(0)	0.0
	예술강사	(128)	(19)	14.8	(43)	<u>33.6</u>	(37)	<u>28.9</u>	(15)	11.7	(3)	2.3	(10)	7.8
	예술전공자	(554)	(202)	<u>36.5</u>	(85)	15.3	(74)	13.4	(72)	13.0	(79)	14.3	(26)	4.7
	국가무형문화재	(75)	(19)	25.3	(25)	<u>33.3</u>	(7)	9.3	(8)	10.7	(8)	10.7	(3)	4.0
성별	남성	(142)	(37)	26.1	(37)	<u>26.1</u>	(22)	15.5	(11)	7.7	(17)	12.0	(9)	6.3
	여성	(627)	(208)	33.2	(120)	19.1	(97)	15.5	(85)	13.6	(74)	11.8	(30)	4.8
연령 별	20대	(278)	(96)	<u>34.5</u>	(51)	18.3	(35)	12.6	(33)	11.9	(46)	16.5	(5)	1.8
	30대	(214)	(85)	<u>39.7</u>	(27)	12.6	(36)	16.8	(32)	15.0	(23)	10.7	(8)	3.7
	40대	(151)	(38)	25.2	(40)	<u>26.5</u>	(26)	17.2	(20)	13.2	(10)	6.6	(15)	9.9
	50대	(95)	(18)	18.9	(24)	<u>25.3</u>	(20)	21.1	(10)	10.5	(11)	11.6	(10)	10.5
	60대 이상	(31)	(8)	25.8	(15)	<u>48.4</u>	(2)	6.5	(1)	3.2	(1)	3.2	(1)	3.2
거주지 별	수도권	(345)	(127)	36.8	(53)	15.4	(54)	15.7	(35)	10.1	(48)	13.9	(19)	5.5
	부산/경남권	(111)	(27)	24.3	(33)	29.7	(19)	17.1	(17)	15.3	(10)	9.0	(2)	1.8
	대구/경북권	(78)	(22)	28.2	(19)	24.4	(11)	14.1	(8)	10.3	(13)	16.7	(4)	5.1
	대전/충청권	(96)	(23)	24.0	(25)	26.0	(14)	14.6	(18)	18.8	(8)	8.3	(7)	7.3
	광주/전라권	(114)	(39)	34.2	(21)	18.4	(16)	14.0	(15)	13.2	(10)	8.8	(6)	5.3
	강원, 제주	(25)	(7)	28.0	(6)	24.0	(5)	20.0	(3)	12.0	(2)	8.0	(1)	4.0
학력 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6)	(3)	18.8	(9)	56.3	(1)	6.3	(1)	6.3	(1)	6.3	(0)	0.0
	전문대졸업	(31)	(6)	19.4	(6)	19.4	(4)	12.9	(6)	19.4	(4)	12.9	(1)	3.2
	대학 졸업(학사)	(445)	(145)	32.6	(93)	20.9	(66)	14.8	(56)	12.6	(63)	14.2	(11)	2.5
	대학원졸업(석사)	(242)	(84)	34.7	(43)	17.8	(46)	19.0	(30)	12.4	(19)	7.9	(15)	6.2
	대학원졸업(박사)	(35)	(7)	20.0	(6)	17.1	(2)	5.7	(3)	8.6	(4)	11.4	(12)	34.3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응답자(n=769), 기타 2.9%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표 36] 현 근무 기관 유형(타 분야)

		사례 수 (명)	국·공립· 공공기관		초·중, 고등학교		정부부처, 지자체		사기업		대학교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82)	(17)	20.7	(14)	17.1	(5)	6.1	(26)	31.7	(11)	13.4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71)	(15)	21.1	(12)	16.9	(4)	5.6	(21)	29.6	(10)	14.1
	신규 자격취득자	(11)	(2)	18.2	(2)	18.2	(1)	9.1	(5)	45.5	(1)	9.1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0)	-	-	-	-	-	-	-	-	-	-
	예술강사	(2)	(0)	0.0	(1)	50.0	(1)	50.0	(0)	0.0	(0)	0.0
	예술전공자	(75)	(16)	21.3	(12)	16.0	(3)	4.0	(26)	34.7	(11)	14.7
	국가무형문화재	(5)	(1)	20.0	(1)	20.0	(1)	20.0	(0)	0.0	(0)	0.0
성별	남성	(15)	(3)	20.0	(3)	20.0	(2)	13.3	(3)	20.0	(1)	6.7
	여성	(67)	(14)	20.9	(11)	16.4	(3)	4.5	(23)	34.3	(10)	14.9
연령 별	20대	(48)	(8)	16.7	(6)	12.5	(0)	0.0	(20)	41.7	(9)	18.8
	30대	(14)	(4)	28.6	(3)	21.4	(1)	7.1	(4)	28.6	(2)	14.3
	40대	(12)	(2)	16.7	(4)	33.3	(3)	25.0	(2)	16.7	(0)	0.0
	50대	(7)	(3)	42.9	(1)	14.3	(1)	14.3	(0)	0.0	(0)	0.0
	60대 이상	(1)	(0)	0.0	(0)	0.0	(0)	0.0	(0)	0.0	(0)	0.0
거주지 별	수도권	(54)	(8)	14.8	(8)	14.8	(4)	7.4	(20)	37.0	(8)	14.8
	부산/경남권	(7)	(1)	14.3	(2)	28.6	(0)	0.0	(1)	14.3	(2)	28.6
	대구/경북권	(5)	(0)	0.0	(2)	40.0	(0)	0.0	(2)	40.0	(0)	0.0
	대전/충청권	(3)	(0)	0.0	(2)	66.7	(0)	0.0	(1)	33.3	(0)	0.0
	광주/전라권	(9)	(6)	66.7	(0)	0.0	(1)	11.1	(1)	11.1	(1)	11.1
	강원, 제주	(4)	(2)	50.0	(0)	0.0	(0)	0.0	(1)	25.0	(0)	0.0
학력 별	고등학교졸업이하	(0)	-	-	-	-	-	-	-	-	-	-
	전문대졸업	(10)	(4)	40.0	(0)	0.0	(0)	0.0	(4)	40.0	(2)	20.0
	대학 졸업(학사)	(51)	(8)	15.7	(8)	15.7	(1)	2.0	(21)	41.2	(7)	13.7
	대학원졸업(석사)	(18)	(5)	27.8	(5)	27.8	(3)	16.7	(1)	5.6	(1)	5.6
	대학원졸업(박사)	(3)	(0)	0.0	(1)	33.3	(1)	33.3	(0)	0.0	(1)	33.3

※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준 내림차순 정렬

※ base : 타 분야에 종사하는 응답자(n=82), 기타 11.0%는 표에서 제외.

2) 근무 형태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76.6%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격요건별로 살펴보면, ‘비정규직’은 예술강사(90.6%)에서, ‘정규직’은 예술전공자(25.1%)와 국가무형문화재(30.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를 제외하고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0대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규 자격취득자는 ‘비정규직’(80.0%)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7] 현 소속기관/단체에서의 근무 형태(문화예술 관련 분야)

		사례수 (명)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명	%	명	%
전 체		(769)	(180)	23.4	(589)	76.6
기존/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674)	(161)	23.9	(513)	76.1
	신규 자격취득자	(95)	(19)	20.0	(76)	80.0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12)	(6)	50.0	(6)	50.0
	예술강사	(128)	(12)	9.4	(116)	90.6
	예술전공자	(554)	(139)	25.1	(415)	74.9
	국가무형문화재	(75)	(23)	30.7	(52)	69.3
성별	남성	(142)	(45)	31.7	(97)	68.3
	여성	(627)	(135)	21.5	(492)	78.5
연령별	20대	(278)	(61)	21.9	(217)	78.1
	30대	(214)	(61)	28.5	(153)	71.5
	40대	(151)	(32)	21.2	(119)	78.8
	50대	(95)	(20)	21.1	(75)	78.9
	60대 이상	(31)	(6)	19.4	(25)	80.6
거주지별	수도권	(345)	(94)	27.2	(251)	72.8
	부산/경남권	(111)	(21)	18.9	(90)	81.1
	대구/경북권	(78)	(13)	16.7	(65)	83.3
	대전/충청권	(96)	(20)	20.8	(76)	79.2
	광주/전라권	(114)	(28)	24.6	(86)	75.4
	강원, 제주	(25)	(4)	16.0	(21)	84.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6)	(4)	25.0	(12)	75.0
	전문대졸업	(31)	(5)	16.1	(26)	83.9
	대학 졸업(학사)	(445)	(90)	20.2	(355)	79.8
	대학원졸업(석사)	(242)	(66)	27.3	(176)	72.7
	대학원졸업(박사)	(35)	(15)	42.9	(20)	57.1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응답자(n=76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타 분야에서 종사하는 응답자는 32.9%가 ‘정규직’, 67.1%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표 38] 현 소속기관/단체에서의 근무 형태(타 분야)

		사례수 (명)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명	%	명	%
전 체		(82)	(27)	32.9	(55)	67.1
기존/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71)	(21)	29.6	(50)	70.4
	신규 자격취득자	(11)	(6)	54.5	(5)	45.5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0)	-	-	-	-
	예술강사	(2)	(0)	0.0	(2)	100.0
	예술전공자	(75)	(25)	33.3	(50)	66.7
	국가무형문화재	(5)	(2)	40.0	(3)	60.0
성별	남성	(15)	(5)	33.3	(10)	66.7
	여성	(67)	(22)	32.8	(45)	67.2
연령별	20대	(48)	(18)	37.5	(30)	62.5
	30대	(14)	(6)	42.9	(8)	57.1
	40대	(12)	(2)	16.7	(10)	83.3
	50대	(7)	(1)	14.3	(6)	85.7
	60대 이상	(1)	(0)	0.0	(1)	100.0
거주지별	수도권	(54)	(20)	37.0	(34)	63.0
	부산/경남권	(7)	(1)	14.3	(6)	85.7
	대구/경북권	(5)	(1)	20.0	(4)	80.0
	대전/충청권	(3)	(2)	66.7	(1)	33.3
	광주/전라권	(9)	(2)	22.2	(7)	77.8
	강원, 제주	(4)	(1)	25.0	(3)	75.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0)	-	-	-	-
	전문대졸업	(10)	(6)	60.0	(4)	40.0
	대학 졸업(학사)	(51)	(16)	31.4	(35)	68.6
	대학원졸업(석사)	(18)	(4)	22.2	(14)	77.8
	대학원졸업(박사)	(3)	(1)	33.3	(2)	66.7

※ base : 타 분야에 종사하는 응답자(n=8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3) 프리랜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있는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의 61.4%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이며, 53.0%는 ‘민간영역(문화센터, 기관, 학원 등)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평균 8년 9개월(104.6개월)이며, 민간영역에서 활동한 기간은 평균 8년 10개월(106.1개월)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중인 예술강사 활동영역

		사례수 (명)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		
			사례수	%	개월	사례수	%	개월
전 체		(1,120)	(688)	61.4	104.6	(594)	53.0	106.1
기존/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1,034)	(654)	63.2	108.5	(531)	51.4	110.7
	신규 자격취득자	(86)	(34)	39.5	28.9	(63)	73.3	67.4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12)	(7)	58.3	55.0	(8)	66.7	129.5
	예술강사	(432)	(381)	88.2	145.4	(119)	27.5	171.2
	예술전공자	(587)	(270)	46.0	46.7	(398)	67.8	69.5
	국가무형문화재	(89)	(30)	33.7	121.2	(69)	77.5	202.4
성별	남성	(179)	(98)	54.7	112.6	(111)	62.0	118.8
	여성	(941)	(590)	62.7	103.2	(483)	51.3	103.2
연령별	20대	(219)	(84)	38.4	22.2	(159)	72.6	27.9
	30대	(321)	(217)	67.6	96.6	(148)	46.1	85.9
	40대	(335)	(234)	69.9	123.2	(156)	46.6	143.9
	50대	(197)	(128)	65.0	124.7	(98)	49.7	178.2
	60대 이상	(48)	(25)	52.1	173.3	(33)	68.8	181.4
거주지별	수도권	(555)	(319)	57.5	90.6	(313)	56.4	91.1
	부산/경남권	(166)	(113)	68.1	118.4	(74)	44.6	113.9
	대구/경북권	(106)	(61)	57.5	108.4	(59)	55.7	105.7
	대전/충청권	(105)	(61)	58.1	129.7	(58)	55.2	120.1
	광주/전라권	(139)	(94)	67.6	114.1	(69)	49.6	136.0
	강원, 제주	(49)	(40)	81.6	111.2	(21)	42.9	167.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25)	(12)	48.0	199.5	(22)	88.0	201.5
	전문대졸업	(61)	(31)	50.8	82.4	(36)	59.0	78.2
	대학 졸업(학사)	(571)	(337)	59.0	93.8	(313)	54.8	80.1
	대학원졸업(석사)	(422)	(287)	68.0	115.4	(199)	47.2	132.3
	대학원졸업(박사)	(41)	(21)	51.2	110.1	(24)	58.5	183.2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를 하고 있는 응답자(n=1,120),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점

경제활동을 하는 자격소지자의 64.3%는 경제활동 후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35.7%는 경제활동 전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요건별로 살펴보면, 예술전공자(49.9%)는 경제활동 전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예술강사(92.7%)와 국가무형문화재(81.3%)는 경제활동 후에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69.0%)는 경제활동 전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이상은 경제활동 후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규 자격취득자의 73.5%가 경제활동 한 뒤에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점

		사례수 (명)	경제활동 전 취득		경제활동 후 취득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2,210)	(789)	35.7	(1,421)	64.3
기존/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1,980)	(728)	36.8	(1,252)	63.2
	신규 자격취득자	(230)	(61)	26.5	(169)	73.5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27)	(9)	33.3	(18)	66.7
	예술강사	(587)	(43)	7.3	(544)	92.7
	예술전공자	(1,404)	(701)	49.9	(703)	50.1
	국가무형문화재	(192)	(36)	18.8	(156)	81.3
성별	남성	(380)	(120)	31.6	(260)	68.4
	여성	(1,830)	(669)	36.6	(1,161)	63.4
연령별	20대	(651)	(449)	69.0	(202)	31.0
	30대	(605)	(186)	30.7	(419)	69.3
	40대	(543)	(88)	16.2	(455)	83.8
	50대	(321)	(52)	16.2	(269)	83.8
	60대 이상	(90)	(14)	15.6	(76)	84.4
거주지별	수도권	(1,073)	(406)	37.8	(667)	62.2
	부산/경남권	(316)	(106)	33.5	(210)	66.5
	대구/경북권	(218)	(90)	41.3	(128)	58.7
	대전/충청권	(224)	(71)	31.7	(153)	68.3
	광주/전라권	(296)	(92)	31.1	(204)	68.9
	강원, 제주	(83)	(24)	28.9	(59)	71.1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45)	(6)	13.3	(39)	86.7
	전문대졸업	(119)	(54)	45.4	(65)	54.6
	대학 졸업(학사)	(1,224)	(529)	43.2	(695)	56.8
	대학원졸업(석사)	(738)	(186)	25.2	(552)	74.8
	대학원졸업(박사)	(84)	(14)	16.7	(70)	83.3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n=2,21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5. 자격취득 만족도

가. 업무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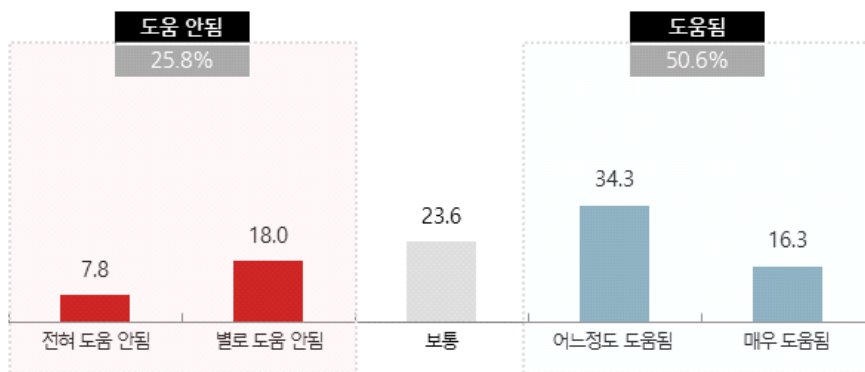
경제활동을 하는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50.6%(매우 도움이 된다 16.3%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34.3%)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25.8%(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7.8%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8.0%)로 나타났다. 자격요건별로 살펴보면, 예술전공자가 평균 3.37점(5점 만점)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평균 3.47점(5점 만점))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규 자격취득자의 업무 도움 정도는 3.44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기존 자격소지자에 비해 업무 도움 정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

(n=2,210, 단위 : %,점(5점 만점))

평균: 3.33점



[표 4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

		사례수 (명)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보통 이다	④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 안됨 (①+②)	도움 됨 (④+⑤)	5점 평균
			%	%	%	%	%	%	%	점
전 체		(2,210)	7.8	18.0	23.6	34.3	16.3	25.8	50.6	3.33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1,980)	8.1	18.4	23.2	33.7	16.5	26.6	50.2	3.32
	신규 자격취득자	(230)	5.2	14.3	26.5	39.1	14.8	19.6	53.9	3.44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27)	11.1	3.7	25.9	40.7	18.5	14.8	59.3	3.52
	예술강사	(587)	9.9	20.1	21.5	31.3	17.2	30.0	48.6	3.26
	예술전공자	(1,404)	6.7	17.3	24.3	35.9	15.8	24.0	51.7	3.37
	국가무형문화재	(192)	9.4	18.8	24.5	30.2	17.2	28.1	47.4	3.27
성별	남성	(380)	9.2	18.9	23.2	31.8	16.8	28.2	48.7	3.28
	여성	(1,830)	7.5	17.8	23.7	34.8	16.2	25.4	51.0	3.34
연령별	20대	(651)	4.3	15.2	24.9	40.6	15.1	19.5	55.6	3.47
	30대	(605)	8.9	20.0	23.3	33.1	14.7	28.9	47.8	3.25
	40대	(543)	9.2	19.2	23.9	29.8	17.9	28.4	47.7	3.28
	50대	(321)	8.4	16.5	23.4	32.7	19.0	24.9	51.7	3.37
	60대 이상	(90)	15.6	23.3	14.4	28.9	17.8	38.9	46.7	3.10
거주지 별	수도권	(1,073)	8.5	18.6	24.9	34.5	13.5	27.1	48.0	3.26
	부산/경남권	(316)	8.5	20.3	25.6	32.9	12.7	28.8	45.6	3.21
	대구/경북권	(218)	7.8	16.5	24.8	29.8	21.1	24.3	50.9	3.40
	대전/충청권	(224)	4.0	13.8	23.2	35.3	23.7	17.9	58.9	3.61
	광주/전라권	(296)	7.8	17.6	17.6	37.2	19.9	25.3	57.1	3.44
	강원, 제주	(83)	7.2	18.1	18.1	34.9	21.7	25.3	56.6	3.46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45)	11.1	11.1	15.6	40.0	22.2	22.2	62.2	3.51
	전문대졸업	(119)	7.6	13.4	26.9	38.7	13.4	21.0	52.1	3.37
	대학 졸업(학사)	(1,224)	6.8	16.2	23.3	36.4	17.4	23.0	53.8	3.41
	대학원졸업(석사)	(738)	8.1	21.5	24.5	31.6	14.2	29.7	45.8	3.22
	대학원졸업(박사)	(84)	19.0	23.8	19.0	17.9	20.2	42.9	38.1	2.96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n=2,21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기

경제활동을 하는 자격소지자 중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2017년 평균 2.84점, 2018년 평균 2.95점, 2019년 평균 3.07점, 2020년 평균 3.33점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격요건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2017-202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 비교 분석

		사례수 (명)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평 균 (5점 척도)	
			%	GAP ¹¹⁾	%	GAP	%	GAP	%	GAP	%	GAP	점	GAP
전 체	2017년	(3,542)	16.4		25.4		25.0		24.4		8.9		2.84	
	2018년	(3,288)	15.4	-1.0	23.2	-2.2	22.3	-2.7	28.8	4.4	10.2	1.3	2.95	0.11
	2019년	(3,205)	12.0	-3.4	22.0	-1.2	24.9	2.6	29.2	0.4	11.9	1.7	3.07	0.12
	2020년	(2,210)	7.8	-4.2	18.0	-4.0	23.6	-1.3	34.3	5.1	16.3	4.4	3.33	0.26
고졸/ 비전공자	2017년	(86)	22.1		19.8		20.9		24.4		12.8		2.86	
	2018년	(78)	7.7	-14.4	29.5	9.7	14.1	-6.8	41.0	16.6	7.7	-5.1	3.12	0.26
	2019년	(72)	12.5	4.8	19.4	-10.1	20.8	6.7	36.1	-4.9	11.1	3.4	3.14	0.02
	2020년	(27)	11.1	-1.4	3.7	-15.7	25.9	5.1	40.7	4.6	18.5	7.4	3.52	0.38
예술강사	2017년	(1,332)	13.1		25.2		26.6		25.0		10.1		2.94	
	2018년	(975)	15.8	2.7	21.9	-3.3	24.7	-1.9	24.6	-0.4	12.9	2.8	2.97	0.03
	2019년	(966)	13.9	-1.9	20.2	-1.7	26.7	2.0	26.1	1.5	13.1	0.2	3.04	0.07
	2020년	(587)	9.9	-4.0	20.1	-0.1	21.5	-5.2	31.3	5.2	17.2	4.1	3.26	0.22
예술 전공자	2017년	(1,606)	18.9		24.8		24.8		24.3		7.1		2.76	
	2018년	(1,771)	16.9	-2.0	23.1	-1.7	24.1	-0.7	27.0	2.7	8.9	1.8	2.88	0.12
	2019년	(1,762)	11.4	-5.5	21.9	-1.2	24.9	0.8	30.5	3.5	11.4	2.5	3.09	0.21
	2020년	(1,404)	6.7	-4.7	17.3	-4.6	24.3	-0.6	35.9	5.4	15.8	4.4	3.37	0.28
국가무형 문화재	2017년	(518)	15.8		28.6		21.8		23.2		10.6		2.84	
	2018년	(464)	10.3	-5.5	25.4	-3.2	11.9	-9.9	42.5	19.3	9.9	-0.7	3.16	0.32
	2019년	(405)	10.4	0.1	27.2	1.8	21.5	9.6	30.1	-12.4	10.9	1.0	3.04	-0.12
	2020년	(192)	9.4	-1.0	18.8	-8.5	24.5	3.0	30.2	0.1	17.2	6.3	3.27	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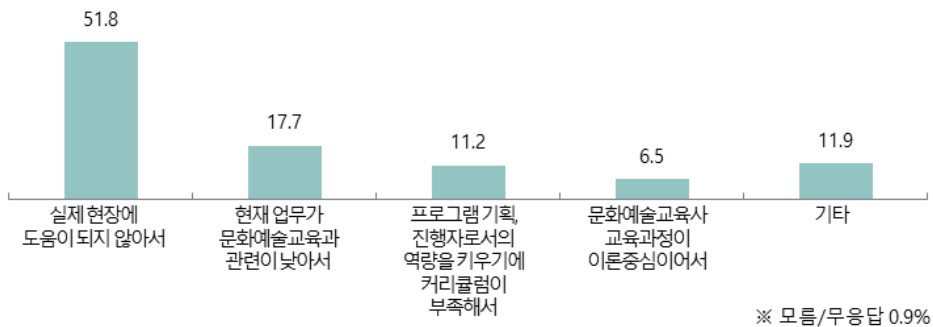
11) GAP :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와의 차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 되지 않는 이유는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51.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낮아서’(17.7%),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커리큘럼이 부족해서’(11.2%),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이론중심이어서’(6.5%)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기관 담당자들의 인지도가 부족해서’ 등이 있었다.

기존 자격소지자(53.8%), 예술강사(69.3%)와 국가무형문화재(66.7%), 30대 이상(30대 57.1%, 40대 54.5%, 50대 60.0%, 60대 이상 68.6%)은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예술전공자(24.9%), 20대(36.2%)는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낮아서’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n=571, 단위 : %)



[표 4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사례수 (명)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낮아서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커리큘럼이 부족해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이론 중심 이어서	
			명	%	명	%	명	%	명	%
전 체		(571)	(296)	51.8	(101)	17.7	(64)	11.2	(37)	6.5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526)	(283)	53.8	(89)	16.9	(58)	11.0	(31)	5.9
	신규 자격취득자	(45)	(13)	28.9	(12)	26.7	(6)	13.3	(6)	13.3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4)	(1)	25.0	(2)	50.0	(0)	0.0	(0)	0.0
	예술강사	(176)	(122)	69.3	(10)	5.7	(13)	7.4	(13)	7.4
	예술전공자	(337)	(137)	40.7	(84)	24.9	(50)	14.8	(22)	6.5
	국가무형문화재	(54)	(36)	66.7	(5)	9.3	(1)	1.9	(2)	3.7
성별	남성	(107)	(69)	64.5	(19)	17.8	(5)	4.7	(2)	1.9
	여성	(464)	(227)	48.9	(82)	17.7	(59)	12.7	(35)	7.5
연령별	20대	(127)	(40)	31.5	(46)	36.2	(15)	11.8	(6)	4.7
	30대	(175)	(100)	57.1	(23)	13.1	(21)	12.0	(13)	7.4
	40대	(154)	(84)	54.5	(19)	12.3	(19)	12.3	(11)	7.1
	50대	(80)	(48)	60.0	(9)	11.3	(8)	10.0	(6)	7.5
	60대 이상	(35)	(24)	68.6	(4)	11.4	(1)	2.9	(1)	2.9
거주지 별	수도권	(291)	(130)	44.7	(62)	21.3	(36)	12.4	(19)	6.5
	부산/경남권	(91)	(47)	51.6	(17)	18.7	(10)	11.0	(4)	4.4
	대구/경북권	(53)	(33)	62.3	(7)	13.2	(7)	13.2	(1)	1.9
	대전/충청권	(40)	(23)	57.5	(6)	15.0	(4)	10.0	(5)	12.5
	광주/전라권	(75)	(48)	64.0	(9)	12.0	(7)	9.3	(5)	6.7
	강원, 제주	(21)	(15)	71.4	(0)	0.0	(0)	0.0	(3)	14.3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0)	(5)	50.0	(1)	10.0	(1)	10.0	(1)	10.0
	전문대졸업	(25)	(13)	52.0	(5)	20.0	(0)	0.0	(1)	4.0
	대학 졸업(학사)	(281)	(129)	45.9	(60)	21.4	(34)	12.1	(19)	6.8
	대학원졸업(석사)	(219)	(124)	56.6	(32)	14.6	(26)	11.9	(15)	6.8
	대학원졸업(박사)	(36)	(25)	69.4	(3)	8.3	(3)	8.3	(1)	2.8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 안됨’ 응답자(n=571)

※ 기타 11.9%, 모름/무응답 0.9%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를 비교 분석한 결과, 4개년 모두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업무가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이 낮아서’,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커리큘럼이 부족해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이론 중심이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2017~202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비교 분석

		사례수 (곳)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이 낮아서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커리큘럼이 부족해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이론 중심이어서	
			%	GAP ¹²⁾	%	GAP	%	GAP	%	GAP
전 체	2017년	(2,364)	50.6		18.9		12.9		7.4	
	2018년	(1,271)	59.8	9.2	23.4	4.5	8.3	-4.6	5.4	-2.0
	2019년	(1,090)	56.6	-3.2	17.2	-6.2	11.4	3.1	3.8	-1.6
	2020년	(571)	51.8	-4.8	17.7	0.5	11.2	-0.2	6.5	2.7
고졸/ 비전공자	2017년	(54)	61.1		18.5		7.4		7.4	
	2018년	(29)	58.6	-2.5	34.5	16.0	6.9	-0.5	0.0	-7.4
	2019년	(23)	39.1	-19.5	30.4	-4.1	8.7	1.8	0.0	0.0
	2020년	(4)	25.0	-14.1	50.0	19.6	0.0	-8.7	0.0	0.0
예술강사	2017년	(865)	61.5		7.9		13.2		6.9	
	2018년	(368)	72.0	10.5	14.1	6.2	6.8	-6.4	3.3	-3.6
	2019년	(329)	68.4	-3.6	6.7	-7.4	10.0	3.2	2.4	-0.9
	2020년	(176)	69.3	0.9	5.7	-1.0	7.4	-2.6	7.4	5.0
예술 전공자	2017년	(1,102)	35.5		29.7		14.2		8.9	
	2018년	(708)	51.6	16.1	28.8	-0.9	9.7	-4.5	7.1	-1.8
	2019년	(586)	48.1	-3.5	24.1	-4.7	12.1	2.4	4.9	-2.2
	2020년	(337)	40.7	-7.4	24.9	0.8	14.8	2.7	6.5	1.6
국가무형 문화재	2017년	(343)	70.3		12.2		8.7		3.5	
	2018년	(166)	68.1	-2.2	18.7	6.5	6.0	-2.7	3.6	0.1
	2019년	(152)	66.4	-1.7	11.8	-6.9	11.8	5.8	2.6	-1.0
	2020년	(54)	66.7	0.3	9.3	-2.5	1.9	-9.9	3.7	1.1

※ 2020년 기준 내림자순 정렬하였으며, ‘기타’는 비교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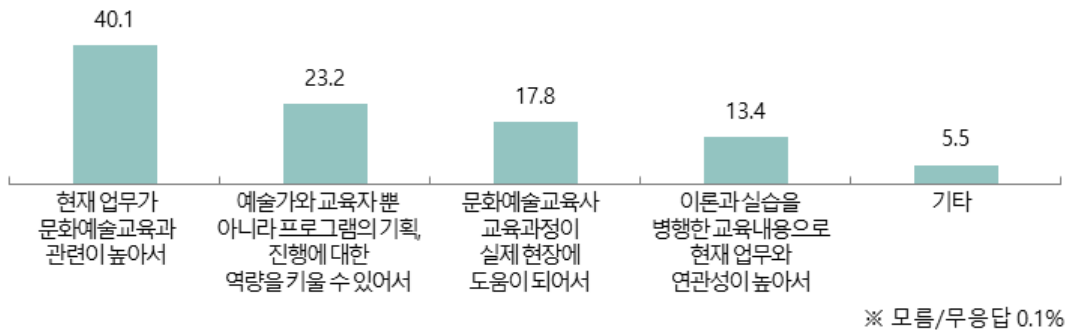
12)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와의 차이

반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높아서’가 40.1%로 가장 높고, ‘예술가와 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23.2%),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17.8%)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자격증을 의무/필요화해서’,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필요해서’ 등이 있었다.

예술강사(43.9%), 여성(42.2%), 20대(42.3%)는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높아서’, 예술전공자(24.7%), 남성(31.9%), 50대(27.1%)는 ‘예술가와 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

(n=1,118, 단위 : %)



[표 45]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

		사례수 (명)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이 높아서		예술가와 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내용으로 현재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118)	(448)	40.1	(259)	23.2	(199)	17.8	(150)	13.4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994)	(405)	40.7	(236)	23.7	(169)	17.0	(126)	12.7
	신규 자격취득자	(124)	(43)	34.7	(23)	18.5	(30)	24.2	(24)	19.4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16)	(5)	31.3	(2)	12.5	(6)	37.5	(2)	12.5
	예술강사	(285)	(125)	<u>43.9</u>	(58)	20.4	(51)	17.9	(30)	10.5
	예술전공자	(726)	(283)	39.0	(179)	<u>24.7</u>	(123)	16.9	(104)	14.3
	국가무형문화재	(91)	(35)	38.5	(20)	22.0	(19)	20.9	(14)	15.4
성별	남성	(185)	(54)	29.2	(59)	<u>31.9</u>	(32)	17.3	(30)	16.2
	여성	(933)	(394)	<u>42.2</u>	(200)	21.4	(167)	17.9	(120)	12.9
연령별	20대	(362)	(153)	<u>42.3</u>	(80)	22.1	(61)	16.9	(58)	16.0
	30대	(289)	(117)	40.5	(62)	21.5	(55)	19.0	(38)	13.1
	40대	(259)	(106)	40.9	(62)	23.9	(39)	15.1	(29)	11.2
	50대	(166)	(60)	36.1	(45)	<u>27.1</u>	(32)	19.3	(19)	11.4
	60대 이상	(42)	(12)	28.6	(10)	23.8	(12)	28.6	(6)	14.3
거주지 별	수도권	(515)	(202)	39.2	(117)	22.7	(98)	19.0	(68)	13.2
	부산/경남권	(144)	(64)	44.4	(34)	23.6	(21)	14.6	(17)	11.8
	대구/경북권	(111)	(45)	40.5	(26)	23.4	(20)	18.0	(14)	12.6
	대전/충청권	(132)	(48)	36.4	(33)	25.0	(21)	15.9	(21)	15.9
	광주/전라권	(169)	(69)	40.8	(38)	22.5	(31)	18.3	(27)	16.0
	강원, 제주	(47)	(20)	42.6	(11)	23.4	(8)	17.0	(3)	6.4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28)	(9)	32.1	(4)	14.3	(9)	32.1	(5)	17.9
	전문대졸업	(62)	(26)	41.9	(10)	16.1	(14)	22.6	(8)	12.9
	대학 졸업(학사)	(658)	(262)	39.8	(158)	24.0	(114)	17.3	(92)	14.0
	대학원졸업(석사)	(338)	(146)	43.2	(74)	21.9	(58)	17.2	(39)	11.5
	대학원졸업(박사)	(32)	(5)	15.6	(13)	40.6	(4)	12.5	(6)	18.8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됨’ 응답자(n=1,118)

※ 기타 5.5%, 모름/무응답 0.1%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비교 분석한 결과, 4개년 모두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이 높아서’, ‘예술가와 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내용으로 현재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 2017-202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 비교 분석

		사례수 (명)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높아서		예술가와 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내용으로 현재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	
			명	GAP ¹³⁾	명	GAP	명	GAP	명	GAP
전 체	2017년	(1,178)	46.5		22.6		15.0		11.5	
	2018년	(1,283)	46.0	-0.5	18.8	-3.8	17.8	2.8	14.5	3.0
	2019년	(1,317)	42.2	-3.8	21.6	2.8	19.4	1.6	13.7	-0.8
	2020년	(1,118)	40.1	-2.1	23.2	1.6	17.8	-1.6	13.4	-0.3
고졸/ 비전공자	2017년	(32)	50.0		15.6		15.6		15.6	
	2018년	(38)	55.3	5.3	15.8	0.2	21.1	5.5	7.9	-7.7
	2019년	(34)	38.2	-17.1	20.6	4.8	14.7	-6.4	26.5	18.6
	2020년	(16)	31.3	-7.0	12.5	-8.1	37.5	22.8	12.5	-14.0
예술강사	2017년	(467)	53.7		16.9		12.2		12.4	
	2018년	(366)	51.9	-1.8	14.8	-2.1	13.4	1.2	15.6	3.2
	2019년	(379)	49.6	-2.3	14.0	-0.8	19.5	6.1	12.7	-2.9
	2020년	(285)	43.9	-5.7	20.4	6.4	17.9	-1.6	10.5	-2.2
예술 전공자	2017년	(504)	37.9		32.3		13.9		10.7	
	2018년	(636)	39.5	1.6	23.6	-8.7	17.1	3.2	17.0	6.3
	2019년	(738)	37.1	-2.4	28.0	4.4	17.8	0.7	14.1	-2.9
	2020년	(726)	39.0	1.9	24.7	-3.3	16.9	-0.9	14.3	0.2
국가무형 문화재	2017년	(175)	51.4		10.9		25.7		10.9	
	2018년	(243)	52.7	1.3	12.8	1.9	25.5	-0.2	7.4	-3.5
	2019년	(166)	48.8	-3.9	10.2	-2.6	27.7	2.2	11.4	4.0
	2020년	(91)	38.5	-10.3	22.0	11.8	20.9	-6.8	15.4	4.0

※ 2020년 기준 내림차순 정렬하였으며, ‘기타’는 비교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13)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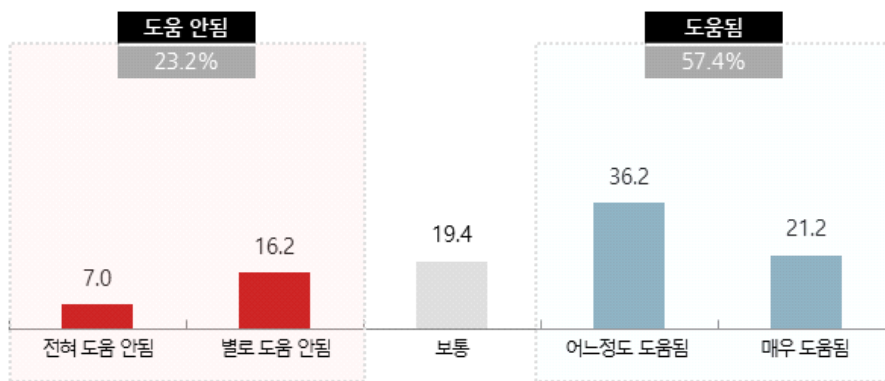
나. 구직 시 도움 정도

경제활동 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구직 시 자격증의 도움 정도를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57.4%(매우 도움이 되었다 21.2% +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36.2%)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23.2%(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7.0% +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16.2%)로 나타났다. 자격요건별로 살펴보면, 국가무형문화재가 평균 3.72점(5점 만점)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를 가장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평균 3.54점(5점 만점))와 30대(평균 3.52점(5점 만점))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7]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도움 정도

(n=789, 단위 : %,점(5점 만점))

평균: 3.48점



[표 47]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도움 정도

		사례수 (명)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 이었다	④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도움 안됨 (①+②)	도움 됨 (④+⑤)	5점 평균
			%	%	%	%	%	%	%	점
전 체		(789)	7.0	16.2	19.4	36.2	21.2	23.2	57.4	3.48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728)	7.0	16.3	19.2	35.9	21.6	23.4	57.4	3.49
	신규 자격취득자	(61)	6.6	14.8	21.3	41.0	16.4	21.3	57.4	3.46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9)	0.0	22.2	0.0	33.3	44.4	22.2	77.8	4.00
	예술강사	(43)	11.6	23.3	32.6	16.3	16.3	34.9	32.6	3.02
	예술전공자	(701)	6.6	16.0	19.1	38.2	20.1	22.5	58.3	3.49
	국가무형문화재	(36)	11.1	11.1	13.9	22.2	41.7	22.2	63.9	3.72
성별	남성	(120)	10.8	15.0	19.2	33.3	21.7	25.8	55.0	3.40
	여성	(669)	6.3	16.4	19.4	36.8	21.1	22.7	57.8	3.50
연령별	20대	(449)	5.8	15.1	20.7	38.8	19.6	20.9	58.4	3.51
	30대	(186)	8.6	15.1	17.2	34.4	24.7	23.7	59.1	3.52
	40대	(88)	11.4	21.6	19.3	28.4	19.3	33.0	47.7	3.23
	50대	(52)	1.9	25.0	13.5	36.5	23.1	26.9	59.6	3.54
	60대 이상	(14)	14.3	0.0	28.6	28.6	28.6	14.3	57.1	3.57
거주지별	수도권	(406)	7.9	16.5	20.4	36.9	18.2	24.4	55.2	3.41
	부산/경남권	(106)	8.5	16.0	17.9	37.7	19.8	24.5	57.5	3.44
	대구/경북권	(90)	3.3	20.0	20.0	32.2	24.4	23.3	56.7	3.54
	대전/충청권	(71)	1.4	15.5	12.7	40.8	29.6	16.9	70.4	3.82
	광주/전라권	(92)	10.9	12.0	20.7	31.5	25.0	22.8	56.5	3.48
	강원, 제주	(24)	0.0	16.7	20.8	37.5	25.0	16.7	62.5	3.71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6)	33.3	16.7	0.0	16.7	33.3	50.0	50.0	3.00
	전문대졸업	(54)	7.4	13.0	18.5	42.6	18.5	20.4	61.1	3.52
	대학 졸업(학사)	(529)	5.5	14.6	18.7	39.1	22.1	20.0	61.2	3.58
	대학원졸업(석사)	(186)	8.1	21.0	23.1	29.0	18.8	29.0	47.8	3.30
	대학원졸업(박사)	(14)	35.7	28.6	7.1	7.1	21.4	64.3	28.6	2.50

※ base : 경제활동 전 자격증 취득한 응답자(n=78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기

경제 활동하기 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17년 평균 2.63점, 2018년 평균 3.00점, 2019년 평균 3.23 2020년 평균 3.48점으로 계속해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격요건에서 2019년 대비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가 상승했으며, 특히 국가무형문화재에서 2019년 대비 평균 0.78점이 상승하였다.

[표 48] 2016-2020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도움 정도 비교 분석

		사례 수 (명)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평 균 (5점 척도)	
			%	GAP ¹⁴⁾	%	GAP	%	GAP	%	GAP	%	GAP	점	GAP
전 체	2016년	(1,608)	20.5		25.9		27.7		18.9		7.0		2.66	
	2017년	(2,215)	22.1	1.6	28.0	2.1	21.3	-6.4	21.7	2.8	7.0	0.0	2.63	-0.03
	2018년	(942)	15.7	-6.4	20.8	-7.2	24.0	2.7	26.4	4.7	13.1	6.1	3.00	0.37
	2019년	(1,064)	11.3	-4.4	18.8	-2.0	21.2	-2.8	33.4	7.0	15.3	2.2	3.23	0.23
	2020년	(789)	7.0	-4.3	16.2	-2.6	19.4	-1.8	36.2	2.8	21.2	5.9	3.48	0.25
고졸/ 비전공자	2016년	(52)	26.9		21.2		23.1		13.5		15.4		2.69	
	2017년	(92)	30.4	3.5	20.7	-0.5	14.1	-9.0	25.0	11.5	9.8	-5.6	2.62	-0.07
	2018년	(15)	13.3	-17.1	13.3	-7.4	26.7	12.6	40.0	15.0	6.7	-3.1	3.13	0.51
	2019년	(17)	0.0	-13.3	11.8	-1.5	23.5	-3.2	52.9	12.9	11.8	5.1	3.65	0.52
	2020년	(9)	0.0	0.0	22.2	10.4	0.0	-23.5	33.3	-19.6	44.4	32.6	4.00	0.35
예술강사	2016년	(246)	29.3		25.6		28.0		13.4		3.7		2.37	
	2017년	(221)	25.8	-3.5	26.7	1.1	23.1	-4.9	18.6	5.2	5.9	2.2	2.52	0.15
	2018년	(43)	23.3	-2.5	11.6	-15.1	25.6	2.5	25.6	7.0	14.0	8.1	2.95	0.43
	2019년	(50)	16.0	-7.3	26.0	14.4	18.0	-7.6	30.0	4.4	10.0	-4.0	2.92	-0.03
	2020년	(43)	11.6	-4.4	23.3	-2.7	32.6	14.6	16.3	-13.7	16.3	6.3	3.02	0.10
예술 전공자	2016년	(1,237)	18.4		26.4		28.2		20.3		6.6		2.70	
	2017년	(1,692)	21.4	3.0	29.2	2.8	22.0	-6.2	21.6	1.3	5.8	-0.8	2.61	-0.09
	2018년	(870)	15.4	-6.0	21.4	-7.8	23.6	1.6	26.7	5.1	13.0	7.2	3.00	0.39
	2019년	(965)	11.1	-4.3	18.4	-3.0	21.3	-2.3	33.2	6.5	16.0	3.0	3.24	0.24
	2020년	(701)	6.6	-4.5	16.0	-2.4	19.1	-2.2	38.2	5.0	20.1	4.1	3.49	0.25
국가무형 문화재	2016년	(73)	21.9		20.5		20.5		17.8		19.2		2.92	
	2017년	(210)	20.0	-1.9	22.9	2.4	16.2	-4.3	24.8	7.0	16.2	-3.0	2.94	0.02
	2018년	(14)	14.3	-5.7	21.4	-1.5	42.9	26.7	0.0	-24.8	21.4	5.2	2.93	-0.01
	2019년	(32)	15.6	1.3	21.9	0.5	21.9	-21.0	34.4	34.4	6.3	-15.1	2.94	0.01
	2020년	(36)	11.1	-4.5	11.1	-10.8	13.9	-8.0	22.2	-12.2	41.7	35.4	3.72	0.7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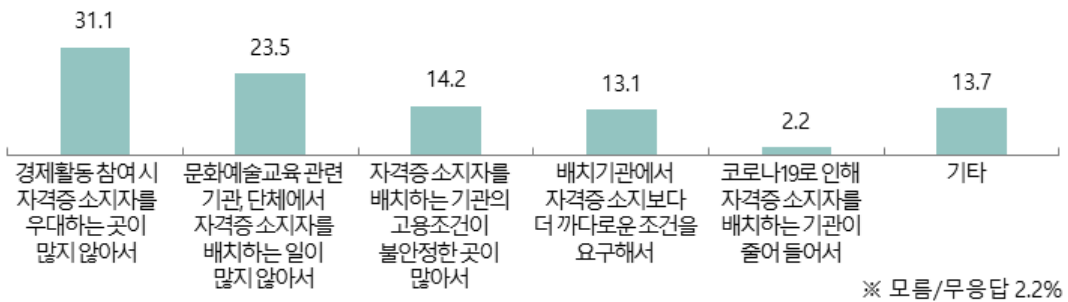
14)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와의 차이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가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23.5%),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곳이 많아서’(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종/업무가 아니라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등이 있었다.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기존 자격소지자(30.6%), 예술전공자(31.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8]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n=183, 단위 : %)



[표 49]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사례수 (명)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 조건이 불안정한 곳이 많아서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서		코로나 19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이 줄어들어서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83)	(57)	31.1	(43)	23.5	(26)	14.2	(24)	13.1	(4)	2.2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170)	(52)	30.6	(40)	23.5	(24)	14.1	(23)	13.5	(3)	1.8
	신규 자격취득자	(13)	(5)	38.5	(3)	23.1	(2)	15.4	(1)	7.7	(1)	7.7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2)	(0)	0.0	(1)	50.0	(1)	50.0	(0)	0.0	(0)	0.0
	예술강사	(15)	(3)	20.0	(6)	40.0	(3)	20.0	(2)	13.3	(1)	6.7
	예술전공자	(158)	(49)	31.0	(34)	21.5	(22)	13.9	(22)	13.9	(3)	1.9
	국가무형문화재	(8)	(5)	62.5	(2)	25.0	(0)	0.0	(0)	0.0	(0)	0.0
성별	남성	(31)	(11)	35.5	(8)	25.8	(3)	9.7	(4)	12.9	(0)	0.0
	여성	(152)	(46)	30.3	(35)	23.0	(23)	15.1	(20)	13.2	(4)	2.6
연령별	20대	(94)	(28)	29.8	(18)	19.1	(14)	14.9	(16)	17.0	(1)	1.1
	30대	(44)	(14)	31.8	(10)	22.7	(5)	11.4	(6)	13.6	(2)	4.5
	40대	(29)	(10)	34.5	(8)	27.6	(5)	17.2	(2)	6.9	(0)	0.0
	50대	(14)	(3)	21.4	(7)	50.0	(2)	14.3	(0)	0.0	(1)	7.1
	60대 이상	(2)	(2)	100.0	(0)	0.0	(0)	0.0	(0)	0.0	(0)	0.0
거주지 별	수도권	(99)	(39)	39.4	(17)	17.2	(12)	12.1	(13)	13.1	(2)	2.0
	부산/경남권	(26)	(6)	23.1	(7)	26.9	(5)	19.2	(5)	19.2	(1)	3.8
	대구/경북권	(21)	(3)	14.3	(10)	47.6	(2)	9.5	(1)	4.8	(0)	0.0
	대전/충청권	(12)	(3)	25.0	(2)	16.7	(3)	25.0	(1)	8.3	(1)	8.3
	광주/전라권	(21)	(6)	28.6	(5)	23.8	(2)	9.5	(4)	19.0	(0)	0.0
	강원, 제주	(4)	(0)	0.0	(2)	50.0	(2)	50.0	(0)	0.0	(0)	0.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3)	(2)	66.7	(1)	33.3	(0)	0.0	(0)	0.0	(0)	0.0
	전문대졸업	(11)	(2)	18.2	(3)	27.3	(0)	0.0	(3)	27.3	(0)	0.0
	대학 졸업(학사)	(106)	(32)	30.2	(28)	26.4	(14)	13.2	(12)	11.3	(2)	1.9
	대학원졸업(석사)	(54)	(16)	29.6	(11)	20.4	(11)	20.4	(8)	14.8	(2)	3.7
	대학원졸업(박사)	(9)	(5)	55.6	(0)	0.0	(1)	11.1	(1)	11.1	(0)	0.0

※ base :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 안됨' 응답자(n=183)

※ 기타 13.7%, 모름/무응답 2.2%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를 비교 분석한 결과, 5개년 모두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을 우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의무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곳이 많아서’,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0] 2016-2020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비교 분석

		사례 수 (곳)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의무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 조건이 불안정한 곳이 많아서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서		코로나 19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이 줄어들어서	
			%	GAP ¹⁵⁾	%	GAP	%	GAP	%	GAP	%	GAP
전 체	2016년	(746)	41.4		22.3		16.7		9.8		-	
	2017년	(1,580)	32.2	-9.2	25.0	2.7	18.8	2.1	12.8	3.0	-	-
	2018년	(344)	46.8	14.6	26.7	1.7	9.9	-8.9	5.8	-7.0	-	-
	2019년	(320)	45.0	-1.8	27.2	0.5	12.5	2.6	9.4	3.6	-	-
	2020년	(183)	31.1	-13.9	23.5	-3.7	14.2	1.7	13.1	3.7	2.2	-
고졸/ 비전공자	2016년	(25)	48.0		16.0		8.0		16.0		-	
	2017년	(60)	38.3	-9.7	15.0	-1.0	6.7	-1.3	13.3	-2.7	-	-
	2018년	(4)	50.0	11.7	50.0	35.0	0.0	-6.7	0.0	-13.3	-	-
	2019년	(2)	50.0	0.0	0.0	-50.0	0.0	0.0	50.0	50.0	-	-
	2020년	(2)	0.0	-50.0	50.0	50.0	50.0	50.0	0.0	-50.0	0.0	-
예술강사	2016년	(135)	37.8		20.7		30.4		4.4		-	
	2017년	(167)	35.3	-2.5	25.7	5.0	22.8	-7.6	3.0	-1.4	-	-
	2018년	(15)	20.0	-15.3	46.7	21.0	20.0	-2.8	0.0	-3.0	-	-
	2019년	(21)	52.4	32.4	14.3	-32.4	9.5	-10.5	9.5	9.5	-	-
	2020년	(15)	20.0	-32.4	40.0	25.7	20.0	10.5	13.3	3.8	6.7	-
예술 전공자	2016년	(555)	42.7		23.2		14.1		10.5		-	
	2017년	(1,229)	31.0	-11.7	24.7	1.5	19.0	4.9	14.7	4.2	-	-
	2018년	(320)	48.1	17.1	25.6	0.9	9.1	-9.9	6.3	-8.4	-	-
	2019년	(285)	44.9	-3.2	28.1	2.5	12.6	3.5	9.5	3.2	-	-
	2020년	(158)	31.0	-13.9	21.5	-6.6	13.9	1.3	13.9	4.4	1.9	-
국가무형 문화재	2016년	(31)	29.0		19.4		9.7		16.1		-	
	2017년	(124)	37.1	8.1	31.5	12.1	16.9	7.2	7.3	-8.8	-	-
	2018년	(5)	40.0	2.9	20.0	-11.5	40.0	23.1	0.0	-7.3	-	-
	2019년	(12)	33.3	-6.7	33.3	13.3	16.7	-23.3	0.0	0.0	-	-
	2020년	(8)	62.5	29.2	25.0	-8.3	0.0	-16.7	0.0	0.0	0.0	-

※ 2020년 기준 내림차순 정렬하였으며, ‘기타’는 비교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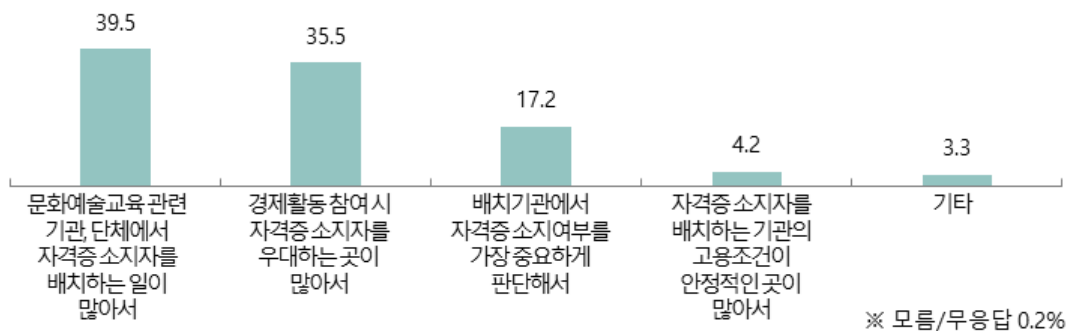
※ ‘코로나 19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이 줄어들어서’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2020년 추가된 보기임

15)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의 차이

반면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된 이유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아서’(39.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아서’(35.5%),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서’(17.2%),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조건이 안정적인 곳이 많아서’(4.2%)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서류 심사/면접/이력/취업에 도움이 되어서’,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전문성이 인정되어서’, ‘실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가 있었다.

[그림 9]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된 이유

(n=453, 단위 : %)



[표 51]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된 이유

		사례수 (명)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아서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아서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 조건이 안정적인 곳이 많아서	
			명	%	명	%	명	%	명	%
전 체		(453)	(179)	39.5	(161)	35.5	(78)	17.2	(19)	4.2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418)	(170)	40.7	(152)	36.4	(71)	17.0	(9)	2.2
	신규 자격취득자	(35)	(9)	25.7	(9)	25.7	(7)	20.0	(10)	28.6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7)	(2)	28.6	(4)	57.1	(1)	14.3	(0)	0.0
	예술강사	(14)	(8)	57.1	(4)	28.6	(2)	14.3	(0)	0.0
	예술전공자	(409)	(161)	39.4	(146)	35.7	(68)	16.6	(18)	4.4
	국가무형문화재	(23)	(8)	34.8	(7)	30.4	(7)	30.4	(1)	4.3
성별	남성	(66)	(28)	42.4	(20)	30.3	(12)	18.2	(5)	7.6
	여성	(387)	(151)	39.0	(141)	36.4	(66)	17.1	(14)	3.6
연령별	20대	(262)	(100)	38.2	(97)	37.0	(43)	16.4	(13)	5.0
	30대	(110)	(43)	39.1	(37)	33.6	(23)	20.9	(3)	2.7
	40대	(42)	(20)	47.6	(10)	23.8	(8)	19.0	(2)	4.8
	50대	(31)	(14)	45.2	(12)	38.7	(3)	9.7	(1)	3.2
	60대 이상	(8)	(2)	25.0	(5)	62.5	(1)	12.5	(0)	0.0
거주지 별	수도권	(224)	(77)	34.4	(87)	38.8	(41)	18.3	(9)	4.0
	부산/경남권	(61)	(29)	47.5	(16)	26.2	(10)	16.4	(4)	6.6
	대구/경북권	(51)	(21)	41.2	(20)	39.2	(10)	19.6	(0)	0.0
	대전/충청권	(50)	(22)	44.0	(18)	36.0	(4)	8.0	(3)	6.0
	광주/전라권	(52)	(25)	48.1	(16)	30.8	(8)	15.4	(3)	5.8
학력별	강원, 제주	(15)	(5)	33.3	(4)	26.7	(5)	33.3	(0)	0.0
	고등학교졸업이하	(3)	(2)	66.7	(1)	33.3	(0)	0.0	(0)	0.0
	전문대졸업	(33)	(8)	24.2	(14)	42.4	(7)	21.2	(3)	9.1
	대학 졸업(학사)	(324)	(135)	41.7	(113)	34.9	(54)	16.7	(12)	3.7
	대학원졸업(석사)	(89)	(32)	36.0	(33)	37.1	(15)	16.9	(4)	4.5
학력별	대학원졸업(박사)	(4)	(2)	50.0	(0)	0.0	(2)	50.0	(0)	0.0

※ base :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 됨' 응답한 자격소지자(n=453)

※ 기타 3.3%, 모름/무응답 0.2%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아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아서’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다.

[표 52] 2016-2020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된 이유 비교 분석

		사례수 (곳)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아서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아서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서		자격증 소지자 배치기관(단체)의 고용조건이 안정적 인 곳이 많아서	
			%	GAP ¹⁶⁾	%	GAP	%	GAP	%	GAP
전 체	2016년	(417)	11.3		51.4		23.5		6.2	
	2017년	(635)	16.5	5.2	42.4	-9.0	27.4	3.9	7.1	0.9
	2018년	(372)	28.2	11.7	42.2	-0.2	19.1	-8.3	7.0	-0.1
	2019년	(518)	30.7	2.5	40.3	-1.9	15.6	-3.5	9.8	2.8
	2020년	(453)	39.5	8.8	35.5	-4.8	17.2	1.6	4.2	-5.6
고졸/ 비전공자	2016년	(15)	6.7		53.3		33.3		0.0	
	2017년	(32)	9.4	2.7	59.4	6.1	25.0	-8.3	0.0	0.0
	2018년	(7)	0.0	-9.4	42.9	-16.5	28.6	3.6	28.6	28.6
	2019년	(11)	36.4	36.4	36.4	-6.5	18.2	-10.4	0.0	-28.6
	2020년	(7)	28.6	-7.8	57.1	20.7	14.3	-3.9	0.0	0.0
예술강사	2016년	(42)	9.5		54.8		16.7		11.9	
	2017년	(54)	16.7	7.2	44.4	-10.4	25.9	9.2	3.7	-8.2
	2018년	(17)	29.4	12.7	64.7	20.3	5.9	-20.0	0.0	-3.7
	2019년	(20)	15.0	-14.4	35.0	-29.7	30.0	24.1	15.0	15.0
	2020년	(14)	57.1	42.1	28.6	-6.4	14.3	-15.7	0.0	-15.0
예술 전공자	2016년	(333)	11.1		51.1		23.7		5.7	
	2017년	(463)	16.6	5.5	40.2	-10.9	28.3	4.6	7.6	1.9
	2018년	(345)	28.7	12.1	41.4	1.2	19.4	-8.9	7.0	-0.6
	2019년	(474)	30.8	2.1	41.4	0.0	14.6	-4.8	9.9	2.9
	2020년	(409)	39.4	8.6	35.7	-5.7	16.6	2.0	4.4	-5.5
국가무형 문화재	2016년	(27)	18.5		48.1		25.9		7.4	
	2017년	(86)	18.6	0.1	46.5	-1.6	24.4	-1.5	9.3	1.9
	2018년	(3)	33.3	14.7	0.0	-46.5	33.3	8.9	0.0	-9.3
	2019년	(13)	46.2	12.9	15.4	15.4	30.8	-2.5	7.7	7.7
	2020년	(23)	34.8	-11.4	30.4	15.0	30.4	-0.4	4.3	-3.4

※ 2020년 기준 내림차순 정렬하였으며, ‘기타’는 비교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16)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의 차이

6.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¹⁷⁾’에 참여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2.2%로 나타났다. 자격요건별로 살펴보면 예술전공자(49.5%)가 다른 자격요건에 비해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62.7%)가 30대(44.5%)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존 자격소지자(38.3%)보다 신규 자격취득자(61.1%)가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

		사례수 (명)	그렇다		그렇지 않다		미정이다		참여조건이 되지 않는다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4,934)	(2,083)	42.2	(691)	14.0	(832)	16.9	(1,328)	26.9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4,078)	(1,560)	38.3	(587)	14.4	(713)	17.5	(1,218)	29.9
	신규 자격취득자	(856)	(523)	<u>61.1</u>	(104)	12.1	(119)	13.9	(110)	12.9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59)	(16)	27.1	(5)	8.5	(5)	8.5	(33)	55.9
	예술강사	(808)	(147)	18.2	(87)	10.8	(115)	14.2	(459)	56.8
	예술전공자	(3,712)	(1,837)	<u>49.5</u>	(546)	14.7	(661)	17.8	(668)	18.0
	국가무형문화재	(355)	(83)	23.4	(53)	14.9	(51)	14.4	(168)	47.3
성별	남성	(945)	(323)	34.2	(187)	19.8	(165)	17.5	(270)	28.6
	여성	(3,989)	(1,760)	<u>44.1</u>	(504)	12.6	(667)	16.7	(1,058)	26.5
연령별	20대	(2,107)	(1,322)	<u>62.7</u>	(300)	14.2	(436)	20.7	(49)	2.3
	30대	(1,091)	(485)	<u>44.5</u>	(203)	18.6	(222)	20.3	(181)	16.6
	40대	(935)	(143)	15.3	(97)	10.4	(85)	9.1	(610)	65.2
	50대	(598)	(100)	16.7	(59)	9.9	(64)	10.7	(375)	62.7
	60대 이상	(203)	(33)	16.3	(32)	15.8	(25)	12.3	(113)	55.7
거주지별	수도권	(2,592)	(1,180)	45.5	(364)	14.0	(426)	16.4	(622)	24.0
	부산/경남권	(670)	(282)	42.1	(80)	11.9	(98)	14.6	(210)	31.3
	대구/경북권	(444)	(183)	41.2	(59)	13.3	(71)	16.0	(131)	29.5
	대전/충청권	(474)	(188)	39.7	(72)	15.2	(83)	17.5	(131)	27.6
	광주/전라권	(609)	(206)	33.8	(103)	16.9	(129)	21.2	(171)	28.1
	강원, 제주	(145)	(44)	30.3	(13)	9.0	(25)	17.2	(63)	43.4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91)	(23)	25.3	(8)	8.8	(21)	23.1	(39)	42.9
	전문대졸업	(406)	(231)	56.9	(40)	9.9	(70)	17.2	(65)	16.0
	대학 졸업(학사)	(2,994)	(1,412)	47.2	(426)	14.2	(537)	17.9	(619)	20.7
	대학원졸업(석사)	(1,283)	(384)	29.9	(191)	14.9	(185)	14.4	(523)	40.8
	대학원졸업(박사)	(160)	(33)	20.6	(26)	16.3	(19)	11.9	(82)	51.3

※ base : 전체(n=4,93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17) 청년 문화예술교육사(만 39세 미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후 3년 이하인 자)를 문화시설에 배치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현장 실무경험 확대 및 경력 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이 있는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참여가 가능하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을 살펴본 결과, ‘서울’이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기’(29.5%), ‘부산’(10.4%), ‘대구’(8.7%), ‘인천’(8.2%), ‘경남’(7.3%), ‘광주’(6.5%), ‘대전’(6.3%), ‘충남’과 ‘전남’(각각 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가능 또는 희망 지역

	전체	기존/신규		자격요건별			
		기존 자격소지자	신규 자격취득자	고졸/비전공자	예술강사	예술전공자	국가무형문화재
사례수(명)	(2,083)	(1,560)	(523)	(16)	(147)	(1,837)	(83)
서울	52.0	51.5	<u>53.5</u>	62.5	22.4	<u>55.2</u>	32.5
경기	29.5	27.6	<u>35.2</u>	43.8	19.0	30.4	25.3
부산	10.4	10.3	10.7	12.5	<u>12.9</u>	9.9	<u>16.9</u>
대구	8.7	8.1	<u>10.3</u>	0.0	4.1	9.4	2.4
인천	8.2	7.9	9.0	6.3	5.4	8.7	2.4
경남	7.3	8.0	5.4	0.0	7.5	6.7	<u>22.9</u>
광주	6.5	6.2	7.5	0.0	6.8	6.8	2.4
대전	6.3	6.0	7.3	6.3	7.5	6.4	1.2
충남	4.9	4.7	5.7	12.5	6.1	4.7	6.0
전남	4.9	5.1	4.4	0.0	6.1	5.0	2.4
경북	4.8	4.7	5.0	6.3	6.8	4.5	7.2
세종	4.1	4.2	3.8	12.5	4.8	4.0	3.6
울산	3.9	4.0	3.6	0.0	5.4	3.8	4.8
전북	3.5	3.9	2.3	6.3	8.8	3.1	2.4
충북	3.3	3.3	3.4	12.5	4.1	3.3	1.2
제주	2.7	2.9	1.9	0.0	4.8	2.5	3.6
강원	2.3	2.5	1.7	0.0	4.8	2.0	4.8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자격소지자(n=2,083),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7. 종합분석

가.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자격증 취득 동기

현재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동기를 살펴본 결과, ‘대학교’ 종사자를 제외하고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종사자는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55]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자격증 취득 동기 비교 분석

<div> <div>자격증 취득 동기</div> <div>[문화예술 분야] 현재 직업 및 소속기관</div> </div>	사례수 (명)	문화예술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사 의무 배치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문화예술교 육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문화예술 소양 및 향유를 위해서
		%	%	%	%	%	%
국·공립·공공기관	(245)	38.4	46.1	40.4	21.2	22.0	15.5
정부부처, 지자체	(96)	46.9	47.9	43.8	18.8	15.6	14.6
예술단체	(157)	47.1	51.0	29.3	27.4	33.8	19.1
사기업	(91)	49.5	53.8	31.9	14.3	25.3	22.0
초·중·고등학교	(119)	39.5	52.9	33.6	22.7	25.2	7.6
대학교	(39)	48.7	41.0	17.9	25.6	46.2	17.9
프리랜서	(1359)	43.7	50.0	29.5	23.7	49.3	19.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나. 자격 분야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자격소지자의 자격 분야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유형을 살펴본 결과, ‘음악’(83.2%), ‘미술’(71.8%), ‘사진’(71.3%) 분야는 ‘대학’에서, ‘디자인’(49.8%)과 ‘공예’(42.9%)는 문화예술교육원에서, ‘만화/애니메이션’(45.3%)과 ‘국악’(32.1%)은 기본연수 과정 이수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6] 자격 분야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비교 분석

		사례수 (명)	대학 %	문화예술 교육원 %	기본연수 과정 이수 %	국가무형 문화재 %	학점은행제 %
전 체		(4,934)	59.4	28.1	14.3	7.2	1.2
자격 분야	공예	(245)	54.3	42.9	11.0	0.0	0.0
	국가무형문화재	(355)	5.4	2.8	4.2	95.2	1.4
	국악	(682)	52.2	26.7	32.1	1.9	1.6
	디자인	(289)	53.6	49.8	5.9	0.0	1.7
	만화/애니메이션	(137)	40.9	21.9	45.3	0.0	0.0
	무용	(408)	52.5	26.0	28.4	0.0	1.5
	미술	(759)	71.8	36.5	2.5	0.1	1.6
	사진	(101)	71.3	31.7	9.9	0.0	4.0
	연극	(732)	54.5	29.6	22.7	0.1	0.8
	영화	(116)	49.1	33.6	30.2	0.0	0.9
	음악	(1,110)	83.2	21.8	1.8	0.1	0.9

※ base : 전체(n=4,93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다.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과거 경제활동과 현재 경제활동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형태를 살펴보면, 과거와 현재의 경제활동 형태가 대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거 ‘예술단체’ 종사자가 현재 프리랜서(64.4%)로 활동하게 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과거와 현재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자격소지자 중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자의 직업을 살펴본 결과, 과거의 직업 및 소속기관이 현재와 동일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과거에 ‘국·공립·공공기관’과 ‘대학교’에서 종사했던 자격소지자가 현재는 ‘정부부처, 지자체’에 종사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과거 직업과 현재 경제활동 형태 비교 분석

과거 직업 및 소속 기관	현재 경제활동 형태	사례수 (명)	기관·시설·단체 종사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사례수	%	사례수	%
국·공립·공공기관		(293)	(187)	<u>63.8</u>	(106)	36.2
정부부처, 지자체		(103)	(61)	<u>59.2</u>	(42)	40.8
예술단체		(447)	(159)	35.6	(288)	<u>64.4</u>
사기업		(133)	(69)	<u>51.9</u>	(64)	48.1
초·중·고등학교		(324)	(122)	37.7	(202)	62.3
대학교		(151)	(58)	38.4	(93)	61.6
프리랜서		(1,184)	(178)	15.0	(1,006)	<u>85.0</u>

※ ‘기타’는 비교 분석에서 제외함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표 58] 과거 경제활동과 현재 경제활동 비교 분석(문화예술 관련 분야)

과거 직업 및 소속 기관	현재 직업 및 소속기관	[문화예술 분야] 현재 직업 및 소속기관	사례수 (명)	국·공립· 공공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예술단체	사기업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프리랜서 (예술강사 포함)
				%	%	%	%	%	%	%
국·공립·공공기관			(185)	<u>70.8</u>	6.5	12.4	3.8	7.0	4.3	21.1
정부부처, 지자체			(68)	<u>27.9</u>	<u>51.5</u>	23.5	5.9	5.9	<u>10.3</u>	38.2
예술단체			(118)	5.9	3.4	<u>77.1</u>	2.5	5.9	4.2	35.6
사기업			(60)	10.0	3.3	18.3	<u>68.3</u>	10.0	3.3	28.3
초·중·고등학교			(94)	5.3	0.0	5.3	0.0	<u>83.0</u>	1.1	23.4
대학교			(36)	11.1	2.8	13.9	8.3	8.3	<u>66.7</u>	41.7
프리랜서			(1,191)	8.9	3.5	24.2	5.4	17.0	7.8	<u>84.5</u>

※ ‘기타’는 비교 분석에서 제외함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라. 현재 근무행태와 종사 기간

분야별 현재 근무행태와 종사 기간을 살펴본 결과,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자의 평균 종사 기간은 전체 7년 4개월(87.5개월)이며, 정규직은 8년 4개월(100.7개월), 비정규직은 6년 11개월(83.4개월)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길게 나타났다.

타 분야의 평균 종사 기간은 전체 6년 10개월(82.9개월)이며, 정규직은 7년 9개월(92.5개월), 비정규직은 6년 8개월(79.8개월)로 역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길게 나타났다.

[표 59] 현재 근무행태와 종사 기간 비교 분석

	문화예술 관련 분야			타 분야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사례수(명)	(769)	(180)	(589)	(851)	(207)	(644)
평균(개월)	87.5	100.7	83.4	82.9	92.5	79.8

※ base :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중 각 분야 응답자

※ 타 분류 대비 높은 수치에 표시

마. 경제활동 형태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도움 정도

기관·시설·단체 종사자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의 업무 도움 정도에 ‘만족’(42.8%)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프리랜서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의 업무 도움 정도에 ‘불만족’(65.8%)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와 프리랜서 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의 업무 도움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시설·단체 종사자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의 구직 시 도움 정도에 ‘만족’(53.4%)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0] 경제활동 형태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사례수 (명)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2,210)	(851)	38.5	(1,359)	61.5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¹⁸⁾	불만족	(1,092)	(373)	34.2	(719)	<u>65.8</u>
	만족	(1,118)	(478)	<u>42.8</u>	(640)	57.2

※ base :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n=2,210)

[표 61] 경제활동 형태에 따른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도움 정도

		사례수 (명)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2,210)	(851)	38.5	(1,359)	61.5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구직 시 도움 정도 ¹⁹⁾	불만족	(336)	(155)	46.1	(181)	53.9
	만족	(453)	(242)	<u>53.4</u>	(211)	46.6

※ base :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n=2,21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18) 불만족(전혀 도움 안됨/도움 안됨/보통), 만족(도움 됨/매우 도움됨)

19) 불만족(전혀 도움 안됨/도움 안됨/보통), 만족(도움 됨/매우 도움됨)

바. 경제활동 분야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도움 정도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 도움 정도와 구직 시 도움 정도에 ‘만족’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타 분야의 경우 업무 도움 정도와 구직 시 도움 정도에 ‘불만족’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2] 경제활동 분야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사례수 (명)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문화예술 관련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851)	(769)	90.4	(82)	9.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²⁰⁾	불만족	(373)	(317)	85.0	(56)	<u>15.0</u>
	만족	(478)	(452)	<u>94.6</u>	(26)	5.4

※ base : 기관·시설·단체 종사자(n=851)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표 63] 경제활동 분야에 따른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도움 정도

		사례수 (명)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문화예술 관련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851)	(769)	90.4	(82)	9.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구직 시 도움 정도 ²¹⁾	불만족	(155)	(112)	72.3	(43)	<u>27.7</u>
	만족	(242)	(226)	<u>93.4</u>	(16)	6.6

※ base : 기관·시설·단체 종사자(n=851)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0) 불만족(전혀 도움 안됨/도움 안됨/보통), 만족(도움 됨/매우 도움됨)

21) 불만족(전혀 도움 안됨/도움 안됨/보통), 만족(도움 됨/매우 도움됨)

사. 근무 형태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격소지자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에 대해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근무 형태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문화예술 관련 분야)

		사례수 (명)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769)	(180)	23.4	(589)	76.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²²⁾	불만족	(317)	(91)	28.7	(226)	71.3
	만족	(452)	(89)	19.7	(363)	80.3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응답자(n=769)

[표 65] 근무 형태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타 분야)

		사례수 (명)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82)	(27)	32.9	(55)	67.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²³⁾	불만족	(56)	(18)	32.1	(38)	67.9
	만족	(26)	(9)	34.6	(17)	65.4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서 종사하는 응답자(n=82)

22)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만족(만족/매우 만족)

23)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만족(만족/매우 만족)

아. 담당업무별 근무 형태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격소지자 중 현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와 ‘문화예술교육사 자원조사’를 제외한 업무 담당자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현재 담당업무별 근무 형태(문화예술 관련 분야)

		사례수 (명)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769)	(180)	23.4	(589)	76.6
현재 담당 업무 (복수 응답)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286)	(86)	<u>30.1</u>	(200)	69.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244)	(72)	<u>29.5</u>	(172)	70.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388)	(61)	15.7	(327)	<u>84.3</u>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186)	(66)	<u>35.5</u>	(120)	64.5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	(56)	(18)	<u>32.1</u>	(38)	67.9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30)	(14)	<u>46.7</u>	(16)	53.3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57)	(23)	<u>40.4</u>	(34)	59.6
	문화예술교육사 자원조사	(80)	(13)	16.3	(67)	<u>83.8</u>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응답자(n=76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표 67] 현재 담당업무별 근무 형태(타 분야)

		사례수 (명)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82)	(27)	32.9	(55)	67.1
현재 담당 업무 (복수 응답)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13)	(6)	46.2	(7)	53.8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4)	(5)	35.7	(9)	64.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32)	(11)	34.4	(21)	65.6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5)	(2)	40.0	(3)	60.0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	(3)	(1)	33.3	(2)	66.7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2)	(0)	0.0	(2)	100.0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4)	(1)	25.0	(3)	75.0
	문화예술교육사 자원조사	(4)	(0)	0.0	(4)	100.0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서 종사하는 응답자(n=82)

자. 담당업무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담당하고 업무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현재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3.58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문화예술교육 사업 기획 및 예술행정’(3.54점),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3.51점)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도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 담당업무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사례수 (명)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평균(5점)
			%	%	%	점
전 체		(2,210)	25.8	23.6	50.6	3.33
현재 담당 업무 (복수 응답)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567)	19.4	22.0	58.6	3.5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485)	20.6	23.9	55.5	3.48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1,540)	25.8	22.6	51.6	3.36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280)	17.9	25.4	56.8	3.54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	(150)	29.3	22.0	48.7	3.29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56)	21.4	30.4	48.2	3.36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81)	18.5	23.5	58.0	3.51
	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	(425)	26.8	27.3	45.9	3.23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274)	16.1	24.5	59.5	3.58

※ base :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n=2,21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기

차. 예술강사 활동 분야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도움 정도

예술강사 활동영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의 도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문화예술교육 정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가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 보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의 도움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시 도움 정도를 살펴보면,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의 ‘불만족’(68.1%)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9] 예술강사 활동영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사례수 (명)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120)	(688)	61.4	(594)	53.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²⁴⁾	불만족	(586)	(344)	58.7	(320)	54.6
	만족	(534)	(344)	64.4	(274)	51.3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를 하고 있는 응답자(n=1,12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표 70] 예술강사 활동영역에 따른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도움 정도

		사례수 (명)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120)	(688)	61.4	(594)	53.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구직 시 도움 정도 ²⁵⁾	불만족	(119)	(51)	42.9	(81)	68.1
	만족	(152)	(94)	61.8	(77)	50.7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를 하고 있는 응답자(n=1,12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4)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만족(만족/매우 만족)

25)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만족(만족/매우 만족)

8.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심층 분석

가. 경제활동자와 비활동자의 비교

연령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자는 30대와 40대에서, 비활동자는 2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격요건별로는 경제활동자는 예술강사에서, 비활동자는 예술전공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격 분야별로는 경제활동자는 국악, 무용 분야에서, 비활동자는 음악, 미술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현재 경제활동자 중 82.4%는 과거에도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비활동자 중 78.0%는 과거에도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경제활동자/비활동자 응답자 특성 비교

		전체	경제활동	비활동
사레수		(4,934)	(2,210)	(2,724)
성별	남성	19.2	17.2	20.7
	여성	80.8	82.8	79.3
연령별	20대	42.7	29.5	<u>53.5</u>
	30대	22.1	<u>27.4</u>	17.8
	40대	19.0	<u>24.6</u>	14.4
	50대	12.1	14.5	10.2
	60대 이상	4.1	4.1	4.1
자격요건	고졸/비전공자	1.2	1.2	1.2
	예술강사	16.4	<u>26.6</u>	8.1
	예술전공자	75.2	63.5	<u>84.7</u>
	국가무형문화재	7.2	8.7	6.0
자격 분야	공예	5.0	5.4	4.6
	국가무형문화재	7.2	8.7	6.0
	국악	13.8	<u>17.5</u>	10.9
	디자인	5.9	5.3	6.3
	만화/애니메이션	2.8	2.9	2.7
	무용	8.3	<u>10.2</u>	6.7
	미술	15.4	13.6	<u>16.9</u>
	사진	2.0	2.3	1.8
	연극	14.8	15.8	14.1
	영화	2.4	2.8	2.0
	음악	22.5	15.6	<u>28.1</u>
과거 경제활동	있다	49.0	<u>82.4</u>	22.0
	없다	51.0	17.6	<u>78.0</u>

※ base : 전체(n=4,93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이수기관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자는 문화예술교육원과 기본과정 이수자의 비율이 높고, 비활동자는 대학이 높게 나타났다. 자격 취득 동기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자는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가 높게 나타났으며, 비활동자는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격 취득 당시 희망 직무는 경제활동자와 비활동자 모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자는 기존 자격소지자에서, 비활동자는 신규 자격취득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2] 경제활동자/비활동자 자격증 관련 사항 비교

		전체	경제활동	비활동
사례수		(4,934)	(2,210)	(2,724)
구분	기존 자격소지자	82.7	<u>89.6</u>	77.0
	신규 자격취득자	17.3	10.4	<u>23.0</u>
이수 기관	문화예술교육원	28.1	<u>33.0</u>	24.0
	대학	59.4	45.2	<u>70.9</u>
	학점은행제	1.2	1.4	1.1
	국가무형문화재	7.2	9.0	5.7
	기본연수 과정을 이수한 예술강사	14.3	<u>23.4</u>	6.9
자격 취득 동기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44.7	43.9	45.3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44.5	<u>48.9</u>	40.9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33.6	31.8	<u>35.1</u>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20.3	<u>22.9</u>	18.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29.4	<u>40.3</u>	20.6
	문화예술 소양 및 향유를 위해서	16.5	17.8	15.4
	기타	2.9	3.1	2.8
취득 당시 희망 직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43.5	<u>47.1</u>	40.7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32.7	<u>39.7</u>	27.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67.9	<u>73.9</u>	63.1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25.3	<u>28.6</u>	22.5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예술경영)	14.9	<u>18.7</u>	11.8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7.9	<u>10.3</u>	5.9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9.9	9.4	10.3
	기타	0.8	0.9	0.7

※ base : 전체(n=4,93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나. 자격증 취득 시점 비교

연령별로 살펴보면, 활동 전 취득자는 20대에서, 활동 후 취득자는 40대와 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격요건별로는 활동 전 취득자는 예술전공자에서, 활동 후 취득자는 예술강사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격 분야별로는 활동 전 취득자는 미술, 음악에서, 활동 후 취득자는 국악, 국가무형문화재에서 높게 나타났다.

활동 전 취득자 중 35.2%는 과거에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 후 취득자 중 92.1%는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응답자 특성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2,210)	(789)	(1,421)
성별	남성	17.2	15.2	18.3
	여성	82.8	84.8	81.7
연령별	20대	29.5	56.9	14.2
	30대	27.4	23.6	29.5
	40대	24.6	11.2	32.0
	50대	14.5	6.6	18.9
	60대 이상	4.1	1.8	5.3
자격요건	고졸/비전공자	1.2	1.1	1.3
	예술강사	26.6	5.4	38.3
	예술전공자	63.5	88.8	49.5
	국가무형문화재	8.7	4.6	11.0
자격 분야	공예	5.4	5.2	5.6
	국가무형문화재	8.7	4.6	11.0
	국악	17.5	13.3	19.8
	디자인	5.3	6.1	4.9
	만화/애니메이션	2.9	2.0	3.4
	무용	10.2	8.2	11.3
	미술	13.6	16.5	12.0
	사진	2.3	2.8	2.0
	연극	15.8	15.3	16.0
	영화	2.8	2.5	3.0
	음악	15.6	23.4	11.2
과거 경제활동	있다	82.4	64.8	92.1
	없다	17.6	35.2	7.9

※ base : 현재 경제활동자(n=2,21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이수기관을 살펴보면, 활동 전 취득자는 대학이 높게 나타났으며, 활동 후 취득자는 문화예술 교육원과 기본과정 이수자가 높게 나타났다.

자격 취득 동기를 살펴보면, 활동 전 취득자는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가 높게 나타났으며, 활동 후 취득자는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격 취득 당시 희망 직무는 활동 전 취득자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이 높으며, 활동 후 취득자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가 높았다.

[표 74]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자격증 관련 사항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2,210)	(789)	(1,421)
구분	기존 자격소지자	89.6	92.3	88.1
	신규 자격취득자	10.4	7.7	11.9
이수 기관	문화예술교육원	33.0	30.2	34.6
	대학	45.2	69.8	31.6
	학점은행제	1.4	0.5	1.8
	국가무형문화재	9.0	4.7	11.4
	기본연수 과정을 이수한 예술강사	23.4	4.9	33.7
자격 취득 동기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43.9	47.3	42.0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48.9	40.9	53.3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31.8	37.4	28.6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22.9	24.1	22.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40.3	33.7	43.9
	문화예술 소양 및 향유를 위해서	17.8	20.4	16.3
	기타	3.1	3.3	3.0
취득 당시 희망 직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47.1	49.7	45.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39.7	40.6	39.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73.9	66.3	78.1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28.6	33.0	26.2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예술경영)	18.7	16.9	19.8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10.3	8.1	11.5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9.4	9.4	9.4
	기타	0.9	0.8	1.0

※ base : 현재 경제활동자(n=2,21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경제활동자의 경제 활동 형태를 비교해 본 결과, 활동 전 취득자는 기관·시설·단체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활동 후 취득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표 75]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경제 활동 형태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2,210)	(789)	(1,421)
경제 활동 형태	기관·시설·단체 종사	38.5	<u>50.3</u>	31.9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61.5	49.7	<u>68.1</u>

※ base : 현재 경제활동자(n=2,21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종사 분야를 비교해보면, 활동 전 취득자는 타 분야 종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활동 후 취득자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비율이 높았다.

[표 76]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종사 분야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851)	(397)	(454)
종사 분야	문화예술 관련 분야	90.4	85.1	<u>94.9</u>
	타 분야	9.6	<u>14.9</u>	5.1

※ base : 현재 기관·시설·단체 종사자(n=851)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프리랜서 중, 활동 전 취득자의 현재 담당 업무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활동 후 취득자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와 ‘문화예술교육 관련 창작활동’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7]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담당 업무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1,359)	(392)	(967)
담당 업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19.7	15.8	<u>21.3</u>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6.7	12.8	<u>18.3</u>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82.4	69.1	<u>87.8</u>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6.5	6.1	6.7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예술경영)	6.7	2.8	<u>8.3</u>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1.8	1.0	2.1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1.5	1.0	1.7
	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	31.3	25.0	<u>33.8</u>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14.0	<u>19.9</u>	11.6
	기타	3.6	5.9	2.7

※ base : 현재 경제활동자 중 프리랜서(n=1,35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프리랜서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자의 경우, 활동 전 취득자는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활동 후 취득자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78]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활동 영역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1,120)	(271)	(849)
활동 영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	61.4	53.5	<u>64.0</u>
	민간영역에서 활동	53.0	<u>58.3</u>	51.4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종사 프리랜서(n=1,12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기관·시설·단체에서 종사자를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 활동 전 취득자는 국·공립·공공기관, 사기업, 정부부처/지자체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활동 후 취득자는 예술단체, 초·중·고등학교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 형태별로는 활동 전 취득자와 활동 후 취득자 모두 비정규직의 비율이 70.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담당업무별로는 활동 전 취득자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가, 활동 후 취득자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와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9]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업무/직무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851)	(397)	(454)
종사 기관	국·공립·공공기관	30.8	<u>32.7</u>	29.1
	정부부처/지자체	11.9	<u>13.6</u>	10.4
	예술단체	18.4	14.1	<u>22.2</u>
	사기업	13.7	<u>17.6</u>	10.4
	초·중·고등학교	15.6	12.3	<u>18.5</u>
	대학교	5.9	5.3	6.4
	기타	3.6	4.3	3.1
근무 형태	정규직	24.3	22.9	25.6
	비정규직	75.7	77.1	74.4
문화예술 관련 분야 평균 종사 기간(개월)		82.9	36.0	123.8
담당 업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35.1	36.3	34.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30.3	28.5	31.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49.4	38.3	<u>59.0</u>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22.4	22.2	22.7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예술경영)	6.9	3.3	<u>10.1</u>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3.8	1.3	5.9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7.2	7.3	7.0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9.9	<u>13.1</u>	7.0
	기타	10.3	<u>13.6</u>	7.5

※ base : 기관·시설·단체 종사자(n=851)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활동 전 취득자와 활동 후 취득자 모두 자격 취득 전 희망 직무와 현 업무의 일치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로 나타났다.

[표 80] 활동 전 취득자의 희망 직무와 현재 업무 비교

현 담당 업무 자격취득 전 희망 직무	사 례 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단체 설립 및 운영 (예술경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컨설팅	문화예술 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문화예술 교육 관련 창작활동	문화예술 교육 자원조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392)	<u>39.3</u>	27.6	44.6	19.1	3.1	1.5	5.6	14.3	19.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320)	35.3	<u>32.8</u>	48.8	19.7	3.4	1.9	6.3	14.7	21.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523)	23.7	17.8	<u>66.2</u>	11.5	2.5	1.5	4.0	14.3	17.0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260)	32.3	26.5	37.7	<u>28.1</u>	5.0	2.7	6.9	12.7	21.9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 (예술경영)	(133)	30.1	24.8	43.6	22.6	<u>10.5</u>	3.8	7.5	18.8	21.1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64)	40.6	37.5	51.6	25.0	10.9	<u>12.5</u>	7.8	26.6	20.3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74)	32.4	27.0	33.8	21.6	10.8	6.8	<u>16.2</u>	23.0	31.1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표 81] 활동 후 취득자의 희망 직무와 현재 업무 비교

현 담당 업무 자격취득 전 희망 직무	사 례 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단체 설립 및 운영 (예술경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컨설팅	문화예술 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문화예술 교육 관련 창작활동	문화예술 교육 자원조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648)	<u>42.7</u>	34.9	72.2	18.8	11.4	5.7	5.7	25.9	14.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557)	39.3	<u>39.1</u>	75.9	18.5	14.0	6.5	6.1	27.8	14.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1,110)	22.3	19.9	<u>87.2</u>	8.1	7.6	3.1	2.3	25.2	10.5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372)	41.7	39.2	66.1	<u>32.8</u>	18.5	8.1	7.8	25.0	13.2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 (예술경영)	(281)	37.7	36.3	81.1	19.9	<u>27.4</u>	9.3	8.5	29.5	19.2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164)	46.3	42.7	83.5	23.8	21.3	<u>14.6</u>	7.9	33.5	19.5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134)	41.0	40.3	80.6	20.9	24.6	9.0	<u>15.7</u>	36.6	20.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다. 업무 도움 정도 비교

자격증의 현재 업무 도움 정도에 대해 자격요건별로 살펴보면, 예술강사와 국가무형문화재는 도움 정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자격 취득 시점별로 살펴보면, 활동 전 취득자는 활동 후 취득자에 비해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기관·시설·단체 종사자가 프리랜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82] 자격요건, 자격 취득 시점, 경제활동 형태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2,210)	50.6	23.6	25.8
자격요건	고졸/비전공자	(27)	59.3	25.9	14.8
	예술강사	(587)	48.6	21.5	<u>30.0</u>
	예술전공자	(1,404)	51.7	24.3	24.0
	국가무형문화재	(192)	47.4	24.5	<u>28.1</u>
자격 취득 시점	활동 전 취득	(789)	<u>54.5</u>	22.6	22.9
	활동 후 취득	(1,421)	48.4	24.1	27.4
경제활동 형태	기관·시설·단체 종사	(851)	<u>56.2</u>	21.0	22.8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1,359)	47.1	25.2	27.7

※ base : 현재 경제활동자(n=2,21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중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자가 타 분야 종사자보다 업무 도움 정도에 대해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보다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표 83] 종사 분야, 근무 형태 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851)	56.2	21.0	22.8
종사 분야	문화예술 관련 분야	(769)	<u>58.8</u>	20.4	20.8
	타 분야	(82)	31.7	26.8	<u>41.5</u>
근무 형태	정규직	(207)	47.3	<u>28.0</u>	24.6
	비정규직	(644)	<u>59.0</u>	18.8	22.2

※ base : 기관·시설·단체 종사자(n=851)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기관·시설·단체 종사자별로 살펴보면, 정부부처/지자체, 예술단체, 초·중·고등학교 종사자에서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 평가가 높은 반면, 사기업, 대학교 종사자에서는 부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4]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종사기관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769)	58.8	20.4	20.8
종사 기관	국·공립·공공기관	(245)	55.1	25.7	19.2
	정부부처/지자체	(96)	<u>62.5</u>	13.5	<u>24.0</u>
	예술단체	(157)	<u>61.8</u>	20.4	17.8
	사기업	(91)	50.5	26.4	<u>23.1</u>
	초·중·고등학교	(119)	<u>63.9</u>	13.4	22.7
	대학교	(39)	56.4	10.3	<u>33.3</u>
	기타	(22)	72.7	22.7	4.5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n=76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프리랜서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자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 참여자가 민간영역 활동자보다 업무 도움 정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표 8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 프리랜서의 업무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활동 영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	(688)	<u>50.0</u>	25.6	24.4
	민간영역에서 활동	(594)	46.1	23.4	<u>30.5</u>

※ base : 활동 후 취득자 중 ‘문화예술교육 강의’ 담당 프리랜서(n=84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라.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자격증의 구직 시 도움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국가무형문화재의 도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도움 정도가 프리랜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86] 자격요건, 경제활동 형태별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789)	57.4	19.4	23.2
자격요건	고졸/비전공자	(9)	77.8	0.0	22.2
	예술강사	(43)	32.6	32.6	34.9
	예술전공자	(701)	58.3	19.1	22.5
	국가무형문화재	(36)	63.9	13.9	22.2
경제활동 형태	기관·시설·단체 종사	(397)	61.0	16.9	22.2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392)	53.8	21.9	24.2

※ base : 현재 경제활동자 중 활동 전 취득자(n=78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중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자가 타 분야 종사자보다 구직 시 도움 정도를 높게 평가하였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87]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종사 분야, 근무 형태별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397)	61.0	16.9	22.2
종사 분야	문화예술 관련 분야	(338)	66.9	13.6	19.5
	타 분야	(59)	27.1	35.6	37.3
근무 형태	정규직	(91)	48.4	22.0	29.7
	비정규직	(306)	64.7	15.4	19.9

※ base : 활동 전 취득자 중 기관·시설·단체 종사자(n=39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관련 분야 중 국·공립·공공기관, 정부부처/지자체 종사자에서 구직 시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초·중·고등학교, 예술단체, 사기업 종사자에서는 구직 시 도움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88]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338)	66.9	13.6	19.5
종사 기관	국·공립·공공기관	(119)	<u>73.1</u>	13.4	13.4
	정부부처/지자체	(51)	<u>74.5</u>	7.8	17.6
	예술단체	(56)	55.4	<u>21.4</u>	<u>23.2</u>
	사기업	(48)	66.7	10.4	<u>22.9</u>
	초·중·고등학교	(41)	63.4	7.3	<u>29.3</u>
	대학교	(12)	33.3	25.0	41.7
	기타	(11)	72.7	27.3	0.0

※ base : 활동 전 취득자 중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n=33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프리랜서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자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 참여자가 민간영역 활동자에 비해 구직 시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8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 프리랜서의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활동 영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	(145)	<u>64.8</u>	16.6	18.6
	민간영역에서 활동	(158)	48.7	19.0	<u>32.3</u>

※ base : 활동 전 취득자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담당’ 프리랜서(n=271)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II. 자격소지자_고졸/비전공자

1. 자격취득 현황

고졸/비전공자는 총 59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81.%(18.6%)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40대가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이 66.1%로 가장 높고, ‘광주/전라권’이 11.9%로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대학 졸업(학사)’이 50.8%로 가장 높고, ‘대학원졸업(석사)’이 23.7%로 뒤를 이었다.

[표 90] [고졸/비전공자] 자격소지자 응답자 특성

		사례수 (명)	%
전 체		(59)	100.0
성별	남성	(11)	18.6
	여성	(48)	81.4
연령별	20대	(1)	1.7
	30대	(14)	23.7
	40대	(19)	32.2
	50대	(15)	25.4
	60대 이상	(10)	16.9
거주지별 ²⁶⁾	수도권	(39)	66.1
	부산/경남권	(4)	6.8
	대구/경북권	(5)	8.5
	대전/충청권	(2)	3.4
	광주/전라권	(7)	11.9
	강원, 제주	(2)	3.4
학력별	고등학교졸업 이하	(6)	10.2
	전문대졸업	(7)	11.9
	대학 졸업(학사)	(30)	50.8
	대학원졸업(석사)	(14)	23.7
	대학원졸업(박사)	(2)	3.4

26)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경남권(부산, 경남, 울산), 대전/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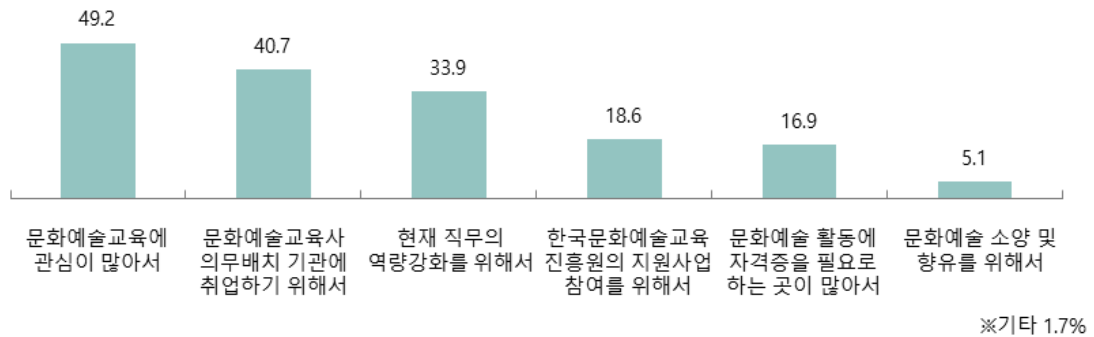
2. 자격취득 동기 및 준비과정

가. 자격취득 동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동기는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가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그다음으로는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40.7%),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33.9%)가 뒤를 이었다.

[그림 10] [고졸/비전공자] 자격증 취득 동기

(n=59, 복수응답, 단위 : %)



[표 91] [고졸/비전공자] 자격증 취득 동기

		사례 수 (명)	문화예술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문화예술 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국문화 예술교육 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문화예술 소양 및 향유를 위해서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59)	(29)	49.2	(24)	40.7	(20)	33.9	(11)	18.6	(10)	16.9	(3)	5.1
성별	남성	(11)	(6)	54.5	(2)	18.2	(5)	45.5	(2)	18.2	(1)	9.1	(1)	9.1
	여성	(48)	(23)	47.9	(22)	45.8	(15)	31.3	(9)	18.8	(9)	18.8	(2)	4.2
연령별	20대	(1)	(1)	10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30대	(14)	(10)	71.4	(5)	35.7	(5)	35.7	(3)	21.4	(1)	7.1	(1)	7.1
	40대	(19)	(9)	47.4	(9)	47.4	(3)	15.8	(3)	15.8	(3)	15.8	(0)	0.0
	50대	(15)	(7)	46.7	(6)	40.0	(7)	46.7	(3)	20.0	(5)	33.3	(1)	6.7
	60대 이상	(10)	(2)	20.0	(3)	30.0	(5)	50.0	(2)	20.0	(1)	10.0	(1)	10.0
거주지 별	수도권	(39)	(20)	51.3	(19)	48.7	(12)	30.8	(8)	20.5	(6)	15.4	(1)	2.6
	부산/경남권	(4)	(3)	75.0	(2)	50.0	(1)	25.0	(1)	25.0	(0)	0.0	(1)	25.0
	대구/경북권	(5)	(3)	60.0	(1)	20.0	(0)	0.0	(0)	0.0	(2)	40.0	(0)	0.0
	대전/충청권	(2)	(1)	50.0	(0)	0.0	(0)	0.0	(1)	50.0	(0)	0.0	(0)	0.0
	광주/전라권	(7)	(2)	28.6	(1)	14.3	(5)	71.4	(1)	14.3	(2)	28.6	(1)	14.3
학력별	강원, 제주	(2)	(0)	0.0	(1)	50.0	(2)	100.0	(0)	0.0	(0)	0.0	(0)	0.0
	고등학교졸업이하	(6)	(2)	33.3	(1)	16.7	(4)	66.7	(1)	16.7	(2)	33.3	(1)	16.7
	전문대졸업	(7)	(3)	42.9	(5)	71.4	(3)	42.9	(3)	42.9	(2)	28.6	(1)	14.3
	대학 졸업(학사)	(30)	(15)	50.0	(12)	40.0	(10)	33.3	(6)	20.0	(4)	13.3	(1)	3.3
	대학원졸업(석사)	(14)	(8)	57.1	(6)	42.9	(2)	14.3	(1)	7.1	(2)	14.3	(0)	0.0
학력별	대학원졸업(박사)	(2)	(1)	50.0	(0)	0.0	(1)	50.0	(0)	0.0	(0)	0.0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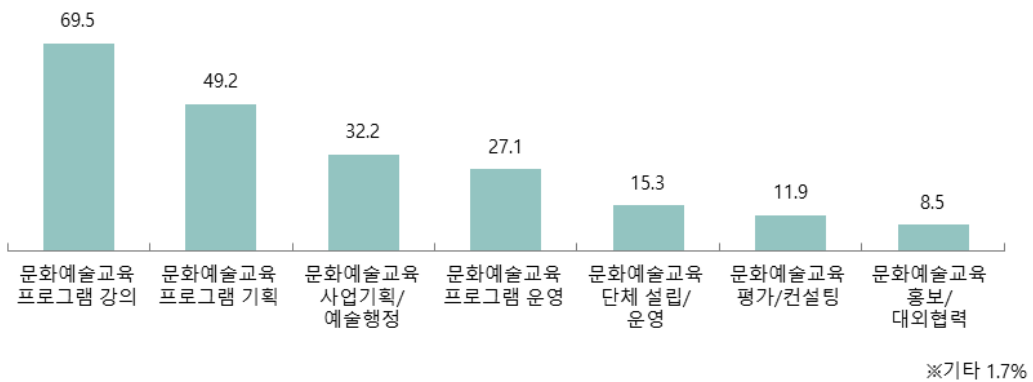
※ base : 고졸/비전공자 전체(n=59), 복수응답, 기타 1.7%는 표에서 제외

나. 자격취득 당시 희망직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당시, 희망했던 직무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가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49.2%),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예술행정’(32.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27.1%)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림 11]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당시 희망 직무

(n=59, 복수응답, 단위 : %)



[표 92]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당시 희망 직무

		사례 수 (명)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 교육 사업기획/ 예술행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육 단체 설립/운영		문화예술 교육 평가/ 컨설팅		문화예술 교육 홍보/ 대외협력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59)	(41)	69.5	(29)	49.2	(19)	32.2	(16)	27.1	(9)	15.3	(7)	11.9	(5)	8.5
성별	남성	(11)	(6)	54.5	(6)	54.5	(6)	54.5	(4)	36.4	(5)	45.5	(3)	27.3	(3)	27.3
	여성	(48)	(35)	72.9	(23)	47.9	(13)	27.1	(12)	25.0	(4)	8.3	(4)	8.3	(2)	4.2
연령별	20대	(1)	(1)	100.0	(1)	100.0	(1)	100.0	(1)	100.0	(0)	0.0	(0)	0.0	(0)	0.0
	30대	(14)	(9)	64.3	(9)	64.3	(3)	21.4	(6)	42.9	(2)	14.3	(2)	14.3	(2)	14.3
	40대	(19)	(12)	63.2	(9)	47.4	(6)	31.6	(4)	21.1	(1)	5.3	(1)	5.3	(1)	5.3
	50대	(15)	(11)	73.3	(8)	53.3	(4)	26.7	(3)	20.0	(4)	26.7	(3)	20.0	(2)	13.3
	60대 이상	(10)	(8)	80.0	(2)	20.0	(5)	50.0	(2)	20.0	(2)	20.0	(1)	10.0	(0)	0.0
거주지 별	수도권	(39)	(26)	66.7	(20)	51.3	(13)	33.3	(10)	25.6	(5)	12.8	(3)	7.7	(3)	7.7
	부산/경남권	(4)	(2)	50.0	(3)	75.0	(1)	25.0	(1)	25.0	(1)	25.0	(1)	25.0	(1)	25.0
	대구/경북권	(5)	(4)	80.0	(3)	60.0	(2)	40.0	(2)	40.0	(2)	40.0	(2)	40.0	(1)	20.0
	대전/충청권	(2)	(2)	100.0	(1)	50.0	(0)	0.0	(1)	50.0	(0)	0.0	(1)	50.0	(0)	0.0
	광주/전라권	(7)	(5)	71.4	(2)	28.6	(3)	42.9	(2)	28.6	(1)	14.3	(0)	0.0	(0)	0.0
	강원, 제주	(2)	(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6)	(5)	83.3	(3)	50.0	(4)	66.7	(1)	16.7	(2)	33.3	(2)	33.3	(2)	33.3
	전문대졸업	(7)	(6)	85.7	(3)	42.9	(1)	14.3	(3)	42.9	(0)	0.0	(0)	0.0	(0)	0.0
	대학 졸업(학사)	(30)	(19)	63.3	(14)	46.7	(9)	30.0	(7)	23.3	(3)	10.0	(4)	13.3	(2)	6.7
	대학원졸업(석사)	(14)	(11)	78.6	(7)	50.0	(5)	35.7	(5)	35.7	(3)	21.4	(1)	7.1	(0)	0.0
	대학원졸업(박사)	(2)	(0)	0.0	(2)	100.0	(0)	0.0	(0)	0.0	(1)	50.0	(0)	0.0	(1)	50.0

※ base : 고졸/비전공자 전체(n=59), 복수응답, 기타 1.7%는 표에서 제외

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1)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고졸/비전공자의 79.7%는 ‘문화예술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학’(32.2%), ‘학점은행제’(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3]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사례 수 (명)	문화예술교육원		대학		학점은행제		국가무형문화재		기본연수 과정 이수 예술강사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59)	(47)	79.7	(19)	32.2	(4)	6.8	(1)	1.7	(1)	1.7
성별	남성	(11)	(8)	72.7	(4)	36.4	(0)	0.0	(0)	0.0	(1)	9.1
	여성	(48)	(39)	81.3	(15)	31.3	(4)	8.3	(1)	2.1	(0)	0.0
연령별	20대	(1)	(1)	100.0	(1)	100.0	(0)	0.0	(0)	0.0	(0)	0.0
	30대	(14)	(12)	85.7	(3)	21.4	(3)	21.4	(0)	0.0	(0)	0.0
	40대	(19)	(18)	94.7	(4)	21.1	(0)	0.0	(1)	5.3	(0)	0.0
	50대	(15)	(10)	66.7	(7)	46.7	(1)	6.7	(0)	0.0	(0)	0.0
	60대 이상	(10)	(6)	60.0	(4)	40.0	(0)	0.0	(0)	0.0	(1)	10.0
거주지 별	수도권	(39)	(31)	79.5	(12)	30.8	(4)	10.3	(1)	2.6	(0)	0.0
	부산/경남권	(4)	(3)	75.0	(1)	25.0	(0)	0.0	(0)	0.0	(0)	0.0
	대구/경북권	(5)	(4)	80.0	(4)	80.0	(0)	0.0	(0)	0.0	(0)	0.0
	대전/충청권	(2)	(2)	100.0	(1)	50.0	(0)	0.0	(0)	0.0	(0)	0.0
	광주/전라권	(7)	(5)	71.4	(1)	14.3	(0)	0.0	(0)	0.0	(1)	14.3
	강원, 제주	(2)	(2)	100.0	(0)	0.0	(0)	0.0	(0)	0.0	(0)	0.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6)	(4)	66.7	(4)	66.7	(0)	0.0	(0)	0.0	(0)	0.0
	전문대졸업	(7)	(6)	85.7	(1)	14.3	(0)	0.0	(0)	0.0	(0)	0.0
	대학 졸업(학사)	(30)	(26)	86.7	(7)	23.3	(2)	6.7	(1)	3.3	(0)	0.0
	대학원졸업(석사)	(14)	(9)	64.3	(6)	42.9	(2)	14.3	(0)	0.0	(1)	7.1
	대학원졸업(박사)	(2)	(2)	100.0	(1)	50.0	(0)	0.0	(0)	0.0	(0)	0.0

※ base : 고졸/비전공자 전체(n=59), 복수응답

2)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원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원으로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이 8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94] [고졸/비전공자]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원

문화예술교육원	사례수(명)	%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38)	80.9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11)	23.4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5)	10.6
계명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3)	6.4
전북문화예술교육원	(3)	6.4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2)	4.3
부산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1)	2.1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1)	2.1
한국문화예술교육원	(1)	2.1

※ base : 문화예술교육원에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졸/비전공자(n=47), 복수응답

3. 경제활동 현황

가. 과거 경제활동 여부

현재 보수를 받고 경제활동을 하는 고졸/비전공자의 88.9%는 과거에도 경제활동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5] [고졸/비전공자]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여부

		사례수 (명)	활동한 적 있었다 (프리랜서 포함)		활동한 적 없었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9)	(35)	59.3	(24)	40.7
현 경제활동 여부	활동하고 있다	(27)	(24)	88.9	(3)	11.1
	활동하지 않고 있다	(32)	(11)	34.4	(21)	65.6
성별	남성	(11)	(4)	36.4	(7)	63.6
	여성	(48)	(31)	64.6	(17)	35.4
연령별	20대	(1)	(1)	100.0	(0)	0.0
	30대	(14)	(8)	57.1	(6)	42.9
	40대	(19)	(12)	63.2	(7)	36.8
	50대	(15)	(9)	60.0	(6)	40.0
	60대 이상	(10)	(5)	50.0	(5)	50.0
거주지별	수도권	(39)	(25)	64.1	(14)	35.9
	부산/경남권	(4)	(1)	25.0	(3)	75.0
	대구/경북권	(5)	(2)	40.0	(3)	60.0
	대전/충청권	(2)	(2)	100.0	(0)	0.0
	광주/전라권	(7)	(5)	71.4	(2)	28.6
	강원, 제주	(2)	(0)	0.0	(2)	100.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6)	(5)	83.3	(1)	16.7
	전문대졸업	(7)	(5)	71.4	(2)	28.6
	대학 졸업(학사)	(30)	(17)	56.7	(13)	43.3
	대학원졸업(석사)	(14)	(7)	50.0	(7)	50.0
	대학원졸업(박사)	(2)	(1)	50.0	(1)	50.0

※ base : 고졸/비전공자 전체(n=59)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고졸/비전공자의 과거 경제활동 직업/소속기관을 살펴보면,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가 4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예술단체’(34.3%), ‘국·공립·공공기관’(22.9%), ‘초·중·고등학교’(17.1%), ‘대학교’(11.4%) 등이 뒤를 이었다.

[표 96] [고졸/비전공자] 과거 경제활동 직업/소속기관

		사례수 (명)	프리랜서 (예술강사 포함)	예술단체	국·공립· 공공기관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정부부처, 지자체	사기업
			%	%	%	%	%	%	%
전 체		(35)	40.0	34.3	22.9	17.1	11.4	8.6	5.7
성별	남성	(4)	75.0	75.0	0.0	50.0	50.0	25.0	0.0
	여성	(31)	35.5	29.0	25.8	12.9	6.5	6.5	6.5
연령별	20대	(1)	0.0	0.0	0.0	0.0	0.0	100.0	0.0
	30대	(8)	37.5	12.5	37.5	0.0	0.0	0.0	12.5
	40대	(12)	33.3	41.7	25.0	8.3	16.7	0.0	0.0
	50대	(9)	44.4	44.4	22.2	11.1	11.1	11.1	11.1
	60대 이상	(5)	60.0	40.0	0.0	80.0	20.0	20.0	0.0
거주지 별	수도권	(25)	24.0	20.0	24.0	20.0	12.0	12.0	8.0
	부산/경남권	(1)	100.0	100.0	0.0	0.0	100.0	0.0	0.0
	대구/경북권	(2)	100.0	100.0	0.0	0.0	0.0	0.0	0.0
	대전/충청권	(2)	100.0	100.0	0.0	0.0	0.0	0.0	0.0
	광주/전라권	(5)	60.0	40.0	40.0	20.0	0.0	0.0	0.0
	강원, 제주	(0)	-	-	-	-	-	-	-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5)	60.0	100.0	0.0	20.0	40.0	20.0	0.0
	전문대졸업	(5)	60.0	40.0	40.0	40.0	0.0	0.0	0.0
	대학 졸업(학사)	(17)	47.1	23.5	23.5	11.8	5.9	0.0	0.0
	대학원졸업(석사)	(7)	0.0	14.3	14.3	14.3	14.3	28.6	28.6
	대학원졸업(박사)	(1)	0.0	0.0	100.0	0.0	0.0	0.0	0.0

※ base : 과거 경제활동을 한 고졸/비전공자(n=35), 복수응답, 기타 2.9%는 표에서 제외

나. 경제활동 여부

고졸/비전공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5.8%로 과거 경제활동 참가율(57.6%)보다 1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7] [고졸/비전공자] 자격소지자의 현재 경제활동 여부

		사례수 (명)	활동하고 있다 (프리랜서 포함)		활동하지 않고 있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9)	(27)	45.8	(32)	54.2
성별	남성	(11)	(5)	45.5	(6)	54.5
	여성	(48)	(22)	45.8	(26)	54.2
연령별	20대	(1)	(1)	100.0	(0)	0.0
	30대	(14)	(7)	50.0	(7)	50.0
	40대	(19)	(8)	42.1	(11)	57.9
	50대	(15)	(7)	46.7	(8)	53.3
	60대 이상	(10)	(4)	40.0	(6)	60.0
거주지별	수도권	(39)	(15)	38.5	(24)	61.5
	부산/경남권	(4)	(1)	25.0	(3)	75.0
	대구/경북권	(5)	(4)	80.0	(1)	20.0
	대전/충청권	(2)	(2)	100.0	(0)	0.0
	광주/전라권	(7)	(5)	71.4	(2)	28.6
	강원, 제주	(2)	(0)	0.0	(2)	100.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6)	(4)	66.7	(2)	33.3
	전문대졸업	(7)	(4)	57.1	(3)	42.9
	대학 졸업(학사)	(30)	(13)	43.3	(17)	56.7
	대학원졸업(석사)	(14)	(5)	35.7	(9)	64.3
	대학원졸업(박사)	(2)	(1)	50.0	(1)	50.0

※ base : 고졸/비전공자 전체(n=59)

다. 경제활동 형태

경제활동을 하는 고졸/비전공자의 55.6%는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로 활동하고 있으며, 44.4%는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8] [고졸/비전공자]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형태

		사례수 (명)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기관·시설·단체 종사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27)	(15)	55.6	(12)	44.4
성별	남성	(5)	(4)	80.0	(1)	20.0
	여성	(22)	(11)	50.0	(11)	50.0
연령별	20대	(1)	(0)	0.0	(1)	100.0
	30대	(7)	(3)	42.9	(4)	57.1
	40대	(8)	(5)	62.5	(3)	37.5
	50대	(7)	(4)	57.1	(3)	42.9
	60대 이상	(4)	(3)	75.0	(1)	25.0
거주지별	수도권	(15)	(6)	40.0	(9)	60.0
	부산/경남권	(1)	(1)	100.0	(0)	0.0
	대구/경북권	(4)	(4)	100.0	(0)	0.0
	대전/충청권	(2)	(1)	50.0	(1)	50.0
	광주/전라권	(5)	(3)	60.0	(2)	40.0
	강원, 제주	(0)	-	-	-	-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4)	(3)	75.0	(1)	25.0
	전문대졸업	(4)	(3)	75.0	(1)	25.0
	대학 졸업(학사)	(13)	(8)	61.5	(5)	38.5
	대학원졸업(석사)	(5)	(1)	20.0	(4)	80.0
	대학원졸업(박사)	(1)	(0)	0.0	(1)	100.0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고졸/비전공자(n=27)

1)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주요 업무

기관·시설·단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고졸/비전공자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이 66.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와 ‘문화예술교육 사업 기획/예술행정’(각각 50.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33.3%), ‘문화예술교육 평가/컨설팅’(16.7%),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운영’(8.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9] [고졸/비전공자]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주요 업무

		사례수 (명)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의	문화예술 교육 사업기획/ 예술행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육 평가/컨설팅	문화예술 교육 단체 설립/운영
			%	%	%	%	%	%
전 체		(12)	66.7	50.0	50.0	33.3	16.7	8.3
성별	남성	(1)	100.0	100.0	0.0	100.0	100.0	0.0
	여성	(11)	63.6	45.5	54.5	27.3	9.1	9.1
연령별	20대	(1)	100.0	0.0	100.0	0.0	0.0	0.0
	30대	(4)	75.0	25.0	50.0	50.0	25.0	0.0
	40대	(3)	100.0	66.7	66.7	33.3	0.0	33.3
	50대	(3)	0.0	66.7	33.3	0.0	0.0	0.0
	60대 이상	(1)	100.0	100.0	0.0	100.0	100.0	0.0
거주지 별	수도권	(9)	66.7	44.4	44.4	33.3	22.2	11.1
	부산/경남권	(0)	-	-	-	-	-	-
	대구/경북권	(0)	-	-	-	-	-	-
	대전/충청권	(1)	100.0	100.0	100.0	100.0	0.0	0.0
	광주/전라권	(2)	50.0	50.0	50.0	0.0	0.0	0.0
	강원, 제주	(0)	-	-	-	-	-	-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	100.0	100.0	0.0	100.0	100.0	0.0
	전문대졸업	(1)	100.0	0.0	100.0	100.0	0.0	0.0
	대학 졸업(학사)	(5)	60.0	60.0	60.0	40.0	20.0	0.0
	대학원졸업(석사)	(4)	50.0	50.0	50.0	0.0	0.0	25.0
	대학원졸업(박사)	(1)	100.0	0.0	0.0	0.0	0.0	0.0
근무 형태	정규직	(6)	83.3	0.0	83.3	33.3	16.7	0.0
	비정규직	(6)	50.0	100.0	16.7	33.3	16.7	16.7

※ base : 기관·시설·단체 종사하고 있는 고졸/비전공자(n=12), 복수응답

2) 프리랜서 주요 업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고졸/비전공자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이 80.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각각 53.3%),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과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각각 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0] [고졸/비전공자] 프리랜서 주요 업무

		사 례 수 (명)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의	문화예술 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문화예술 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	문화예술 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	문화예술 교육 자원조사
			%	%	%	%	%	%	%	%
전 체		(15)	80.0	53.3	53.3	53.3	20.0	20.0	13.3	6.7
성별	남성	(4)	75.0	50.0	75.0	100.0	0.0	0.0	0.0	0.0
	여성	(11)	81.8	54.5	45.5	36.4	27.3	27.3	18.2	9.1
연령별	20대	(0)	-	-	-	-	-	-	-	-
	30대	(3)	66.7	66.7	66.7	33.3	33.3	33.3	33.3	33.3
	40대	(5)	80.0	40.0	20.0	20.0	20.0	0.0	0.0	0.0
	50대	(4)	75.0	50.0	50.0	100.0	25.0	25.0	25.0	0.0
	60대 이상	(3)	100.0	66.7	100.0	66.7	0.0	33.3	0.0	0.0
거주지 별	수도권	(6)	83.3	50.0	50.0	33.3	33.3	16.7	16.7	16.7
	부산/경남권	(1)	0.0	0.0	0.0	100.0	0.0	0.0	0.0	0.0
	대구/경북권	(4)	75.0	100.0	75.0	75.0	25.0	25.0	0.0	0.0
	대전/충청권	(1)	100.0	0.0	0.0	0.0	0.0	0.0	0.0	0.0
	광주/전라권	(3)	100.0	33.3	66.7	66.7	0.0	33.3	33.3	0.0
	강원, 제주	(0)	-	-	-	-	-	-	-	-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3)	66.7	66.7	66.7	100.0	33.3	33.3	0.0	0.0
	전문대졸업	(3)	100.0	0.0	33.3	66.7	0.0	0.0	33.3	0.0
	대학 졸업(학사)	(8)	75.0	62.5	50.0	25.0	25.0	25.0	12.5	12.5
	대학원졸업(석사)	(1)	100.0	100.0	100.0	100.0	0.0	0.0	0.0	0.0
	대학원졸업(박사)	(0)	-	-	-	-	-	-	-	-

※ base :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고졸/비전공자(n=15), 복수응답, 기타 6.7%는 표에서 제외

라. 관련 분야 종사 여부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기관 및 시설, 단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모든 고졸/비전공자(100.0%)가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 기간은 평균 12년 6개월(150.0개월)이었다.

[표 101] [고졸/비전공자] 자격소지자의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여부

		사례수 (명)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문화예술 관련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사례수	%	평균(개월)	사례수	%	평균(개월)
전 체		(12)	(12)	100.0	150.0	(0)	0.0	0.0
성별	남성	(1)	(1)	100.0	273.0	(0)	0.0	0.0
	여성	(11)	(11)	100.0	138.8	(0)	0.0	0.0
연령별	20대	(1)	(1)	100.0	56.0	(0)	0.0	0.0
	30대	(4)	(4)	100.0	106.8	(0)	0.0	0.0
	40대	(3)	(3)	100.0	181.7	(0)	0.0	0.0
	50대	(3)	(3)	100.0	166.3	(0)	0.0	0.0
	60대 이상	(1)	(1)	100.0	273.0	(0)	0.0	0.0
거주 지별	수도권	(9)	(9)	100.0	139.2	(0)	0.0	0.0
	부산/경남권	(0)	-	-	-	-	-	-
	대구/경북권	(0)	-	-	-	-	-	-
	대전/충청권	(1)	(1)	100.0	240.0	(0)	0.0	0.0
	광주/전라권	(2)	(2)	100.0	153.5	(0)	0.0	0.0
	강원, 제주	(0)	-	-	-	-	-	-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	(1)	100.0	273.0	(0)	0.0	0.0
	전문대졸업	(1)	(1)	100.0	96.0	(0)	0.0	0.0
	대학 졸업(학사)	(5)	(5)	100.0	134.8	(0)	0.0	0.0
	대학원졸업(석사)	(4)	(4)	100.0	138.3	(0)	0.0	0.0
	대학원졸업(박사)	(1)	(1)	100.0	204.0	(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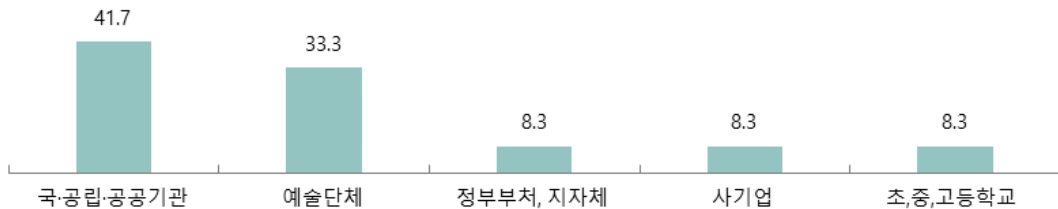
※ base :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고졸/비전공자(n=12)

마. 자격소지자 직업 혹은 소속기관

1) 문화예술 관련 분야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고졸/비전공자의 직업 혹은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국·공립·공공기관’이 4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예술단체’(33.3%), ‘정부부처, 지자체’와 ‘사기업’, ‘초·중·고등학교’(각각 8.3%)가 뒤를 이어 나타났다.

[그림 12]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 직업/소속기관
(n=12, 단위 : %)



[표 102]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 직업/소속기관

		사례수 (명)	국공립·공공기관		예술단체		정부부처, 지자체		사기업		초·중·고등학교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2)	(5)	41.7	(4)	33.3	(1)	8.3	(1)	8.3	(1)	8.3
성별	남성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여성	(11)	(5)	45.5	(3)	27.3	(1)	9.1	(1)	9.1	(1)	9.1
연령 별	20대	(1)	(0)	0.0	(0)	0.0	(1)	100.0	(0)	0.0	(0)	0.0
	30대	(4)	(3)	75.0	(0)	0.0	(0)	0.0	(1)	25.0	(0)	0.0
	40대	(3)	(1)	33.3	(2)	66.7	(0)	0.0	(0)	0.0	(0)	0.0
	50대	(3)	(1)	33.3	(1)	33.3	(0)	0.0	(0)	0.0	(1)	33.3
	60대 이상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거주 지별	수도권	(9)	(4)	44.4	(2)	22.2	(1)	11.1	(1)	11.1	(1)	11.1
	부산/경남권	(0)	-	-	-	-	-	-	-	-	-	-
	대구/경북권	(0)	-	-	-	-	-	-	-	-	-	-
	대전/충청권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광주/전라권	(2)	(1)	50.0	(1)	50.0	(0)	0.0	(0)	0.0	(0)	0.0
	강원, 제주	(0)	-	-	-	-	-	-	-	-	-	-
학력 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전문대졸업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대학 졸업(학사)	(5)	(2)	40.0	(2)	40.0	(0)	0.0	(0)	0.0	(1)	20.0
	대학원졸업(석사)	(4)	(2)	50.0	(1)	25.0	(1)	25.0	(0)	0.0	(0)	0.0
	대학원졸업(박사)	(1)	(0)	0.0	(0)	0.0	(0)	0.0	(1)	100.0	(0)	0.0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고졸/비전공자(n=12)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고졸/비전공자의 50.0%는 ‘정규직’, 50.0%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3]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의 근무 형태

		사례수 (명)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명	%	명	%
전 체		(12)	(6)	50.0	(6)	50.0
성별	남성	(1)	(0)	0.0	(1)	100.0
	여성	(11)	(6)	54.5	(5)	45.5
연령별	20대	(1)	(1)	100.0	(0)	0.0
	30대	(4)	(3)	75.0	(1)	25.0
	40대	(3)	(1)	33.3	(2)	66.7
	50대	(3)	(1)	33.3	(2)	66.7
	60대 이상	(1)	(0)	0.0	(1)	100.0
거주지별	수도권	(9)	(5)	55.6	(4)	44.4
	부산/경남권	(0)	-	-	-	-
	대구/경북권	(0)	-	-	-	-
	대전/충청권	(1)	(0)	0.0	(1)	100.0
	광주/전라권	(2)	(1)	50.0	(1)	50.0
	강원, 제주	(0)	-	-	-	-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	(0)	0.0	(1)	100.0
	전문대졸업	(1)	(1)	100.0	(0)	0.0
	대학 졸업(학사)	(5)	(2)	40.0	(3)	60.0
	대학원졸업(석사)	(4)	(2)	50.0	(2)	50.0
	대학원졸업(박사)	(1)	(1)	100.0	(0)	0.0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고졸/비전공자(n=12)

2) 프리랜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있는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의 66.7%는 ‘민간영역(문화센터, 기관, 학원 등)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이며, 58.3%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평균 4년 7개월(55.0개월)이며, 민간영역에서 활동한 기간은 평균 10년 10개월(129.5개월)로 차이가 있었다.

[표 104] [고졸/비전공자] 예술강사 활동 분야

		사례수 (명)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		
			명	%	개월	명	%	개월
전 체		(12)	(7)	58.3	55.0	(8)	66.7	129.5
성별	남성	(3)	(2)	66.7	66.5	(2)	66.7	95.5
	여성	(9)	(5)	55.6	50.4	(6)	66.7	140.8
연령별	20대	(0)	-	-	-	-	-	-
	30대	(2)	(2)	100.0	68.0	(0)	0.0	0.0
	40대	(4)	(2)	50.0	67.0	(3)	75.0	82.3
	50대	(3)	(2)	66.7	30.0	(2)	66.7	153.5
	60대 이상	(3)	(1)	33.3	55.0	(3)	100.0	160.7
거주지별	수도권	(5)	(4)	80.0	67.5	(2)	40.0	51.0
	부산/경남권	(0)	-	-	-	-	-	-
	대구/경북권	(3)	(3)	100.0	38.3	(2)	66.7	34.5
	대전/충청권	(1)	(0)	0.0	0.0	(1)	100.0	145.0
	광주/전라권	(3)	(0)	0.0	0.0	(3)	100.0	240.0
	강원, 제주	(0)	-	-	-	-	-	-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2)	(2)	100.0	30.0	(1)	50.0	30.0
	전문대졸업	(3)	(1)	33.3	58.0	(2)	66.7	214.5
	대학 졸업(학사)	(6)	(3)	50.0	70.7	(4)	66.7	134.5
	대학원졸업(석사)	(1)	(1)	100.0	55.0	(1)	100.0	39.0
	대학원졸업(박사)	(0)	-	-	-	-	-	-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를 하고 있는 고졸/비전공자(n=12)

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점

경제활동을 하는 고졸/비전공자의 66.7%는 경제활동 한 뒤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33.3%는 경제활동하기 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5]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점

		사례수 (명)	활동하기 전 자격증 취득		활동한 뒤 자격증 취득	
			명	%	명	%
전 체		(27)	(9)	33.3	(18)	66.7
성별	남성	(5)	(1)	20.0	(4)	80.0
	여성	(22)	(8)	36.4	(14)	63.6
연령별	20대	(1)	(1)	100.0	(0)	0.0
	30대	(7)	(2)	28.6	(5)	71.4
	40대	(8)	(4)	50.0	(4)	50.0
	50대	(7)	(1)	14.3	(6)	85.7
	60대 이상	(4)	(1)	25.0	(3)	75.0
거주지별	수도권	(15)	(6)	40.0	(9)	60.0
	부산/경남권	(1)	(0)	0.0	(1)	100.0
	대구/경북권	(4)	(2)	50.0	(2)	50.0
	대전/충청권	(2)	(0)	0.0	(2)	100.0
	광주/전라권	(5)	(1)	20.0	(4)	80.0
	강원, 제주	(0)	-	-	-	-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4)	(0)	0.0	(4)	100.0
	전문대졸업	(4)	(1)	25.0	(3)	75.0
	대학 졸업(학사)	(13)	(5)	38.5	(8)	61.5
	대학원졸업(석사)	(5)	(3)	60.0	(2)	40.0
	대학원졸업(박사)	(1)	(0)	0.0	(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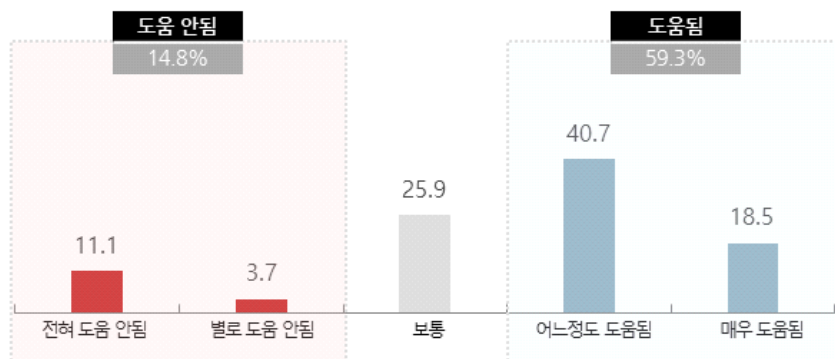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고졸/비전공자(n=27)

5. 자격취득 만족도

가. 업무 도움 정도

경제활동을 하는 고졸/비전공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9.3%(매우 도움이 된다 18.5%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40.7%)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14.8%(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1.1%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7%)로 나타났다.

[그림 13]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
(n=27, 단위 : %, 점(5점 만점))
평균: 3.5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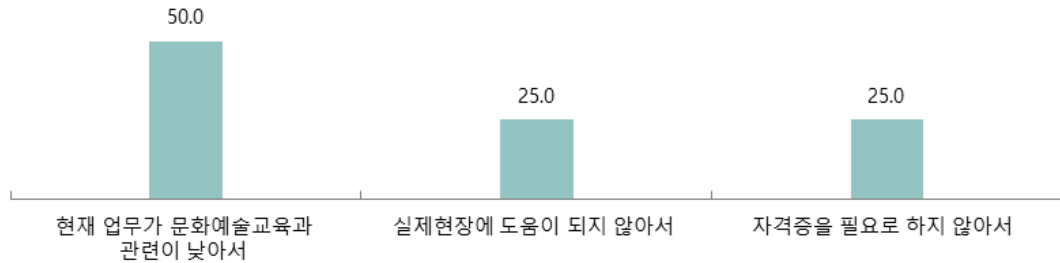
[표 106]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

		사례수 (명)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보통 이다	④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 안됨 (①+②)	도움 됨 (④+⑤)	5점 평균
			%	%	%	%	%	%	%	점
전 체		(27)	11.1	3.7	25.9	40.7	18.5	14.8	59.3	3.52
성별	남성	(5)	40.0	0.0	20.0	20.0	20.0	40.0	40.0	2.80
	여성	(22)	4.5	4.5	27.3	45.5	18.2	9.1	63.6	3.68
연령별	20대	(1)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30대	(7)	14.3	0.0	42.9	42.9	0.0	14.3	42.9	3.14
	40대	(8)	0.0	12.5	12.5	37.5	37.5	12.5	75.0	4.00
	50대	(7)	14.3	0.0	42.9	42.9	0.0	14.3	42.9	3.14
	60대 이상	(4)	25.0	0.0	0.0	25.0	50.0	25.0	75.0	3.75
거주지 별	수도권	(15)	6.7	6.7	26.7	46.7	13.3	13.3	60.0	3.53
	부산/경남권	(1)	100.0	0.0	0.0	0.0	0.0	100.0	0.0	1.00
	대구/경북권	(4)	0.0	0.0	25.0	50.0	25.0	0.0	75.0	4.00
	대전/충청권	(2)	0.0	0.0	50.0	0.0	50.0	0.0	50.0	4.00
	광주/전라권	(5)	20.0	0.0	20.0	40.0	20.0	20.0	60.0	3.40
	강원, 제주	(0)	-	-	-	-	-	-	-	-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4)	25.0	0.0	25.0	50.0	0.0	25.0	50.0	3.00
	전문대졸업	(4)	25.0	0.0	50.0	25.0	0.0	25.0	25.0	2.75
	대학 졸업(학사)	(13)	0.0	7.7	30.8	38.5	23.1	7.7	61.5	3.77
	대학원졸업(석사)	(5)	0.0	0.0	0.0	60.0	40.0	0.0	100.0	4.40
	대학원졸업(박사)	(1)	100.0	0.0	0.0	0.0	0.0	100.0	0.0	1.00

※ base : 경제활동을 하는 고졸/비전공자(n=27)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 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낮아서’ 50.0%,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25.0%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으로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가 25.0%로 나타났다.

[그림 14]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n=59,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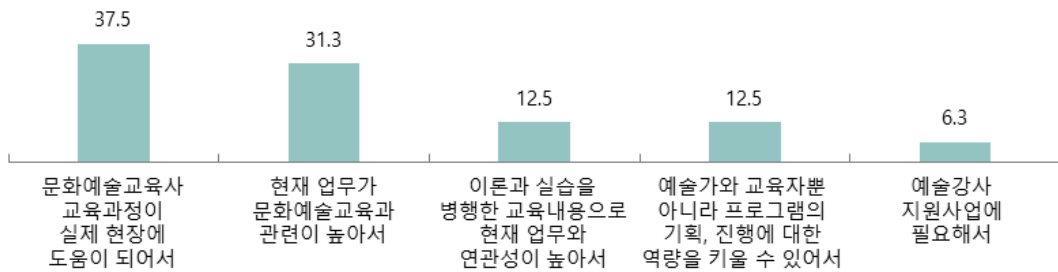
[표 107]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사례수 (명)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낮아서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명	%	명	%	명	%
전 체		(4)	(2)	50.0	(1)	25.0	(1)	25.0
성별	남성	(2)	(1)	50.0	(0)	0.0	(1)	50.0
	여성	(2)	(1)	50.0	(1)	50.0	(0)	0.0
연령별	20대	(0)	-	-	-	-	-	-
	30대	(1)	(0)	0.0	(1)	100.0	(0)	0.0
	40대	(1)	(1)	100.0	(0)	0.0	(0)	0.0
	50대	(1)	(0)	0.0	(0)	0.0	(1)	100.0
	60대 이상	(1)	(1)	100.0	(0)	0.0	(0)	0.0
거주지별	수도권	(2)	(1)	50.0	(1)	50.0	(0)	0.0
	부산/경남권	(1)	(0)	0.0	(0)	0.0	(1)	100.0
	대구/경북권	(0)	-	-	-	-	-	-
	대전/충청권	(0)	-	-	-	-	-	-
	광주/전라권	(1)	(1)	100.0	(0)	0.0	(0)	0.0
	강원, 제주	(0)	-	-	-	-	-	-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	(0)	0.0	(0)	0.0	(1)	100.0
	전문대졸업	(1)	(1)	100.0	(0)	0.0	(0)	0.0
	대학 졸업(학사)	(1)	(1)	100.0	(0)	0.0	(0)	0.0
	대학원졸업(석사)	(0)	-	-	-	-	-	-
	대학원졸업(박사)	(1)	(0)	0.0	(1)	100.0	(0)	0.0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고졸/비전공자(n=4)

반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높아서’(31.3%),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내용으로 현재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와 ‘예술가와 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각각 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필요해서’는 6.3%였다.

[그림 15]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
(n=19, 단위 : %)



[표 108]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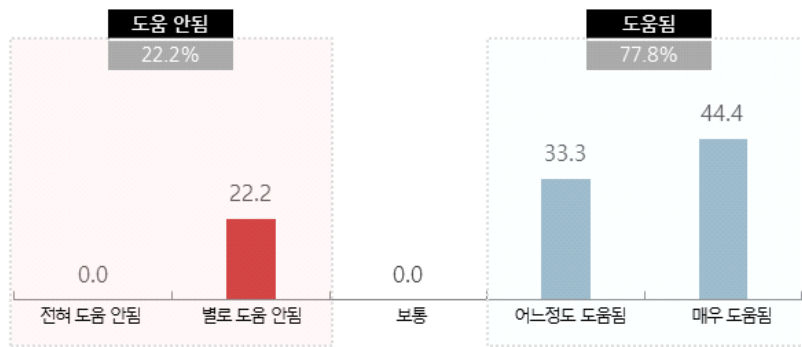
		사례수 (명)	문화예술 교육사 교육과정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이 높아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내용으로 현재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		예술기와 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필요해서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6)	(6)	37.5	(5)	31.3	(2)	12.5	(2)	12.5	(1)	6.3
성별	남성	(2)	(1)	50.0	(1)	50.0	(0)	0.0	(0)	0.0	(0)	0.0
	여성	(14)	(5)	35.7	(4)	28.6	(2)	14.3	(2)	14.3	(1)	7.1
연령별	20대	(1)	(0)	0.0	(0)	0.0	(0)	0.0	(1)	100.0	(0)	0.0
	30대	(3)	(2)	66.7	(1)	33.3	(0)	0.0	(0)	0.0	(0)	0.0
	40대	(6)	(3)	50.0	(1)	16.7	(1)	16.7	(1)	16.7	(0)	0.0
	50대	(3)	(0)	0.0	(2)	66.7	(0)	0.0	(0)	0.0	(1)	33.3
	60대 이상	(3)	(1)	33.3	(1)	33.3	(1)	33.3	(0)	0.0	(0)	0.0
거주지 별	수도권	(9)	(4)	44.4	(1)	11.1	(1)	11.1	(2)	22.2	(1)	11.1
	부산/경남권	(0)	-	-	-	-	-	-	-	-	-	-
	대구/경북권	(3)	(1)	33.3	(2)	66.7	(0)	0.0	(0)	0.0	(0)	0.0
	대전/충청권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광주/전라권	(3)	(0)	0.0	(2)	66.7	(1)	33.3	(0)	0.0	(0)	0.0
학력별	강원, 제주	(0)	-	-	-	-	-	-	-	-	-	-
	고등학교졸업이하	(2)	(1)	50.0	(1)	50.0	(0)	0.0	(0)	0.0	(0)	0.0
	전문대졸업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대학 졸업(학사)	(8)	(3)	37.5	(3)	37.5	(1)	12.5	(1)	12.5	(0)	0.0
	대학원졸업(석사)	(5)	(1)	20.0	(1)	20.0	(1)	20.0	(1)	20.0	(1)	20.0
	대학원졸업(박사)	(0)	-	-	-	-	-	-	-	-	-	-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고졸/비전공자(n=16)

나. 구직 시 도움 정도

경제활동하기 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격소지자에게 구직 시 도움 정도를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되었다’가 77.8%(매우 도움이 되었다 44.4% +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33.3%)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22.2%로 나타났다.

[그림 16] [고졸/비전공자]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
(n=9, 복수응답, 단위 : %)
평균: 4.00점



[표 109] [고졸/비전공자]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도움 정도

		사례수 (명)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 이었다	④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도움 안됨 (①+②)	도움 됨 (④+⑤)	5점 평균
			%	%	%	%	%	%	%	점
전 체		(9)	0.0	22.2	0.0	33.3	44.4	22.2	77.8	4.00
성별	남성	(1)	0.0	0.0	0.0	0.0	100.0	0.0	100.0	5.00
	여성	(8)	0.0	25.0	0.0	37.5	37.5	25.0	75.0	3.88
연령별	20대	(1)	0.0	100.0	0.0	0.0	0.0	100.0	0.0	2.00
	30대	(2)	0.0	0.0	0.0	0.0	100.0	0.0	100.0	5.00
	40대	(4)	0.0	25.0	0.0	50.0	25.0	25.0	75.0	3.75
	50대	(1)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60대 이상	(1)	0.0	0.0	0.0	0.0	100.0	0.0	100.0	5.00
거주지 별	수도권	(6)	0.0	33.3	0.0	16.7	50.0	33.3	66.7	3.83
	부산/경남권	(0)	-	-	-	-	-	-	-	-
	대구/경북권	(2)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대전/충청권	(0)	-	-	-	-	-	-	-	-
	광주/전라권	(1)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강원, 제주	(0)	-	-	-	-	-	-	-	-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0)	-	-	-	-	-	-	-	-
	전문대졸업	(1)	0.0	0.0	0.0	0.0	100.0	0.0	100.0	5.00
	대학 졸업(학사)	(5)	0.0	20.0	0.0	60.0	20.0	20.0	80.0	3.80
	대학원졸업(석사)	(3)	0.0	33.3	0.0	0.0	66.7	33.3	66.7	4.00
	대학원졸업(박사)	(0)	-	-	-	-	-	-	-	-

※ base : 경제활동 전 자격증 취득한 고졸/비전공자(n=9)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와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곳이 많아서’가 각각 50.0%로 나타났다.

[표 110] [고졸/비전공자]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사례수 (명)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곳이 많아서	
			명	%	명	%
전 체		(2)	(1)	50.0	(1)	50.0
성별	남성	(0)	-	-	-	-
	여성	(2)	(1)	50.0	(1)	50.0
연령별	20대	(1)	(1)	100.0	(0)	0.0
	30대	(0)	-	-	-	-
	40대	(1)	(0)	0.0	(1)	100.0
	50대	(0)	-	-	-	-
	60대 이상	(0)	-	-	-	-
거주지별	수도권	(2)	(1)	50.0	(1)	50.0
	부산/경남권	(0)	-	-	-	-
	대구/경북권	(0)	-	-	-	-
	대전/충청권	(0)	-	-	-	-
	광주/전라권	(0)	-	-	-	-
	강원, 제주	(0)	-	-	-	-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0)	-	-	-	-
	전문대졸업	(0)	-	-	-	-
	대학 졸업(학사)	(1)	(0)	0.0	(1)	100.0
	대학원졸업(석사)	(1)	(1)	100.0	(0)	0.0
	대학원졸업(박사)	(0)	-	-	-	-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구직 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고졸/비전공자(n=2)

반면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된 이유로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아서’(57.1%),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아서’(28.6%),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서’(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1] [고졸/비전공자]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

		사례수 (명)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아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아서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서	
			명	%	명	%	명	%
전 체		(7)	(4)	57.1	(2)	28.6	(1)	14.3
성별	남성	(1)	(1)	100.0	(0)	0.0	(0)	0.0
	여성	(6)	(3)	50.0	(2)	33.3	(1)	16.7
연령별	20대	(0)	-	-	-	-	-	-
	30대	(2)	(0)	0.0	(1)	50.0	(1)	50.0
	40대	(3)	(2)	66.7	(1)	33.3	(0)	0.0
	50대	(1)	(1)	100.0	(0)	0.0	(0)	0.0
	60대 이상	(1)	(1)	100.0	(0)	0.0	(0)	0.0
거주지별	수도권	(4)	(2)	50.0	(1)	25.0	(1)	25.0
	부산/경남권	(0)	-	-	-	-	-	-
	대구/경북권	(2)	(1)	50.0	(1)	50.0	(0)	0.0
	대전/충청권	(0)	-	-	-	-	-	-
	광주/전라권	(1)	(1)	100.0	(0)	0.0	(0)	0.0
	강원, 제주	(0)	-	-	-	-	-	-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0)	-	-	-	-	-	-
	전문대졸업	(1)	(0)	0.0	(0)	0.0	(1)	100.0
	대학 졸업(학사)	(4)	(3)	75.0	(1)	25.0	(0)	0.0
	대학원졸업(석사)	(2)	(1)	50.0	(1)	50.0	(0)	0.0
	대학원졸업(박사)	(0)	-	-	-	-	-	-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구직 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고졸/비전공자(n=7)

6.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7.1%로 나타났다.

[표 112]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

		사례수 (명)	그렇다		그렇지 않다		미정이다		참여조건이 되지 않는다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9)	(16)	27.1	(5)	8.5	(5)	8.5	(33)	55.9
성별	남성	(11)	(4)	36.4	(1)	9.1	(2)	18.2	(4)	36.4
	여성	(48)	(12)	25.0	(4)	8.3	(3)	6.3	(29)	60.4
연령별	20대	(1)	(0)	0.0	(1)	100.0	(0)	0.0	(0)	0.0
	30대	(14)	(6)	42.9	(2)	14.3	(1)	7.1	(5)	35.7
	40대	(19)	(6)	31.6	(1)	5.3	(0)	0.0	(12)	63.2
	50대	(15)	(3)	20.0	(1)	6.7	(1)	6.7	(10)	66.7
	60대 이상	(10)	(1)	10.0	(0)	0.0	(3)	30.0	(6)	60.0
거주지별	수도권	(39)	(11)	28.2	(4)	10.3	(3)	7.7	(21)	53.8
	부산/경남권	(4)	(2)	50.0	(0)	0.0	(0)	0.0	(2)	50.0
	대구/경북권	(5)	(1)	20.0	(0)	0.0	(0)	0.0	(4)	80.0
	대전/충청권	(2)	(1)	50.0	(0)	0.0	(0)	0.0	(1)	50.0
	광주/전라권	(7)	(0)	0.0	(1)	14.3	(2)	28.6	(4)	57.1
	강원, 제주	(2)	(1)	50.0	(0)	0.0	(0)	0.0	(1)	50.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6)	(2)	33.3	(0)	0.0	(1)	16.7	(3)	50.0
	전문대졸업	(7)	(0)	0.0	(1)	14.3	(1)	14.3	(5)	71.4
	대학 졸업(학사)	(30)	(13)	43.3	(2)	6.7	(0)	0.0	(15)	50.0
	대학원졸업(석사)	(14)	(1)	7.1	(2)	14.3	(3)	21.4	(8)	57.1
	대학원졸업(박사)	(2)	(0)	0.0	(0)	0.0	(0)	0.0	(2)	100.0

※ base : 고졸/비전공자 전체(n=5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이 있는 고졸/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참여가 가능하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을 살펴본 결과, ‘서울’이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기’(43.8%), ‘부산’, ‘세종’, ‘충북’, ‘충남’(각각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3]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가능 또는 희망 지역

		사례 수 (명)	서울 %	경기 %	부산 %	세종 %	충북 %	충남 %	인천 %	대전 %	전북 %	경북 %
전 체		(16)	62.5	43.8	12.5	12.5	12.5	12.5	6.3	6.3	6.3	6.3
성별	남성	(4)	50.0	25.0	50.0	0.0	0.0	0.0	0.0	0.0	0.0	0.0
	여성	(12)	66.7	50.0	0.0	16.7	16.7	16.7	8.3	8.3	8.3	8.3
연령	20대	(0)	-	-	-	-	-	-	-	-	-	-
	30대	(6)	66.7	16.7	33.3	0.0	16.7	0.0	0.0	0.0	16.7	0.0
	40대	(6)	66.7	66.7	0.0	33.3	16.7	33.3	16.7	16.7	0.0	0.0
	50대	(3)	33.3	33.3	0.0	0.0	0.0	0.0	0.0	0.0	0.0	33.3
	60대 이상	(1)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거주지 별	수도권	(11)	90.9	54.5	0.0	9.1	9.1	9.1	9.1	0.0	9.1	0.0
	부산/경남권	(2)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대구/경북권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대전/충청권	(1)	0.0	0.0	0.0	100.0	100.0	100.0	0.0	100.0	0.0	0.0
	광주/전라권	(0)	-	-	-	-	-	-	-	-	-	-
	강원, 제주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학력 별	고등학교졸업이하	(2)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문대졸업	(0)	-	-	-	-	-	-	-	-	-	-
	대학 졸업(학사)	(13)	53.8	38.5	15.4	15.4	15.4	15.4	7.7	7.7	7.7	7.7
	대학원졸업(석사)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대학원졸업(박사)	(0)	-	-	-	-	-	-	-	-	-	-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고졸/비전공자(n=16), 복수응답

7. 고졸/비전공자의 경제활동 심층 분석

가. 경제활동자와 비활동자의 비교

비활동자의 자격 분야는 미술에서 가장 높았으며, 과거에도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경우가 65.6%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다만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14] [고졸/비전공자] 경제활동자/비활동자 응답자 특성 비교

		전체	경제활동	비활동
사례수		(59)	(27)	(32)
성별	남성	18.6	18.5	18.8
	여성	81.4	81.5	81.3
연령별	20대	1.7	3.7	-
	30대	23.7	25.9	21.9
	40대	32.2	29.6	34.4
	50대	25.4	25.9	25.0
	60대 이상	16.9	14.8	18.8
자격 분야	공예	11.9	18.5	6.3
	국가무형문화재	-	-	-
	국악	20.3	18.5	21.9
	디자인	1.7	-	3.1
	만화/애니메이션	-	-	-
	무용	5.1	-	9.4
	미술	25.4	14.8	<u>34.4</u>
	사진	3.4	3.7	3.1
	연극	22.0	33.3	12.5
	영화	5.1	11.1	-
	음악	5.1	-	9.4
과거 경제활동	있다	59.3	88.9	34.4
	없다	40.7	11.1	<u>65.6</u>

※ base : 고졸/비전공자 전체(n=5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비경제활동자의 100.0%가 기존 자격소지자였으며, 자격 취득 동기는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사례수가 적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115] [고졸/비전공자] 경제활동자/비활동자 자격증 관련 사항 비교

		전체	경제활동	비활동
사례수		(59)	(27)	(32)
구분	기존 자격소지자	100.0	100.0	100.0
	신규 자격취득자	-	-	-
이수 기관	문화예술교육원	79.7	92.6	68.8
	대학	32.2	29.6	34.4
	학점은행제	6.8	3.7	9.4
	국가무형문화재	1.7	-	3.1
	기본연수 과정을 이수한 예술강사	1.7	-	3.1
자격 취득 동기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49.2	55.6	43.8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33.9	44.4	25.0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40.7	33.3	46.9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16.9	18.5	15.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18.6	25.9	12.5
	문화예술 소양 및 향유를 위해서	5.1	11.1	-
	기타	1.7	3.7	-
취득 당시 희망 직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49.2	63.0	37.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27.1	40.7	15.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69.5	70.4	68.8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32.2	48.1	18.8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예술경영)	15.3	18.5	12.5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11.9	25.9	-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8.5	14.8	3.1
	기타	1.7	3.7	-

※ base : 고졸/비전공자 전체(n=5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나. 자격증 취득 시점 비교

고졸/비전공자 중 자격증을 경제활동 후 취득한 경우는 2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제활동 후 취득자의 자격 분야는 연극에서 가장 높았고, 100.0%가 과거 경제활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표 116] [고졸/비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응답자 특성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27)	(9)	(18)
성별	남성	18.5	11.1	22.2
	여성	81.5	88.9	77.8
연령별	20대	3.7	11.1	27.8
	30대	25.9	22.2	22.2
	40대	29.6	44.4	33.3
	50대	25.9	11.1	16.7
	60대 이상	14.8	11.1	-
자격 분야	공예	18.5	22.2	16.7
	국가무형문화재	-	-	-
	국악	18.5	22.2	16.7
	디자인	-	-	-
	만화/애니메이션	-	-	-
	무용	-	-	-
	미술	14.8	11.1	16.7
	사진	3.7	-	5.6
	연극	33.3	22.2	38.9
	영화	11.1	22.2	5.6
	음악	-	-	-
과거 경제활동	있다	88.9	66.7	100.0
	없다	11.1	33.3	-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는 고졸/비전공자(n=2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활동 후 취득자의 취득 동기는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소양 및 향유를 위해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득 당시 희망 직무는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17] [고졸/비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자격증 관련 사항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27)	(9)	(18)
구분	기존 자격소지자	100.0	100.0	100.0
	신규 자격취득자		-	-
이수 기관	문화예술교육원	92.6	100.0	88.9
	대학	29.6	22.2	33.3
	학점은행제	3.7	-	5.6
	국가무형문화재	-	-	-
	기본연수 과정을 이수한 예술강사	-	-	-
자격 취득 동기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55.6	66.7	50.0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44.4	22.2	<u>55.6</u>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33.3	55.6	22.2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18.5	11.1	22.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25.9	11.1	33.3
	문화예술 소양 및 향유를 위해서	11.1	-	<u>16.7</u>
	기타	3.7	-	5.6
취득 당시 희망 직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63.0	55.6	66.7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40.7	44.4	38.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70.4	77.8	66.7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48.1	44.4	50.0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예술경영)	18.5	11.1	22.2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25.9	11.1	<u>33.3</u>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14.8	-	<u>22.2</u>
	기타	3.7	-	5.6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는 고졸/비전공자(n=2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경제활동자는 프리랜서 종사자가 더 많게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18] [고졸/비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경제 활동 형태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27)	(9)	(18)
경제 활동 형태	기관·시설·단체 종사	44.4	33.3	50.0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55.6	66.7	50.0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는 고졸/비전공자(n=2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활동 분야는 취득 시점과 상관없이 모두 문화예술 관련 분야였다. 하지만 사례수가 적어 대표성을 가지는 결과로는 보기 어렵다.

[표 119] [고졸/비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경제 종사 분야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12)	(3)	(9)
종사 분야	문화예술 관련 분야	100.0	100.0	100.0
	타 분야	-	-	-

※ base : 현재 기관·시설·단체 종사하는 고졸/비전공자(n=1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프리랜서의 현재 담당 업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20] [고졸/비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담당 업무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15)	(6)	(9)
담당 업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53.3	50.0	55.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53.3	33.3	66.7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80.0	83.3	77.8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20.0	16.7	22.2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예술경영)	20.0	0.0	33.3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6.7	0.0	11.1
	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	53.3	33.3	66.7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13.3	0.0	22.2
	기타	6.7	0.0	11.1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는 고졸/비전공자 중 프리랜서(n=27)

프리랜서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자의 경우 민간영역 활동 비율이 높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21] [고졸/비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활동 영역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12)	(5)	(7)
활동 영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	58.3	80.0	42.9
	민간영역에서 활동	66.7	60.0	71.4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는 고졸/비전공자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 프리랜서(n=1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기관·시설·단체에서 종사자는 국·공립·공공기관 종사 비율이 가장 높고, 평균 종사 기간은 150.0개월로 나타났다. 담당 업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이 가장 높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22] [고졸/비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업무/직무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12)	(3)	(9)
종사 기관	국·공립·공공기관	41.7	33.3	44.4
	정부부처/지자체	8.3	33.3	-
	예술단체	33.3	33.3	33.3
	사기업	8.3	-	11.1
	초·중·고등학교	8.3	-	11.1
	대학교	-	-	-
	기타	-	-	-
근무 형태	정규직	50.0	33.3	55.6
	비정규직	50.0	66.7	44.4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평균 기간(개월)		150.0	62.0	179.3
담당 업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66.7	33.3	77.8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33.3	-	44.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50.0	66.7	44.4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50.0	33.3	55.6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예술경영)	8.3	-	11.1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16.7	-	22.2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	-	-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	-	-
	기타	-	-	-

※ base : 현재 기관·시설·단체 종사하는 고졸/비전공자(n=1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활동 전 취득자의 자격 취득 전 희망 직무와 현 업무의 일치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타났고, 활동 후 취득자의 일치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으로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23] [고졸/비전공자] 활동 전 취득자의 희망 직무와 현재 업무 비교

현 담당 업무 자격취득 전 희망 직무	사례 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문화예술교육 관련 창작활동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5)	<u>100.0</u>	100.0	42.9	100.0	100.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4)	75.0	<u>100.0</u>	42.9	100.0	100.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7)	75.0	100.0	<u>85.7</u>	100.0	100.0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4)	50.0	50.0	42.9	<u>50.0</u>	50.0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 (예술경영)	(1)	25.0	50.0	14.3	0.0	50.0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1)	25.0	50.0	14.3	0.0	50.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표 124] [고졸/비전공자] 활동 후 취득자의 희망 직무와 현재 업무 비교

현 담당 업무 자격취득 전 희망 직무	사례 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단체 설립 및 운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컨설팅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문화예술교육 관련 창작활동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12)	<u>83.3</u>	70.0	54.5	85.7	75.0	100.0	100.0	66.7	100.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7)	41.7	<u>60.0</u>	45.5	57.1	25.0	50.0	0.0	50.0	0.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12)	66.7	80.0	<u>81.8</u>	57.1	75.0	50.0	100.0	83.3	100.0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9)	50.0	60.0	45.5	57.1	50.0	100.0	0.0	66.7	0.0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 (예술경영)	(4)	25.0	30.0	18.2	28.6	<u>50.0</u>	0.0	100.0	50.0	50.0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6)	33.3	40.0	36.4	42.9	50.0	0.0	100.0	50.0	50.0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4)	25.0	30.0	18.2	28.6	50.0	0.0	<u>100.0</u>	50.0	50.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다. 업무 도움 정도 비교

자격 취득 시점별로 자격증의 현재 업무 도움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활동 전 취득자가 활동 후 취득자에 비해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25] [고졸/비전공자] 자격 취득 시점, 경제활동 형태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27)	59.3	25.9	14.8
자격 취득 시점	활동 전 취득	(9)	88.9	0.0	11.1
	활동 후 취득	(18)	44.4	38.9	16.7
경제활동 형태	기관·시설·단체 종사	(12)	58.3	33.3	8.3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15)	60.0	20.0	20.0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는 고졸/비전공자(n=2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중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업무 도움 정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26] [고졸/비전공자] 종사 분야, 근무 형태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12)	58.3	33.3	8.3
종사 분야	문화예술 관련 분야	(12)	58.3	33.3	8.3
	타 분야	(0)	-	-	-
근무 형태	정규직	(6)	50.0	33.3	16.7
	비정규직	(6)	66.7	33.3	0.0

※ base :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고졸/비전공자(n=12)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고졸/비전공자는 정부부처/지자체에서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 평가가 높고, 사기업에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표 127]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종사기관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12)	58.3	33.3	8.3
종사 기관	국·공립·공공기관	(5)	60.0	40.0	0.0
	정부부처/지자체	(1)	100.0	0.0	0.0
	예술단체	(4)	75.0	25.0	0.0
	사기업	(1)	0.0	0.0	100.0
	초·중·고등학교	(1)	0.0	100.0	0.0
	대학교	(0)	-	-	-
	기타	(0)	-	-	-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하는 고졸/비전공자(n=1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프리랜서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자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 참여자의 업무 도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사례수가 작은 점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

[표 128]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 프리랜서의 업무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활동 영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	(7)	71.4	28.6	0.0
	민간영역에서 활동	(8)	50.0	25.0	25.0

※ base : 활동 후 취득한 고졸/비전공자 중 ‘문화예술교육 강의’ 담당 프리랜서(n=1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라.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자격증의 구직 시 도움 정도는 프리랜서의 평가가 더욱 긍정적이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29] [고졸/비전공자] 경제활동 형태별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9)	77.8	-	22.2
경제활동 형태	기관·시설·단체 종사	(3)	66.7	-	33.3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6)	83.3	-	16.7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고 있는 고졸/비전공자 중 활동 전 취득자(n=9)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중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구직 시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30] [고졸/비전공자]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종사 분야, 근무 형태별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3)	66.7	-	33.3
종사 분야	문화예술 관련 분야	(3)	66.7	-	33.3
	타 분야	(0)	-	-	-
근무 형태	정규직	(1)	0.0	-	100.0
	비정규직	(2)	100.0	-	0.0

※ base : 활동 전 취득한 고졸/비전공자 중 기관·시설·단체 종사자(n=3)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중 국·공립·공공기관과 예술단체에서는 구직 시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정부부처/지자체에서 낮게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31]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3)	66.7	-	33.3
종사 기관	국·공립·공공기관	(1)	100.0	-	0.0
	정부부처/지자체	(1)	0.0	-	100.0
	예술단체	(1)	100.0	-	0.0
	사기업	(0)	-	-	-
	초·중·고등학교	(0)	-	-	-
	대학교	(0)	-	-	-
	기타	(0)	-	-	-

※ base : 활동 전 취득한 고졸/비전공자 중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n=3)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프리랜서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자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 참여자가 민간영역 활동자에 비해 구직 시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32]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 프리랜서의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활동 영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	(4)	100.0	-	0.0
	민간영역에서 활동	(3)	66.7	-	33.3

※ base : 활동 전 취득한 고졸/비전공자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담당’ 프리랜서(n=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II. 자격소지자_예술강사

1. 자격취득 현황

예술강사는 총 808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80.7%로 남성(19.3%)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40대(46.7%)가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이 38.1%로 가장 높고, ‘부산/경남권’(18.4%), ‘광주/전라권’(16.0%), ‘대전/충청권’(12.9%)이 뒤를 이어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대학원졸업(석사)’이 46.0%로 가장 높고, ‘대학 졸업(학사)’이 42.7%로 뒤를 이었다.

[표 133] [예술강사] 자격소지자 응답자 특성

		사례수 (명)	%
전 체		(808)	100.0
성별	남성	(156)	19.3
	여성	(652)	80.7
연령별	20대	(1)	0.1
	30대	(240)	29.7
	40대	(377)	46.7
	50대	(165)	20.4
	60대 이상	(25)	3.1
거주지별 ²⁷⁾	수도권	(308)	38.1
	부산/경남권	(149)	18.4
	대구/경북권	(68)	8.4
	대전/충청권	(104)	12.9
	광주/전라권	(129)	16.0
	강원, 제주	(50)	6.2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2)	1.5
	전문대졸업	(24)	3.0
	대학 졸업(학사)	(345)	42.7
	대학원졸업(석사)	(372)	46.0
	대학원졸업(박사)	(55)	6.8

27)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경남권(부산, 경남, 울산), 대전/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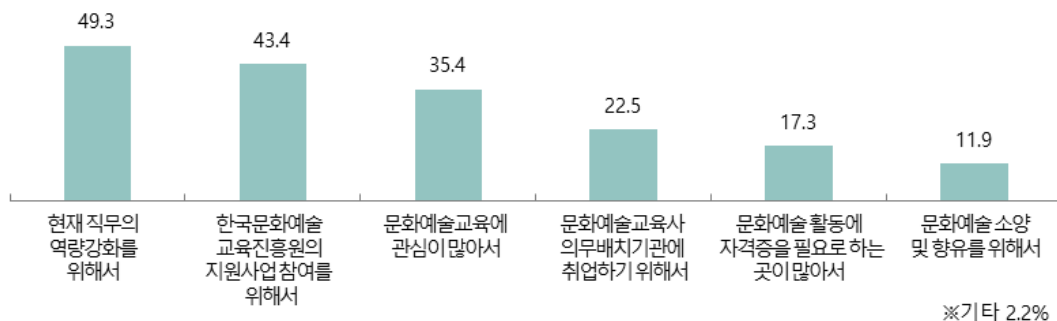
2. 자격취득 동기 및 준비과정

가. 자격취득 동기

문화예술교육사를 취득한 동기는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49.3%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43.4%),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35.4%),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2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사 관심이 많아서’ 문화예술교육사를 취득했다는 응답은 남성이 42.3%로 여성(3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47.3%)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7] [예술강사] 자격증 취득 동기

(n=808, 복수응답, 단위 : %)



[표 134] [예술강사] 자격증 취득 동기

		사례 수 (명)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국문화 예술교육 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문화예술 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문화예술 소양 및 향유를 위해서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808)	(398)	49.3	(351)	43.4	(286)	35.4	(182)	22.5	(140)	17.3	(96)	11.9
성별	남성	(156)	(70)	44.9	(62)	39.7	(66)	42.3	(37)	23.7	(26)	16.7	(25)	16.0
	여성	(652)	(328)	50.3	(289)	44.3	(220)	33.7	(145)	22.2	(114)	17.5	(71)	10.9
연령별	20대	(1)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1)	100.0
	30대	(240)	(118)	49.2	(98)	40.8	(84)	35.0	(60)	25.0	(43)	17.9	(26)	10.8
	40대	(377)	(188)	49.9	(164)	43.5	(138)	36.6	(73)	19.4	(59)	15.6	(43)	11.4
	50대	(165)	(76)	46.1	(78)	47.3	(54)	32.7	(45)	27.3	(31)	18.8	(22)	13.3
	60대 이상	(25)	(15)	60.0	(11)	44.0	(10)	40.0	(3)	12.0	(6)	24.0	(4)	16.0
거주지 별	수도권	(308)	(132)	42.9	(131)	42.5	(111)	36.0	(79)	25.6	(57)	18.5	(34)	11.0
	부산/경남권	(149)	(74)	49.7	(72)	48.3	(56)	37.6	(34)	22.8	(17)	11.4	(11)	7.4
	대구/경북권	(68)	(33)	48.5	(34)	50.0	(19)	27.9	(14)	20.6	(11)	16.2	(9)	13.2
	대전/충청권	(104)	(61)	58.7	(42)	40.4	(39)	37.5	(22)	21.2	(20)	19.2	(19)	18.3
	광주/전라권	(129)	(74)	57.4	(50)	38.8	(50)	38.8	(24)	18.6	(25)	19.4	(18)	14.0
	강원, 제주	(50)	(24)	48.0	(22)	44.0	(11)	22.0	(9)	18.0	(10)	20.0	(5)	10.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2)	(10)	83.3	(7)	58.3	(7)	58.3	(3)	25.0	(7)	58.3	(5)	41.7
	전문대졸업	(24)	(9)	37.5	(10)	41.7	(12)	50.0	(5)	20.8	(4)	16.7	(5)	20.8
	대학 졸업(학사)	(345)	(162)	47.0	(155)	44.9	(114)	33.0	(78)	22.6	(66)	19.1	(37)	10.7
	대학원졸업(석사)	(372)	(191)	51.3	(159)	42.7	(135)	36.3	(83)	22.3	(55)	14.8	(41)	11.0
	대학원졸업(박사)	(55)	(26)	47.3	(20)	36.4	(18)	32.7	(13)	23.6	(8)	14.5	(8)	14.5

※ base : 예술강사 전체(n=808), 복수응답, 기타 2.2%는 표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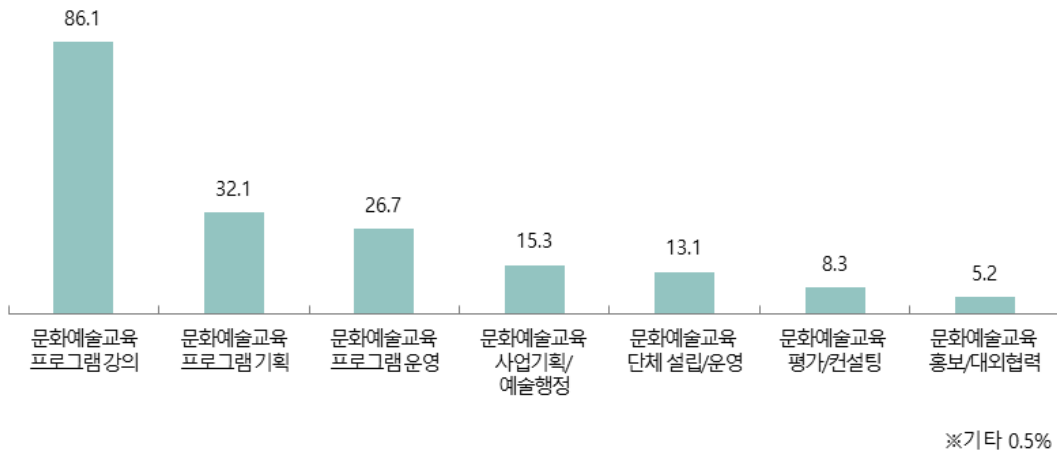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나. 자격취득 당시 희망직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당시, 희망했던 직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가 86.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32.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26.7%),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예술행정’(15.3%)이 뒤를 이어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예술행정’(21.2%),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운영’(17.9%), ‘문화예술교육 홍보/대외협력’(9.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30.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8]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당시 희망 직무

(n=808, 복수응답, 단위 : %)



[표 135]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당시 희망 직무

		사례 수 (명)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육 사업기획/ 예술행정		문화예술 교육 단체 설립/운영		문화예술 교육 평가/ 컨설팅		문화예술 교육 홍보/ 대외협력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808)	(696)	86.1	(259)	32.1	(216)	26.7	(124)	15.3	(106)	13.1	(67)	8.3	(42)	5.2
성별	남성	(156)	(130)	83.3	(39)	25.0	(37)	23.7	(33)	<u>21.2</u>	(28)	<u>17.9</u>	(16)	10.3	(14)	<u>9.0</u>
	여성	(652)	(566)	86.8	(220)	33.7	(179)	27.5	(91)	14.0	(78)	12.0	(51)	7.8	(28)	4.3
연령별	20대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0대	(240)	(215)	89.6	(65)	27.1	(53)	22.1	(31)	12.9	(25)	10.4	(13)	5.4	(6)	2.5
	40대	(377)	(325)	86.2	(132)	35.0	(102)	27.1	(63)	16.7	(54)	14.3	(38)	10.1	(26)	6.9
	50대	(165)	(133)	80.6	(56)	33.9	(50)	<u>30.3</u>	(27)	16.4	(27)	16.4	(14)	8.5	(9)	5.5
	60대 이상	(25)	(22)	88.0	(6)	24.0	(11)	44.0	(3)	12.0	(0)	0.0	(2)	8.0	(1)	4.0
거주지 별	수도권	(308)	(272)	88.3	(107)	34.7	(85)	27.6	(44)	14.3	(35)	11.4	(29)	9.4	(16)	5.2
	부산/경남권	(149)	(129)	86.6	(49)	32.9	(39)	26.2	(22)	14.8	(17)	11.4	(16)	10.7	(7)	4.7
	대구/경북권	(68)	(60)	88.2	(17)	25.0	(13)	19.1	(9)	13.2	(14)	<u>20.6</u>	(4)	5.9	(4)	5.9
	대전/충청권	(104)	(91)	87.5	(29)	27.9	(27)	26.0	(14)	13.5	(15)	14.4	(7)	6.7	(10)	<u>9.6</u>
	광주/전라권	(129)	(105)	81.4	(36)	27.9	(35)	27.1	(26)	<u>20.2</u>	(12)	9.3	(8)	6.2	(4)	3.1
	강원, 제주	(50)	(39)	78.0	(21)	<u>42.0</u>	(17)	<u>34.0</u>	(9)	18.0	(13)	<u>26.0</u>	(3)	6.0	(1)	2.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2)	(10)	83.3	(5)	41.7	(7)	58.3	(3)	25.0	(2)	16.7	(1)	8.3	(3)	25.0
	전문대졸업	(24)	(22)	91.7	(3)	12.5	(6)	25.0	(2)	8.3	(1)	4.2	(0)	0.0	(0)	0.0
	대학 졸업(학사)	(345)	(307)	89.0	(94)	27.2	(77)	22.3	(51)	14.8	(40)	11.6	(26)	7.5	(20)	5.8
	대학원졸업(석사)	(372)	(317)	85.2	(134)	<u>36.0</u>	(109)	29.3	(58)	15.6	(54)	14.5	(36)	9.7	(16)	4.3
	대학원졸업(박사)	(55)	(40)	72.7	(23)	<u>41.8</u>	(17)	<u>30.9</u>	(10)	18.2	(9)	16.4	(4)	7.3	(3)	5.5

※ base : 예술강사 전체(n=808), 복수응답, 기타 0.5%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예술강사의 81.1%는 ‘기본연수 과정 이수’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는 남성(9.0%)이 여성(3.8%)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36]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사례 수 (명)	기본연수 과정 이수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원		대학		국가무형문화재		학점은행제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808)	(655)	81.1	(131)	16.2	(39)	4.8	(10)	1.2	(3)	0.4
성별	남성	(156)	(123)	78.8	(30)	19.2	(14)	<u>9.0</u>	(6)	3.8	(0)	0.0
	여성	(652)	(532)	81.6	(101)	15.5	(25)	3.8	(4)	0.6	(3)	0.5
연령별	20대	(1)	(0)	0.0	(0)	0.0	(1)	100.0	(0)	0.0	(0)	0.0
	30대	(240)	(194)	80.8	(32)	13.3	(18)	7.5	(2)	0.8	(3)	1.3
	40대	(377)	(306)	81.2	(63)	16.7	(17)	4.5	(4)	1.1	(0)	0.0
	50대	(165)	(134)	81.2	(31)	18.8	(2)	1.2	(2)	1.2	(0)	0.0
	60대 이상	(25)	(21)	84.0	(5)	20.0	(1)	4.0	(2)	8.0	(0)	0.0
거주지 별	수도권	(308)	(255)	82.8	(43)	14.0	(15)	4.9	(3)	1.0	(0)	0.0
	부산/경남권	(149)	(125)	83.9	(19)	12.8	(6)	4.0	(3)	2.0	(0)	0.0
	대구/경북권	(68)	(53)	77.9	(17)	<u>25.0</u>	(2)	2.9	(1)	1.5	(0)	0.0
	대전/충청권	(104)	(76)	73.1	(24)	<u>23.1</u>	(6)	5.8	(1)	1.0	(2)	1.9
	광주/전라권	(129)	(106)	82.2	(19)	14.7	(7)	5.4	(1)	0.8	(1)	0.8
	강원, 제주	(50)	(40)	80.0	(9)	18.0	(3)	6.0	(1)	2.0	(0)	0.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2)	(11)	91.7	(2)	16.7	(1)	8.3	(0)	0.0	(0)	0.0
	전문대졸업	(24)	(18)	75.0	(6)	25.0	(0)	0.0	(0)	0.0	(0)	0.0
	대학 졸업(학사)	(345)	(276)	80.0	(55)	15.9	(22)	6.4	(7)	2.0	(2)	0.6
	대학원졸업(석사)	(372)	(308)	82.8	(54)	14.5	(16)	4.3	(3)	0.8	(1)	0.3
	대학원졸업(박사)	(55)	(42)	76.4	(14)	<u>25.5</u>	(0)	0.0	(0)	0.0	(0)	0.0

※ base : 예술강사 전체(n=808), 복수 응답

2)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원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원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아르떼)’이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구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과 ‘한국문화예술교육원’(각각 3.8%), ‘전북문화예술교육원’과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각각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7] [예술강사]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원

문화예술교육원	사례수(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아르떼)	(73)	55.7
대구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5)	3.8
한국문화예술교육원	(5)	3.8
전북문화예술교육원	(4)	3.1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4)	3.1
계명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3)	2.3
부산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3)	2.3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3)	2.3
대진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3)	2.3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2)	1.5
경일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1)	0.8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1)	0.8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1)	0.8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1)	0.8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1)	0.8
한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	0.8
문화예술교육위탁연수원	(1)	0.8
김덕수사물놀이한울림 부여	(1)	0.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0.8
예술강사사업회	(1)	0.8
전통문화마을	(1)	0.8

※ base : 문화예술교육원에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예술강사(n=131), 복수응답

※ 모름/무응답 12.2%는 표에서 제외

3. 경제활동 현황

가. 과거 경제활동 여부

현재 보수를 받고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강사의 95.4%는 과거에도 경제활동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권(80.9%)이 ‘활동한 적 있었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38] [예술강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여부

		사례수 (명)	활동한 적 있었다 (프리랜서 포함)		활동한 적 없었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808)	(618)	76.5	(190)	23.5
현 경제활동 여부	활동하고 있다	(587)	(560)	95.4	(27)	4.6
	활동하지 않고 있다	(221)	(58)	26.2	(163)	73.8
성별	남성	(156)	(115)	73.7	(41)	26.3
	여성	(652)	(503)	77.1	(149)	22.9
연령별	20대	(1)	(0)	0.0	(1)	100.0
	30대	(240)	(182)	75.8	(58)	24.2
	40대	(377)	(286)	75.9	(91)	24.1
	50대	(165)	(129)	78.2	(36)	21.8
	60대 이상	(25)	(21)	84.0	(4)	16.0
거주지별	수도권	(308)	(246)	79.9	(62)	20.1
	부산/경남권	(149)	(112)	75.2	(37)	24.8
	대구/경북권	(68)	(55)	80.9	(13)	19.1
	대전/충청권	(104)	(70)	67.3	(34)	32.7
	광주/전라권	(129)	(98)	76.0	(31)	24.0
	강원, 제주	(50)	(37)	74.0	(13)	26.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2)	(11)	91.7	(1)	8.3
	전문대졸업	(24)	(20)	83.3	(4)	16.7
	대학 졸업(학사)	(345)	(266)	77.1	(79)	22.9
	대학원졸업(석사)	(372)	(284)	76.3	(88)	23.7
	대학원졸업(박사)	(55)	(37)	67.3	(18)	32.7

※ base : 예술강사 전체(n=80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과거에 보수를 받고 활동한 예술강사의 직업 혹은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가 78.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예술단체’(27.3%), ‘초·중·고등학교’(17.8%), ‘국·공립·공공기관’(7.4%), ‘대학교’(7.3%)가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예술단체’(38.3%), 30대는 ‘프리랜서’(82.4%), 40대는 ‘대학교’(1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9] [예술강사] 과거 경제활동 직업/소속기관

		사례수 (명)	프리랜서 (예술강사 포함)	예술단체	초·중· 고등학교	국·공립· 공공기관	대학교	정부부처, 지자체	사기업
			%	%	%	%	%	%	%
전 체		(618)	78.5	27.3	17.8	7.4	7.3	4.5	2.1
성별	남성	(115)	73.0	38.3	16.5	7.0	7.0	3.5	0.0
	여성	(503)	79.7	24.9	18.1	7.6	7.4	4.8	2.6
연령별	20대	(0)	-	-	-	-	-	-	-
	30대	(182)	82.4	25.8	14.3	4.4	2.2	2.7	2.2
	40대	(286)	76.2	26.9	18.9	7.7	11.2	5.9	2.1
	50대	(129)	76.7	28.7	19.4	10.9	6.2	3.9	2.3
	60대 이상	(21)	85.7	38.1	23.8	9.5	4.8	4.8	0.0
거주지 별	수도권	(246)	74.8	23.2	18.7	8.9	9.3	5.7	2.8
	부산/경남권	(112)	87.5	25.9	15.2	6.3	5.4	3.6	3.6
	대구/경북권	(55)	81.8	29.1	21.8	3.6	9.1	5.5	0.0
	대전/충청권	(70)	80.0	31.4	18.6	14.3	7.1	1.4	0.0
	광주/전라권	(98)	77.6	30.6	19.4	4.1	5.1	4.1	2.0
	강원, 제주	(37)	70.3	40.5	8.1	2.7	2.7	5.4	0.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1)	90.9	63.6	18.2	9.1	0.0	0.0	0.0
	전문대졸업	(20)	80.0	45.0	15.0	10.0	0.0	5.0	0.0
	대학 졸업(학사)	(266)	78.9	28.6	16.5	9.0	1.5	3.4	1.5
	대학원졸업(석사)	(284)	79.2	23.6	18.7	5.3	11.3	5.6	2.5
	대학원졸업(박사)	(37)	64.9	27.0	21.6	10.8	24.3	5.4	5.4

※ base : 과거 경제활동을 경험이 있는 예술강사(n=618), 복수응답, 기타 0.2%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기

나. 경제활동 여부

예술강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2.6로 과거 경제활동 참가율(88.4%)보다 15.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50대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77.6%)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40] [예술강사] 자격소지자의 현재 경제활동 여부

		사례수 (명)	활동하고 있다 (프리랜서 포함)		활동하지 않고 있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808)	(587)	72.6	(221)	27.4
성별	남성	(156)	(106)	67.9	(50)	32.1
	여성	(652)	(481)	73.8	(171)	26.2
연령별	20대	(1)	(0)	0.0	(1)	100.0
	30대	(240)	(172)	71.7	(68)	28.3
	40대	(377)	(267)	70.8	(110)	29.2
	50대	(165)	(128)	77.6	(37)	22.4
	60대 이상	(25)	(20)	80.0	(5)	20.0
거주지별	수도권	(308)	(231)	75.0	(77)	25.0
	부산/경남권	(149)	(106)	71.1	(43)	28.9
	대구/경북권	(68)	(52)	76.5	(16)	23.5
	대전/충청권	(104)	(67)	64.4	(37)	35.6
	광주/전라권	(129)	(90)	69.8	(39)	30.2
	강원, 제주	(50)	(41)	82.0	(9)	18.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2)	(10)	83.3	(2)	16.7
	전문대졸업	(24)	(19)	79.2	(5)	20.8
	대학 졸업(학사)	(345)	(256)	74.2	(89)	25.8
	대학원졸업(석사)	(372)	(271)	72.8	(101)	27.2
	대학원졸업(박사)	(55)	(31)	56.4	(24)	43.6

※ base : 예술강사 전체(n=80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다. 경제활동 형태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강사의 77.9%는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로 활동하고 있으며, 22.1%는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로 활동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대(83.7%)에서, ‘기관·시설·단체’에서 종사하고 있다는 응답은 40대(26.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41] [예술강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형태

		사례수 (명)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기관·시설·단체 종사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87)	(457)	77.9	(130)	22.1
성별	남성	(106)	(79)	74.5	(27)	25.5
	여성	(481)	(378)	78.6	(103)	21.4
연령별	20대	(0)	-	-	-	-
	30대	(172)	(144)	<u>83.7</u>	(28)	16.3
	40대	(267)	(197)	73.8	(70)	<u>26.2</u>
	50대	(128)	(99)	77.3	(29)	22.7
	60대 이상	(20)	(17)	85.0	(3)	15.0
거주지별	수도권	(231)	(180)	77.9	(51)	22.1
	부산/경남권	(106)	(85)	80.2	(21)	19.8
	대구/경북권	(52)	(43)	<u>82.7</u>	(9)	17.3
	대전/충청권	(67)	(48)	71.6	(19)	<u>28.4</u>
	광주/전라권	(90)	(71)	78.9	(19)	21.1
	강원, 제주	(41)	(30)	73.2	(11)	<u>26.8</u>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0)	(9)	90.0	(1)	10.0
	전문대졸업	(19)	(15)	78.9	(4)	21.1
	대학 졸업(학사)	(256)	(195)	76.2	(61)	23.8
	대학원졸업(석사)	(271)	(214)	79.0	(57)	21.0
	대학원졸업(박사)	(31)	(24)	77.4	(7)	22.6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강사(n=58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1)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주요 업무

기관·시설·단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예술강사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가 83.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20.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13.8%),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예술행정’(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2] [예술강사]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주요 업무

		사례수 (명)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육 사업기획/ 예술행정	문화예술 교육 단체 설립/ 운영	문화예술 교육 평가/ 컨설팅	문화예술 교육 자원조사
			%	%	%	%	%	%	%
전 체		(130)	83.1	20.0	13.8	10.8	6.9	4.6	2.3
성별	남성	(27)	88.9	18.5	11.1	11.1	7.4	3.7	0.0
	여성	(103)	81.6	20.4	14.6	10.7	6.8	4.9	2.9
연령별	20대	(0)	-	-	-	-	-	-	-
	30대	(28)	85.7	7.1	7.1	3.6	0.0	0.0	0.0
	40대	(70)	80.0	22.9	12.9	12.9	7.1	2.9	2.9
	50대	(29)	86.2	24.1	20.7	13.8	13.8	10.3	0.0
	60대 이상	(3)	100.0	33.3	33.3	0.0	0.0	33.3	33.3
거주지 별	수도권	(51)	86.3	11.8	7.8	5.9	5.9	5.9	2.0
	부산/경남권	(21)	85.7	33.3	23.8	9.5	4.8	9.5	4.8
	대구/경북권	(9)	77.8	11.1	0.0	0.0	11.1	0.0	0.0
	대전/충청권	(19)	78.9	21.1	10.5	26.3	10.5	0.0	0.0
	광주/전라권	(19)	78.9	26.3	31.6	15.8	10.5	5.3	0.0
	강원, 제주	(11)	81.8	27.3	9.1	9.1	0.0	0.0	9.1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	100.0	0.0	0.0	0.0	0.0	0.0	0.0
	전문대졸업	(4)	75.0	25.0	0.0	0.0	0.0	0.0	0.0
	대학 졸업(학사)	(61)	91.8	13.1	13.1	8.2	6.6	0.0	3.3
	대학원졸업(석사)	(57)	77.2	26.3	17.5	15.8	7.0	10.5	1.8
	대학원졸업(박사)	(7)	57.1	28.6	0.0	0.0	14.3	0.0	0.0
근무 형태	정규직	(12)	41.7	41.7	33.3	25.0	41.7	16.7	0.0
	비정규직	(118)	87.3	17.8	11.9	9.3	3.4	3.4	2.5

※ base : 기관·시설·단체 종사하고 있는 예술강사(n=130), 복수응답, 기타 3.1%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 프리랜서 주요 업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강사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가 94.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33.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21.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3] [예술강사] 프리랜서 주요 업무

		사례 수 (명)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의	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육 자원조사	문화예술 교육 단체 설립/ 운영	문화예술 교육 사업기획 /예술 행정	문화예술 교육 평가/ 컨설팅	문화예술 교육 홍보/ 대외협력
			%	%	%	%	%	%	%	%	%
전 체		(457)	94.5	33.9	21.0	16.2	10.5	8.5	6.3	2.2	1.1
성별	남성	(79)	92.4	<u>50.6</u>	16.5	11.4	6.3	8.9	7.6	5.1	1.3
	여성	(378)	95.0	30.4	22.0	17.2	11.4	8.5	6.1	1.6	1.1
연령 별	20대	(144)	92.4	27.8	17.4	10.4	9.7	4.9	4.9	1.4	0.0
	30대	(197)	97.0	<u>38.1</u>	22.8	18.3	10.7	7.6	5.6	2.5	1.5
	40대	(99)	91.9	31.3	24.2	<u>20.2</u>	10.1	<u>14.1</u>	<u>10.1</u>	2.0	2.0
	50대	(17)	100.0	52.9	11.8	17.6	17.6	17.6	5.9	5.9	0.0
	60대 이상	(180)	94.4	35.0	23.9	16.7	13.9	6.1	3.3	1.1	0.6
거주 지별	수도권	(85)	96.5	30.6	12.9	9.4	8.2	0.0	3.5	1.2	1.2
	부산/경남권	(43)	90.7	30.2	14.0	16.3	11.6	11.6	4.7	2.3	2.3
	대구/경북권	(48)	89.6	22.9	22.9	14.6	8.3	<u>14.6</u>	6.3	2.1	0.0
	대전/충청권	(71)	97.2	<u>39.4</u>	19.7	<u>22.5</u>	7.0	<u>14.1</u>	<u>11.3</u>	<u>7.0</u>	1.4
	광주/전라권	(30)	96.7	<u>46.7</u>	<u>36.7</u>	<u>20.0</u>	6.7	<u>20.0</u>	<u>23.3</u>	0.0	3.3
	강원, 제주	(9)	100.0	55.6	22.2	33.3	11.1	22.2	22.2	11.1	11.1
학력 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5)	93.3	60.0	6.7	0.0	0.0	6.7	0.0	0.0	0.0
	전문대졸업	(195)	93.3	34.4	20.0	14.4	10.8	8.2	6.2	2.1	1.0
	대학 졸업(학사)	(214)	96.7	31.3	20.6	16.8	11.2	7.5	5.1	1.9	0.9
	대학원졸업(석사)	(24)	83.3	29.2	41.7	29.2	8.3	16.7	16.7	4.2	0.0
	대학원졸업(박사)	(44)	84.1	29.5	25.0	27.3	15.9	9.1	13.6	2.3	0.0

※ base :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강사(n=457), 복수응답, 기타 0.4%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라. 관련 분야 종사 여부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기관 및 시설, 단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예술강사의 98.5%가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예술강사의 대다수가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예술강사의 근무 기간은 평균 13년 9개월(165.1개월)로 문화예술 관련 분야가 아닌 타 분야 종사 예술강사(평균 11년 6개월(138.0개월))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4] [예술강사] 자격소지자의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여부

		사례수 (명)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문화예술 관련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사례수	%	평균(개월)	사례수	%	평균(개월)
전 체		(130)	(128)	98.5	165.1	(2)	1.5	138.0
성별	남성	(27)	(25)	92.6	201.4	(2)	7.4	138.0
	여성	(103)	(103)	100.0	156.2	(0)	0.0	0.0
연령별	20대	(0)	-	-	-	-	-	-
	30대	(28)	(28)	100.0	108.6	(0)	0.0	0.0
	40대	(70)	(68)	97.1	162.6	(2)	2.9	138.0
	50대	(29)	(29)	100.0	210.1	(0)	0.0	0.0
	60대 이상	(3)	(3)	100.0	314.0	(0)	0.0	0.0
거주 지별	수도권	(51)	(49)	96.1	144.4	(2)	3.9	138.0
	부산/경남권	(21)	(21)	100.0	158.2	(0)	0.0	0.0
	대구/경북권	(9)	(9)	100.0	203.2	(0)	0.0	0.0
	대전/충청권	(19)	(19)	100.0	179.1	(0)	0.0	0.0
	광주/전라권	(19)	(19)	100.0	188.2	(0)	0.0	0.0
	강원, 제주	(11)	(11)	100.0	174.8	(0)	0.0	0.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	(1)	100.0	89.0	(0)	0.0	0.0
	전문대졸업	(4)	(4)	100.0	203.3	(0)	0.0	0.0
	대학 졸업(학사)	(61)	(60)	98.4	152.4	(1)	1.6	210.0
	대학원졸업(석사)	(57)	(56)	98.2	171.9	(1)	1.8	66.0
	대학원졸업(박사)	(7)	(7)	100.0	207.4	(0)	0.0	0.0

※ base :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강사(n=13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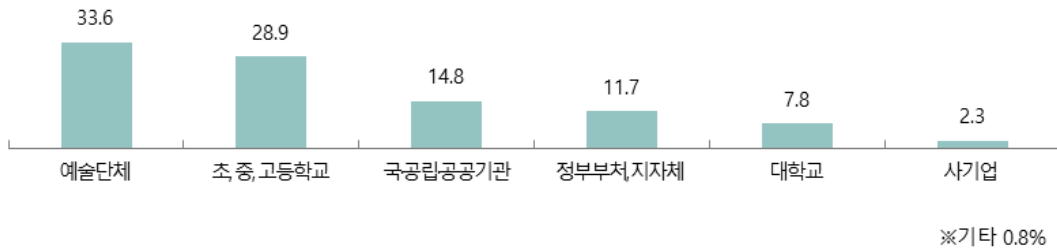
마. 자격소지자 직업 혹은 소속기관

1) 문화예술 관련 분야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강사의 직업 혹은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예술단체’가 33.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초·중·고등학교’(28.9%), ‘국·공립·공공기관’(14.8%), ‘정부부처, 지자체’(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40대는 ‘정부부처, 지자체’(16.2%)와 ‘대학교’(11.8%)에서 종사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9] [예술강사]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 직업/소속기관

(n=128, 단위 : %)



[표 145] [예술강사]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 직업/소속기관

		사례수 (명)	예술단체		초,중, 고등학교		국·공립· 공공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대학교		사기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28)	(43)	33.6	(37)	28.9	(19)	14.8	(15)	11.7	(10)	7.8	(3)	2.3
성별	남성	(25)	(10)	40.0	(5)	20.0	(5)	20.0	(1)	4.0	(4)	16.0	(0)	0.0
	여성	(103)	(33)	32.0	(32)	31.1	(14)	13.6	(14)	13.6	(6)	5.8	(3)	2.9
연령 별	20대	(0)	-	-	-	-	-	-	-	-	-	-	-	-
	30대	(28)	(9)	32.1	(13)	46.4	(5)	17.9	(0)	0.0	(1)	3.6	(0)	0.0
	40대	(68)	(21)	30.9	(17)	25.0	(10)	14.7	(11)	16.2	(8)	11.8	(1)	1.5
	50대	(29)	(11)	37.9	(6)	20.7	(4)	13.8	(4)	13.8	(1)	3.4	(2)	6.9
	60대 이상	(3)	(2)	66.7	(1)	33.3	(0)	0.0	(0)	0.0	(0)	0.0	(0)	0.0
거주 지별	수도권	(49)	(10)	20.4	(12)	24.5	(12)	24.5	(5)	10.2	(7)	14.3	(2)	4.1
	부산/경남권	(21)	(7)	33.3	(10)	47.6	(1)	4.8	(3)	14.3	(0)	0.0	(0)	0.0
	대구/경북권	(9)	(5)	55.6	(3)	33.3	(1)	11.1	(0)	0.0	(0)	0.0	(0)	0.0
	대전/충청권	(19)	(10)	52.6	(3)	15.8	(2)	10.5	(2)	10.5	(1)	5.3	(1)	5.3
	광주/전라권	(19)	(7)	36.8	(5)	26.3	(2)	10.5	(3)	15.8	(2)	10.5	(0)	0.0
	강원, 제주	(11)	(4)	36.4	(4)	36.4	(1)	9.1	(2)	18.2	(0)	0.0	(0)	0.0
학력 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전문대졸업	(4)	(2)	50.0	(1)	25.0	(0)	0.0	(1)	25.0	(0)	0.0	(0)	0.0
	대학 졸업(학사)	(60)	(21)	35.0	(22)	36.7	(10)	16.7	(4)	6.7	(3)	5.0	(0)	0.0
	대학원졸업(석사)	(56)	(15)	26.8	(13)	23.2	(9)	16.1	(10)	17.9	(6)	10.7	(2)	3.6
	대학원졸업(박사)	(7)	(4)	57.1	(1)	14.3	(0)	0.0	(0)	0.0	(1)	14.3	(1)	14.3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강사(n=128), 기타 0.8%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기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강사의 90.6%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6] [예술강사]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의 근무 형태

		사례수 (명)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명	%	명	%
전 체		(128)	(12)	9.4	(116)	90.6
성별	남성	(25)	(3)	12.0	(22)	88.0
	여성	(103)	(9)	8.7	(94)	91.3
연령별	20대	(0)	-	-	-	-
	30대	(28)	(3)	10.7	(25)	89.3
	40대	(68)	(8)	11.8	(60)	88.2
	50대	(29)	(1)	3.4	(28)	96.6
	60대 이상	(3)	(0)	0.0	(3)	100.0
거주지별	수도권	(49)	(5)	10.2	(44)	89.8
	부산/경남권	(21)	(1)	4.8	(20)	95.2
	대구/경북권	(9)	(1)	11.1	(8)	88.9
	대전/충청권	(19)	(1)	5.3	(18)	94.7
	광주/전라권	(19)	(3)	15.8	(16)	84.2
	강원, 제주	(11)	(1)	9.1	(10)	90.9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	(1)	100.0	(0)	0.0
	전문대졸업	(4)	(1)	25.0	(3)	75.0
	대학 졸업(학사)	(60)	(1)	1.7	(59)	98.3
	대학원졸업(석사)	(56)	(6)	10.7	(50)	89.3
	대학원졸업(박사)	(7)	(3)	42.9	(4)	57.1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강사(n=128)

2) 타 분야

문화예술 관련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강사의 직업/소속기관을 살펴보면, ‘정부부처, 지자체’와 ‘초·중·고등학교’가 각각 50.0%로 나타났다.

[표 147] [예술강사] 타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 직업/소속기관

		사례수 (명)	정부부처, 지자체		초, 중, 고등학교	
			명	%	명	%
전 체		(2)	(1)	50.0	(1)	50.0
성별	남성	(25)	(3)	12.0	(22)	88.0
	여성	(0)	-	-	-	-
연령별	20대	(0)	-	-	-	-
	30대	(0)	-	-	-	-
	40대	(2)	(1)	50.0	(1)	50.0
	50대	(0)	-	-	-	-
	60대 이상	(0)	-	-	-	-
거주지별	수도권	(2)	(1)	50.0	(1)	50.0
	부산/경남권	(0)	-	-	-	-
	대구/경북권	(0)	-	-	-	-
	대전/충청권	(0)	-	-	-	-
	광주/전라권	(0)	-	-	-	-
	강원, 제주	(0)	-	-	-	-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0)	-	-	-	-
	전문대졸업	(0)	-	-	-	-
	대학 졸업(학사)	(1)	(0)	0.0	(1)	100.0
	대학원졸업(석사)	(1)	(1)	100.0	(0)	0.0
	대학원졸업(박사)	(0)	-	-	-	-

※ base : 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강사(n=2)

[표 148] [예술강사] 타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의 근무 형태

		사례수 (명)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명	%	명	%
전 체		(2)	(0)	0.0	(2)	100.0
성별	남성	(2)	(0)	0.0	(2)	100.0
	여성	(0)	-	-	-	-
연령별	20대	(0)	-	-	-	-
	30대	(0)	-	-	-	-
	40대	(2)	(0)	0.0	(2)	100.0
	50대	(0)	-	-	-	-
	60대 이상	(0)	-	-	-	-
거주지별	수도권	(2)	(0)	0.0	(2)	100.0
	부산/경남권	(0)	-	-	-	-
	대구/경북권	(0)	-	-	-	-
	대전/충청권	(0)	-	-	-	-
	광주/전라권	(0)	-	-	-	-
	강원, 제주	(0)	-	-	-	-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0)	-	-	-	-
	전문대졸업	(0)	-	-	-	-
	대학 졸업(학사)	(1)	(0)	0.0	(1)	100.0
	대학원졸업(석사)	(1)	(0)	0.0	(1)	100.0
	대학원졸업(박사)	(0)	-	-	-	-

※ base : 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강사(n=2)

3) 프리랜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있는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의 88.2%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이며, 27.5%는 ‘민간영역(문화센터, 기관, 학원 등)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영역에서 활동한 기간은 평균 14년 3개월(171.2개월)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간(평균 12년 1개월(145.4개월))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9] [예술강사] 예술강사 활동 분야

		사례수 (명)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		
			명	%	개월	명	%	개월
전 체		(432)	(381)	88.2	145.4	(119)	27.5	171.2
성별	남성	(73)	(58)	79.5	160.5	(29)	39.7	178.1
	여성	(359)	(323)	90.0	142.7	(90)	25.1	169.0
연령별	20대	(0)	-	-	-	-	-	-
	30대	(133)	(119)	89.5	126.6	(30)	22.6	121.8
	40대	(191)	(168)	88.0	148.3	(57)	29.8	179.6
	50대	(91)	(80)	87.9	160.0	(24)	26.4	221.1
	60대 이상	(17)	(14)	82.4	185.3	(8)	47.1	146.9
거주지별	수도권	(170)	(148)	87.1	141.3	(41)	24.1	154.8
	부산/경남권	(82)	(77)	93.9	145.5	(17)	20.7	176.8
	대구/경북권	(39)	(33)	84.6	149.2	(13)	33.3	176.6
	대전/충청권	(43)	(38)	88.4	150.8	(17)	39.5	210.9
	광주/전라권	(69)	(58)	84.1	154.3	(23)	33.3	170.4
	강원, 제주	(29)	(27)	93.1	136.3	(8)	27.6	152.4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9)	(7)	77.8	215.4	(8)	88.9	237.9
	전문대졸업	(14)	(14)	100.0	151.0	(2)	14.3	259.5
	대학 졸업(학사)	(182)	(165)	90.7	146.7	(41)	22.5	162.3
	대학원졸업(석사)	(207)	(180)	87.0	142.1	(61)	29.5	169.2
	대학원졸업(박사)	(20)	(15)	75.0	132.1	(7)	35.0	139.4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를 하고 있는 예술강사(n=432),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기

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점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강사의 92.7%는 경제활동 한 뒤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7.3%는 경제활동하기 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0]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점

		사례수 (명)	활동하기 전 자격증 취득		활동한 뒤 자격증 취득	
			명	%	명	%
전 체		(587)	(43)	7.3	(544)	92.7
성별	남성	(106)	(7)	6.6	(99)	93.4
	여성	(481)	(36)	7.5	(445)	92.5
연령별	20대	(0)	-	-	-	-
	30대	(172)	(11)	6.4	(161)	93.6
	40대	(267)	(22)	8.2	(245)	91.8
	50대	(128)	(8)	6.3	(120)	93.8
	60대 이상	(20)	(2)	10.0	(18)	90.0
거주지별	수도권	(231)	(14)	6.1	(217)	93.9
	부산/경남권	(106)	(8)	7.5	(98)	92.5
	대구/경북권	(52)	(5)	9.6	(47)	90.4
	대전/충청권	(67)	(4)	6.0	(63)	94.0
	광주/전라권	(90)	(7)	7.8	(83)	92.2
	강원, 제주	(41)	(5)	12.2	(36)	87.8
학력별	고등학교졸이하	(10)	(1)	10.0	(9)	90.0
	전문대졸업	(19)	(2)	10.5	(17)	89.5
	대학 졸업(학사)	(256)	(13)	5.1	(243)	94.9
	대학원졸업(석사)	(271)	(23)	8.5	(248)	91.5
	대학원졸업(박사)	(31)	(4)	12.9	(27)	87.1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강사(n=58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5. 자격취득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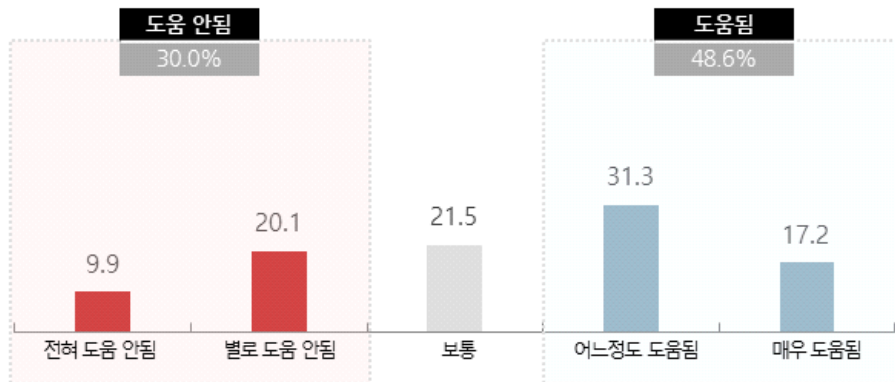
가. 업무 도움 정도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48.6%(매우 도움이 된다 17.2%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31.3%)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0%(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9.9%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로 나타났다.

[그림 20]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

(n= 587, 단위 : %점(5점 만점))

평균: 3.2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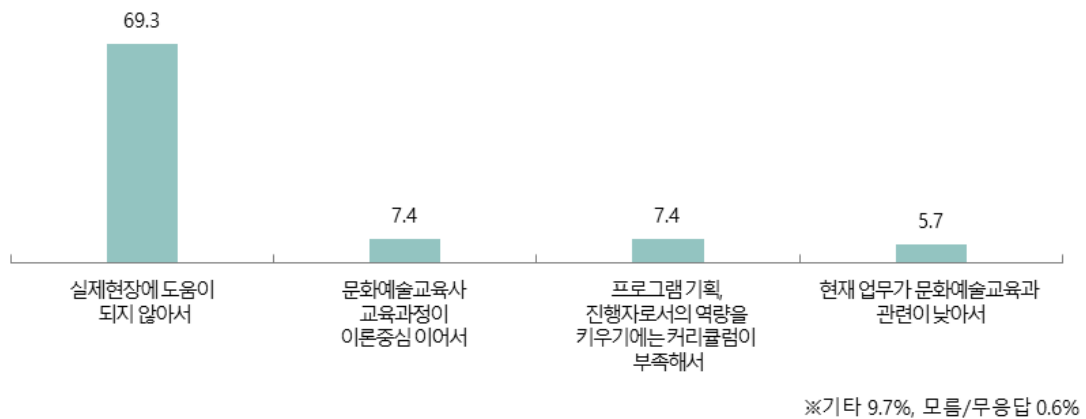
[표 151]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

		사례수 (명)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보통 이다	④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 안됨 (①+②)	도움 됨 (④+⑤)	5점 평균
			%	%	%	%	%	%	%	점
전 체		(587)	9.9	20.1	21.5	31.3	17.2	30.0	48.6	3.26
성별	남성	(106)	10.4	23.6	22.6	28.3	15.1	34.0	43.4	3.14
	여성	(481)	9.8	19.3	21.2	32.0	17.7	29.1	49.7	3.28
연령별	20대	(0)	—	—	—	—	—	—	—	—
	30대	(172)	9.3	22.1	22.7	32.6	13.4	31.4	45.9	3.19
	40대	(267)	10.1	19.1	22.5	30.0	18.4	29.2	48.3	3.27
	50대	(128)	10.9	18.0	19.5	32.0	19.5	28.9	51.6	3.31
	60대 이상	(20)	5.0	30.0	10.0	35.0	20.0	35.0	55.0	3.35
거주지 별	수도권	(231)	12.6	19.9	25.5	28.6	13.4	32.5	42.0	3.10
	부산/경남권	(106)	5.7	22.6	24.5	32.1	15.1	28.3	47.2	3.28
	대구/경북권	(52)	15.4	19.2	17.3	21.2	26.9	34.6	48.1	3.25
	대전/충청권	(67)	10.4	14.9	16.4	34.3	23.9	25.4	58.2	3.46
	광주/전라권	(90)	5.6	22.2	14.4	37.8	20.0	27.8	57.8	3.44
학력별	강원, 제주	(41)	7.3	19.5	19.5	39.0	14.6	26.8	53.7	3.34
	고등학교졸업이하	(10)	0.0	30.0	0.0	40.0	30.0	30.0	70.0	3.70
	전문대졸업	(19)	10.5	5.3	26.3	36.8	21.1	15.8	57.9	3.53
	대학 졸업(학사)	(256)	9.4	18.4	24.6	29.7	18.0	27.7	47.7	3.29
	대학원졸업(석사)	(271)	9.6	21.8	19.6	33.6	15.5	31.4	49.1	3.24
	대학원졸업(박사)	(31)	19.4	25.8	16.1	19.4	19.4	45.2	38.7	2.94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강사(n=587)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 되지 않는 이유는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6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이론 중심이어서’와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커리큘럼이 부족해서’(각각 7.4%),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낮아서’(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는 30대(74.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n=176, 복수응답, 단위 : %)



[표 152]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사례수 (명)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이론 중심 이어서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커리큘럼이 부족해서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낮아서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76)	(122)	69.3	(13)	7.4	(13)	7.4	(10)	5.7
성별	남성	(36)	(26)	72.2	(1)	2.8	(2)	5.6	(2)	5.6
	여성	(140)	(96)	68.6	(12)	8.6	(11)	7.9	(8)	5.7
연령별	20대	(0)	-	-	-	-	-	-	-	-
	30대	(54)	(40)	74.1	(4)	7.4	(3)	5.6	(2)	3.7
	40대	(78)	(53)	67.9	(6)	7.7	(8)	10.3	(5)	6.4
	50대	(37)	(25)	67.6	(2)	5.4	(2)	5.4	(3)	8.1
	60대 이상	(7)	(4)	57.1	(1)	14.3	(0)	0.0	(0)	0.0
거주지 별	수도권	(75)	(46)	61.3	(6)	8.0	(7)	9.3	(5)	6.7
	부산/경남권	(30)	(24)	80.0	(1)	3.3	(2)	6.7	(1)	3.3
	대구/경북권	(18)	(14)	77.8	(0)	0.0	(2)	11.1	(1)	5.6
	대전/충청권	(17)	(12)	70.6	(2)	11.8	(0)	0.0	(2)	11.8
	광주/전라권	(25)	(19)	76.0	(1)	4.0	(2)	8.0	(1)	4.0
	강원, 제주	(11)	(7)	63.6	(3)	27.3	(0)	0.0	(0)	0.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3)	(1)	33.3	(0)	0.0	(1)	33.3	(0)	0.0
	전문대졸업	(3)	(2)	66.7	(0)	0.0	(0)	0.0	(0)	0.0
	대학 졸업(학사)	(71)	(55)	77.5	(6)	8.5	(4)	5.6	(1)	1.4
	대학원졸업(석사)	(85)	(55)	64.7	(6)	7.1	(7)	8.2	(8)	9.4
	대학원졸업(박사)	(14)	(9)	64.3	(1)	7.1	(1)	7.1	(1)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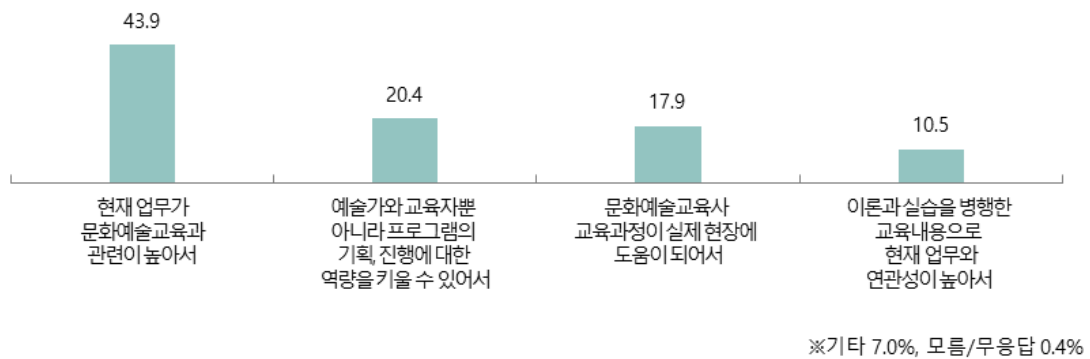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예술강사(n=176)

※ 기타 9.7%, 모름/무응답 0.6%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반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높아서’가 43.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예술가와 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20.4%),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17.9%),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내용으로 현재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높아서’(48.1%), 남성은 ‘예술가와 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39.1%)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26.1%)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2]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
(n=285, 복수응답, 단위 : %)



[표 153]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

		사례수 (명)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높아서		예술가와 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내용으로 현재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	
			명	%	명	%	명	%	명	%
전 체		(285)	(125)	43.9	(58)	20.4	(51)	17.9	(30)	10.5
성별	남성	(46)	(10)	21.7	(18)	<u>39.1</u>	(12)	<u>26.1</u>	(3)	6.5
	여성	(239)	(115)	<u>48.1</u>	(40)	16.7	(39)	16.3	(27)	11.3
연령별	20대	(0)	-	-	-	-	-	-	-	-
	30대	(79)	(42)	<u>53.2</u>	(7)	8.9	(18)	<u>22.8</u>	(10)	12.7
	40대	(129)	(55)	42.6	(29)	22.5	(19)	14.7	(15)	11.6
	50대	(66)	(26)	39.4	(21)	<u>31.8</u>	(11)	16.7	(2)	3.0
	60대 이상	(11)	(2)	18.2	(1)	9.1	(3)	27.3	(3)	27.3
거주지 별	수도권	(97)	(46)	<u>47.4</u>	(21)	21.6	(19)	19.6	(7)	7.2
	부산/경남권	(50)	(23)	46.0	(7)	14.0	(10)	20.0	(4)	8.0
	대구/경북권	(25)	(6)	24.0	(6)	24.0	(9)	36.0	(3)	12.0
	대전/충청권	(39)	(11)	28.2	(10)	<u>25.6</u>	(6)	15.4	(7)	<u>17.9</u>
	광주/전라권	(52)	(28)	<u>53.8</u>	(12)	23.1	(4)	7.7	(7)	13.5
	강원, 제주	(22)	(11)	50.0	(2)	9.1	(3)	13.6	(2)	9.1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7)	(2)	28.6	(1)	14.3	(1)	14.3	(2)	28.6
	전문대졸업	(11)	(10)	90.9	(0)	0.0	(1)	9.1	(0)	0.0
	대학 졸업(학사)	(122)	(53)	43.4	(24)	19.7	(24)	19.7	(11)	9.0
	대학원졸업(석사)	(133)	(59)	44.4	(29)	21.8	(23)	17.3	(15)	11.3
	대학원졸업(박사)	(12)	(1)	8.3	(4)	33.3	(2)	16.7	(2)	16.7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예술강사(n=285)

※ 기타 7.0%, 모름/무응답 0.4%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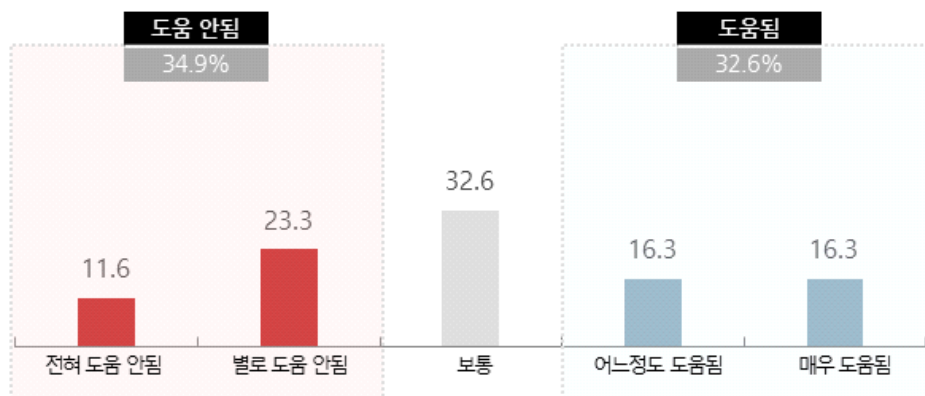
나. 구직 시 도움 정도

경제활동하기 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응답자에게 구직 시 도움 정도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34.9%(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1.6% +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23.3%)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32.6%(매우 도움이 되었다 16.3% +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16.3%)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36.1%)이 구직 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구직 시 도움 정도

(n= 43, 단위 : %,점(5점 만점))

평균: 3.02점



[표 154] [예술강사]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구직 시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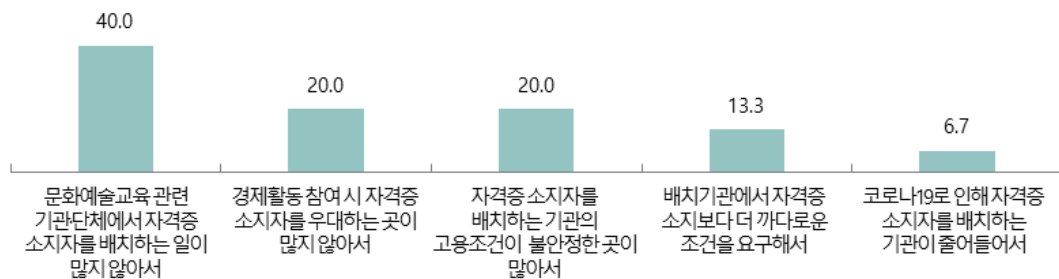
		사례수 (명)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 이었다	④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도움 안됨 (①+②)	도움 됨 (④+⑤)	5점 평균
			%	%	%	%	%	%	%	점
전 체		(43)	11.6	23.3	32.6	16.3	16.3	34.9	32.6	3.02
성별	남성	(7)	28.6	14.3	42.9	14.3	0.0	42.9	14.3	2.43
	여성	(36)	8.3	25.0	30.6	16.7	19.4	33.3	36.1	3.14
연령별	20대	(0)	-	-	-	-	-	-	-	-
	30대	(11)	0.0	9.1	45.5	18.2	27.3	9.1	45.5	3.64
	40대	(22)	22.7	31.8	27.3	9.1	9.1	54.5	18.2	2.50
	50대	(8)	0.0	25.0	25.0	25.0	25.0	25.0	50.0	3.50
	60대 이상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거주지 별	수도권	(14)	14.3	21.4	28.6	14.3	21.4	35.7	35.7	3.07
	부산/경남권	(8)	25.0	0.0	12.5	25.0	37.5	25.0	62.5	3.50
	대구/경북권	(5)	0.0	60.0	40.0	0.0	0.0	60.0	0.0	2.40
	대전/충청권	(4)	25.0	0.0	50.0	0.0	25.0	25.0	25.0	3.00
	광주/전라권	(7)	0.0	28.6	57.1	14.3	0.0	28.6	14.3	2.86
	강원, 제주	(5)	0.0	40.0	20.0	40.0	0.0	40.0	40.0	3.0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	0.0	100.0	0.0	0.0	0.0	100.0	0.0	2.00
	전문대졸	(2)	0.0	0.0	50.0	50.0	0.0	0.0	50.0	3.50
	대학 졸업(학사)	(13)	7.7	15.4	38.5	15.4	23.1	23.1	38.5	3.31
	대학원졸업(석사)	(23)	8.7	26.1	30.4	17.4	17.4	34.8	34.8	3.09
	대학원졸업(박사)	(4)	50.0	25.0	25.0	0.0	0.0	75.0	0.0	1.75

※ base : 경제활동 전 자격증 취득한 예술강사(n=43)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제 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와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곳이 많아서’(각각 20.0%),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서’(13.3%), ‘코로나 19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이 줄어들어서’(6.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예술강사]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n=15, 단위 : %)



[표 155] [예술강사]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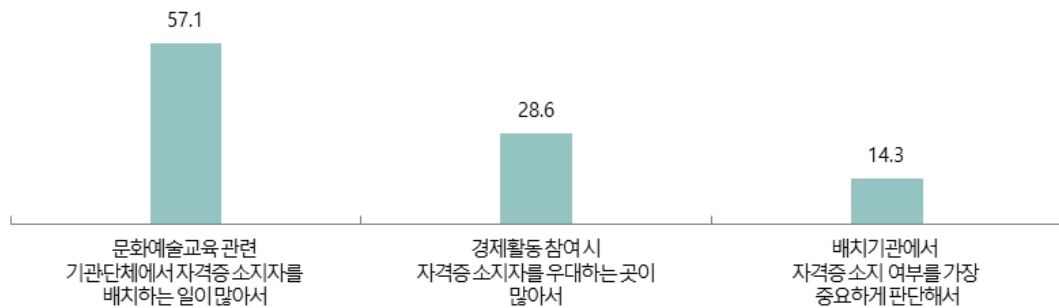
		사례 수 (명)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곳이 많아서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서		코로나 19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이 줄어들어서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5)	(6)	40.0	(3)	20.0	(3)	20.0	(2)	13.3	(1)	6.7
성별	남성	(3)	(1)	33.3	(1)	33.3	(1)	33.3	(0)	0.0	(0)	0.0
	여성	(12)	(5)	41.7	(2)	16.7	(2)	16.7	(2)	16.7	(1)	8.3
연령별	20대	(0)	-	-	-	-	-	-	-	-	-	-
	30대	(1)	(0)	0.0	(0)	0.0	(1)	100.0	(0)	0.0	(0)	0.0
	40대	(12)	(5)	41.7	(3)	25.0	(2)	16.7	(2)	16.7	(0)	0.0
	50대	(2)	(1)	50.0	(0)	0.0	(0)	0.0	(0)	0.0	(1)	50.0
	60대 이상	(0)	-	-	-	-	-	-	-	-	-	-
거주지 별	수도권	(5)	(0)	0.0	(3)	60.0	(1)	20.0	(0)	0.0	(1)	20.0
	부산/경남권	(2)	(1)	50.0	(0)	0.0	(0)	0.0	(1)	50.0	(0)	0.0
	대구/경북권	(3)	(2)	66.7	(0)	0.0	(0)	0.0	(1)	33.3	(0)	0.0
	대전/충청권	(1)	(0)	0.0	(0)	0.0	(1)	100.0	(0)	0.0	(0)	0.0
	광주/전라권	(2)	(2)	100.0	(0)	0.0	(0)	0.0	(0)	0.0	(0)	0.0
	강원, 제주	(2)	(1)	50.0	(0)	0.0	(1)	50.0	(0)	0.0	(0)	0.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전문대졸업	(0)	-	-	-	-	-	-	-	-	-	-
	대학 졸업(학사)	(3)	(2)	66.7	(0)	0.0	(0)	0.0	(1)	33.3	(0)	0.0
	대학원졸업(석사)	(8)	(3)	37.5	(1)	12.5	(3)	37.5	(0)	0.0	(1)	12.5
	대학원졸업(박사)	(3)	(0)	0.0	(2)	66.7	(0)	0.0	(1)	33.3	(0)	0.0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구직 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예술강사(n=15)

반면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된 이유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아서’가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아서’(28.6%),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서’(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예술강사]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 이유

(n=14, 단위 : %)



[표 156] [예술강사]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 이유

		사례수 (명)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아서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아서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서	
			명	%	명	%	명	%
전 체		(14)	(8)	57.1	(4)	28.6	(2)	14.3
성별	남성	(1)	(0)	0.0	(1)	100.0	(0)	0.0
	여성	(13)	(8)	61.5	(3)	23.1	(2)	15.4
연령별	20대	(0)	—	—	—	—	—	—
	30대	(5)	(2)	40.0	(2)	40.0	(1)	20.0
	40대	(4)	(3)	75.0	(0)	0.0	(1)	25.0
	50대	(4)	(3)	75.0	(1)	25.0	(0)	0.0
	60대 이상	(1)	(0)	0.0	(1)	100.0	(0)	0.0
거주지별	수도권	(5)	(2)	40.0	(2)	40.0	(1)	20.0
	부산/경남권	(5)	(4)	80.0	(1)	20.0	(0)	0.0
	대구/경북권	(0)	—	—	—	—	—	—
	대전/충청권	(1)	(1)	100.0	(0)	0.0	(0)	0.0
	광주/전라권	(1)	(1)	100.0	(0)	0.0	(0)	0.0
	강원, 제주	(2)	(0)	0.0	(1)	50.0	(1)	50.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0)	—	—	—	—	—	—
	전문대졸업	(1)	(0)	0.0	(1)	100.0	(0)	0.0
	대학 졸업(학사)	(5)	(4)	80.0	(0)	0.0	(1)	20.0
	대학원졸업(석사)	(8)	(4)	50.0	(3)	37.5	(1)	12.5
	대학원졸업(박사)	(0)	—	—	—	—	—	—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구직 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예술강사(n=14)

6.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8.2%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30대(32.5%)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57]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

		사례수 (명)	그렇다		그렇지 않다		미정이다		참여조건이 되지 않는다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808)	(147)	18.2	(87)	10.8	(115)	14.2	(459)	56.8
성별	남성	(156)	(28)	17.9	(17)	10.9	(18)	11.5	(93)	59.6
	여성	(652)	(119)	18.3	(70)	10.7	(97)	14.9	(366)	56.1
연령별	20대	(1)	(1)	100.0	(0)	0.0	(0)	0.0	(0)	0.0
	30대	(240)	(78)	32.5	(36)	15.0	(51)	21.3	(75)	31.3
	40대	(377)	(50)	13.3	(36)	9.5	(43)	11.4	(248)	65.8
	50대	(165)	(14)	8.5	(12)	7.3	(19)	11.5	(120)	72.7
	60대 이상	(25)	(4)	16.0	(3)	12.0	(2)	8.0	(16)	64.0
거주지별	수도권	(308)	(54)	17.5	(29)	9.4	(32)	10.4	(193)	62.7
	부산/경남권	(149)	(30)	20.1	(13)	8.7	(18)	12.1	(88)	59.1
	대구/경북권	(68)	(13)	19.1	(5)	7.4	(11)	16.2	(39)	57.4
	대전/충청권	(104)	(18)	17.3	(15)	14.4	(17)	16.3	(54)	51.9
	광주/전라권	(129)	(24)	18.6	(20)	15.5	(29)	22.5	(56)	43.4
	강원, 제주	(50)	(8)	16.0	(5)	10.0	(8)	16.0	(29)	58.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2)	(1)	8.3	(2)	16.7	(2)	16.7	(7)	58.3
	전문대졸업	(24)	(3)	12.5	(0)	0.0	(3)	12.5	(18)	75.0
	대학 졸업(학사)	(345)	(74)	21.4	(32)	9.3	(51)	14.8	(188)	54.5
	대학원졸업(석사)	(372)	(64)	17.2	(46)	12.4	(50)	13.4	(212)	57.0
	대학원졸업(박사)	(55)	(5)	9.1	(7)	12.7	(9)	16.4	(34)	61.8

※ base : 예술강사 전체(n=80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이 있는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참여가 가능하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을 살펴본 결과, ‘서울’이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경기’(19.0%), ‘부산’(12.9%), ‘전북’(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8]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가능 또는 희망 지역(1)

		사례수 (명)	서울 %	경기 %	부산 %	전북 %	대전 %	경남 %	광주 %	경북 %	충남 %
전 체		(147)	22.4	19.0	12.9	8.8	7.5	7.5	6.8	6.8	6.1
성별	남성	(28)	21.4	14.3	21.4	7.1	7.1	17.9	7.1	14.3	3.6
	여성	(119)	22.7	20.2	10.9	9.2	7.6	5.0	6.7	5.0	6.7
연령	20대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30대	(78)	21.8	23.1	14.1	7.7	7.7	7.7	7.7	9.0	7.7
	40대	(50)	24.0	14.0	16.0	10.0	6.0	10.0	4.0	6.0	6.0
	50대	(14)	7.1	21.4	0.0	7.1	14.3	0.0	7.1	0.0	0.0
	60대 이상	(4)	50.0	0.0	0.0	25.0	0.0	0.0	25.0	0.0	0.0
거주 지별	수도권	(54)	51.9	50.0	0.0	0.0	0.0	0.0	0.0	0.0	0.0
	부산/경남권	(30)	3.3	0.0	60.0	0.0	0.0	30.0	0.0	0.0	0.0
	대구/경북권	(13)	15.4	0.0	0.0	0.0	0.0	7.7	0.0	69.2	0.0
	대전/충청권	(18)	11.1	5.6	5.6	5.6	55.6	5.6	5.6	5.6	50.0
	광주/전라권	(24)	0.0	0.0	0.0	50.0	4.2	0.0	37.5	0.0	0.0
	강원, 제주	(8)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학력 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전문대졸업	(3)	0.0	0.0	0.0	0.0	0.0	0.0	0.0	33.3	0.0
	대학 졸업(학사)	(74)	23.0	24.3	13.5	4.1	8.1	9.5	6.8	6.8	2.7
	대학원졸업(석사)	(64)	20.3	15.6	14.1	15.6	6.3	6.3	7.8	6.3	6.3
	대학원졸업(박사)	(5)	60.0	0.0	0.0	0.0	20.0	0.0	0.0	0.0	40.0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예술강사(n=147), 복수응답

[표 159]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가능 또는 희망 지역(2)

		사례수 (명)	전남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제주	충북	대구
			%	%	%	%	%	%	%	%
전 체		(147)	6.1	5.4	5.4	4.8	4.8	4.8	4.1	4.1
성별	남성	(28)	14.3	10.7	10.7	3.6	14.3	10.7	7.1	7.1
	여성	(119)	4.2	4.2	4.2	5.0	2.5	3.4	3.4	3.4
연령	20대	(1)	0.0	0.0	0.0	0.0	0.0	0.0	0.0	0.0
	30대	(78)	3.8	5.1	5.1	6.4	5.1	7.7	7.7	6.4
	40대	(50)	6.0	4.0	4.0	2.0	2.0	2.0	0.0	2.0
	50대	(14)	7.1	14.3	14.3	7.1	14.3	0.0	0.0	0.0
	60대 이상	(4)	50.0	0.0	0.0	0.0	0.0	0.0	0.0	0.0
거주지 별	수도권	(54)	1.9	11.1	0.0	1.9	0.0	1.9	0.0	0.0
	부산/경남권	(30)	3.3	3.3	20.0	0.0	0.0	3.3	0.0	0.0
	대구/경북권	(13)	0.0	0.0	7.7	0.0	0.0	15.4	15.4	38.5
	대전/충청권	(18)	5.6	5.6	5.6	33.3	5.6	5.6	22.2	5.6
	광주/전라권	(24)	25.0	0.0	0.0	0.0	0.0	0.0	0.0	0.0
	강원, 제주	(8)	0.0	0.0	0.0	0.0	75.0	25.0	0.0	0.0
학력 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	0.0	0.0	0.0	0.0	0.0	0.0	0.0	0.0
	전문대졸업	(3)	0.0	33.3	0.0	0.0	33.3	0.0	0.0	0.0
	대학 졸업(학사)	(74)	8.1	1.4	6.8	5.4	8.1	5.4	4.1	6.8
	대학원졸업(석사)	(64)	4.7	9.4	4.7	3.1	0.0	4.7	4.7	1.6
	대학원졸업(박사)	(5)	0.0	0.0	0.0	20.0	0.0	0.0	0.0	0.0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예술강사(n=147), 복수응답

7. 예술강사의 경제활동 심층 분석

가. 경제활동자와 비활동자의 비교

예술강사의 경제활동자와 비활동자를 비교해보면, 성별이나 연령, 자격 분야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활동자 중 95.4%는 과거에도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비활동자 중 73.8%는 과거에도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0] [예술강사] 경제활동자/비활동자 응답자 특성 비교

		전체	경제활동	비활동
사례수		(808)	(587)	(221)
성별	남성	19.3	18.1	22.6
	여성	80.7	81.9	77.4
연령별	20대	0.1	-	0.5
	30대	29.7	29.3	30.8
	40대	46.7	45.5	49.8
	50대	20.4	21.8	16.7
	60대 이상	3.1	3.4	2.3
자격 분야	공예	4.7	5.1	3.6
	국가무형문화재	-	-	-
	국악	32.2	32.4	31.7
	디자인	2.4	2.4	2.3
	만화/애니메이션	9.3	8.2	12.2
	무용	17.5	17.2	18.1
	미술	2.1	2.2	1.8
	사진	1.5	2.0	-
	연극	23.4	23.9	22.2
	영화	5.0	5.1	4.5
	음악	2.1	1.5	3.6
과거 경제활동	있다	76.5	95.4	26.2
	없다	23.5	4.6	73.8

※ base : 예술강사 전체(n=80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자격 취득 동기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가 높게 나타났으며, 비활동자는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61] [예술강사] 경제활동자/비활동자 자격증 관련 사항 비교

		전체	경제활동	비활동
사례수		(808)	(587)	(221)
구분	기존 자격소지자	100.0	100.0	100.0
	신규 자격취득자	-	-	-
이수 기관	문화예술교육원	16.2	16.0	16.7
	대학	4.8	3.1	9.5
	학점은행제	0.4	0.2	0.9
	국가무형문화재	1.2	1.7	-
	기본연수 과정을 이수한 예술강사	81.1	83.5	74.7
자격 취득 동기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35.4	34.8	37.1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49.3	46.3	57.0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22.5	22.5	22.6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17.3	19.1	12.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43.4	52.5	19.5
	문화예술 소양 및 향유를 위해서	11.9	13.8	6.8
	기타	2.2	2.9	0.5
취득 당시 희망 직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32.1	33.7	27.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26.7	30.2	17.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86.1	87.4	82.8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15.3	18.1	8.1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예술경영)	13.1	15.2	7.7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8.3	10.6	2.3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5.2	6.0	3.2
	기타	0.5	0.7	-

※ base : 예술강사 전체(n=80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나. 자격증 취득 시점 비교

연령별로 살펴보면, 활동 전 취득자는 4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격 분야별로는 활동 전 취득자는 국악, 미술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활동 전 취득자 중 14.0%는 과거에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 후 취득자 중 96.1%는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2] [예술강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응답자 특성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587)	(9)	(544)
성별	남성	18.1	16.3	18.2
	여성	81.9	83.7	81.8
연령별	20대	-	-	-
	30대	29.3	25.6	29.6
	40대	45.5	<u>51.2</u>	45.0
	50대	21.8	18.6	22.1
	60대 이상	3.4	4.7	3.3
자격 분야	공예	5.1	2.3	5.3
	국가무형문화재	-	-	-
	국악	32.4	<u>37.2</u>	32.0
	디자인	2.4	4.7	2.2
	만화/애니메이션	8.2	9.3	8.1
	무용	17.2	16.3	17.3
	미술	2.2	<u>7.0</u>	1.8
	사진	2.0	-	2.2
	연극	23.9	18.6	24.3
	영화	5.1	2.3	5.3
	음악	1.5	2.3	1.5
과거 경제활동	있다	95.4	86.0	96.1
	없다	4.6	<u>14.0</u>	3.9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는 예술강사(n=58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이수기관을 살펴보면, 활동 전 취득자는 문화예술교육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격 취득 동기를 살펴보면, 활동 전 취득자는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격 취득 당시 희망 직무는 활동 전 취득자는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예술경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63] [예술강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자격증 관련 사항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587)	(43)	(544)
구분	기존 자격소지자	100.0	100.0	100.0
	신규 자격취득자	-	-	-
이수 기관	문화예술교육원	16.0	25.6	15.3
	대학	3.1	2.3	3.1
	학점은행제	0.2	-	0.2
	국가무형문화재	1.7	-	1.8
	기본연수 과정을 이수한 예술강사	83.5	74.4	84.2
자격 취득 동기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34.8	46.5	33.8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46.3	39.5	46.9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22.5	18.6	22.8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19.1	16.3	19.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52.5	51.2	52.6
	문화예술 소양 및 향유를 위해서	13.8	7.0	14.3
	기타	2.9	2.3	2.9
취득 당시 희망 직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33.7	27.9	34.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30.2	32.6	30.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87.4	79.1	88.1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18.1	16.3	18.2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예술경영)	15.2	18.6	14.9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10.6	11.6	10.5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6.0	7.0	5.9
	기타	0.7	-	0.7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는 예술강사(n=58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강사의 경제 활동 형태를 비교해 본 결과, 활동 전 취득자는 기관·시설·단체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64] [예술강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경제 활동 형태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587)	(43)	(544)
경제 활동 형태	기관·시설·단체 종사	22.1	44.2	20.4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77.9	55.8	79.6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는 예술강사(n=58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종사 분야를 비교해보면, 활동 전 취득자는 모두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다.

[표 165] [예술강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종사 분야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130)	(19)	(111)
종사 분야	문화예술 관련 분야	98.5	100.0	98.2
	타 분야	1.5	0.0	1.8

※ base : 현재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강사(n=13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프리랜서 중, 활동 전 취득자의 현재 담당 업무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66] [예술강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담당 업무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457)	(24)	(433)
담당 업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21.0	12.5	21.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6.2	12.5	16.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94.5	95.8	94.5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6.3	4.2	6.5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예술경영)	8.5	12.5	8.3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2.2	4.2	2.1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1.1	-	1.2
	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	33.9	20.8	34.6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10.5	16.7	10.2
	기타	0.4	-	0.5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는 예술강사 중 프리랜서(n=45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프리랜서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자의 경우, 활동 전 취득자와 활동 후 취득자 모두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67] [예술강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활동 영역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432)	(23)	(409)
활동 영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	88.2	73.9	89.0
	민간영역에서 활동	27.5	30.4	27.4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는 예술강사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 프리랜서(n=43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기관·시설·단체 종사하는 예술강사를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 활동 전 취득자는 정부부처/지자체, 초·중·고등학교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활동 후 취득자는 국·공립·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 형태별로는 활동 전 취득자와 활동 후 취득자 모두 비정규직의 비율이 80.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담당 업무별로는 활동 전 취득자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예술경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68] [예술강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업무/직무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130)	(19)	(111)
종사 기관	국·공립·공공기관	14.6	-	<u>17.1</u>
	정부부처/지자체	12.3	<u>21.1</u>	10.8
	예술단체	33.1	31.6	33.3
	사기업	2.3	5.3	1.8
	초·중·고등학교	29.2	<u>36.8</u>	27.9
	대학교	7.7	5.3	8.1
	기타	0.8	-	0.9
근무 형태	정규직	9.2	<u>15.8</u>	8.1
	비정규직	90.8	84.2	91.9
문화예술 관련 분야 평균 종사 기간(개월)		164.6	156.8	166.0
담당 업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20.0	<u>36.8</u>	17.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3.8	15.8	13.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83.1	68.4	85.6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10.8	5.3	11.7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예술경영)	6.9	<u>10.5</u>	6.3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4.6	-	5.4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	-	-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2.3	-	2.7
	기타	3.1	<u>10.5</u>	1.8

※ base : 현재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강사(n=13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활동 전 취득자의 자격 취득 전 희망 직무와 현 업무의 일치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컨설팅’으로 나타났고, 활동 후 취득자의 일치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타났다.

[표 169] [예술강사] 활동 전 취득자의 희망 직무와 현재 업무 비교

현 담당 업무 자격취득 전 희망 직무	사 례 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단체 설립 및 운영 (예술경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컨설팅	문화예술 교육 관련 창작활동	문화예술 교육 자원조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12)	70.0	100.0	25.0	100.0	40.0	100.0	60.0	25.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4)	50.0	66.7	36.1	50.0	40.0	100.0	80.0	75.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34)	70.0	66.7	83.3	50.0	80.0	100.0	100.0	75.0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7)	40.0	50.0	13.9	100.0	40.0	100.0	40.0	25.0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 (예술경영)	(8)	40.0	33.3	13.9	50.0	40.0	0.0	20.0	0.0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5)	50.0	66.7	8.3	100.0	40.0	100.0	40.0	25.0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3)	20.0	33.3	2.8	0.0	40.0	0.0	20.0	0.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표 170] [예술강사] 활동 후 취득자의 희망 직무와 현재 업무 비교

현 담당 업무 자격취득 전 희망 직무	사 례 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단체 설립 및 운영 (예술경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컨설팅	문화예술 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문화예술 교육 관련 창작활동	문화예술 교육 자원조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186)	66.1	62.8	32.7	68.3	55.8	73.3	40.0	44.7	57.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63)	60.7	73.3	29.4	68.3	65.1	80.0	80.0	42.7	53.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479)	84.8	87.2	89.3	75.6	67.4	80.0	80.0	88.0	87.2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99)	35.7	40.7	17.7	63.4	55.8	53.3	40.0	28.0	27.7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 (예술경영)	(81)	29.5	31.4	14.7	34.1	46.5	46.7	20.0	22.7	36.2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57)	20.5	24.4	10.7	17.1	23.3	46.7	0.0	15.3	21.3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32)	10.7	11.6	6.0	9.8	20.9	13.3	40.0	12.0	14.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다. 업무 도움 정도 비교

자격 취득 시점별로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활동 후 취득자는 활동 전 취득자에 비해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기관·시설·단체 종사자가 프리랜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71] [예술강사] 자격 취득 시점, 경제활동 형태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587)	48.6	21.5	30.0
자격 취득 시점	활동 전 취득	(43)	39.5	23.3	37.2
	활동 후 취득	(544)	49.3	21.3	29.4
경제활동 형태	기관·시설·단체 종사	(130)	59.2	10.8	30.0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457)	45.5	24.5	30.0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는 예술강사(n=58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중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자가 타 분야 종사자보다 업무 도움 정도에 대해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규직에서 비정규직보다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표 172] [예술강사] 종사 분야, 근무 형태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130)	59.2	10.8	30.0
종사 분야	문화예술 관련 분야	(128)	60.2	10.2	29.7
	타 분야	(2)	0.0	50.0	50.0
근무 형태	정규직	(12)	66.7	8.3	25.0
	비정규직	(118)	58.5	11.0	30.5

※ base :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강사(n=13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기관·시설·단체 종사자별로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 종사자에서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표 173] [예술강사]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종사기관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128)	60.2	10.2	29.7
종사 기관	국·공립·공공기관	(19)	63.2	10.5	26.3
	정부부처/지자체	(15)	46.7	13.3	40.0
	예술단체	(43)	60.5	14.0	25.6
	사기업	(3)	33.3	0.0	66.7
	초·중·고등학교	(37)	70.3	5.4	24.3
	대학교	(10)	50.0	0.0	50.0
	기타	(1)	0.0	100.0	0.0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강사(n=12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프리랜서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자의 경우, 민간영역 활동자가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 참여자보다 업무 도움 정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표 174]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 프리랜서의 업무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활동 영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	(381)	46.5	24.7	28.9
	민간영역에서 활동	(119)	51.3	17.6	31.1

※ base : 활동 후 취득한 예술강사 중 ‘문화예술교육 강의’ 담당 프리랜서(n=43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라.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자격증의 구직 시 도움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프리랜서의 도움 정도가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75] [예술강사] 경제활동 형태별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43)	32.6	32.6	34.9
경제활동 형태	기관·시설·단체 종사	(19)	31.6	15.8	52.6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24)	33.3	45.8	20.8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고 있는 예술강사 중 활동 전 취득자(n=43)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중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76] [예술강사]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종사 분야, 근무 형태별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19)	31.6	15.8	52.6
종사 분야	문화예술 관련 분야	(19)	31.6	15.8	52.6
	타 분야	(0)	-	-	-
근무 형태	정규직	(3)	0.0	0.0	100.0
	비정규직	(16)	37.5	18.8	43.8

※ base : 활동 전 취득한 예술강사 중 기관·시설·단체 종사자(n=19)

문화예술 관련 분야 중 초·중·고등학교에서 구직 시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77] [예술강사]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19)	31.6	15.8	52.6
종사 기관	국·공립·공공기관	(0)	-	-	-
	정부부처/지자체	(4)	25.0	25.0	50.0
	예술단체	(6)	16.7	33.3	50.0
	사기업	(1)	0.0	0.0	100.0
	초·중·고등학교	(7)	57.1	0.0	42.9
	대학교	(1)	0.0	0.0	100.0
	기타	(0)	-	-	-

※ base : 활동 전 취득한 예술강사 중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n=19)

프리랜서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자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 참여자가 민간영역 활동자에 비해 구직 시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78]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 프리랜서의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활동 영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	(17)	35.3	41.2	23.5
	민간영역에서 활동	(7)	28.6	42.9	28.6

※ base : 활동 전 취득한 예술강사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담당’ 프리랜서(n=23)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II. 자격소지자_예술전공자

1. 자격취득 현황

예술전공자는 총 3,712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기존 자격소지자는 78.2%, 신규 자격취득자는 21.8%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83.1%로 남성(16.9%)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20대가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이 56.4%로 가장 높고, ‘광주/전라권’이 11.8%로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대학 졸업(학사)’이 67.3%로 가장 높고, ‘대학원졸업(석사)’이 21.1%로 뒤를 이었다.

[표 179] [예술전공자] 자격소지자 응답자 특성

		사례수 (명)	%
전 체		(3,712)	100.0
기존/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2,901)	78.2
	신규 자격취득자	(811)	21.8
성별	남성	(627)	16.9
	여성	(3,085)	83.1
연령별	20대	(2,095)	56.4
	30대	(776)	20.9
	40대	(456)	12.3
	50대	(307)	8.3
	60대 이상	(78)	2.1
거주지별 ²⁸⁾	수도권	(2,093)	56.4
	부산/경남권	(422)	11.4
	대구/경북권	(332)	8.9
	대전/충청권	(348)	9.4
	광주/전라권	(437)	11.8
	강원, 제주	(80)	2.2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4)	0.4
	전문대졸업	(352)	9.5
	대학 졸업(학사)	(2,498)	67.3
	대학원졸업(석사)	(784)	21.1
	대학원졸업(박사)	(64)	1.7

28)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경남권(부산, 경남, 울산), 대전/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2. 자격취득 동기 및 준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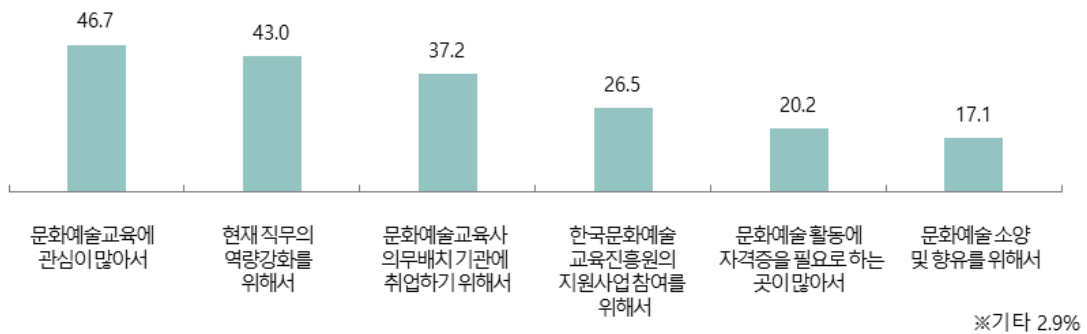
가. 자격취득 동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46.7%) 취득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는 신규 자격취득자 대비(37.5%) 기존 자격소지자(49.3%)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50대(48.9%)와 60대 이상(51.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격을 취득했다는 응답은 40대(46.3%)와 50대(50.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6] [예술전공자] 자격증 취득 동기

(n=3,712, 복수응답, 단위 : %)



[표 180] [예술전공자] 자격증 취득 동기

		사례 수 (명)	문화예술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한국문화 예술교육 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문화예술 소양 및 향유를 위해서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3,712)	(1,735)	46.7	(1,595)	43.0	(1,382)	37.2	(985)	26.5	(748)	20.2	(634)	17.1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2,901)	(1,431)	<u>49.3</u>	(1,253)	43.2	(1,112)	38.3	(795)	27.4	(593)	20.4	(511)	17.6
	신규 자격취득자	(811)	(304)	37.5	(342)	42.2	(270)	33.3	(190)	23.4	(155)	19.1	(123)	15.2
성별	남성	(627)	(295)	47.0	(268)	42.7	(204)	32.5	(161)	25.7	(112)	17.9	(124)	<u>19.8</u>
	여성	(3,085)	(1,440)	46.7	(1,327)	43.0	(1,178)	38.2	(824)	26.7	(636)	20.6	(510)	16.5
연령별	20대	(2,095)	(980)	46.8	(853)	40.7	(753)	35.9	(450)	21.5	(442)	21.1	(362)	17.3
	30대	(776)	(361)	46.5	(344)	44.3	(327)	<u>42.1</u>	(234)	<u>30.2</u>	(132)	17.0	(99)	12.8
	40대	(456)	(204)	44.7	(211)	<u>46.3</u>	(164)	36.0	(143)	<u>31.4</u>	(74)	16.2	(69)	15.1
	50대	(307)	(150)	<u>48.9</u>	(154)	<u>50.2</u>	(112)	36.5	(125)	<u>40.7</u>	(76)	<u>24.8</u>	(73)	<u>23.8</u>
	60대 이상	(78)	(40)	<u>51.3</u>	(33)	42.3	(26)	33.3	(33)	<u>42.3</u>	(24)	<u>30.8</u>	(31)	<u>39.7</u>
거주지 별	수도권	(2,093)	(991)	47.3	(903)	43.1	(764)	36.5	(532)	25.4	(391)	18.7	(368)	17.6
	부산/경남권	(422)	(193)	45.7	(198)	<u>46.9</u>	(172)	<u>40.8</u>	(126)	<u>29.9</u>	(101)	<u>23.9</u>	(89)	<u>21.1</u>
	대구/경북권	(332)	(150)	45.2	(152)	<u>45.8</u>	(133)	<u>40.1</u>	(86)	25.9	(85)	<u>25.6</u>	(47)	14.2
	대전/충청권	(348)	(160)	46.0	(136)	39.1	(135)	38.8	(86)	24.7	(61)	17.5	(50)	14.4
	광주/전라권	(437)	(204)	46.7	(168)	38.4	(149)	34.1	(129)	<u>29.5</u>	(94)	21.5	(64)	14.6
	강원, 제주	(80)	(37)	46.3	(38)	<u>47.5</u>	(29)	36.3	(26)	32.5	(16)	20.0	(16)	<u>20.0</u>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4)	(7)	50.0	(5)	35.7	(5)	35.7	(2)	14.3	(4)	28.6	(3)	21.4
	전문대졸업	(352)	(166)	47.2	(132)	37.5	(131)	37.2	(102)	<u>29.0</u>	(67)	19.0	(60)	17.0
	대학 졸업(학사)	(2,498)	(1,187)	47.5	(1,056)	42.3	(914)	36.6	(623)	24.9	(504)	20.2	(458)	18.3
	대학원졸업(석사)	(784)	(348)	44.4	(370)	<u>47.2</u>	(316)	<u>40.3</u>	(235)	<u>30.0</u>	(158)	20.2	(105)	13.4
	대학원졸업(박사)	(64)	(27)	42.2	(32)	<u>50.0</u>	(16)	25.0	(23)	<u>35.9</u>	(15)	<u>23.4</u>	(8)	12.5

※ base : 예술전공자 전체(n=3,712), 복수응답, 기타 2.9%는 표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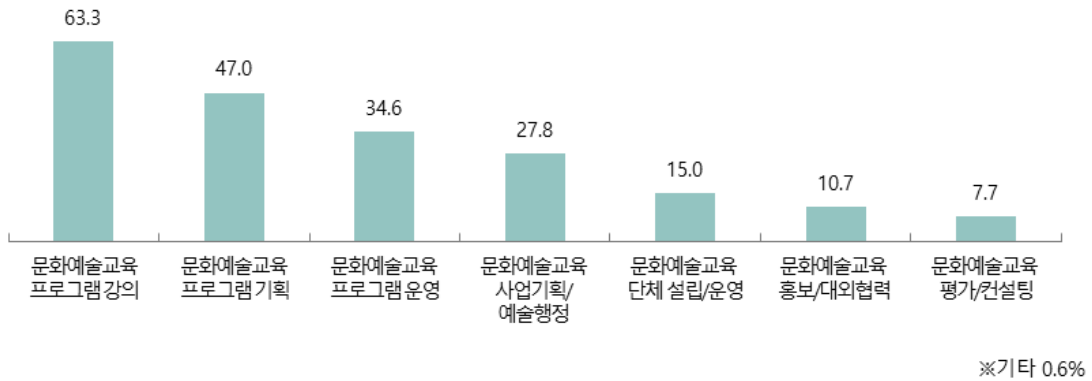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나. 자격취득 당시 희망직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당시, 희망했던 직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가 6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47.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34.6%),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예술행정’(2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당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를 담당하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당시 희망 직무

(n=3,712, 복수응답, 단위 : %)



[표 181]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당시 희망 직무

		사례 수 (명)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육 사업기획 /예술행정		문화예술 교육 단체 설립/운영		문화예술 교육 홍보/ 대외협력		문화예술 교육 평가/ 컨설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3,712)	(2,351)	63.3	(1,746)	47.0	(1,285)	34.6	(1,032)	27.8	(556)	15.0	(399)	10.7	(284)	7.7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2,901)	(1,919)	<u>66.1</u>	(1,381)	47.6	(1,057)	<u>36.4</u>	(800)	27.6	(445)	15.3	(313)	10.8	(230)	7.9
	신규 자격취득자	(811)	(432)	53.3	(365)	45.0	(228)	28.1	(232)	28.6	(111)	13.7	(86)	10.6	(54)	6.7
성별	남성	(627)	(421)	<u>67.1</u>	(253)	40.4	(214)	34.1	(164)	26.2	(108)	<u>17.2</u>	(66)	10.5	(58)	9.3
	여성	(3,085)	(1,930)	62.6	(1,493)	48.4	(1,071)	34.7	(868)	28.1	(448)	14.5	(333)	10.8	(226)	7.3
연령별	20대	(2,095)	(1,270)	60.6	(910)	43.4	(657)	31.4	(584)	27.9	(272)	13.0	(250)	11.9	(136)	6.5
	30대	(776)	(508)	<u>65.5</u>	(416)	<u>53.6</u>	(307)	<u>39.6</u>	(237)	<u>30.5</u>	(112)	14.4	(59)	7.6	(61)	7.9
	40대	(456)	(294)	64.5	(249)	<u>54.6</u>	(160)	35.1	(116)	25.4	(74)	16.2	(41)	9.0	(46)	<u>10.1</u>
	50대	(307)	(223)	<u>72.6</u>	(140)	45.6	(130)	<u>42.3</u>	(81)	26.4	(77)	<u>25.1</u>	(36)	11.7	(34)	<u>11.1</u>
	60대 이상	(78)	(56)	<u>71.8</u>	(31)	39.7	(31)	<u>39.7</u>	(14)	17.9	(21)	<u>26.9</u>	(13)	<u>16.7</u>	(7)	9.0
거주지 별	수도권	(2,093)	(1,385)	<u>66.2</u>	(964)	46.1	(688)	32.9	(547)	26.1	(292)	14.0	(212)	10.1	(154)	7.4
	부산/경남권	(422)	(257)	60.9	(207)	<u>49.1</u>	(150)	35.5	(125)	<u>29.6</u>	(62)	14.7	(56)	<u>13.3</u>	(32)	7.6
	대구/경북권	(332)	(204)	61.4	(152)	45.8	(116)	34.9	(98)	<u>29.5</u>	(63)	<u>19.0</u>	(38)	11.4	(26)	7.8
	대전/충청권	(348)	(206)	59.2	(162)	46.6	(120)	34.5	(92)	26.4	(50)	14.4	(35)	10.1	(32)	9.2
	광주/전라권	(437)	(251)	57.4	(215)	<u>49.2</u>	(174)	<u>39.8</u>	(149)	<u>34.1</u>	(73)	<u>16.7</u>	(47)	10.8	(36)	8.2
	강원, 제주	(80)	(48)	60.0	(46)	<u>57.5</u>	(37)	<u>46.3</u>	(21)	26.3	(16)	<u>20.0</u>	(11)	<u>13.8</u>	(4)	5.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4)	(8)	57.1	(7)	50.0	(4)	28.6	(2)	14.3	(2)	14.3	(1)	7.1	(1)	7.1
	전문대졸업	(352)	(237)	<u>67.3</u>	(138)	39.2	(132)	<u>37.5</u>	(79)	22.4	(52)	14.8	(47)	<u>13.4</u>	(37)	<u>10.5</u>
	대학 졸업(학사)	(2,498)	(1,557)	62.3	(1,136)	45.5	(808)	32.3	(710)	28.4	(344)	13.8	(271)	10.8	(172)	6.9
	대학원졸업(석사)	(784)	(508)	64.8	(429)	<u>54.7</u>	(317)	<u>40.4</u>	(222)	28.3	(144)	<u>18.4</u>	(76)	9.7	(65)	8.3
	대학원졸업(박사)	(64)	(41)	64.1	(36)	<u>56.3</u>	(24)	<u>37.5</u>	(19)	<u>29.7</u>	(14)	<u>21.9</u>	(4)	6.3	(9)	<u>14.1</u>

※ base : 예술전공자 전체(n=3,712),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1)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예술전공자의 76.9%는 ‘대학’에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원’이 32.2%로 뒤를 이어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20대(88.2%)와 60대 이상(80.8%)에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대학’에서 이수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대(52.7%), 40대(50.9%), 50대(41.4%)는 ‘문화예술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182]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사례수 (명)	대 학		문화예술교육원		학점은행제		기본연수 과정 이수 예술강사		국가무형문화재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3,712)	(2,853)	76.9	(1,196)	32.2	(48)	1.3	(35)	0.9	(5)	0.1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2,901)	(2,307)	<u>79.5</u>	(822)	28.3	(39)	1.3	(27)	0.9	(4)	0.1
	신규 자격취득자	(811)	(546)	67.3	(374)	<u>46.1</u>	(9)	1.1	(8)	1.0	(1)	0.1
성별	남성	(627)	(499)	<u>79.6</u>	(169)	27.0	(13)	2.1	(5)	0.8	(0)	0.0
	여성	(3,085)	(2,354)	76.3	(1,027)	33.3	(35)	1.1	(30)	1.0	(5)	0.2
연령별	20대	(2,095)	(1,848)	<u>88.2</u>	(406)	19.4	(10)	0.5	(13)	0.6	(1)	0.0
	30대	(776)	(453)	58.4	(409)	<u>52.7</u>	(19)	2.4	(12)	1.5	(1)	0.1
	40대	(456)	(270)	59.2	(232)	<u>50.9</u>	(10)	2.2	(3)	0.7	(1)	0.2
	50대	(307)	(219)	71.3	(127)	<u>41.4</u>	(5)	1.6	(2)	0.7	(0)	0.0
	60대 이상	(78)	(63)	<u>80.8</u>	(22)	28.2	(4)	<u>5.1</u>	(5)	<u>6.4</u>	(2)	<u>2.6</u>
거주지 별	수도권	(2,093)	(1,584)	75.7	(669)	32.0	(28)	1.3	(16)	0.8	(0)	0.0
	부산/경남권	(422)	(349)	<u>82.7</u>	(116)	27.5	(4)	0.9	(7)	1.7	(2)	0.5
	대구/경북권	(332)	(274)	<u>82.5</u>	(93)	28.0	(6)	1.8	(2)	0.6	(1)	0.3
	대전/충청권	(348)	(270)	77.6	(103)	29.6	(3)	0.9	(5)	1.4	(1)	0.3
	광주/전라권	(437)	(319)	73.0	(176)	<u>40.3</u>	(7)	1.6	(4)	0.9	(1)	0.2
	강원, 제주	(80)	(57)	71.3	(39)	<u>48.8</u>	(0)	0.0	(1)	1.3	(0)	0.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4)	(12)	85.7	(1)	7.1	(1)	7.1	(0)	0.0	(0)	0.0
	전문대졸업	(352)	(307)	<u>87.2</u>	(55)	15.6	(1)	0.3	(1)	0.3	(1)	0.3
	대학 졸업(학사)	(2,498)	(1,996)	<u>79.9</u>	(730)	29.2	(33)	1.3	(26)	1.0	(4)	0.2
	대학원졸업(석사)	(784)	(497)	63.4	(383)	<u>48.9</u>	(11)	1.4	(8)	1.0	(0)	0.0
	대학원졸업(박사)	(64)	(41)	64.1	(27)	<u>42.2</u>	(2)	<u>3.1</u>	(0)	0.0	(0)	0.0

※ base : 예술전공자 전체(n=3,712),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원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원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17.1%),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14.7%), ‘부산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3] [예술전공자]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원

문화예술교육원	사례수(명)	%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492)	41.1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205)	17.1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176)	14.7
부산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109)	9.1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87)	7.3
대구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67)	5.6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64)	5.4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38)	3.2
계명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37)	3.1
대진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18)	1.5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17)	1.4
전북문화예술교육원	(11)	0.9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6)	0.5
경일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5)	0.4
원광디지털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3)	0.3
한서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2)	0.2
홍익대학교 문화예술평생교육원	(2)	0.2
백제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2)	0.2
백석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2)	0.2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2)	0.2
한국예술종합학교	(1)	0.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아르떼)	(1)	0.1
목포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1)	0.1
서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1)	0.1
전남도립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1)	0.1
목원대학교	(1)	0.1
단국대학교	(1)	0.1
동아예술대학교	(1)	0.1
영남대학교	(1)	0.1
전남과학대학교	(1)	0.1
순천향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1)	0.1
대구평생교육원	(1)	0.1

※ base : 문화예술교육원에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예술전공자(n=1,196), 복수응답

※ 모름/무응답 0.1%는 표에서 제외

3. 경제활동 현황

가. 과거 경제활동 여부

현재 보수를 받고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전공자의 75.3%는 과거에도 경제활동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활동한 적 있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84] [예술전공자]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여부

		사례수 (명)	활동한 적 있었다 (프리랜서 포함)		활동한 적 없었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3,712)	(1,557)	41.9	(2,155)	58.1
현 경제활동 여부	활동하고 있다	(1,404)	(1,057)	<u>75.3</u>	(347)	24.7
	활동하지 않고 있다	(2,308)	(500)	21.7	(1,808)	78.3
기존/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2,901)	(1,255)	43.3	(1,646)	56.7
	신규 자격취득자	(811)	(302)	37.2	(509)	62.8
성별	남성	(627)	(226)	36.0	(401)	64.0
	여성	(3,085)	(1,331)	43.1	(1,754)	56.9
연령별	20대	(2,095)	(627)	29.9	(1,468)	70.1
	30대	(776)	(449)	<u>57.9</u>	(327)	42.1
	40대	(456)	(274)	<u>60.1</u>	(182)	39.9
	50대	(307)	(172)	<u>56.0</u>	(135)	44.0
	60대 이상	(78)	(35)	<u>44.9</u>	(43)	55.1
거주지별	수도권	(2,093)	(842)	40.2	(1,251)	59.8
	부산/경남권	(422)	(170)	40.3	(252)	59.7
	대구/경북권	(332)	(153)	<u>46.1</u>	(179)	53.9
	대전/충청권	(348)	(146)	42.0	(202)	58.0
	광주/전라권	(437)	(202)	<u>46.2</u>	(235)	53.8
	강원, 제주	(80)	(44)	<u>55.0</u>	(36)	45.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4)	(3)	21.4	(11)	78.6
	전문대졸업	(352)	(104)	29.5	(248)	70.5
	대학 졸업(학사)	(2,498)	(939)	37.6	(1,559)	62.4
	대학원졸업(석사)	(784)	(473)	<u>60.3</u>	(311)	39.7
	대학원졸업(박사)	(64)	(38)	<u>59.4</u>	(26)	40.6

※ base : 예술전공자 전체(n=3,71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과거에 보수를 받고 활동한 예술전공자의 직업 혹은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가 56.5%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예술단체’(18.6%), ‘초·중·고등학교’(18.5%), ‘국·공립·공공기관’(17.5%), ‘사기업’(11.0%)이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났다.

기존 자격소지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는 응답이 58.2%로 높게 나타났으며, 신규 자격취득자는 ‘예술단체’(21.9%), ‘사기업’(14.6%), ‘대학교’(10.6%)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85] [예술전공자] 과거 경제활동 직업/소속기관

		사례수 (명)	프리랜서	예술단체	초·중· 고등학교	국·공립· 공공기관	사기업	대학교	정부부처, 지자체
			%	%	%	%	%	%	%
전 체		(1,557)	56.5	18.6	18.5	17.5	11.0	7.8	6.0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1,255)	<u>58.2</u>	17.8	19.0	18.2	10.2	7.2	6.1
	신규 자격취득자	(302)	49.3	<u>21.9</u>	16.2	14.9	<u>14.6</u>	<u>10.6</u>	5.6
성별	남성	(226)	52.7	<u>21.7</u>	15.5	15.9	12.4	6.2	6.6
	여성	(1,331)	57.2	18.1	19.0	17.8	10.8	8.1	5.9
연령별	20대	(627)	56.1	18.7	15.8	15.8	<u>13.4</u>	<u>10.0</u>	2.7
	30대	(449)	53.9	19.4	18.7	<u>20.5</u>	10.0	4.7	<u>8.9</u>
	40대	(274)	<u>59.1</u>	14.6	18.6	17.9	8.4	7.3	<u>8.0</u>
	50대	(172)	<u>61.6</u>	<u>22.1</u>	<u>27.3</u>	15.1	11.0	7.6	3.5
	60대 이상	(35)	51.4	<u>22.9</u>	20.0	<u>20.0</u>	2.9	<u>14.3</u>	<u>25.7</u>
거주지 별	수도권	(842)	57.2	19.2	18.6	17.6	<u>13.8</u>	8.1	4.6
	부산/경남권	(170)	56.5	17.6	<u>20.6</u>	18.2	6.5	8.8	7.1
	대구/경북권	(153)	54.9	19.0	18.3	15.0	7.2	9.2	<u>7.8</u>
	대전/충청권	(146)	<u>61.0</u>	<u>22.6</u>	18.5	14.4	6.8	8.2	6.2
	광주/전라권	(202)	52.0	12.9	17.3	<u>19.8</u>	8.9	5.9	<u>7.9</u>
	강원, 제주	(44)	54.5	<u>22.7</u>	13.6	<u>22.7</u>	<u>13.6</u>	2.3	<u>13.6</u>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3)	66.7	0.0	0.0	33.3	0.0	0.0	0.0
	전문대졸업	(104)	<u>67.3</u>	19.2	15.4	8.7	<u>13.5</u>	8.7	3.8
	대학 졸업(학사)	(939)	57.4	19.1	17.0	16.2	12.4	6.4	6.0
	대학원졸업(석사)	(473)	53.9	18.0	<u>22.6</u>	<u>22.0</u>	7.8	8.0	7.0
	대학원졸업(박사)	(38)	36.8	15.8	13.2	18.4	<u>13.2</u>	<u>39.5</u>	2.6

※ base : 과거 경제활동을 한 예술전공자(n=1,557), 복수응답, 기타 2.1%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나. 경제활동 여부

예술전공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8%로 과거 경제활동 참가율(55.9%)보다 18.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자격소지자는 41.4%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규 자격취득자는 25.2%만이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50.3%)에서 경제 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48.2%)와 50대(42.3%)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86] [예술전공자]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여부

		사례수 (명)	활동하고 있다 (프리랜서 포함)		활동하지 않고 있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3,712)	(1,404)	37.8	(2,308)	62.2
기존/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2,901)	(1,200)	41.4	(1,701)	58.6
	신규 자격취득자	(811)	(204)	25.2	(607)	74.8
성별	남성	(627)	(195)	31.1	(432)	68.9
	여성	(3,085)	(1,209)	39.2	(1,876)	60.8
연령별	20대	(2,095)	(644)	30.7	(1,451)	69.3
	30대	(776)	(390)	50.3	(386)	49.7
	40대	(456)	(220)	48.2	(236)	51.8
	50대	(307)	(130)	42.3	(177)	57.7
	60대 이상	(78)	(20)	25.6	(58)	74.4
거주지별	수도권	(2,093)	(744)	35.5	(1,349)	64.5
	부산/경남권	(422)	(157)	37.2	(265)	62.8
	대구/경북권	(332)	(142)	42.8	(190)	57.2
	대전/충청권	(348)	(145)	41.7	(203)	58.3
	광주/전라권	(437)	(181)	41.4	(256)	58.6
	강원, 제주	(80)	(35)	43.8	(45)	56.3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4)	(2)	14.3	(12)	85.7
	전문대졸업	(352)	(84)	23.9	(268)	76.1
	대학 졸업(학사)	(2,498)	(901)	36.1	(1,597)	63.9
	대학원졸업(석사)	(784)	(388)	49.5	(396)	50.5
	대학원졸업(박사)	(64)	(29)	45.3	(35)	54.7

※ base : 예술전공자 전체(n=3,71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다. 경제활동 형태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전공자의 55.2%는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로 활동하고 있으며, 44.8%는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기관·시설·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응답은 신규 자격취득자(47.5%)가 기존 자격소지자(44.3%) 대비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49.8%)와 30대(46.9%)는 ‘기관·시설·단체’에서 종사한다는 응답이, 40대(67.7%)와 50대(63.1%)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87] [예술전공자]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형태

		사례수 (명)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기관·시설·단체 종사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404)	(775)	55.2	(629)	44.8
기존/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1,200)	(668)	55.7	(532)	44.3
	신규 자격취득자	(204)	(107)	52.5	(97)	<u>47.5</u>
성별	남성	(195)	(105)	53.8	(90)	46.2
	여성	(1,209)	(670)	55.4	(539)	44.6
연령별	20대	(644)	(323)	50.2	(321)	<u>49.8</u>
	30대	(390)	(207)	53.1	(183)	<u>46.9</u>
	40대	(220)	(149)	<u>67.7</u>	(71)	32.3
	50대	(130)	(82)	<u>63.1</u>	(48)	36.9
	60대 이상	(20)	(14)	70.0	(6)	30.0
거주지별	수도권	(744)	(433)	<u>58.2</u>	(311)	41.8
	부산/경남권	(157)	(88)	56.1	(69)	43.9
	대구/경북권	(142)	(76)	53.5	(66)	<u>46.5</u>
	대전/충청권	(145)	(70)	48.3	(75)	<u>51.7</u>
	광주/전라권	(181)	(90)	49.7	(91)	<u>50.3</u>
	강원, 제주	(35)	(18)	51.4	(17)	<u>48.6</u>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2)	(1)	50.0	(1)	50.0
	전문대졸업	(84)	(54)	<u>64.3</u>	(30)	35.7
	대학 졸업(학사)	(901)	(495)	54.9	(406)	45.1
	대학원졸업(석사)	(388)	(213)	54.9	(175)	45.1
	대학원졸업(박사)	(29)	(12)	41.4	(17)	58.6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전공자(n=1,40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기

1)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주요 업무

기관·시설·단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예술전공자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가 41.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37.7%),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32.6%),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예술행정’(2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자격소지자(34.2%)는 신규 자격취득자(23.7%) 대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88] [예술전공자]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주요 업무

		사례 수 (명)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육사업 기획/ 예술행정	문화예술 교육 자원조사	문화예술 교육 홍보/ 대외협력	문화예술 교육단체 설립/ 운영	문화예술 교육 평가/ 컨설팅
			%	%	%	%	%	%	%	%
전 체		(629)	41.8	37.7	32.6	24.2	12.1	8.4	5.2	3.2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532)	41.9	39.1	34.2	25.0	12.2	8.3	5.3	3.2
	신규 자격취득자	(97)	41.2	29.9	23.7	19.6	11.3	9.3	5.2	3.1
성별	남성	(90)	41.1	34.4	31.1	24.4	11.1	12.2	8.9	4.4
	여성	(539)	41.9	38.2	32.8	24.1	12.2	7.8	4.6	3.0
연령별	20대	(321)	34.3	34.6	28.3	23.7	14.6	8.1	3.4	1.2
	30대	(183)	42.1	43.7	37.7	31.7	8.2	10.4	4.4	2.7
	40대	(71)	57.7	42.3	38.0	16.9	9.9	8.5	4.2	5.6
	50대	(48)	66.7	29.2	31.3	12.5	12.5	4.2	20.8	14.6
	60대 이상	(6)	50.0	33.3	50.0	0.0	16.7	0.0	16.7	0.0
거주지 별	수도권	(311)	39.2	33.8	28.6	24.4	12.9	8.4	4.8	2.9
	부산/경남권	(69)	40.6	46.4	40.6	26.1	17.4	13.0	2.9	1.4
	대구/경북권	(66)	45.5	36.4	39.4	25.8	9.1	7.6	6.1	6.1
	대전/충청권	(75)	49.3	41.3	34.7	24.0	8.0	6.7	1.3	1.3
	광주/전라권	(91)	45.1	38.5	29.7	23.1	12.1	7.7	9.9	5.5
	강원, 제주	(17)	29.4	58.8	52.9	11.8	5.9	5.9	11.8	0.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	0.0	0.0	100.0	0.0	0.0	0.0	0.0	0.0
	전문대졸업	(30)	46.7	20.0	13.3	13.3	23.3	6.7	0.0	3.3
	대학 졸업(학사)	(406)	37.4	34.2	29.3	23.9	13.3	7.9	4.9	2.0
	대학원졸업(석사)	(175)	48.0	49.7	43.4	27.4	8.0	10.3	5.7	4.0
	대학원졸업(박사)	(17)	76.5	29.4	29.4	17.6	5.9	5.9	17.6	23.5
근무 형태	정규직	(164)	36.6	45.1	37.8	32.3	7.9	12.8	7.3	6.1
	비정규직	(465)	43.7	35.1	30.8	21.3	13.5	6.9	4.5	2.2

※ base : 기관·시설·단체 종사하고 있는 예술전공자(n=629), 복수응답, 기타 11.8%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 프리랜서 주요 업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전공자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가 75.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27.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18.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17.6%)를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이, 30대(81.6%), 40대(79.2%), 50대(89.0%)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89] [예술전공자] 프리랜서 주요 업무

		사례수 (명)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의	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육 자원조사	문화예술 교육 사업기획 /예술 행정	문화예술 교육 단체 설립/ 운영	문화예술 교육 평가/ 컨설팅	문화예술 교육 홍보/ 대외협력
			%	%	%	%	%	%	%	%	%
전 체		(775)	75.7	27.4	18.1	16.1	16.0	6.2	4.1	1.0	1.0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668)	76.8	28.0	18.9	17.1	17.1	6.7	4.5	1.0	1.0
	신규 자격취득자	(107)	69.2	23.4	13.1	10.3	9.3	2.8	1.9	0.9	0.9
성별	남성	(105)	74.3	32.4	18.1	15.2	11.4	7.6	5.7	2.9	3.8
	여성	(670)	76.0	26.6	18.1	16.3	16.7	6.0	3.9	0.7	0.6
연령 별	20대	(323)	67.2	24.1	12.1	11.8	17.6	6.2	1.5	0.3	0.6
	30대	(207)	81.6	28.0	18.8	15.5	16.9	4.8	2.4	1.0	0.5
	40대	(149)	79.2	29.5	19.5	18.1	12.8	5.4	4.7	1.3	0.7
	50대	(82)	89.0	34.1	35.4	30.5	12.2	11.0	12.2	3.7	4.9
	60대 이상	(14)	71.4	28.6	28.6	21.4	21.4	7.1	35.7	0.0	0.0
거주 지별	수도권	(433)	77.1	26.6	18.0	14.8	17.1	4.8	3.2	1.4	1.2
	부산/경남권	(88)	75.0	26.1	14.8	14.8	12.5	6.8	4.5	1.1	1.1
	대구/경북권	(76)	71.1	28.9	14.5	11.8	14.5	5.3	5.3	0.0	0.0
	대전/충청권	(70)	81.4	15.7	17.1	22.9	21.4	5.7	2.9	0.0	0.0
	광주/전라권	(90)	67.8	40.0	21.1	18.9	11.1	12.2	5.6	1.1	2.2
	강원, 제주	(18)	83.3	27.8	38.9	33.3	16.7	11.1	16.7	0.0	0.0
학력 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문대 졸업	(54)	74.1	24.1	13.0	13.0	13.0	1.9	3.7	0.0	0.0
	대학 졸업(학사)	(495)	72.7	27.7	15.2	14.3	18.0	6.7	3.2	0.8	0.8
	대학원졸업(석사)	(213)	82.2	28.2	25.8	21.6	12.7	6.1	6.6	1.4	1.9
	대학원졸업(박사)	(12)	91.7	16.7	25.0	8.3	8.3	8.3	0.0	8.3	0.0

※ base :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전공자(n=775), 복수응답, 기타 5.0%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라. 관련 분야 종사 여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기관 및 시설, 단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예술전공자의 88.1%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관련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11.9%로 나타났다. 신규 자격취득자(90.7%)가 기존 자격소지자(87.6%)에 비해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90.0%)이 여성(87.8%)에 비해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의 근무 기간은 평균 4년 4개월(52.4개월)로 타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평균 2년 10개월(34.0개월))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0] [예술전공자] 자격소지자의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여부

		사례수 (명)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타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사례수	%	평균(개월)	사례수	%	평균(개월)
전 체		(629)	(554)	88.1	52.4	(75)	11.9	34.0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532)	(466)	87.6	53.3	(66)	12.4	37.3
	신규 자격취득자	(97)	(88)	90.7	47.3	(9)	9.3	10.0
성별	남성	(90)	(81)	90.0	64.3	(9)	10.0	26.6
	여성	(539)	(473)	87.8	50.3	(66)	12.2	35.1
연령별	20대	(321)	(273)	85.0	19.9	(48)	15.0	13.5
	30대	(183)	(170)	92.9	62.1	(13)	7.1	43.0
	40대	(71)	(61)	85.9	100.9	(10)	14.1	85.0
	50대	(48)	(44)	91.7	127.5	(4)	8.3	123.8
	60대 이상	(6)	(6)	100.0	207.8	(0)	0.0	0.0
거주지별	수도권	(311)	(260)	83.6	54.8	(51)	16.4	39.1
	부산/경남권	(69)	(63)	91.3	39.1	(6)	8.7	37.2
	대구/경북권	(66)	(62)	93.9	48.1	(4)	6.1	4.3
	대전/충청권	(75)	(72)	96.0	47.7	(3)	4.0	14.0
	광주/전라권	(91)	(84)	92.3	61.5	(7)	7.7	28.9
	강원, 제주	(17)	(13)	76.5	54.9	(4)	23.5	18.5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	(1)	100.0	62.0	(0)	0.0	0.0
	전문대졸업	(30)	(20)	66.7	24.6	(10)	33.3	39.8
	대학 졸업(학사)	(406)	(358)	88.2	37.7	(48)	11.8	16.3
	대학원졸업(석사)	(175)	(160)	91.4	78.2	(15)	8.6	72.8
	대학원졸업(박사)	(17)	(15)	88.2	162.3	(2)	11.8	140.5

※ base :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전공자(n=62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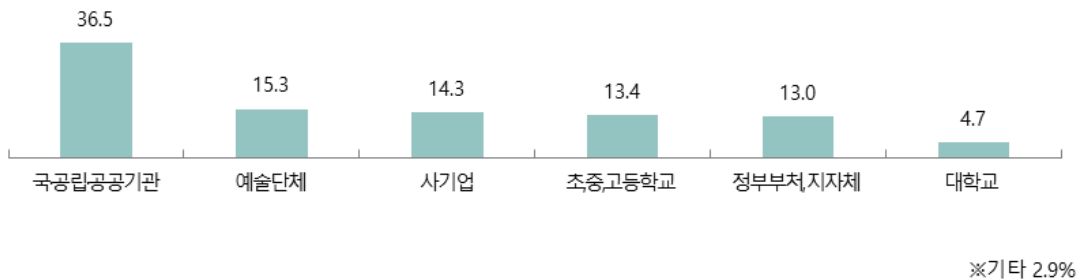
마. 자격소지자 직업 혹은 소속기관

1) 문화예술 관련 분야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직업 혹은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국·공립·공공기관’이 3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예술단체’(15.3%), ‘사기업’(14.3%), ‘초·중·고등학교’(13.4%), ‘정부부처, 지자체’(13.0%), ‘대학교’(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자격취득자는 ‘사기업’과 ‘초·중·고등학교’(18.2%)에 종사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예술단체’(18.3%)와 ‘사기업’(16.5%)에서, 30대는 ‘국·공립·공공기관’(41.8%)에서, 40대는 ‘대학교’(11.5%)에서, 50대는 ‘초·중·고등학교’(20.5%), ‘예술단체’(18.2%), ‘대학교’(15.9%)에서 종사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8] [예술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 직업/소속기관
(n=629, 단위 : %)



[표 191] [예술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 직업/소속기관

		사례수 (명)	국·공립· 공공기관		예술단체		사기업		초,중, 고등학교		정부부처, 지자체		대학교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554)	(202)	36.5	(85)	15.3	(79)	14.3	(74)	13.4	(72)	13.0	(26)	4.7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466)	(174)	37.3	(73)	15.7	(63)	13.5	(58)	12.4	(64)	13.7	(23)	4.9
	신규 자격취득자	(88)	(28)	31.8	(12)	13.6	(16)	<u>18.2</u>	(16)	<u>18.2</u>	(8)	9.1	(3)	3.4
성별	남성	(81)	(26)	32.1	(13)	16.0	(15)	<u>18.5</u>	(14)	<u>17.3</u>	(5)	6.2	(4)	4.9
	여성	(473)	(176)	37.2	(72)	15.2	(64)	13.5	(60)	12.7	(67)	14.2	(22)	4.7
연령 별	20대	(273)	(96)	35.2	(50)	<u>18.3</u>	(45)	<u>16.5</u>	(35)	12.8	(31)	11.4	(5)	1.8
	30대	(170)	(71)	<u>41.8</u>	(17)	10.0	(21)	12.4	(22)	12.9	(29)	<u>17.1</u>	(7)	4.1
	40대	(61)	(22)	36.1	(7)	11.5	(9)	14.8	(8)	13.1	(8)	13.1	(7)	<u>11.5</u>
	50대	(44)	(11)	25.0	(8)	<u>18.2</u>	(4)	9.1	(9)	<u>20.5</u>	(4)	9.1	(7)	<u>15.9</u>
	60대 이상	(6)	(2)	33.3	(3)	50.0	(0)	0.0	(0)	0.0	(0)	0.0	(0)	0.0
거주지 별	수도권	(260)	(96)	36.9	(38)	14.6	(42)	<u>16.2</u>	(39)	<u>15.0</u>	(28)	10.8	(10)	3.8
	부산/경남권	(63)	(25)	<u>39.7</u>	(11)	<u>17.5</u>	(9)	14.3	(6)	9.5	(9)	14.3	(1)	1.6
	대구/경북권	(62)	(20)	32.3	(11)	<u>17.7</u>	(11)	<u>17.7</u>	(8)	12.9	(7)	11.3	(4)	<u>6.5</u>
	대전/충청권	(72)	(21)	29.2	(13)	<u>18.1</u>	(7)	9.7	(10)	13.9	(15)	<u>20.8</u>	(6)	<u>8.3</u>
	광주/전라권	(84)	(34)	<u>40.5</u>	(11)	13.1	(8)	9.5	(10)	11.9	(12)	14.3	(4)	4.8
	강원, 제주	(13)	(6)	46.2	(1)	7.7	(2)	15.4	(1)	7.7	(1)	7.7	(1)	7.7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전문대졸업	(20)	(4)	20.0	(4)	20.0	(4)	20.0	(2)	10.0	(3)	15.0	(1)	5.0
	대학 졸업(학사)	(358)	(127)	35.5	(61)	<u>17.0</u>	(59)	<u>16.5</u>	(43)	12.0	(50)	14.0	(8)	2.2
	대학원졸업(석사)	(160)	(67)	<u>41.9</u>	(20)	12.5	(15)	9.4	(29)	<u>18.1</u>	(18)	11.3	(8)	5.0
	대학원졸업(박사)	(15)	(4)	26.7	(0)	0.0	(1)	6.7	(0)	0.0	(0)	0.0	(9)	60.0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n=554), 복수응답, 기타 2.9%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의 74.9%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규 자격취득자(81.8%)가 기존 자격소지자(73.6%)에 비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76.7%로 남성(64.2%)보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비정규직’(78.4%)이라는 응답이, 30대는 ‘정규직’(30.0%)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92] [예술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의 근무 형태

		사례수 (명)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54)	(139)	25.1	(415)	74.9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466)	(123)	26.4	(343)	73.6
	신규 자격취득자	(88)	(16)	18.2	(72)	81.8
성별	남성	(81)	(29)	35.8	(52)	64.2
	여성	(473)	(110)	23.3	(363)	76.7
연령별	20대	(273)	(59)	21.6	(214)	78.4
	30대	(170)	(51)	30.0	(119)	70.0
	40대	(61)	(16)	26.2	(45)	73.8
	50대	(44)	(11)	25.0	(33)	75.0
	60대 이상	(6)	(2)	33.3	(4)	66.7
거주지별	수도권	(260)	(74)	28.5	(186)	71.5
	부산/경남권	(63)	(14)	22.2	(49)	77.8
	대구/경북권	(62)	(11)	17.7	(51)	82.3
	대전/충청권	(72)	(18)	25.0	(54)	75.0
	광주/전라권	(84)	(20)	23.8	(64)	76.2
	강원, 제주	(13)	(2)	15.4	(11)	84.6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	(0)	0.0	(1)	100.0
	전문대졸업	(20)	(3)	15.0	(17)	85.0
	대학 졸업(학사)	(358)	(80)	22.3	(278)	77.7
	대학원졸업(석사)	(160)	(50)	31.3	(110)	68.8
	대학원졸업(박사)	(15)	(6)	40.0	(9)	60.0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n=55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 타 분야

문화예술 관련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의 직업/소속기관을 살펴보면, ‘사기업’이 34.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공립·공공기관’(21.3%), ‘초·중·고등학교’(16.0%), ‘대학교’(14.7%), ‘정부부처, 지자체’(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사기업’(41.7%)과 ‘대학교’(18.8%)에 종사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93] [예술전공자] 타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 직업/소속기관

		사례수 (명)	사기업		국·공립· 공공기관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정부부처, 지자체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75)	(26)	34.7	(16)	21.3	(12)	16.0	(11)	14.7	(3)	4.0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66)	(21)	31.8	(14)	21.2	(11)	16.7	(10)	15.2	(3)	4.5
	신규 자격취득자	(9)	(5)	55.6	(2)	22.2	(1)	11.1	(1)	11.1	(0)	0.0
성별	남성	(9)	(3)	33.3	(3)	33.3	(1)	11.1	(1)	11.1	(0)	0.0
	여성	(66)	(23)	34.8	(13)	19.7	(11)	16.7	(10)	15.2	(3)	4.5
연령별	20대	(48)	(20)	41.7	(8)	16.7	(6)	12.5	(9)	18.8	(0)	0.0
	30대	(13)	(4)	30.8	(4)	30.8	(2)	15.4	(2)	15.4	(1)	7.7
	40대	(10)	(2)	20.0	(2)	20.0	(3)	30.0	(0)	0.0	(2)	20.0
	50대	(4)	(0)	0.0	(2)	50.0	(1)	25.0	(0)	0.0	(0)	0.0
	60대 이상	(0)	-	-	-	-	-	-	-	-	-	-
거주지 별	수도권	(51)	(20)	39.2	(8)	15.7	(6)	11.8	(8)	15.7	(3)	5.9
	부산/경남권	(6)	(1)	16.7	(1)	16.7	(2)	33.3	(2)	33.3	(0)	0.0
	대구/경북권	(4)	(2)	50.0	(0)	0.0	(2)	50.0	(0)	0.0	(0)	0.0
	대전/충청권	(3)	(1)	33.3	(0)	0.0	(2)	66.7	(0)	0.0	(0)	0.0
	광주/전라권	(7)	(1)	14.3	(5)	71.4	(0)	0.0	(1)	14.3	(0)	0.0
	강원, 제주	(4)	(1)	25.0	(2)	50.0	(0)	0.0	(0)	0.0	(0)	0.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0)	-	-	-	-	-	-	-	-	-	-
	전문대졸업	(10)	(4)	40.0	(4)	40.0	(0)	0.0	(2)	20.0	(0)	0.0
	대학(학사)	(48)	(21)	43.8	(7)	14.6	(6)	12.5	(7)	14.6	(1)	2.1
	대학원(석사)	(15)	(1)	6.7	(5)	33.3	(5)	33.3	(1)	6.7	(2)	13.3
	대학원(박사)	(2)	(0)	0.0	(0)	0.0	(1)	50.0	(1)	50.0	(0)	0.0

※ base : 타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n=75), 복수응답, 기타 9.3%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관련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33.3%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66.7%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20대(37.5%)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94] [예술전공자] 타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의 근무 형태

		사례수 (명)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75)	(25)	33.3	(50)	66.7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66)	(21)	31.8	(45)	68.2
	신규 자격취득자	(9)	(4)	44.4	(5)	55.6
성별	남성	(9)	(3)	33.3	(6)	66.7
	여성	(66)	(22)	33.3	(44)	66.7
연령별	20대	(48)	(18)	37.5	(30)	62.5
	30대	(13)	(5)	38.5	(8)	61.5
	40대	(10)	(2)	20.0	(8)	80.0
	50대	(4)	(0)	0.0	(4)	100.0
	60대 이상	(0)	-	-	-	-
거주지별	수도권	(51)	(19)	37.3	(32)	62.7
	부산/경남권	(6)	(1)	16.7	(5)	83.3
	대구/경북권	(4)	(1)	25.0	(3)	75.0
	대전/충청권	(3)	(2)	66.7	(1)	33.3
	광주/전라권	(7)	(1)	14.3	(6)	85.7
	강원, 제주	(4)	(1)	25.0	(3)	75.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0)	-	-	-	-
	전문대졸업	(10)	(6)	60.0	(4)	40.0
	대학 졸업(학사)	(48)	(15)	31.3	(33)	68.8
	대학원졸업(석사)	(15)	(4)	26.7	(11)	73.3
	대학원졸업(박사)	(2)	(0)	0.0	(2)	100.0

※ base : 타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n=75)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3) 프리랜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있는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의 67.8%는 ‘민간영역(문화센터, 기관, 학원 등)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이며, 46.0%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민간영역’에서는 20대(72.4%)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는 30대(52.1%), 40대(49.2%), 50대(52.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민간영역에서 활동한 기간은 평균 5년 10개월(69.5개월)이며,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평균 3년 11개월(46.7개월)로 나타났다.

[표 195] [예술전공자] 예술강사 활동 분야

		사례수 (명)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		
			사례수	%	개월	사례수	%	개월
전 체		(587)	(398)	67.8	69.5	(270)	46.0	46.7
기존/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513)	(347)	67.6	73.0	(237)	46.2	49.4
	신규 자격취득자	(74)	(51)	68.9	45.3	(33)	44.6	27.6
성별	남성	(78)	(61)	<u>78.2</u>	68.7	(29)	37.2	31.0
	여성	(509)	(337)	66.2	69.6	(241)	47.3	48.6
연령별	20대	(217)	(157)	<u>72.4</u>	27.6	(84)	38.7	22.2
	30대	(169)	(108)	63.9	71.4	(88)	<u>52.1</u>	56.8
	40대	(118)	(77)	65.3	108.2	(58)	<u>49.2</u>	59.6
	50대	(73)	(47)	64.4	129.4	(38)	<u>52.1</u>	59.0
	60대 이상	(10)	(9)	90.0	133.9	(2)	20.0	29.5
거주지별	수도권	(334)	(233)	<u>69.8</u>	62.2	(153)	45.8	40.9
	부산/경남권	(66)	(44)	66.7	63.1	(30)	45.5	42.2
	대구/경북권	(54)	(37)	68.5	71.5	(22)	40.7	52.2
	대전/충청권	(57)	(37)	64.9	62.1	(22)	38.6	89.5
	광주/전라권	(61)	(38)	62.3	102.0	(33)	<u>54.1</u>	46.5
	강원, 제주	(15)	(9)	60.0	174.2	(10)	66.7	43.3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	(1)	100.0	84.0	(0)	0.0	0.0
	전문대졸업	(40)	(29)	<u>72.5</u>	50.9	(15)	37.5	17.9
	대학 졸업(학사)	(360)	(253)	<u>70.3</u>	59.6	(160)	44.4	39.4
	대학원졸업(석사)	(175)	(108)	61.7	94.3	(89)	<u>50.9</u>	64.3
	대학원졸업(박사)	(11)	(7)	63.6	117.4	(6)	54.5	55.2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를 하고 있는 예술전공자(n=587),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점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전공자의 49.9%는 활동하기 전에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50.1%는 활동한 뒤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자격소지자는 활동하기 전(53.4%)에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응답이, 신규 자격취득자는 활동한 뒤(70.6%)에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20대는 경제활동하기 전에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 40대, 50대는 경제활동 한 뒤에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196]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점

		사례수 (명)	활동하기 전 자격증 취득		활동한 뒤 자격증 취득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404)	(701)	49.9	(703)	50.1
기존/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1,200)	(641)	<u>53.4</u>	(559)	46.6
	신규 자격취득자	(204)	(60)	29.4	(144)	<u>70.6</u>
성별	남성	(195)	(96)	49.2	(99)	50.8
	여성	(1,209)	(605)	50.0	(604)	50.0
연령별	20대	(644)	(447)	<u>69.4</u>	(197)	30.6
	30대	(390)	(166)	42.6	(224)	<u>57.4</u>
	40대	(220)	(52)	23.6	(168)	<u>76.4</u>
	50대	(130)	(32)	24.6	(98)	<u>75.4</u>
	60대 이상	(20)	(4)	20.0	(16)	80.0
거주지별	수도권	(744)	(373)	50.1	(371)	49.9
	부산/경남권	(157)	(87)	<u>55.4</u>	(70)	44.6
	대구/경북권	(142)	(78)	<u>54.9</u>	(64)	45.1
	대전/충청권	(145)	(65)	44.8	(80)	<u>55.2</u>
	광주/전라권	(181)	(80)	44.2	(101)	<u>55.8</u>
	강원, 제주	(35)	(18)	51.4	(17)	48.6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2)	(0)	0.0	(2)	100.0
	전문대졸업	(84)	(49)	<u>58.3</u>	(35)	41.7
	대학 졸업(학사)	(901)	(497)	<u>55.2</u>	(404)	44.8
	대학원졸업(석사)	(388)	(149)	38.4	(239)	<u>61.6</u>
	대학원졸업(박사)	(29)	(6)	20.7	(23)	79.3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전공자(n=1,40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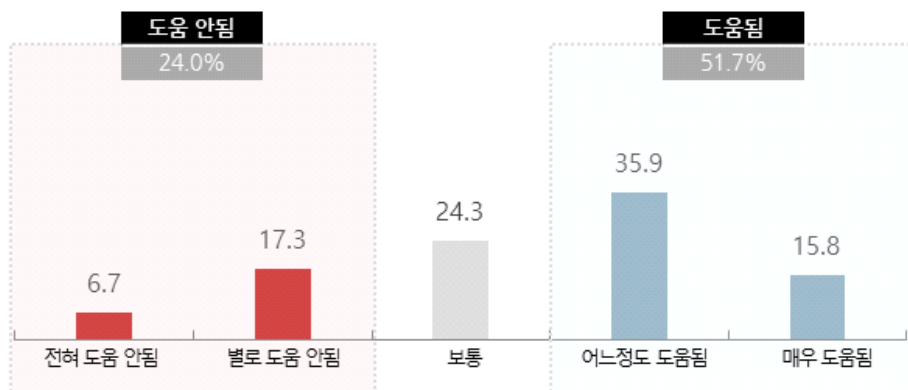
5. 자격취득 만족도

가. 현재 업무 도움 정도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전공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51.7%(매우 도움이 된다 15.8%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35.9%)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24.0%(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6.7%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7.3%)로 나타났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기존 자격소지자(51.3%) 대비 ‘신규 자격취득자’(53.9%)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55.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9]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도움 정도
(n=1,404, 단위 : %,점(5점 만점))

평균: 3.37점



[표 197]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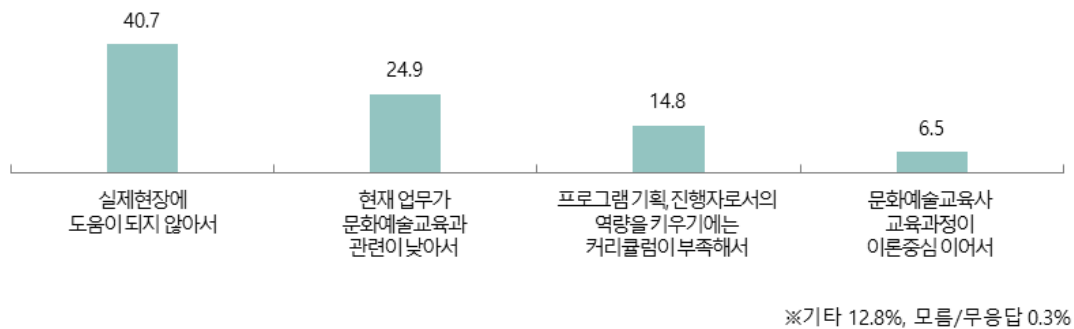
		사례수 (명)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보통 이다	④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 안됨 (①+②)	도움 됨 (④+⑤)	5점 평균
			%	%	%	%	%	%	%	점
전 체		(1,404)	6.7	17.3	24.3	35.9	15.8	24.0	51.7	3.37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1,200)	7.1	17.8	23.8	35.5	15.8	24.9	51.3	3.35
	신규 자격취득자	(204)	4.4	14.2	27.5	38.2	15.7	18.6	53.9	3.47
성별	남성	(195)	7.7	15.9	24.1	35.9	16.4	23.6	52.3	3.37
	여성	(1,209)	6.5	17.5	24.3	35.9	15.7	24.1	51.6	3.37
연령별	20대	(644)	4.3	15.2	25.0	40.7	14.8	19.6	55.4	3.46
	30대	(390)	9.0	19.2	23.3	33.6	14.9	28.2	48.5	3.26
	40대	(220)	9.1	21.4	23.6	28.6	17.3	30.5	45.9	3.24
	50대	(130)	6.2	15.4	25.4	33.1	20.0	21.5	53.1	3.45
	60대 이상	(20)	15.0	15.0	20.0	25.0	25.0	30.0	50.0	3.30
거주지 별	수도권	(744)	7.1	18.0	24.1	37.5	13.3	25.1	50.8	3.32
	부산/경남권	(157)	9.6	19.1	26.8	31.8	12.7	28.7	44.6	3.19
	대구/경북권	(142)	4.9	16.9	28.9	32.4	16.9	21.8	49.3	3.39
	대전/충청권	(145)	1.4	14.5	25.5	35.2	23.4	15.9	58.6	3.65
	광주/전라권	(181)	8.8	15.5	19.9	36.5	19.3	24.3	55.8	3.42
	강원, 제주	(35)	2.9	17.1	17.1	34.3	28.6	20.0	62.9	3.69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2)	50.0	0.0	0.0	50.0	0.0	50.0	50.0	2.50
	전문대졸업	(84)	6.0	14.3	25.0	41.7	13.1	20.2	54.8	3.42
	대학 졸업(학사)	(901)	5.9	15.8	23.1	38.6	16.6	21.6	55.3	3.44
	대학원졸업(석사)	(388)	7.2	21.9	27.1	29.9	13.9	29.1	43.8	3.21
	대학원졸업(박사)	(29)	24.1	13.8	24.1	13.8	24.1	37.9	37.9	3.00

※ base :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전공자(n=1,40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 되지 않는 이유는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40.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낮아서’(24.9%),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커리큘럼이 부족해서’(14.8%),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이론 중심이어서’(6.5%)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자격소지자는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42.8%)라는 응답이, 신규 자격취득자는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낮아서’(28.9%)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이론 중심이어서’(15.8%)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0]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n=337, 단위 : %)



[표 198]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사례수 (명)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이 낮아서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커리큘럼이 부족해서		문화예술 교육사 교육과정이 이론 중심 이어서	
			명	%	명	%	명	%	명	%
전 체		(337)	(137)	40.7	(84)	24.9	(50)	14.8	(22)	6.5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299)	(128)	42.8	(73)	24.4	(44)	14.7	(16)	5.4
	신규 자격취득자	(38)	(9)	23.7	(11)	28.9	(6)	15.8	(6)	15.8
성별	남성	(46)	(26)	56.5	(13)	28.3	(3)	6.5	(1)	2.2
	여성	(291)	(111)	38.1	(71)	24.4	(47)	16.2	(21)	7.2
연령별	20대	(126)	(40)	31.7	(46)	36.5	(15)	11.9	(6)	4.8
	30대	(110)	(54)	49.1	(21)	19.1	(18)	16.4	(8)	7.3
	40대	(67)	(25)	37.3	(13)	19.4	(11)	16.4	(5)	7.5
	50대	(28)	(13)	46.4	(4)	14.3	(6)	21.4	(3)	10.7
	60대 이상	(6)	(5)	83.3	(0)	0.0	(0)	0.0	(0)	0.0
거주지별	수도권	(187)	(67)	35.8	(53)	28.3	(28)	15.0	(11)	5.9
	부산/경남권	(45)	(12)	26.7	(15)	33.3	(8)	17.8	(3)	6.7
	대구/경북권	(31)	(16)	51.6	(6)	19.4	(5)	16.1	(1)	3.2
	대전/충청권	(23)	(11)	47.8	(4)	17.4	(4)	17.4	(3)	13.0
	광주/전라권	(44)	(26)	59.1	(6)	13.6	(5)	11.4	(4)	9.1
	강원, 제주	(7)	(5)	71.4	(0)	0.0	(0)	0.0	(0)	0.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	(0)	0.0	(0)	0.0	(0)	0.0	(1)	100.0
	전문대졸업	(17)	(9)	52.9	(3)	17.6	(0)	0.0	(1)	5.9
	대학 졸업(학사)	(195)	(64)	32.8	(58)	29.7	(30)	15.4	(13)	6.7
	대학원졸업(석사)	(113)	(56)	49.6	(22)	19.5	(19)	16.8	(7)	6.2
	대학원졸업(박사)	(11)	(8)	72.7	(1)	9.1	(1)	9.1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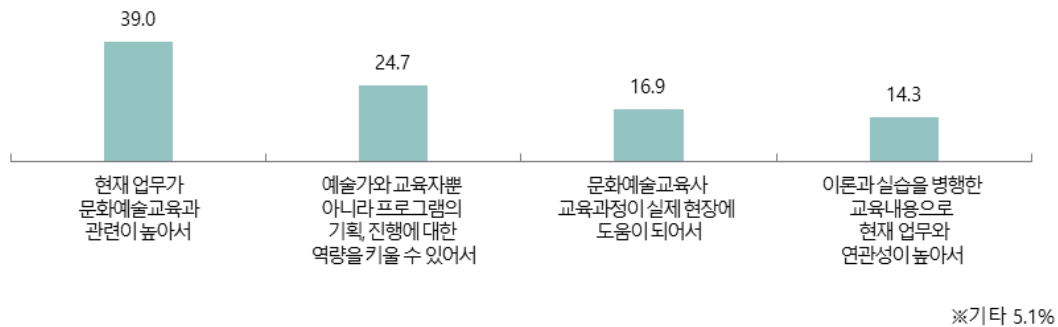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예술전공자(n=337)

※ 기타 12.8%, 모름/무응답 0.3%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반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높아서’가 39.0%로 가장 높고, ‘예술가와 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24.7%),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16.9%),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내용으로 현재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자격취득자는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23.6%)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 내용으로 현재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19.1%)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
(n=726, 단위 : %)



[표 199]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

		사례수 (명)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높아서		예술가/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 내용으로 현재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	
			명	%	명	%	명	%	명	%
전 체		(726)	(283)	39.0	(179)	24.7	(123)	16.9	(104)	14.3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616)	(244)	39.6	(159)	25.8	(97)	15.7	(83)	13.5
	신규 자격취득자	(110)	(39)	35.5	(20)	18.2	(26)	<u>23.6</u>	(21)	<u>19.1</u>
성별	남성	(102)	(26)	25.5	(32)	<u>31.4</u>	(16)	15.7	(22)	<u>21.6</u>
	여성	(624)	(257)	<u>41.2</u>	(147)	23.6	(107)	17.1	(82)	13.1
연령 별	20대	(357)	(153)	<u>42.9</u>	(77)	21.6	(59)	16.5	(58)	<u>16.2</u>
	30대	(189)	(66)	34.9	(52)	<u>27.5</u>	(31)	16.4	(25)	13.2
	40대	(101)	(38)	37.6	(28)	<u>27.7</u>	(16)	15.8	(10)	9.9
	50대	(69)	(24)	34.8	(17)	24.6	(15)	<u>21.7</u>	(10)	14.5
	60대 이상	(10)	(2)	20.0	(5)	50.0	(2)	20.0	(1)	10.0
거주지별	수도권	(378)	(141)	37.3	(90)	23.8	(66)	17.5	(57)	15.1
	부산/경남권	(70)	(32)	<u>45.7</u>	(19)	<u>27.1</u>	(6)	8.6	(11)	15.7
	대구/경북권	(70)	(32)	<u>45.7</u>	(16)	22.9	(8)	11.4	(9)	12.9
	대전/충청권	(85)	(36)	<u>42.4</u>	(22)	25.9	(14)	16.5	(11)	12.9
	광주/전라권	(101)	(35)	34.7	(24)	23.8	(24)	<u>23.8</u>	(15)	14.9
	강원, 제주	(22)	(7)	31.8	(8)	36.4	(5)	22.7	(1)	4.5
학력 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	(1)	100.0	(0)	0.0	(0)	0.0	(0)	0.0
	전문대졸업	(46)	(13)	28.3	(9)	19.6	(12)	<u>26.1</u>	(8)	<u>17.4</u>
	대학 졸업(학사)	(498)	(194)	39.0	(126)	25.3	(81)	16.3	(75)	15.1
	대학원졸업(석사)	(170)	(72)	<u>42.4</u>	(39)	22.9	(30)	17.6	(19)	11.2
	대학원졸업(박사)	(11)	(3)	27.3	(5)	45.5	(0)	0.0	(2)	18.2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예술전공자(n=726), 복수응답

※ 기타 5.1%는 표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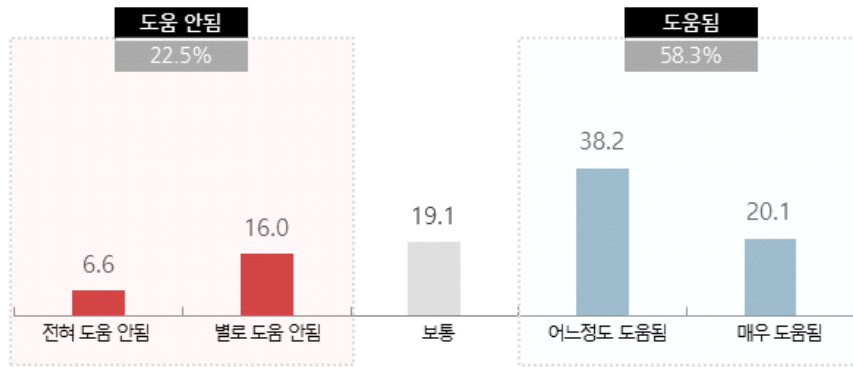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나. 구직 시 도움 정도

경제활동하기 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격소지자에게 구직 시 도움 정도를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되었다’가 58.3%(매우 도움이 되었다 20.1% +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38.2%)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22.5%(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6.6% +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16.0%)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50대(65.6%)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 [예술전공자] 구직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도움 정도
(n=701, 단위 : %,점(5점 만점))

평균: 3.49점



[표 200] [예술전공자]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도움 정도

		사례수 (명)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별로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도움됨	⑤ 매우 도움됨	도움 안됨 (①+②)	도움 됨 (④+⑤)	5점 평균
			%	%	%	%	%	%	%	점
전 체		(701)	6.6	16.0	19.1	38.2	20.1	22.5	58.3	3.49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641)	6.6	16.1	18.9	37.9	20.6	22.6	58.5	3.50
	신규 자격취득자	(60)	6.7	15.0	21.7	41.7	15.0	21.7	56.7	3.43
성별	남성	(96)	8.3	16.7	18.8	38.5	17.7	25.0	56.3	3.41
	여성	(605)	6.3	15.9	19.2	38.2	20.5	22.1	58.7	3.51
연령별	20대	(447)	5.8	15.0	20.8	38.9	19.5	20.8	58.4	3.51
	30대	(166)	9.6	16.3	16.3	36.7	21.1	25.9	57.8	3.43
	40대	(52)	7.7	19.2	17.3	34.6	21.2	26.9	55.8	3.42
	50대	(32)	0.0	25.0	9.4	43.8	21.9	25.0	65.6	3.63
	60대 이상	(4)	0.0	0.0	50.0	25.0	25.0	0.0	50.0	3.75
거주지 별	수도권	(373)	7.5	16.6	20.4	38.6	16.9	24.1	55.5	3.41
	부산/경남권	(87)	8.0	14.9	19.5	40.2	17.2	23.0	57.5	3.44
	대구/경북권	(78)	2.6	19.2	20.5	34.6	23.1	21.8	57.7	3.56
	대전/충청권	(65)	0.0	16.9	10.8	43.1	29.2	16.9	72.3	3.85
	광주/전라권	(80)	11.3	11.3	17.5	33.8	26.3	22.5	60.0	3.53
	강원, 제주	(18)	0.0	11.1	22.2	38.9	27.8	11.1	66.7	3.83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0)	-	-	-	-	-	-	-	-
	전문대졸업	(49)	8.2	12.2	18.4	42.9	18.4	20.4	61.2	3.51
	대학 졸업(학사)	(497)	5.6	14.5	18.7	40.2	20.9	20.1	61.2	3.56
	대학원졸업(석사)	(149)	7.4	21.5	21.5	31.5	18.1	28.9	49.7	3.32
	대학원졸업(박사)	(6)	50.0	33.3	0.0	0.0	16.7	83.3	16.7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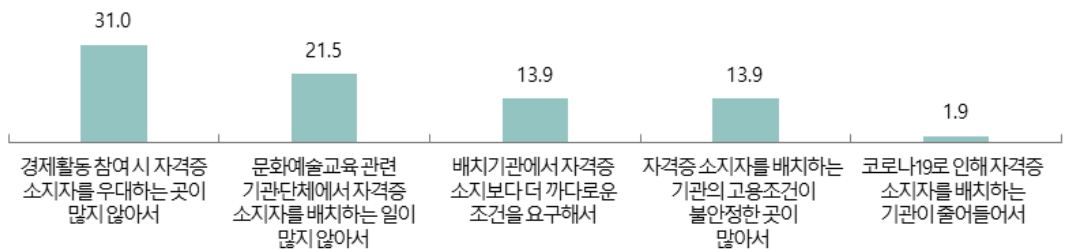
※ base : 경제활동 전 자격증 취득한 예술전공자(n=701)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가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21.5%),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서’와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곳이 많아서’(각각 13.9%), ‘코로나 19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이 줄어들어서’(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20대는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서’(17.2%)가, 30대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23.3%)와 ‘코로나 19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이 줄어들어서’(4.7%)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 [예술전공자]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n=158, 단위 : %)



※기타 15.2%, 모름/무응답 2.5%

[표 201] [예술전공자]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사례수 (명)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 조건이 불안정한 곳이 많아서		코로나 19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이 줄어들어서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58)	(49)	31.0	(34)	21.5	(22)	13.9	(22)	13.9	(3)	1.9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145)	(44)	30.3	(31)	21.4	(21)	14.5	(20)	13.8	(2)	1.4
	신규 자격취득자	(13)	(5)	38.5	(3)	23.1	(1)	7.7	(2)	15.4	(1)	7.7
성별	남성	(24)	(7)	29.2	(6)	25.0	(4)	16.7	(2)	8.3	(0)	0.0
	여성	(134)	(42)	31.3	(28)	20.9	(18)	13.4	(20)	14.9	(3)	2.2
연령별	20대	(93)	(28)	30.1	(17)	18.3	(16)	17.2	(14)	15.1	(1)	1.1
	30대	(43)	(14)	32.6	(10)	23.3	(6)	14.0	(4)	9.3	(2)	4.7
	40대	(14)	(6)	42.9	(3)	21.4	(0)	0.0	(2)	14.3	(0)	0.0
	50대	(8)	(1)	12.5	(4)	50.0	(0)	0.0	(2)	25.0	(0)	0.0
	60대 이상	(0)	-	-	-	-	-	-	-	-	-	-
거주지 별	수도권	(90)	(35)	38.9	(16)	17.8	(13)	14.4	(10)	11.1	(1)	1.1
	부산/경남권	(20)	(4)	20.0	(4)	20.0	(4)	20.0	(5)	25.0	(1)	5.0
	대구/경북권	(17)	(2)	11.8	(8)	47.1	(0)	0.0	(2)	11.8	(0)	0.0
	대전/충청권	(11)	(3)	27.3	(2)	18.2	(1)	9.1	(2)	18.2	(1)	9.1
	광주/전라권	(18)	(5)	27.8	(3)	16.7	(4)	22.2	(2)	11.1	(0)	0.0
	강원, 제주	(2)	(0)	0.0	(1)	50.0	(0)	0.0	(1)	50.0	(0)	0.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0)	-	-	-	-	-	-	-	-	-	-
	전문대졸업	(10)	(2)	20.0	(2)	20.0	(3)	30.0	(0)	0.0	(0)	0.0
	대학 졸업(학사)	(100)	(31)	31.0	(25)	25.0	(11)	11.0	(13)	13.0	(2)	2.0
	대학원졸업(석사)	(43)	(14)	32.6	(7)	16.3	(8)	18.6	(8)	18.6	(1)	2.3
	대학원졸업(박사)	(5)	(2)	40.0	(0)	0.0	(0)	0.0	(1)	20.0	(0)	0.0

※ base :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예술전공자(n=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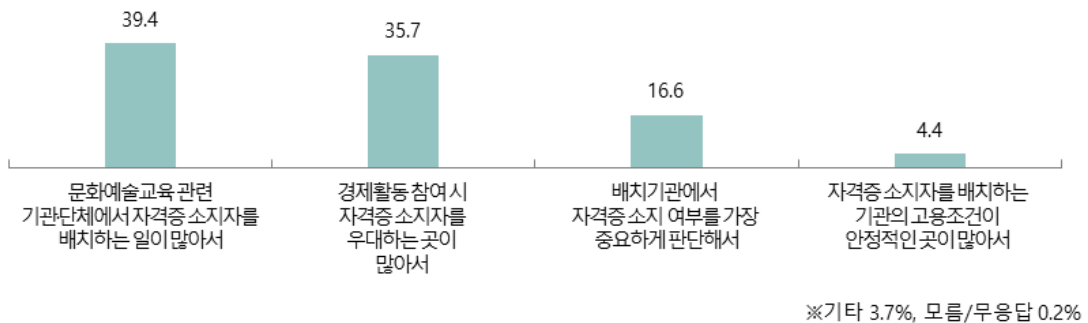
※ 기타 15.2%, 모름/무응답 2.5%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반면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된 이유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아서’가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아서’(35.7%),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서’(16.6%),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조건이 안정적인 곳이 많아서’(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자격취득자는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서’(20.6%),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조건이 안정적인 곳이 많아서’(26.5%) 구직 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4] [예술전공자]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 이유
(n=409, 단위 : %)



[표 202] [예술전공자]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 이유

		사례수 (명)	문화예술교육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아서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아서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 조건이 안정적인 곳이 많아서	
			명	%	명	%	명	%	명	%
전 체		(409)	(161)	39.4	(146)	35.7	(68)	16.6	(18)	4.4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375)	(152)	40.5	(137)	36.5	(61)	16.3	(9)	2.4
	신규 자격취득자	(34)	(9)	26.5	(9)	26.5	(7)	<u>20.6</u>	(9)	<u>26.5</u>
성별	남성	(54)	(23)	<u>42.6</u>	(16)	29.6	(10)	<u>18.5</u>	(4)	<u>7.4</u>
	여성	(355)	(138)	38.9	(130)	36.6	(58)	16.3	(14)	3.9
연령별	20대	(261)	(100)	38.3	(96)	36.8	(43)	16.5	(13)	5.0
	30대	(96)	(38)	39.6	(35)	36.5	(16)	16.7	(3)	3.1
	40대	(29)	(13)	44.8	(7)	24.1	(6)	20.7	(1)	3.4
	50대	(21)	(9)	42.9	(7)	33.3	(3)	14.3	(1)	4.8
	60대 이상	(2)	(1)	50.0	(1)	50.0	(0)	0.0	(0)	0.0
거주지 별	수도권	(207)	(73)	35.3	(80)	<u>38.6</u>	(35)	16.9	(9)	4.3
	부산/경남권	(50)	(21)	<u>42.0</u>	(15)	30.0	(8)	16.0	(4)	<u>8.0</u>
	대구/경북권	(45)	(18)	40.0	(17)	<u>37.8</u>	(10)	<u>22.2</u>	(0)	0.0
	대전/충청권	(47)	(20)	<u>42.6</u>	(17)	36.2	(4)	8.5	(3)	<u>6.4</u>
	광주/전라권	(48)	(24)	<u>50.0</u>	(14)	29.2	(8)	16.7	(2)	4.2
	강원, 제주	(12)	(5)	41.7	(3)	25.0	(3)	25.0	(0)	0.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0)	-	-	-	-	-	-	-	-
	전문대졸업	(30)	(7)	23.3	(13)	<u>43.3</u>	(6)	<u>20.0</u>	(3)	<u>10.0</u>
	대학 졸업(학사)	(304)	(127)	<u>41.8</u>	(107)	35.2	(49)	16.1	(11)	3.6
	대학원졸업(석사)	(74)	(27)	36.5	(26)	35.1	(12)	16.2	(4)	5.4
	대학원졸업(박사)	(1)	(0)	0.0	(0)	0.0	(1)	100.0	(0)	0.0

※ base :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예술전공자(n=409)

※ 기타 3.7%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6.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9.5%로 나타났다. 기존 자격소지자(45.8%)에 비해 신규 자격취득자(62.8%)에서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1.0%)보다 여성(51.2%)이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62.7%)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203]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

		사례수 (명)	그렇다		그렇지 않다		미정이다		참여조건이 되지 않는다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3,712)	(1,837)	49.5	(546)	14.7	(661)	17.8	(668)	18.0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2,901)	(1,328)	45.8	(451)	15.5	(548)	18.9	(574)	19.8
	신규 자격취득자	(811)	(509)	62.8	(95)	11.7	(113)	13.9	(94)	11.6
성별	남성	(627)	(257)	41.0	(143)	22.8	(122)	19.5	(105)	16.7
	여성	(3,085)	(1,580)	51.2	(403)	13.1	(539)	17.5	(563)	18.2
연령별	20대	(2,095)	(1,314)	62.7	(297)	14.2	(435)	20.8	(49)	2.3
	30대	(776)	(377)	48.6	(156)	20.1	(150)	19.3	(93)	12.0
	40대	(456)	(77)	16.9	(49)	10.7	(34)	7.5	(296)	64.9
	50대	(307)	(57)	18.6	(34)	11.1	(34)	11.1	(182)	59.3
	60대 이상	(78)	(12)	15.4	(10)	12.8	(8)	10.3	(48)	61.5
거주지별	수도권	(2,093)	(1,077)	51.5	(308)	14.7	(370)	17.7	(338)	16.1
	부산/경남권	(422)	(223)	52.8	(53)	12.6	(68)	16.1	(78)	18.5
	대구/경북권	(332)	(165)	49.7	(46)	13.9	(54)	16.3	(67)	20.2
	대전/충청권	(348)	(162)	46.6	(56)	16.1	(66)	19.0	(64)	18.4
	광주/전라권	(437)	(177)	40.5	(76)	17.4	(88)	20.1	(96)	22.0
	강원, 제주	(80)	(33)	41.3	(7)	8.8	(15)	18.8	(25)	31.3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4)	(6)	42.9	(1)	7.1	(5)	35.7	(2)	14.3
	전문대졸업	(352)	(219)	62.2	(36)	10.2	(64)	18.2	(33)	9.4
	대학 졸업(학사)	(2,498)	(1,302)	52.1	(369)	14.8	(470)	18.8	(357)	14.3
	대학원졸업(석사)	(784)	(292)	37.2	(130)	16.6	(114)	14.5	(248)	31.6
	대학원졸업(박사)	(64)	(18)	28.1	(10)	15.6	(8)	12.5	(28)	43.8

※ base : 예술전공자 전체(n=3,71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기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이 있는 예술전공자를 대상으로 참여가 가능하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을 살펴본 결과, ‘서울’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기’(30.4%), ‘부산’(9.9%), ‘대구’(9.4%), ‘인천’(8.7%), ‘광주’(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04]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가능 또는 희망 지역(1)

		사례수 (명)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경남 %	대전 %	전남 %
전 체		(1,837)	55.2	30.4	9.9	9.4	8.7	6.8	6.7	6.4	5.0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1,328)	55.6	28.5	9.6	9.0	8.6	6.6	7.2	6.1	5.3
	신규 자격취득자	(509)	54.0	35.4	10.6	10.4	9.0	7.3	5.3	7.3	4.3
성별	남성	(257)	65.0	30.4	2.3	7.0	9.3	5.8	4.7	5.1	5.1
	여성	(1,580)	53.6	30.4	11.1	9.8	8.6	6.9	7.0	6.6	5.0
연령	20대	(1,314)	58.5	31.1	10.5	10.0	9.0	6.8	6.8	7.4	4.7
	30대	(377)	52.0	30.8	8.8	8.2	10.1	6.4	5.8	5.0	6.1
	40대	(77)	40.3	26.0	2.6	5.2	3.9	3.9	7.8	1.3	3.9
	50대	(57)	28.1	19.3	12.3	7.0	1.8	8.8	7.0	1.8	5.3
	60대 이상	(12)	16.7	25.0	16.7	16.7	0.0	16.7	8.3	0.0	8.3
거주 지별	수도권	(1,077)	81.6	47.7	1.9	1.3	13.7	1.0	0.5	1.4	0.5
	부산/경남권	(223)	16.6	2.2	60.5	8.5	0.4	1.3	46.2	2.2	0.4
	대구/경북권	(165)	11.5	3.6	8.5	80.6	0.6	0.6	4.8	3.0	0.0
	대전/충청권	(162)	24.7	11.7	1.9	1.2	1.2	0.0	2.5	47.5	0.0
	광주/전라권	(177)	18.6	5.1	4.0	2.3	4.0	61.6	1.1	8.5	48.0
	강원, 제주	(33)	18.2	18.2	6.1	3.0	3.0	0.0	3.0	3.0	3.0
학력 별	고등학교졸업이하	(6)	83.3	33.3	0.0	0.0	16.7	0.0	0.0	0.0	0.0
	전문대졸업	(219)	74.0	44.7	3.7	3.7	11.9	2.7	2.7	2.3	3.2
	대학 졸업(학사)	(1,302)	53.2	28.0	11.4	10.8	8.2	7.7	7.1	7.1	5.1
	대학원졸업(석사)	(292)	49.7	30.5	8.6	8.6	8.9	6.2	7.9	6.8	6.2
	대학원졸업(박사)	(18)	50.0	27.8	5.6	0.0	0.0	0.0	5.6	5.6	0.0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예술전공자(n=1,837), 복수응답

[표 205]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가능 또는 희망 지역(2)

		사례수 (명)	충남 %	경북 %	세종 %	울산 %	충북 %	전북 %	제주 %	강원 %
전 체		(1,837)	4.7	4.5	4.0	3.8	3.3	3.1	2.5	2.0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1,328)	4.4	4.3	4.1	3.8	3.2	3.4	2.7	2.1
	신규 자격취득자	(509)	5.5	4.9	3.7	3.5	3.3	2.4	2.0	1.8
성별	남성	(257)	4.7	5.4	1.6	2.7	2.7	1.2	2.3	0.4
	여성	(1,580)	4.7	4.3	4.4	3.9	3.4	3.4	2.5	2.3
연령	20대	(1,314)	5.2	3.9	4.0	3.9	3.2	3.1	2.3	2.1
	30대	(377)	3.4	5.3	3.7	3.7	3.2	2.9	2.9	1.3
	40대	(77)	3.9	5.2	5.2	1.3	3.9	2.6	6.5	2.6
	50대	(57)	3.5	8.8	3.5	5.3	5.3	5.3	0.0	3.5
	60대 이상	(12)	8.3	16.7	0.0	0.0	0.0	0.0	0.0	8.3
거주 지별	수도권	(1,077)	1.8	0.5	1.5	0.6	1.2	0.7	1.4	1.4
	부산/경남권	(223)	0.4	5.8	0.4	22.4	0.4	0.4	2.7	0.4
	대구/경북권	(165)	0.6	37.0	1.8	5.5	0.6	0.0	2.4	0.0
	대전/충청권	(162)	38.3	0.6	26.5	0.0	25.9	1.2	1.2	1.2
	광주/전라권	(177)	2.3	0.6	5.1	1.1	1.1	26.0	2.8	0.6
	강원, 제주	(33)	0.0	3.0	3.0	3.0	3.0	0.0	42.4	54.5
학력 별	고등학교졸업이하	(6)	0.0	0.0	0.0	0.0	0.0	0.0	0.0	0.0
	전문대졸업	(219)	0.9	3.2	2.3	0.9	1.8	1.4	1.4	1.4
	대학 졸업(학사)	(1,302)	5.1	5.0	4.1	4.3	3.5	3.4	2.6	2.2
	대학원졸업(석사)	(292)	5.8	2.7	4.8	3.8	3.4	3.1	3.1	1.7
	대학원졸업(박사)	(18)	5.6	11.1	0.0	0.0	0.0	5.6	0.0	0.0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예술전공자(n=1,837), 복수응답

7. 예술전공자의 경제활동 심층 분석

가. 경제활동자와 비활동자의 비교

예술전공자 중 경제활동자와 비활동자를 비교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살펴보면, 경제활동자는 30대와 40대에서, 비활동자는 2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격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자는 국악과 무용 분야에서, 비활동자는 음악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현재 경제 활동을 하는 예술전공자 중 75.3%는 과거에도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활동하지 않는 예술전공자 중 78.3%는 과거에도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6] [예술전공자] 경제활동자/비활동자 응답자 특성 비교

		전체	경제활동	비활동
사례수		(3,712)	(1,404)	(2,308)
성별	남성	16.9	13.9	<u>18.7</u>
	여성	83.1	<u>86.1</u>	81.3
연령별	20대	56.4	45.9	<u>62.9</u>
	30대	20.9	<u>27.8</u>	16.7
	40대	12.3	<u>15.7</u>	10.2
	50대	8.3	9.3	7.7
	60대 이상	2.1	1.4	2.5
자격 분야	공예	5.4	6.1	5.0
	국가무형문화재	-	-	-
	국악	11.0	<u>13.6</u>	9.5
	디자인	7.2	7.3	7.2
	만화/애니메이션	1.7	1.1	2.0
	무용	7.1	<u>8.8</u>	6.1
	미술	19.6	20.2	19.2
	사진	2.3	2.7	2.1
	연극	14.3	14.2	14.3
	영화	2.0	2.1	1.9
	음악	29.4	23.9	<u>32.7</u>
과거 경제활동	있다	41.9	<u>75.3</u>	21.7
	없다	58.1	24.7	<u>78.3</u>

※ base : 예술전공자 전체(n=3,71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이수기관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자는 문화예술교육원, 비활동자는 대학의 비율이 높았다. 자격 취득 동기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자는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등이 높게 나타났다. 자격 취득 당시 희망 직무는 경제활동자와 비활동자 모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자는 기존 자격소지자에서, 비활동자는 신규 자격취득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07] [예술전공자] 경제활동자/비활동자 자격증 관련 사항 비교

		전체	경제활동	비활동
사례수		(3,712)	(1,404)	(2,308)
구분	기존 자격소지자	78.2	85.5	73.7
	신규 자격취득자	21.8	14.5	26.3
이수 기관	문화예술교육원	32.2	43.0	25.6
	대학	76.9	68.4	82.0
	학점은행제	1.3	1.7	1.0
	국가무형문화재	0.1	0.3	0.0
	기본연수 과정을 이수한 예술강사	0.9	1.4	0.6
자격 취득 동기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46.7	47.2	46.4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43.0	49.7	38.9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37.2	36.7	37.6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20.2	22.9	18.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26.5	36.0	20.8
	문화예술 소양 및 향유를 위해서	17.1	18.7	16.1
	기타	2.9	2.8	3.0
취득 당시 희망 직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47.0	54.1	42.8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34.6	44.3	28.7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63.3	68.1	60.4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27.8	33.0	24.7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예술경영)	15.0	19.2	12.4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7.7	9.7	6.4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10.7	9.9	11.3
	기타	0.6	0.5	0.6

※ base : 예술전공자 전체(n=3,71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나. 자격증 취득 시점 비교

연령별로 살펴보면, 활동 전 취득자는 20대에서, 활동 후 취득자는 30대, 40대, 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격 분야별로는 활동 전 취득자는 음악 분야에서, 활동 후 취득자는 미술에서 높게 나타났다.

활동 전 취득자 중 37.9%는 과거에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 후 취득자 중 88.5%는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8] [예술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응답자 특성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1,404)	(701)	(703)
성별	남성	13.9	13.7	14.1
	여성	86.1	86.3	85.9
연령별	20대	45.9	<u>63.8</u>	28.0
	30대	27.8	23.7	<u>31.9</u>
	40대	15.7	7.4	<u>23.9</u>
	50대	9.3	4.6	<u>13.9</u>
	60대 이상	1.4	0.6	2.3
자격 분야	공예	6.1	5.4	6.7
	국가무형문화재	-	-	-
	국악	13.6	12.4	14.8
	디자인	7.3	6.6	8.1
	만화/애니메이션	1.1	1.7	0.6
	무용	8.8	8.3	9.4
	미술	20.2	18.0	<u>22.3</u>
	사진	2.7	3.1	2.3
	연극	14.2	15.8	12.7
	영화	2.1	2.4	1.7
	음악	23.9	<u>26.2</u>	21.5
과거 경제활동	있다	75.3	62.1	<u>88.5</u>
	없다	24.7	<u>37.9</u>	11.5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는 예술전공자(n=1,40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이수기관을 살펴보면, 활동 전 취득자는 대학이, 활동 후 취득자는 문화예술교육원이 높게 나타났다. 자격 취득 동기를 살펴보면, 활동 전 취득자는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문화예술 소양 및 향유를 위해서’가 높게 나타났으며, 활동 후 취득자는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격 취득 당시 희망 직무는 활동 전 취득자와 활동 후 취득자 모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존 자격소지자는 활동 전에, 신규 자격취득자는 활동 후에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09] [예술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자격증 관련 사항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1,404)	(701)	(703)
구분	기존 자격소지자	85.5	<u>91.4</u>	79.5
	신규 자격취득자	14.5	8.6	<u>20.5</u>
이수 기관	문화예술교육원	43.0	31.1	<u>54.9</u>
	대학	68.4	<u>78.0</u>	58.7
	학점은행제	1.7	0.4	3.0
	국가무형문화재	0.3	0.1	0.4
	기본연수 과정을 이수한 예술강사	1.4	1.0	1.8
자격 취득 동기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47.2	47.1	47.4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49.7	41.4	<u>58.0</u>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36.7	<u>38.5</u>	34.9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22.9	23.8	21.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36.0	32.5	<u>39.5</u>
	문화예술 소양 및 향유를 위해서	18.7	<u>21.1</u>	16.4
	기타	2.8	3.4	2.3
취득 당시 희망 직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54.1	52.2	55.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44.3	41.4	<u>47.2</u>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68.1	<u>64.9</u>	<u>71.3</u>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33.0	34.4	31.6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예술경영)	19.2	16.5	<u>21.8</u>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9.7	7.8	<u>11.5</u>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9.9	10.0	9.8
	기타	0.5	0.7	0.3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는 예술전공자(n=1,40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강사의 경제 활동 형태를 비교해 본 결과, 활동 전 취득자는 기관·시설·단체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활동 후 취득자는 프리랜서로 종사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표 210] [예술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경제 활동 형태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1,404)	(701)	(703)
경제 활동 형태	기관·시설·단체 종사	44.8	<u>51.1</u>	38.5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55.2	48.9	<u>61.5</u>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는 예술전공자(n=1,40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종사 분야를 비교해보면, 활동 전 취득자는 타 분야에서, 활동 후 취득자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표 211] [예술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종사 분야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629)	(358)	(271)
종사 분야	문화예술 관련 분야	88.1	84.1	<u>93.4</u>
	타 분야	11.9	<u>15.9</u>	6.6

※ base : 현재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n=62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프리랜서 중, 활동 전 취득자의 현재 담당 업무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활동 후 취득자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2] [예술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담당 업무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775)	(343)	(432)
담당 업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18.1	16.0	<u>19.7</u>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6.1	12.5	<u>19.0</u>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75.7	67.3	<u>82.4</u>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6.2	5.8	6.5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예술경영)	4.1	1.7	<u>6.0</u>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1.0	0.6	1.4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1.0	0.9	1.2
	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	27.4	24.2	<u>29.9</u>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16.0	<u>20.4</u>	12.5
	기타	5.0	6.1	4.2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는 예술전공자 중 프리랜서(n=775)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프리랜서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자의 경우, 활동 전 취득자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활동 후 취득자는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13] [예술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활동 영역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587)	(231)	(356)
활동 영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	46.0	<u>49.8</u>	43.5
	민간영역에서 활동	67.8	61.9	<u>71.6</u>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는 예술전공자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 프리랜서(n=58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기관·시설·단체에서 종사자를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 활동 전 취득자는 사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활동 후 취득자는 초·중·고등학교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 형태별로는 활동 전 취득자는 비정규직, 활동 후 취득자는 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담당업무별로는 활동 전 취득자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가, 활동 후 취득자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4] [예술전공자]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업무/직무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629)	(358)	(271)
종사 기관	국·공립·공공기관	34.7	35.2	33.9
	정부부처/지자체	11.9	12.3	11.4
	예술단체	13.5	12.6	14.8
	사기업	16.7	<u>18.7</u>	14.0
	초·중·고등학교	13.7	11.5	<u>16.6</u>
	대학교	5.9	5.3	6.6
	기타	3.7	4.5	2.6
근무 형태	정규직	26.1	23.5	<u>29.5</u>
	비정규직	73.9	<u>76.5</u>	70.5
문화예술 관련 분야 평균 종사 기간(개월)		50.2	25.9	82.3
담당 업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37.7	36.0	<u>39.9</u>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32.6	29.6	<u>36.5</u>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41.8	36.0	<u>49.4</u>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24.2	22.6	<u>26.2</u>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예술경영)	5.2	2.5	<u>8.9</u>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3.2	1.1	<u>5.9</u>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8.4	7.8	9.2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12.1	<u>13.7</u>	10.0
	기타	11.8	14.2	8.5

※ base : 현재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n=62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활동 전 취득자의 자격 취득 전 희망 직무와 현 업무의 일치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으로 나타났고, 활동 후 취득자의 일치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으로 나타났다.

[표 215] [예술전공자] 활동 전 취득자의 희망 직무와 현재 업무 비교

현 담당 업무 자격취득 전 희망 직무	사 례 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단체 설립 및 운영 (예술경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컨설팅	문화예술 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문화예술 교육 관련 창작활동	문화예술 교육 자원조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366)	<u>75.5</u>	65.8	43.9	66.3	60.0	83.3	67.7	59.0	59.7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290)	54.3	<u>64.4</u>	36.7	55.4	53.3	83.3	58.1	45.8	53.8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455)	57.6	55.0	<u>81.7</u>	52.5	60.0	100.0	64.5	74.7	66.4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241)	40.2	41.6	23.6	<u>63.4</u>	60.0	83.3	54.8	33.7	45.4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 (예술경영)	(116)	19.0	19.5	13.3	26.7	<u>53.3</u>	66.7	32.3	26.5	21.8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55)	10.9	12.8	7.8	12.9	26.7	<u>83.3</u>	16.1	15.7	10.1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70)	11.4	11.4	6.4	14.9	40.0	83.3	<u>35.5</u>	18.1	18.5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표 216] [예술전공자] 활동 후 취득자의 희망 직무와 현재 업무 비교

현 담당 업무 자격취득 전 희망 직무	사 례 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단체 설립 및 운영 (예술경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컨설팅	문화예술 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문화예술 교육 관련 창작활동	문화예술 교육 자원조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393)	<u>84.5</u>	77.9	51.8	77.8	68.0	86.4	86.7	56.6	71.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332)	63.2	<u>69.6</u>	47.1	61.6	74.0	86.4	73.3	51.9	64.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501)	59.1	59.7	<u>84.1</u>	41.4	66.0	77.3	40.0	85.3	75.3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222)	45.6	48.6	26.3	<u>78.8</u>	64.0	68.2	63.3	26.4	38.3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 (예술경영)	(153)	25.9	30.4	24.3	30.3	<u>72.0</u>	59.1	43.3	26.4	35.8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81)	20.2	22.1	12.9	25.3	32.0	<u>59.1</u>	26.7	14.7	19.8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69)	14.5	16.6	10.4	15.2	26.0	31.8	<u>36.7</u>	13.2	21.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다. 업무 도움 정도 비교

자격 취득 시점별로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활동 전 취득자는 활동 후 취득자에 비해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기관·시설·단체 종사자가 프리랜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217] [예술전공자] 자격 취득 시점, 경제활동 형태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1404)	51.7	24.3	24.0
자격 취득 시점	활동 전 취득	(701)	<u>54.9</u>	23.0	22.1
	활동 후 취득	(703)	48.5	25.6	<u>25.9</u>
경제활동 형태	기관·시설·단체 종사	(629)	<u>55.6</u>	23.2	21.1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775)	48.5	25.2	<u>26.3</u>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는 예술전공자(n=1,40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중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자가 타 분야 종사자보다 업무 도움 정도에 대해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보다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표 218] [예술전공자] 종사 분야, 근무 형태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629)	55.6	23.2	21.1
종사 분야	문화예술 관련 분야	(554)	<u>58.8</u>	22.6	18.6
	타 분야	(75)	32.0	28.0	<u>40.0</u>
근무 형태	정규직	(164)	47.0	29.3	<u>23.8</u>
	비정규직	(465)	<u>58.7</u>	21.1	20.2

※ base :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n=62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기관·시설·단체 종사자별로 살펴보면, 정부부처/지자체, 예술단체, 초·중·고등학교 종사자에서 업무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기업에서 낮게 나타났다.

[표 219] [예술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종사기관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554)	58.8	22.6	18.6
종사 기관	국·공립·공공기관	(202)	55.4	26.2	18.3
	정부부처/지자체	(72)	<u>63.9</u>	13.9	22.2
	예술단체	(85)	<u>62.4</u>	23.5	14.1
	사기업	(79)	49.4	30.4	<u>20.3</u>
	초·중·고등학교	(74)	<u>62.2</u>	16.2	21.6
	대학교	(26)	61.5	15.4	23.1
	기타	(16)	87.5	12.5	0.0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n=55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프리랜서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자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 참여자가 민간영역 활동자보다 업무 도움 정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표 220]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 프리랜서의 업무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활동 영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	(270)	<u>55.6</u>	25.2	19.3
	민간영역에서 활동	(398)	45.0	24.4	<u>30.7</u>

※ base : 활동 후 취득한 예술전공자 중 ‘문화예술교육 강의’ 담당 프리랜서(n=58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라.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자격증의 구직 시 도움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도움 정도가 프리랜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221] [예술전공자] 경제활동 형태별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701)	58.3	19.1	22.5
경제활동 형태	기관·시설·단체 종사	(358)	<u>62.0</u>	17.6	20.4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343)	54.5	20.7	<u>24.8</u>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고 있는 예술전공자 중 활동 전 취득자(n=701)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중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자가 타 분야 종사자보다 구직 시 도움 정도를 높게 평가하였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222] [예술전공자]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종사 분야, 근무 형태별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358)	62.0	17.6	20.4
종사 분야	문화예술 관련 분야	(301)	<u>68.8</u>	14.0	17.3
	타 분야	(57)	26.3	36.8	<u>36.8</u>
근무 형태	정규직	(84)	51.2	22.6	<u>26.2</u>
	비정규직	(274)	<u>65.3</u>	16.1	18.6

※ base : 활동 전 취득한 예술전공자 중 기관·시설·단체 종사자(n=358)

문화예술 관련 분야 중 국·공립·공공기관, 정부부처/지자체 종사자에서 구직 시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예술단체, 사기업, 초·중·고등학교 종사자에서는 구직 시 도움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223] [예술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301)	68.8	14.0	17.3
종사 기관	국·공립·공공기관	(116)	<u>72.4</u>	13.8	13.8
	정부부처/지자체	(41)	<u>78.0</u>	7.3	14.6
	예술단체	(45)	57.8	20.0	<u>22.2</u>
	사기업	(45)	68.9	11.1	<u>20.0</u>
	초·중·고등학교	(33)	66.7	9.1	<u>24.2</u>
	대학교	(10)	40.0	30.0	30.0
	기타	(11)	72.7	27.3	0.0

※ base : 활동 전 취득한 예술전공자 중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n=301)

프리랜서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자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 참여자가 민간영역 활동자에 비해 구직 시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224]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 프리랜서의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활동 영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	(115)	<u>67.8</u>	13.0	19.1
	민간영역에서 활동	(143)	48.3	18.9	<u>32.9</u>

※ base : 활동 전 취득한 예술전공자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담당’ 프리랜서(n=231)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II. 자격소지자_국가무형문화재

1. 자격취득 현황

국가무형문화재는 총 355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57.5%로 남성(42.5%)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50대가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이 42.8%로 가장 높고, ‘부산/경남권’이 26.8%로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대학 졸업(학사)’이 34.1%로 가장 높고, ‘대학원졸업(석사)’이 31.8%로 뒤를 이었다.

[표 225]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소지자 응답자 특성

		사례수 (명)	%
전 체		(355)	100.0
기존/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310)	87.3
	신규 자격취득자	(45)	12.7
성별	남성	(151)	42.5
	여성	(204)	57.5
연령별	20대	(10)	2.8
	30대	(61)	17.2
	40대	(83)	23.4
	50대	(111)	31.3
	60대 이상	(90)	25.4
거주지별 ²⁹⁾	수도권	(152)	42.8
	부산/경남권	(95)	26.8
	대구/경북권	(39)	11.0
	대전/충청권	(20)	5.6
	광주/전라권	(36)	10.1
	강원, 제주	(13)	3.7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59)	16.6
	전문대졸업	(23)	6.5
	대학 졸업(학사)	(121)	34.1
	대학원졸업(석사)	(113)	31.8
	대학원졸업(박사)	(39)	11.0

29)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경남권(부산, 경남, 울산), 대전/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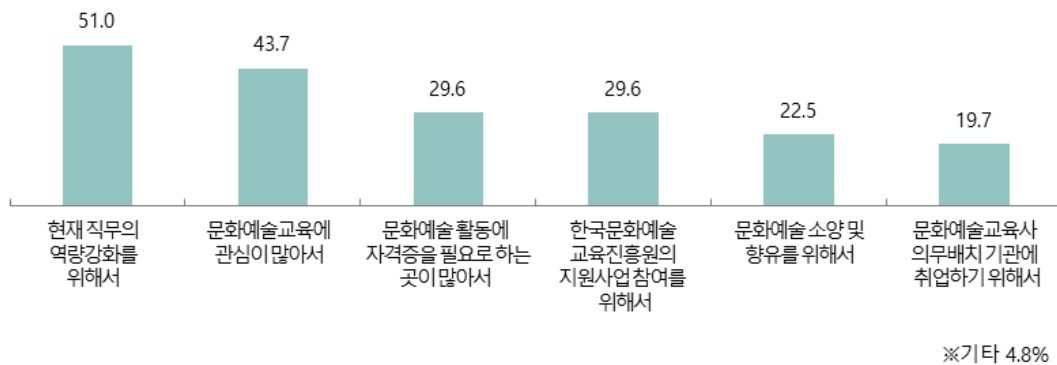
2. 자격취득 동기 및 준비과정

가. 자격취득 동기

문화예술교육사를 취득한 동기는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51.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43.7%),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각각 2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자격취득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44.4%)와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40.0%)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5]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증 취득 동기

(n=355, 복수응답, 단위 : %)



[표 226]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증 취득 동기

		사례수 (명)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한국문화 예술교육 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문화예술 소양 및 향유를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355)	(181)	51.0	(155)	43.7	(105)	29.6	(105)	29.6	(80)	22.5	(70)	19.7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310)	(158)	51.0	(136)	43.9	(87)	28.1	(85)	27.4	(71)	22.9	(64)	20.6
	신규 자격취득자	(45)	(23)	51.1	(19)	42.2	(18)	<u>40.0</u>	(20)	<u>44.4</u>	(9)	20.0	(6)	13.3
성별	남성	(151)	(69)	45.7	(65)	43.0	(36)	23.8	(36)	23.8	(28)	18.5	(24)	15.9
	여성	(204)	(112)	54.9	(90)	44.1	(69)	33.8	(69)	33.8	(52)	25.5	(46)	22.5
연령별	20대	(10)	(5)	50.0	(4)	40.0	(3)	30.0	(4)	40.0	(2)	20.0	(4)	40.0
	30대	(61)	(31)	50.8	(18)	29.5	(15)	24.6	(16)	26.2	(10)	16.4	(8)	13.1
	40대	(83)	(38)	45.8	(33)	39.8	(19)	22.9	(20)	24.1	(12)	14.5	(13)	15.7
	50대	(111)	(63)	<u>56.8</u>	(50)	45.0	(45)	<u>40.5</u>	(40)	<u>36.0</u>	(29)	26.1	(21)	18.9
	60대 이상	(90)	(44)	48.9	(50)	<u>55.6</u>	(23)	25.6	(25)	27.8	(27)	<u>30.0</u>	(24)	<u>26.7</u>
거주지 별	수도권	(152)	(75)	49.3	(70)	46.1	(40)	26.3	(46)	30.3	(37)	24.3	(30)	19.7
	부산/경남권	(95)	(48)	50.5	(39)	41.1	(27)	28.4	(31)	32.6	(25)	26.3	(24)	<u>25.3</u>
	대구/경북권	(39)	(21)	53.8	(16)	41.0	(14)	<u>35.9</u>	(11)	28.2	(6)	15.4	(1)	2.6
	대전/충청권	(20)	(10)	50.0	(10)	50.0	(3)	15.0	(7)	35.0	(3)	15.0	(6)	30.0
	광주/전라권	(36)	(18)	50.0	(18)	<u>50.0</u>	(17)	<u>47.2</u>	(8)	22.2	(7)	19.4	(8)	22.2
	강원, 제주	(13)	(9)	69.2	(2)	15.4	(4)	30.8	(2)	15.4	(2)	15.4	(1)	7.7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59)	(32)	54.2	(29)	<u>49.2</u>	(21)	<u>35.6</u>	(22)	<u>37.3</u>	(18)	<u>30.5</u>	(17)	<u>28.8</u>
	전문대졸업	(23)	(11)	47.8	(13)	56.5	(5)	21.7	(4)	17.4	(6)	26.1	(3)	13.0
	대학 졸업(학사)	(121)	(61)	50.4	(49)	40.5	(34)	28.1	(28)	23.1	(27)	22.3	(21)	17.4
	대학원졸업(석사)	(113)	(67)	<u>59.3</u>	(42)	37.2	(34)	30.1	(41)	<u>36.3</u>	(21)	18.6	(23)	20.4
	대학원졸업(박사)	(39)	(10)	25.6	(22)	<u>56.4</u>	(11)	28.2	(10)	25.6	(8)	20.5	(6)	15.4

※ base : 국가무형문화재 전체(n=355), 복수응답, 기타 4.8%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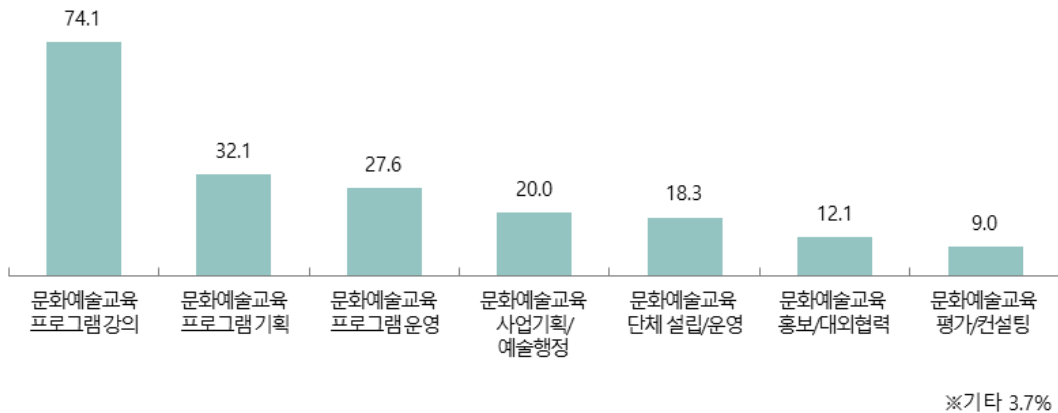
나. 자격취득 당시 희망직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당시, 희망했던 직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가 74.1%로 가장 높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32.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27.6%),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20.0%)이 뒤를 이어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30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80.3%)와 ‘문화예술교육 사업 기획/예술행정’(26.2%)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60대 이상은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운영’(32.2%), ‘문화예술교육 홍보/대외협력’(20.0%)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6]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당시 희망 직무

(n=355, 복수응답, 단위 : %)



[표 227]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당시 희망 직무

		사례 수 (명)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육사업 기획/ 예술행정		문화예술 교육 단체 설립/운영		문화예술 교육 홍보 /대외협력		문화예술 교육 평가/ 컨설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355)	(263)	74.1	(114)	32.1	(98)	27.6	(71)	20.0	(65)	18.3	(43)	12.1	(32)	9.0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310)	(232)	74.8	(100)	32.3	(86)	27.7	(60)	19.4	(56)	18.1	(38)	12.3	(30)	9.7
	신규 자격취득자	(45)	(31)	68.9	(14)	31.1	(12)	26.7	(11)	24.4	(9)	20.0	(5)	11.1	(2)	4.4
성별	남성	(151)	(105)	69.5	(49)	32.5	(47)	31.1	(38)	25.2	(29)	19.2	(16)	10.6	(17)	11.3
	여성	(204)	(158)	77.5	(65)	31.9	(51)	25.0	(33)	16.2	(36)	17.6	(27)	13.2	(15)	7.4
연령별	20대	(10)	(8)	80.0	(1)	10.0	(1)	10.0	(3)	30.0	(2)	20.0	(0)	0.0	(0)	0.0
	30대	(61)	(49)	<u>80.3</u>	(20)	32.8	(16)	26.2	(16)	<u>26.2</u>	(4)	6.6	(2)	3.3	(5)	8.2
	40대	(83)	(62)	74.7	(30)	36.1	(22)	26.5	(17)	20.5	(10)	12.0	(7)	8.4	(7)	8.4
	50대	(111)	(85)	76.6	(38)	34.2	(32)	28.8	(21)	18.9	(20)	18.0	(16)	14.4	(9)	8.1
	60대 이상	(90)	(59)	65.6	(25)	27.8	(27)	30.0	(14)	15.6	(29)	<u>32.2</u>	(18)	<u>20.0</u>	(11)	12.2
거주지 별	수도권	(152)	(120)	78.9	(43)	28.3	(42)	27.6	(30)	19.7	(28)	18.4	(15)	9.9	(14)	9.2
	부산/경남권	(95)	(66)	69.5	(39)	<u>41.1</u>	(29)	30.5	(18)	18.9	(21)	22.1	(13)	13.7	(11)	11.6
	대구/경북권	(39)	(31)	<u>79.5</u>	(9)	23.1	(5)	12.8	(3)	7.7	(6)	15.4	(3)	7.7	(2)	5.1
	대전/충청권	(20)	(13)	65.0	(11)	55.0	(6)	30.0	(6)	30.0	(4)	20.0	(3)	15.0	(3)	15.0
	광주/전라권	(36)	(25)	69.4	(10)	27.8	(14)	<u>38.9</u>	(8)	22.2	(4)	11.1	(6)	16.7	(0)	0.0
	강원, 제주	(13)	(8)	61.5	(2)	15.4	(2)	15.4	(6)	46.2	(2)	15.4	(3)	23.1	(2)	15.4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59)	(41)	69.5	(20)	<u>33.9</u>	(20)	33.9	(10)	16.9	(10)	16.9	(9)	15.3	(2)	3.4
	전문대졸업	(23)	(14)	60.9	(7)	30.4	(9)	39.1	(5)	21.7	(3)	13.0	(3)	13.0	(2)	8.7
	대학 졸업(학사)	(121)	(88)	72.7	(33)	27.3	(24)	19.8	(25)	20.7	(17)	14.0	(16)	13.2	(7)	5.8
	대학원졸업(석사)	(113)	(93)	<u>82.3</u>	(38)	33.6	(35)	31.0	(21)	18.6	(20)	17.7	(10)	8.8	(17)	<u>15.0</u>
	대학원졸업(박사)	(39)	(27)	69.2	(16)	<u>41.0</u>	(10)	25.6	(10)	<u>25.6</u>	(15)	<u>38.5</u>	(5)	12.8	(4)	10.3

※ base : 국가무형문화재 전체(n=355), 복수응답, 기타 3.7%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3. 경제활동 현황

가. 과거 경제활동 여부

현재 보수를 받고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93.2%는 과거에도 경제활동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자격소지자와 신규 자격취득자, 성별,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8]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여부

		사례수 (명)	활동한 적 있었다 (프리랜서 포함)		활동한 적 없었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355)	(209)	58.9	(146)	41.1
현 경제활동 여부	활동하고 있다	(192)	(179)	93.2	(13)	6.8
	활동하지 않고 있다	(163)	(30)	18.4	(133)	81.6
기존/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310)	(182)	58.7	(128)	41.3
	신규 자격취득자	(45)	(27)	60.0	(18)	40.0
성별	남성	(151)	(82)	54.3	(69)	45.7
	여성	(204)	(127)	62.3	(77)	37.7
연령별	20대	(10)	(5)	50.0	(5)	50.0
	30대	(61)	(38)	62.3	(23)	37.7
	40대	(83)	(49)	59.0	(34)	41.0
	50대	(111)	(67)	60.4	(44)	39.6
	60대 이상	(90)	(50)	55.6	(40)	44.4
거주지별	수도권	(152)	(90)	59.2	(62)	40.8
	부산/경남권	(95)	(52)	54.7	(43)	45.3
	대구/경북권	(39)	(22)	56.4	(17)	43.6
	대전/충청권	(20)	(12)	60.0	(8)	40.0
	광주/전라권	(36)	(24)	66.7	(12)	33.3
	강원, 제주	(13)	(9)	69.2	(4)	30.8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59)	(33)	55.9	(26)	44.1
	전문대졸업	(23)	(13)	56.5	(10)	43.5
	대학 졸업(학사)	(121)	(60)	49.6	(61)	50.4
	대학원졸업(석사)	(113)	(80)	70.8	(33)	29.2
	대학원졸업(박사)	(39)	(23)	59.0	(16)	41.0

※ base : 국가무형문화재 전체(n=355)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과거에 보수를 받고 활동한 국가무형문화재의 직업 혹은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가 57.9%로 가장 높고, ‘예술단체’(42.1%), ‘국·공립·공공기관’(18.7%), ‘초·중·고등학교’(13.9%)가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프리랜서’는 여성(64.6%), ‘예술단체’는 30대(47.4%)와 60대 이상(50.0%), ‘국·공립·공공기관’은 60대 이상(24.0%), ‘대학교’는 50대(17.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29] [국가무형문화재] 과거 경제활동 직업/소속기관

		사례수 (명)	프리랜서 (예술강사 포함)	예술단체	국·공립· 공공기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정부부처, 지자체	사기업
			%	%	%	%	%	%	%
전 체		(209)	57.9	42.1	18.7	13.9	12.0	6.2	4.8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182)	56.0	44.0	19.2	14.8	11.5	6.6	3.8
	신규 자격취득자	(27)	70.4	29.6	14.8	7.4	14.8	3.7	11.1
성별	남성	(82)	47.6	41.5	20.7	9.8	12.2	9.8	6.1
	여성	(127)	<u>64.6</u>	42.5	17.3	16.5	11.8	3.9	3.9
연령별	20대	(5)	60.0	20.0	0.0	20.0	20.0	0.0	0.0
	30대	(38)	60.5	<u>47.4</u>	23.7	15.8	7.9	10.5	0.0
	40대	(49)	59.2	40.8	22.4	10.2	6.1	4.1	2.0
	50대	(67)	61.2	35.8	10.4	13.4	<u>17.9</u>	4.5	9.0
	60대 이상	(50)	50.0	<u>50.0</u>	<u>24.0</u>	16.0	12.0	8.0	6.0
거주지 별	수도권	(90)	<u>63.3</u>	44.4	<u>28.9</u>	12.2	13.3	7.8	4.4
	부산/경남권	(52)	51.9	<u>51.9</u>	11.5	17.3	13.5	0.0	3.8
	대구/경북권	(22)	59.1	31.8	18.2	13.6	13.6	9.1	4.5
	대전/충청권	(12)	58.3	25.0	16.7	16.7	16.7	16.7	0.0
	광주/전라권	(24)	45.8	20.8	4.2	12.5	0.0	8.3	12.5
	강원, 제주	(9)	66.7	66.7	0.0	11.1	11.1	0.0	0.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33)	54.5	45.5	9.1	15.2	0.0	6.1	<u>12.1</u>
	전문대졸업	(13)	53.8	30.8	30.8	7.7	0.0	15.4	0.0
	대학 졸업(학사)	(60)	55.0	41.7	<u>25.0</u>	8.3	11.7	8.3	5.0
	대학원졸업(석사)	(80)	<u>65.0</u>	38.8	15.0	15.0	11.3	1.3	2.5
	대학원졸업(박사)	(23)	47.8	56.5	21.7	26.1	39.1	13.0	4.3

※ base : 과거 경제활동을 한 국가무형문화재(n=209), 복수응답, 기타 3.8%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나. 경제활동 여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54.1%로 과거 경제활동 참가율(82.3%)보다 28.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자격소지자와 신규 자격취득자, 성별, 연령별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0]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여부

		사례수 (명)	활동하고 있다 (프리랜서 포함)		활동하지 않고 있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355)	(192)	54.1	(163)	45.9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310)	(166)	53.5	(144)	46.5
	신규 자격취득자	(45)	(26)	57.8	(19)	42.2
성별	남성	(151)	(74)	49.0	(77)	51.0
	여성	(204)	(118)	57.8	(86)	42.2
연령별	20대	(10)	(6)	60.0	(4)	40.0
	30대	(61)	(36)	59.0	(25)	41.0
	40대	(83)	(48)	57.8	(35)	42.2
	50대	(111)	(56)	50.5	(55)	49.5
	60대 이상	(90)	(46)	51.1	(44)	48.9
거주지별	수도권	(152)	(83)	54.6	(69)	45.4
	부산/경남권	(95)	(52)	54.7	(43)	45.3
	대구/경북권	(39)	(20)	51.3	(19)	48.7
	대전/충청권	(20)	(10)	50.0	(10)	50.0
	광주/전라권	(36)	(20)	55.6	(16)	44.4
	강원, 제주	(13)	(7)	53.8	(6)	46.2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59)	(29)	49.2	(30)	50.8
	전문대졸업	(23)	(12)	52.2	(11)	47.8
	대학 졸업(학사)	(121)	(54)	44.6	(67)	55.4
	대학원졸업(석사)	(113)	(74)	65.5	(39)	34.5
	대학원졸업(박사)	(39)	(23)	59.0	(16)	41.0

※ base : 국가무형문화재 전체(n=355)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다. 경제활동 형태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41.7%는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58.3%는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52.7%)은 ‘기관·시설·단체’, 여성(65.3%)은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로 활동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47.8%)은 ‘기관·시설·단체’, 30대(63.9%)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31]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형태

		사례수 (명)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기관·시설·단체 종사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92)	(112)	58.3	(80)	41.7
기존/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166)	(95)	57.2	(71)	42.8
	신규 자격취득자	(26)	(17)	65.4	(9)	34.6
성별	남성	(74)	(35)	47.3	(39)	52.7
	여성	(118)	(77)	65.3	(41)	34.7
연령별	20대	(6)	(2)	33.3	(4)	66.7
	30대	(36)	(23)	63.9	(13)	36.1
	40대	(48)	(29)	60.4	(19)	39.6
	50대	(56)	(34)	60.7	(22)	39.3
	60대 이상	(46)	(24)	52.2	(22)	47.8
거주지별	수도권	(83)	(55)	66.3	(28)	33.7
	부산/경남권	(52)	(24)	46.2	(28)	53.8
	대구/경북권	(20)	(12)	60.0	(8)	40.0
	대전/충청권	(10)	(6)	60.0	(4)	40.0
	광주/전라권	(20)	(9)	45.0	(11)	55.0
	강원, 제주	(7)	(6)	85.7	(1)	14.3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29)	(16)	55.2	(13)	44.8
	전문대졸업	(12)	(6)	50.0	(6)	50.0
	대학 졸업(학사)	(54)	(30)	55.6	(24)	44.4
	대학원졸업(석사)	(74)	(50)	67.6	(24)	32.4
	대학원졸업(박사)	(23)	(10)	43.5	(13)	56.5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무형문화재(n=19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1)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주요 업무

기관·시설·단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가 53.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38.8%),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35.0%),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예술행정’(2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51.3%)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41.0%)을 담당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32] [국가무형문화재]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주요 업무

		사례 수 (명)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 교육사업 기획/ 예술행정	문화예술 교육단체 설립/ 운영	문화예술 교육 홍보/ 대외협력	문화예술 교육 자원조사	문화예술 교육 평가/ 컨설팅
			%	%	%	%	%	%	%	%
전 체		(80)	53.8	38.8	35.0	23.8	20.0	10.0	6.3	5.0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71)	54.9	38.0	32.4	21.1	18.3	5.6	5.6	4.2
	신규 자격취득자	(9)	44.4	44.4	55.6	44.4	33.3	44.4	11.1	11.1
성별	남성	(39)	48.7	51.3	41.0	25.6	17.9	12.8	7.7	5.1
	여성	(41)	58.5	26.8	29.3	22.0	22.0	7.3	4.9	4.9
연령별	20대	(4)	25.0	50.0	50.0	0.0	0.0	0.0	0.0	0.0
	30대	(13)	69.2	53.8	53.8	38.5	0.0	7.7	7.7	0.0
	40대	(19)	47.4	26.3	31.6	31.6	5.3	15.8	0.0	0.0
	50대	(22)	50.0	22.7	36.4	22.7	27.3	9.1	13.6	13.6
	60대 이상	(22)	59.1	54.5	22.7	13.6	40.9	9.1	4.5	4.5
거주지 별	수도권	(28)	60.7	35.7	39.3	25.0	25.0	7.1	3.6	3.6
	부산/경남권	(28)	50.0	39.3	32.1	17.9	21.4	7.1	7.1	7.1
	대구/경북권	(8)	62.5	37.5	37.5	37.5	25.0	0.0	0.0	0.0
	대전/충청권	(4)	100.0	25.0	50.0	25.0	25.0	25.0	25.0	25.0
	광주/전라권	(11)	27.3	45.5	18.2	18.2	0.0	18.2	9.1	0.0
	강원, 제주	(1)	0.0	100.0	100.0	100.0	0.0	100.0	0.0	0.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3)	69.2	46.2	38.5	15.4	15.4	7.7	0.0	0.0
	전문대졸업	(6)	50.0	50.0	33.3	33.3	16.7	33.3	16.7	16.7
	대학 졸업(학사)	(24)	37.5	37.5	37.5	25.0	16.7	4.2	4.2	0.0
	대학원졸업(석사)	(24)	62.5	41.7	29.2	16.7	20.8	8.3	8.3	4.2
	대학원졸업(박사)	(13)	53.8	23.1	38.5	38.5	30.8	15.4	7.7	15.4
근무 형태	정규직	(25)	28.0	36.0	32.0	28.0	8.0	12.0	0.0	4.0
	비정규직	(55)	65.5	40.0	36.4	21.8	25.5	9.1	9.1	5.5

※ base : 기관·시설·단체 종사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n=80), 기타 12.5%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 프리랜서 주요 업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가 79.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44.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21.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는 50대(88.2%)에서, ‘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은 남성(57.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33] [국가무형문화재] 프리랜서 주요 업무

		사례 수 (명)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의	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육 단체 설립/ 운영	문화예술 교육 자원조사	문화예술 교육 사업기획 /예술 행정	문화예술 교육 평가/ 컨설팅	문화예술 교육 홍보/ 대외협력
			%	%	%	%	%	%	%	%	%
전 체		(112)	79.5	44.6	21.4	17.9	15.2	14.3	8.0	5.4	5.4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95)	81.1	45.3	22.1	20.0	15.8	15.8	9.5	6.3	6.3
	신규 자격취득자	(17)	70.6	41.2	17.6	5.9	11.8	5.9	0.0	0.0	0.0
성별	남성	(35)	71.4	57.1	22.9	22.9	20.0	8.6	8.6	5.7	2.9
	여성	(77)	83.1	39.0	20.8	15.6	13.0	16.9	7.8	5.2	6.5
연령 별	20대	(2)	100.0	50.0	50.0	0.0	0.0	0.0	0.0	0.0	0.0
	30대	(23)	73.9	43.5	8.7	4.3	8.7	13.0	0.0	0.0	0.0
	40대	(29)	75.9	48.3	24.1	27.6	13.8	17.2	10.3	10.3	3.4
	50대	(34)	88.2	41.2	17.6	11.8	11.8	14.7	8.8	2.9	5.9
	60대 이상	(24)	75.0	45.8	33.3	29.2	29.2	12.5	12.5	8.3	12.5
거주 지별	수도권	(55)	83.6	41.8	14.5	14.5	12.7	12.7	3.6	3.6	3.6
	부산/경남권	(24)	75.0	45.8	20.8	16.7	20.8	16.7	8.3	0.0	8.3
	대구/경북권	(12)	83.3	50.0	16.7	8.3	0.0	16.7	8.3	8.3	0.0
	대전/충청권	(6)	66.7	50.0	66.7	33.3	33.3	16.7	33.3	33.3	0.0
	광주/전라권	(9)	66.7	33.3	44.4	44.4	22.2	22.2	11.1	0.0	11.1
	강원, 제주	(6)	83.3	66.7	16.7	16.7	16.7	0.0	16.7	16.7	16.7
학력 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6)	81.3	31.3	31.3	18.8	18.8	0.0	6.3	0.0	12.5
	전문대졸업	(6)	66.7	33.3	0.0	16.7	0.0	0.0	0.0	0.0	0.0
	대학 졸업(학사)	(30)	76.7	43.3	23.3	20.0	10.0	20.0	10.0	6.7	10.0
	대학원졸업(석사)	(50)	78.0	52.0	18.0	18.0	20.0	18.0	8.0	8.0	2.0
	대학원졸업(박사)	(10)	100.0	40.0	30.0	10.0	10.0	10.0	10.0	0.0	0.0

※ base :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n=112), 복수응답

※ 기타 6.3%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라. 관련 분야 종사 여부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기관 및 시설, 단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의 93.8%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관련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6.3%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근무 기간은 평균 17년(204.3개월)로 문화예술 관련 분야가 아닌 타 분야 종사 국가무형문화재(평균 16년 5개월(196.9개월))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4]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소지자의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여부

		사례수 (명)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문화예술 관련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사례수	%	평균(개월)	사례수	%	평균(개월)
전 체		(80)	(75)	93.8	204.3	(5)	6.3	196.9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71)	(68)	95.8	205.0	(3)	4.2	69.7
	신규 자격취득자	(9)	(7)	77.8	197.4	(2)	22.2	109.5
성별	남성	(39)	(35)	89.7	186.3	(4)	10.3	178.2
	여성	(41)	(40)	97.6	220.0	(1)	2.4	214.6
연령별	20대	(4)	(4)	100.0	90.3	(0)	0.0	90.3
	30대	(13)	(12)	92.3	130.2	(1)	7.7	123.1
	40대	(19)	(19)	100.0	174.6	(0)	0.0	174.6
	50대	(22)	(19)	86.4	226.8	(3)	13.6	207.7
	60대 이상	(22)	(21)	95.5	274.7	(1)	4.5	268.1
거주지 별	수도권	(28)	(27)	96.4	211.0	(1)	3.6	204.8
	부산/경남권	(28)	(27)	96.4	207.2	(1)	3.6	202.6
	대구/경북권	(8)	(7)	87.5	172.6	(1)	12.5	167.3
	대전/충청권	(4)	(4)	100.0	176.8	(0)	0.0	176.8
	광주/전라권	(11)	(9)	81.8	218.0	(2)	18.2	194.9
학력별	강원, 제주	(1)	(1)	100.0	152.0	(0)	0.0	152.0
	고등학교졸업이하	(13)	(13)	100.0	182.1	(0)	0.0	182.1
	전문대졸업	(6)	(6)	100.0	209.0	(0)	0.0	209.0
	대학 졸업(학사)	(24)	(22)	91.7	162.5	(2)	8.3	150.6
	대학원졸업(석사)	(24)	(22)	91.7	219.6	(2)	8.3	210.0
학력별	대학원졸업(박사)	(13)	(12)	92.3	274.3	(1)	7.7	2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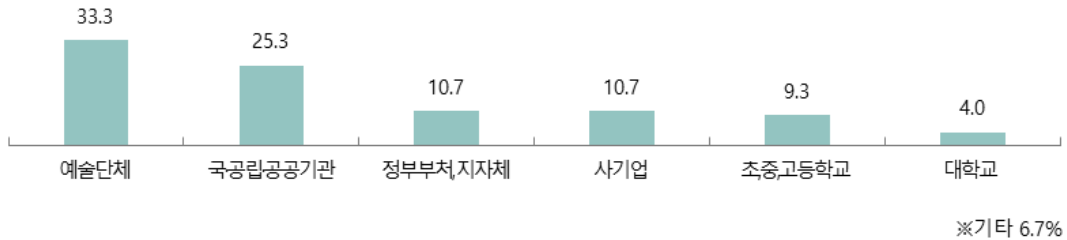
※ base :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n=80)

마. 자격소지자 직업 혹은 소속기관

1) 문화예술 관련 분야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직업 혹은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예술단체’가 3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공립·공공기관’(25.3%). ‘정부부처, 지자체’, ‘사기업’(각각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32.5%)이 ‘국·공립·공공기관’에서 종사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7]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 직업/소속기관
(n=75, 단위 : %)



[표 235]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 직업/소속기관

		사례 수 (명)	예술단체		국·공립· 공공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사기업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75)	(25)	33.3	(19)	25.3	(8)	10.7	(8)	10.7	(7)	9.3	(3)	4.0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68)	(23)	33.8	(19)	27.9	(8)	11.8	(5)	7.4	(7)	10.3	(2)	2.9
	신규 자격취득자	(7)	(2)	28.6	(0)	0.0	(0)	0.0	(3)	42.9	(0)	0.0	(1)	14.3
성별	남성	(35)	(13)	37.1	(6)	17.1	(5)	14.3	(2)	5.7	(3)	8.6	(1)	2.9
	여성	(40)	(12)	30.0	(13)	32.5	(3)	7.5	(6)	15.0	(4)	10.0	(2)	5.0
연령 별	20대	(4)	(1)	25.0	(0)	0.0	(1)	25.0	(1)	25.0	(0)	0.0	(0)	0.0
	30대	(12)	(1)	8.3	(6)	50.0	(3)	25.0	(1)	8.3	(1)	8.3	(0)	0.0
	40대	(19)	(10)	52.6	(5)	26.3	(1)	5.3	(0)	0.0	(1)	5.3	(0)	0.0
	50대	(19)	(4)	21.1	(2)	10.5	(2)	10.5	(5)	26.3	(4)	21.1	(2)	10.5
	60대 이상	(21)	(9)	42.9	(6)	28.6	(1)	4.8	(1)	4.8	(1)	4.8	(1)	4.8
거주지 별	수도권	(27)	(3)	11.1	(15)	55.6	(1)	3.7	(3)	11.1	(2)	7.4	(2)	7.4
	부산/경남권	(27)	(15)	55.6	(1)	3.7	(5)	18.5	(1)	3.7	(3)	11.1	(1)	3.7
	대구/경북권	(7)	(3)	42.9	(1)	14.3	(1)	14.3	(2)	28.6	(0)	0.0	(0)	0.0
	대전/충청권	(4)	(1)	25.0	(0)	0.0	(1)	25.0	(0)	0.0	(1)	25.0	(0)	0.0
	광주/전라권	(9)	(2)	22.2	(2)	22.2	(0)	0.0	(2)	22.2	(1)	11.1	(0)	0.0
	강원, 제주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3)	(7)	53.8	(3)	23.1	(0)	0.0	(1)	7.7	(1)	7.7	(0)	0.0
	전문대졸업	(6)	(0)	0.0	(1)	16.7	(2)	33.3	(0)	0.0	(1)	16.7	(0)	0.0
	대학 졸업(학사)	(22)	(9)	40.9	(6)	27.3	(2)	9.1	(4)	18.2	(0)	0.0	(0)	0.0
	대학원졸업(석사)	(22)	(7)	31.8	(6)	27.3	(1)	4.5	(2)	9.1	(4)	18.2	(1)	4.5
	대학원졸업(박사)	(12)	(2)	16.7	(3)	25.0	(3)	25.0	(1)	8.3	(1)	8.3	(2)	16.7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국가무형문화재(n=75), 기타 6.7%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69.3%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37.1%)은 ‘정규직’으로, 여성(75.0%)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36]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의 근무 형태

		사례수 (명)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명	%	명	%
전 체		(75)	(23)	30.7	(52)	69.3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68)	(20)	29.4	(48)	70.6
	신규 자격취득자	(7)	(3)	42.9	(4)	57.1
성별	남성	(35)	(13)	37.1	(22)	62.9
	여성	(40)	(10)	25.0	(30)	75.0
연령별	20대	(4)	(1)	25.0	(3)	75.0
	30대	(12)	(4)	33.3	(8)	66.7
	40대	(19)	(7)	36.8	(12)	63.2
	50대	(19)	(7)	36.8	(12)	63.2
	60대 이상	(21)	(4)	19.0	(17)	81.0
거주지별	수도권	(27)	(10)	37.0	(17)	63.0
	부산/경남권	(27)	(6)	22.2	(21)	77.8
	대구/경북권	(7)	(1)	14.3	(6)	85.7
	대전/충청권	(4)	(1)	25.0	(3)	75.0
	광주/전라권	(9)	(4)	44.4	(5)	55.6
	강원, 제주	(1)	(1)	100.0	(0)	0.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3)	(3)	23.1	(10)	76.9
	전문대졸업	(6)	(0)	0.0	(6)	100.0
	대학 졸업(학사)	(22)	(7)	31.8	(15)	68.2
	대학원졸업(석사)	(22)	(8)	36.4	(14)	63.6
	대학원졸업(박사)	(12)	(5)	41.7	(7)	58.3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국가무형문화재(n=75)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 타 분야

문화예술 관련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 종사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직업/소속기관을 살펴보면, ‘국·공립·공공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초·중·고등학교’, ‘예술단체’, 기타 응답인 ‘문화재단’이 모두 20.0%로 나타났다.

[표 237] [국가무형문화재] 타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 직업/소속기관

		사례수 (명)	국·공립· 공공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초·중·고등학교		예술단체		문화재단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5)	(1)	20.0	(1)	20.0	(1)	20.0	(1)	20.0	(1)	20.0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3)	(1)	33.3	(0)	0.0	(0)	0.0	(1)	33.3	(1)	33.3
	신규 자격취득자	(2)	(0)	0.0	(1)	50.0	(1)	50.0	(0)	0.0	(0)	0.0
성별	남성	(4)	(0)	0.0	(1)	25.0	(1)	25.0	(1)	25.0	(1)	25.0
	여성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연령 별	20대	(0)	-	-	-	-	-	-	-	-	-	-
	30대	(1)	(0)	0.0	(0)	0.0	(1)	100.0	(0)	0.0	(0)	0.0
	40대	(0)	-	-	-	-	-	-	-	-	-	-
	50대	(1)	33.3	(1)	33.3	(0)	0.0	(1)	(0)	0.0	(1)	33.3
	60대 이상	(0)	0.0	(0)	0.0	(0)	0.0	(0)	(1)	100.0	(0)	0.0
거주 지별	수도권	(1)	(0)	0.0	(0)	0.0	(1)	100.0	(0)	0.0	(0)	0.0
	부산/경남권	(1)	(0)	0.0	(0)	0.0	(0)	0.0	(0)	0.0	(1)	100.0
	대구/경북권	(1)	(0)	0.0	(0)	0.0	(0)	0.0	(1)	100.0	(0)	0.0
	대전/충청권	(0)	-	-	-	-	-	-	-	-	-	-
	광주/전라권	(2)	(1)	50.0	(1)	50.0	(0)	0.0	(0)	0.0	(0)	0.0
	강원,제주	(0)	-	-	-	-	-	-	-	-	-	-
학력 별	고등학교 졸업이하	(0)	-	-	-	-	-	-	-	-	-	-
	전문대졸업	(0)	-	-	-	-	-	-	-	-	-	-
	대학 졸업(학사)	(2)	(1)	50.0	(0)	0.0	(1)	50.0	(0)	0.0	(0)	0.0
	대학원졸업(석사)	(2)	(0)	0.0	(0)	0.0	(0)	0.0	(1)	50.0	(1)	50.0
	대학원졸업(박사)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 base : 타 분야에 종사하는 국가무형문화재(n=5)

문화예술 관련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 종사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40.0%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60.0%로 나타났다.

[표 238] [국가무형문화재] 타 분야 종사 자격소지자의 근무 형태

		사례수 (명)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명	%	명	%
전 체		(5)	(2)	40.0	(3)	60.0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3)	(0)	0.0	(3)	100.0
	신규 자격취득자	(2)	(2)	100.0	(0)	0.0
성별	남성	(4)	(2)	50.0	(2)	50.0
	여성	(1)	(0)	0.0	(1)	100.0
연령별	20대	(0)	-	-	-	-
	30대	(1)	(1)	100.0	(0)	0.0
	40대	(0)	-	-	-	-
	50대	(3)	(1)	33.3	(2)	66.7
	60대 이상	(1)	(0)	0.0	(1)	100.0
거주지별	수도권	(1)	(1)	100.0	(0)	0.0
	부산/경남권	(1)	(0)	0.0	(1)	100.0
	대구/경북권	(1)	(0)	0.0	(1)	100.0
	대전/충청권	(0)	-	-	-	-
	광주/전라권	(2)	(1)	50.0	(1)	50.0
	강원, 제주	(0)	-	-	-	-
학력별	고등학교 졸업이하	(0)	-	-	-	-
	전문대졸업	(0)	-	-	-	-
	대학 졸업(학사)	(2)	(1)	50.0	(1)	50.0
	대학원졸업(석사)	(2)	(0)	0.0	(2)	100.0
	대학원졸업(박사)	(1)	(1)	100.0	(0)	0.0

※ base : 타 분야에 종사하는 국가무형문화재(n=5)

3) 프리랜서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의 77.5%는 ‘민간영역(문화센터, 기관, 학원 등)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이며, 33.7%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는 50대(83.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민간영역에서 활동한 기간은 평균 16년 10개월(202.4개월)이며,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평균 10년 1개월(121.2개월)로 다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9] [국가무형문화재] 예술강사 활동 분야

		사례수 (명)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		
			사례수	%	평균 (개월)	사례수	%	평균 (개월)
전 체		(89)	(69)	77.5	202.4	(30)	33.7	121.2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77)	(57)	74.0	211.0	(29)	37.7	122.9
	신규 자격취득자	(12)	(12)	100.0	161.3	(1)	8.3	72.0
성별	남성	(25)	(19)	76.0	191.5	(9)	36.0	77.3
	여성	(64)	(50)	78.1	206.5	(21)	32.8	140.0
연령별	20대	(2)	(2)	100.0	49.0	(0)	0.0	99.3
	30대	(17)	(10)	58.8	134.4	(8)	47.1	59.3
	40대	(22)	(19)	86.4	190.7	(6)	27.3	107.5
	50대	(30)	(25)	83.3	231.0	(8)	26.7	203.1
	60대 이상	(18)	(13)	72.2	240.3	(8)	44.4	103.8
거주지별	수도권	(46)	(37)	80.4	204.4	(14)	30.4	154.8
	부산/경남권	(18)	(13)	72.2	203.6	(6)	33.3	142.7
	대구/경북권	(10)	(7)	70.0	175.3	(3)	30.0	213.0
	대전/충청권	(4)	(3)	75.0	313.0	(1)	25.0	92.0
	광주/전라권	(6)	(5)	83.3	173.8	(3)	50.0	112.0
	강원, 제주	(5)	(4)	80.0	180.0	(3)	60.0	275.3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3)	(12)	92.3	201.4	(3)	23.1	115.0
	전문대졸업	(4)	(3)	75.0	130.0	(1)	25.0	97.3
	대학 졸업(학사)	(23)	(15)	65.2	185.5	(9)	39.1	106.9
	대학원졸업(석사)	(39)	(29)	74.4	199.2	(17)	43.6	(29)
	대학원졸업(박사)	(10)	(10)	100.0	259.9	(0)	0.0	(10)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를 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n=89),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점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의 81.3%는 경제활동 한 뒤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18.8%는 경제활동 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자격소지자와 신규 자격취득자, 성별, 연령별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0]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점

		사례수 (명)	활동하기 전 자격증 취득		활동한 뒤 자격증 취득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92)	(36)	18.8	(156)	81.3
기존/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166)	(35)	21.1	(131)	78.9
	신규 자격취득자	(26)	(1)	3.8	(25)	96.2
성별	남성	(74)	(16)	21.6	(58)	78.4
	여성	(118)	(20)	16.9	(98)	83.1
연령별	20대	(6)	(1)	16.7	(5)	83.3
	30대	(36)	(7)	19.4	(29)	80.6
	40대	(48)	(10)	20.8	(38)	79.2
	50대	(56)	(11)	19.6	(45)	80.4
	60대 이상	(46)	(7)	15.2	(39)	84.8
거주지별	수도권	(83)	(13)	15.7	(70)	84.3
	부산/경남권	(52)	(11)	21.2	(41)	78.8
	대구/경북권	(20)	(5)	25.0	(15)	75.0
	대전/충청권	(10)	(2)	20.0	(8)	80.0
	광주/전라권	(20)	(4)	20.0	(16)	80.0
	강원, 제주	(7)	(1)	14.3	(6)	85.7
학력별	고등학교 졸업	(29)	(5)	17.2	(24)	82.8
	전문대졸업	(12)	(2)	16.7	(10)	83.3
	대학 졸업(학사)	(54)	(14)	25.9	(40)	74.1
	대학원졸업(석사)	(74)	(11)	14.9	(63)	85.1
	대학원졸업(박사)	(23)	(4)	17.4	(19)	82.6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무형문화재(n=19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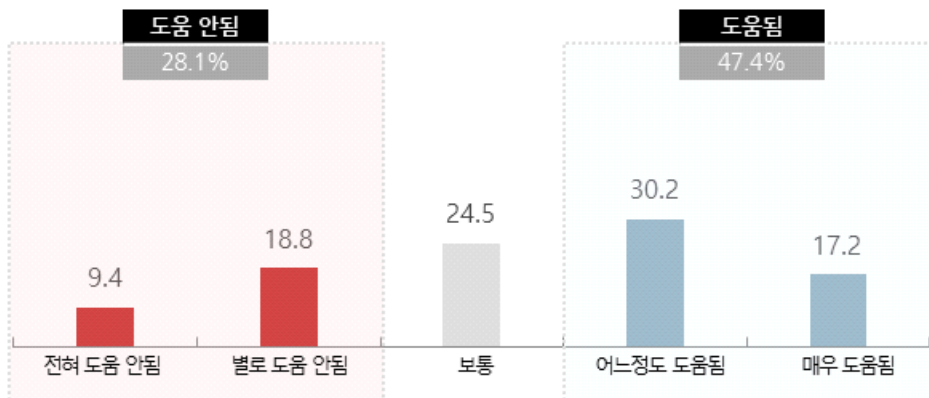
5. 자격취득 만족도

가. 현재 업무 도움 정도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7.4%(매우 도움이 된다 17.2%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30.2%)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28.1%(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9.4%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8.8%)로 나타났다.

[그림 38]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
(n=192, 단위 : %, 점(5점 만점))

평균: 3.27점



[표 241]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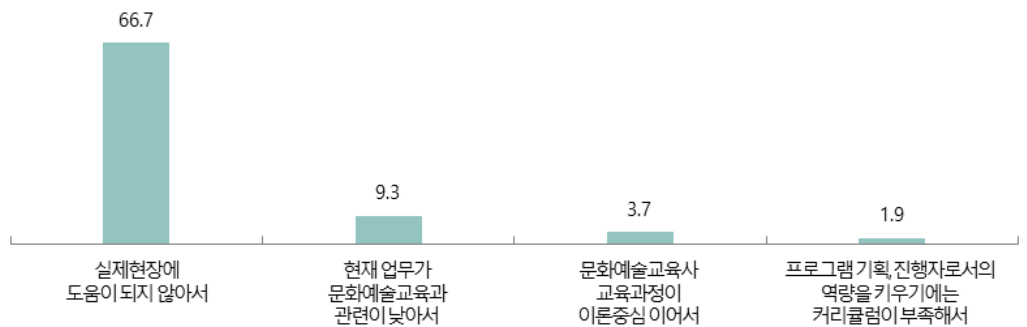
		사례수 (명)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보통 이다	④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 안됨 (①+②)	도움 됨 (④+⑤)	5점 평균
			%	%	%	%	%	%	%	점
전 체		(192)	9.4	18.8	24.5	30.2	17.2	28.1	47.4	3.27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166)	9.0	19.3	25.3	27.7	18.7	28.3	46.4	3.28
	신규 자격취득자	(26)	11.5	15.4	19.2	46.2	7.7	26.9	53.8	3.23
성별	남성	(74)	9.5	21.6	21.6	27.0	20.3	31.1	47.3	3.27
	여성	(118)	9.3	16.9	26.3	32.2	15.3	26.3	47.5	3.27
연령별	20대	(6)	0.0	16.7	16.7	16.7	50.0	16.7	66.7	4.00
	30대	(36)	5.6	22.2	22.2	27.8	22.2	27.8	50.0	3.39
	40대	(48)	6.3	10.4	35.4	33.3	14.6	16.7	47.9	3.40
	50대	(56)	7.1	17.9	25.0	32.1	17.9	25.0	50.0	3.36
	60대 이상	(46)	19.6	26.1	15.2	28.3	10.9	45.7	39.1	2.85
거주지 별	수도권	(83)	9.6	22.9	30.1	21.7	15.7	32.5	37.3	3.11
	부산/경남권	(52)	9.6	19.2	25.0	38.5	7.7	28.8	46.2	3.15
	대구/경북권	(20)	10.0	10.0	15.0	30.0	35.0	20.0	65.0	3.70
	대전/충청권	(10)	0.0	0.0	30.0	50.0	20.0	0.0	70.0	3.90
	광주/전라권	(20)	5.0	20.0	10.0	40.0	25.0	25.0	65.0	3.60
	강원, 제주	(7)	28.6	14.3	14.3	14.3	28.6	42.9	42.9	3.00
학력별	고졸 이하	(29)	10.3	6.9	20.7	37.9	24.1	17.2	62.1	3.59
	전문대졸업	(12)	8.3	25.0	33.3	25.0	8.3	33.3	33.3	3.00
	대학 졸업(학사)	(54)	11.1	14.8	18.5	29.6	25.9	25.9	55.6	3.44
	대학원졸업(석사)	(74)	8.1	20.3	31.1	31.1	9.5	28.4	40.5	3.14
	대학원졸업(박사)	(23)	8.7	34.8	17.4	21.7	17.4	43.5	39.1	3.04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무형문화재(n=19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 되지 않는 이유는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6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낮아서’(9.3%), ‘문화예술교육사 과정이 이론 중심이어서’(3.7%),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커리큘럼이 부족해서’(1.9%)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경력직만 채용해서’, ‘현직 강사 활동에는 1급만 필요해서’가 있었다.

[그림 39]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n=192, 단위 : %)



※기타 13.0%, 모름/무응답 5.6%

[표 242]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사례수 (명)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낮아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서 이론 중심이어서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커리큘럼이 부족해서	
			명	%	명	%	명	%	명	%
전 체		(54)	(36)	66.7	(5)	9.3	(2)	3.7	(1)	1.9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47)	(32)	68.1	(4)	8.5	(2)	4.3	(1)	2.1
	신규 자격취득자	(7)	(4)	57.1	(1)	14.3	(0)	0.0	(0)	0.0
성별	남성	(23)	(17)	73.9	(3)	13.0	(0)	0.0	(0)	0.0
	여성	(31)	(19)	61.3	(2)	6.5	(2)	6.5	(1)	3.2
연령별	20대	(1)	(0)	0.0	(0)	0.0	(0)	0.0	(0)	0.0
	30대	(10)	(5)	50.0	(0)	0.0	(1)	10.0	(0)	0.0
	40대	(8)	(6)	75.0	(0)	0.0	(0)	0.0	(0)	0.0
	50대	(14)	(10)	71.4	(2)	14.3	(1)	7.1	(0)	0.0
	60대 이상	(21)	(15)	71.4	(3)	14.3	(0)	0.0	(1)	4.8
거주지별	수도권	(27)	(16)	59.3	(3)	11.1	(2)	7.4	(1)	3.7
	부산/경남권	(15)	(11)	73.3	(1)	6.7	(0)	0.0	(0)	0.0
	대구/경북권	(4)	(3)	75.0	(0)	0.0	(0)	0.0	(0)	0.0
	대전/충청권	(0)	-	-	-	-	-	-	-	-
	광주/전라권	(5)	(3)	60.0	(1)	20.0	(0)	0.0	(0)	0.0
	강원, 제주	(3)	(3)	100.0	(0)	0.0	(0)	0.0	(0)	0.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5)	(4)	80.0	(1)	20.0	(0)	0.0	(0)	0.0
	전문대졸업	(4)	(2)	50.0	(1)	25.0	(0)	0.0	(0)	0.0
	대학 졸업(학사)	(14)	(10)	71.4	(0)	0.0	(0)	0.0	(0)	0.0
	대학원졸업(석사)	(21)	(13)	61.9	(2)	9.5	(2)	9.5	(0)	0.0
	대학원졸업(박사)	(10)	(7)	70.0	(1)	10.0	(0)	0.0	(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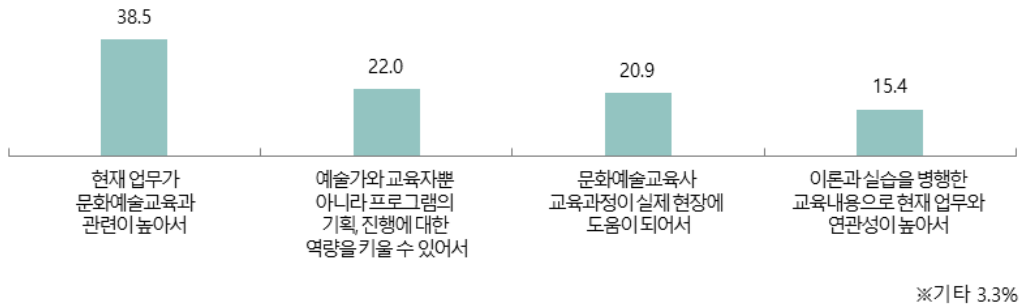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국가무형문화재(n=54),

※ 기타 13.0%, 모름/무응답 5.6%는 표에서 제외

반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높아서’가 38.5%로 가장 높고, ‘예술가와 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22.0%),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20.9%),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내용으로 현재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자격증을 의무/필요화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어서’가 있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높아서’(48.6%)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0]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
(n=91, 단위 : %)



[표 243]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

		사례수 (명)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높아서		예술가와 교육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의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내용으로 현재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	
			명	%	명	%	명	%	명	%
전 체		(91)	(35)	38.5	(20)	22.0	(19)	20.9	(14)	15.4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77)	(31)	40.3	(17)	22.1	(15)	19.5	(11)	14.3
	신규 자격취득자	(14)	(4)	28.6	(3)	21.4	(4)	28.6	(3)	21.4
성별	남성	(35)	(17)	48.6	(9)	25.7	(3)	8.6	(5)	14.3
	여성	(56)	(18)	32.1	(11)	19.6	(16)	28.6	(9)	16.1
연령별	20대	(4)	(0)	0.0	(2)	50.0	(2)	50.0	(0)	0.0
	30대	(18)	(8)	44.4	(3)	16.7	(4)	22.2	(3)	16.7
	40대	(23)	(12)	52.2	(4)	17.4	(1)	4.3	(3)	13.0
	50대	(28)	(8)	28.6	(7)	25.0	(6)	21.4	(7)	25.0
	60대 이상	(18)	(7)	38.9	(4)	22.2	(6)	33.3	(1)	5.6
거주지 별	수도권	(31)	(14)	45.2	(4)	12.9	(9)	29.0	(3)	9.7
	부산/경남권	(24)	(9)	37.5	(8)	33.3	(5)	20.8	(2)	8.3
	대구/경북권	(13)	(5)	38.5	(4)	30.8	(2)	15.4	(2)	15.4
	대전/충청권	(7)	(1)	14.3	(1)	14.3	(0)	0.0	(3)	42.9
	광주/전라권	(13)	(4)	30.8	(2)	15.4	(3)	23.1	(4)	30.8
학력별	강원, 제주	(3)	(2)	66.7	(1)	33.3	(0)	0.0	(0)	0.0
	고등학교졸업이하	(18)	(5)	27.8	(3)	16.7	(7)	38.9	(3)	16.7
	전문대졸업	(4)	(3)	75.0	(1)	25.0	(0)	0.0	(0)	0.0
	대학 졸업(학사)	(30)	(12)	40.0	(7)	23.3	(6)	20.0	(5)	16.7
	대학원졸업(석사)	(30)	(14)	46.7	(5)	16.7	(4)	13.3	(4)	13.3
	대학원졸업(박사)	(9)	(1)	11.1	(4)	44.4	(2)	22.2	(2)	22.2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국가무형문화재(n=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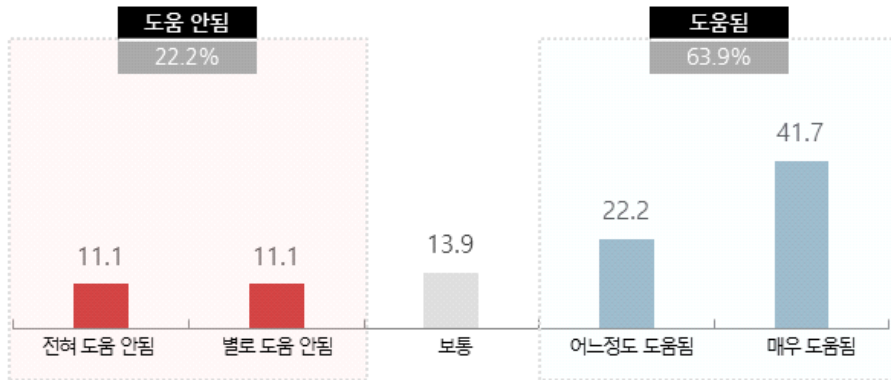
※ 기 타 3.3%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나. 구직 시 도움 정도

경제활동하기 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에게 구직 시 도움 정도를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63.9%(매우 도움이 되었다 41.7% +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22.2%)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22.2%(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1.1% +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11.1%)로 나타났다.

[그림 41] [국가무형문화재]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도움 정도
(n=36, 복수응답, 단위 : %)
평균: 3.7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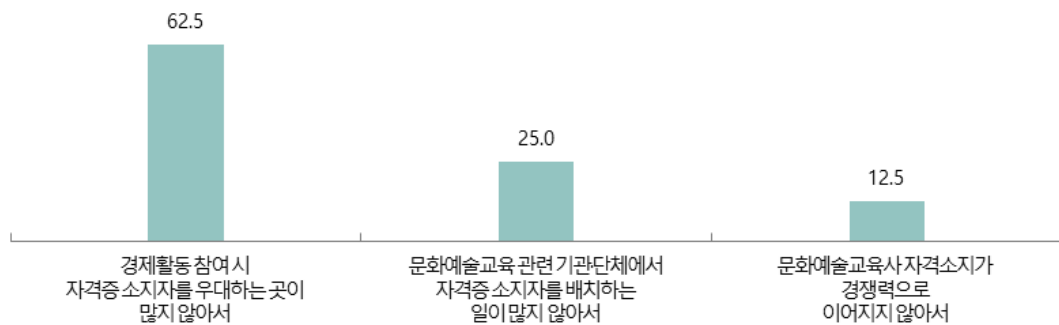
[표 244] [국가무형문화재]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도움 정도

		사례수 (명)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 이었다	④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도움 안됨 (①+②)	도움 됨 (④+⑤)	5점 평균
			%	%	%	%	%	%	%	점
전 체		(36)	11.1	11.1	13.9	22.2	41.7	22.2	63.9	3.72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35)	11.4	11.4	14.3	22.9	40.0	22.9	62.9	3.69
	신규 자격취득자	(1)	0.0	0.0	0.0	0.0	100.0	0.0	100.0	5.00
성별	남성	(16)	18.8	6.3	12.5	12.5	50.0	25.0	62.5	3.69
	여성	(20)	5.0	15.0	15.0	30.0	35.0	20.0	65.0	3.75
연령별	20대	(1)	0.0	0.0	0.0	0.0	100.0	0.0	100.0	5.00
	30대	(7)	0.0	0.0	0.0	14.3	85.7	0.0	100.0	4.86
	40대	(10)	10.0	10.0	20.0	30.0	30.0	20.0	60.0	3.60
	50대	(11)	9.1	27.3	18.2	18.2	27.3	36.4	45.5	3.27
	60대 이상	(7)	28.6	0.0	14.3	28.6	28.6	28.6	57.1	3.29
거주지 별	수도권	(13)	15.4	0.0	23.1	23.1	38.5	15.4	61.5	3.69
	부산/경남권	(11)	0.0	36.4	9.1	27.3	27.3	36.4	54.5	3.45
	대구/경북권	(5)	20.0	0.0	0.0	20.0	60.0	20.0	80.0	4.00
	대전/충청권	(2)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광주/전라권	(4)	25.0	0.0	25.0	0.0	50.0	25.0	50.0	3.50
	강원, 제주	(1)	0.0	0.0	0.0	0.0	100.0	0.0	100.0	5.0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5)	40.0	0.0	0.0	20.0	40.0	40.0	60.0	3.20
	전문대졸업	(2)	0.0	50.0	0.0	50.0	0.0	50.0	50.0	3.00
	대학 졸업(학사)	(14)	0.0	14.3	7.1	14.3	64.3	14.3	78.6	4.29
	대학원졸업(석사)	(11)	18.2	0.0	36.4	27.3	18.2	18.2	45.5	3.27
	대학원졸업(박사)	(4)	0.0	25.0	0.0	25.0	50.0	25.0	75.0	4.00

※ base : 경제활동하기 전 자격증 취득한 국가무형문화재(n=36)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62.5%),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25.0%), 기타 응답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가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않아서’(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국가무형문화재]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n=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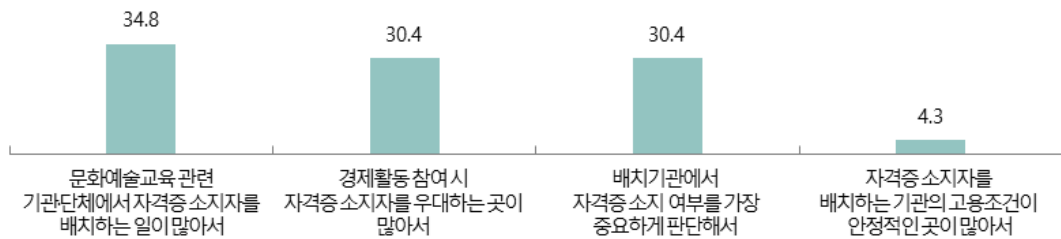
[표 245] [국가무형문화재]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사례수 (명)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가 경쟁력으로 이여지지 않아서	
			명	%	명	%	명	%
전 체		(8)	(5)	62.5	(2)	25.0	(1)	12.5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8)	(5)	62.5	(2)	25.0	(1)	12.5
	신규 자격취득자	(0)	-	-	-	-	-	-
성별	남성	(4)	(3)	75.0	(1)	25.0	(0)	0.0
	여성	(4)	(2)	50.0	(1)	25.0	(1)	25.0
연령별	20대	(0)	-	-	-	-	-	-
	30대	(0)	-	-	-	-	-	-
	40대	(2)	(1)	50.0	(0)	0.0	(1)	50.0
	50대	(4)	(2)	50.0	(2)	50.0	(0)	0.0
	60대 이상	(2)	(2)	100.0	(0)	0.0	(0)	0.0
거주지별	수도권	(2)	(1)	50.0	(0)	0.0	(1)	50.0
	부산/경남권	(4)	(2)	50.0	(2)	50.0	(0)	0.0
	대구/경북권	(1)	(1)	100.0	(0)	0.0	(0)	0.0
	대전/충청권	(0)						
	광주/전라권	(1)	(1)	100.0	(0)	0.0	(0)	0.0
	강원, 제주	(0)	-	-	-	-	-	-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2)	(2)	100.0	(0)	0.0	(0)	0.0
	전문대졸업	(1)	(0)	0.0	(1)	100.0	(0)	0.0
	대학 졸업(학사)	(2)	(1)	50.0	(1)	50.0	(0)	0.0
	대학원졸업(석사)	(2)	(1)	50.0	(0)	0.0	(1)	50.0
	대학원졸업(박사)	(1)	(1)	100.0	(0)	0.0	(0)	0.0

※ base :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국가무형문화재(n=8)

반면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된 이유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아서’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아서’와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서’(각각 30.4%),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조건이 안정적인 곳이 많아서’(4.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국가무형문화재]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된 이유
(n=23, 단위 : %)



[표 246] [국가무형문화재]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 이유

		사례수 (명)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아서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아서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조건이 안정적인 곳이 많아서	
			명	%	명	%	명	%	명	%
전 체		(23)	(8)	34.8	(7)	30.4	(7)	30.4	(1)	4.3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22)	(8)	36.4	(7)	31.8	(7)	31.8	(0)	0.0
	신규 자격취득자	(1)	(0)	0.0	(0)	0.0	(0)	0.0	(1)	100.0
성별	남성	(10)	(5)	50.0	(2)	20.0	(2)	20.0	(1)	10.0
	여성	(13)	(3)	23.1	(5)	38.5	(5)	38.5	(0)	0.0
연령별	20대	(1)	(0)	0.0	(1)	100.0	(0)	0.0	(0)	0.0
	30대	(7)	(2)	28.6	(0)	0.0	(5)	71.4	(0)	0.0
	40대	(6)	(3)	50.0	(1)	16.7	(1)	16.7	(1)	16.7
	50대	(5)	(2)	40.0	(3)	60.0	(0)	0.0	(0)	0.0
	60대 이상	(4)	(1)	25.0	(2)	50.0	(1)	25.0	(0)	0.0
거주지별	수도권	(8)	(1)	12.5	(3)	37.5	(4)	50.0	(0)	0.0
	부산/경남권	(6)	(4)	66.7	(0)	0.0	(2)	33.3	(0)	0.0
	대구/경북권	(4)	(2)	50.0	(2)	50.0	(0)	0.0	(0)	0.0
	대전/충청권	(2)	(1)	50.0	(1)	50.0	(0)	0.0	(0)	0.0
	광주/전라권	(2)	(0)	0.0	(1)	50.0	(0)	0.0	(1)	50.0
	강원, 제주	(1)	(0)	0.0	(0)	0.0	(1)	100.0	(0)	0.0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3)	(2)	66.7	(1)	33.3	(0)	0.0	(0)	0.0
	전문대졸업	(1)	(1)	100.0	(0)	0.0	(0)	0.0	(0)	0.0
	대학 졸업(학사)	(11)	(3)	27.3	(3)	27.3	(4)	36.4	(1)	9.1
	대학원졸업(석사)	(5)	(0)	0.0	(3)	60.0	(2)	40.0	(0)	0.0
	대학원졸업(박사)	(3)	(2)	66.7	(0)	0.0	(1)	33.3	(0)	0.0

※ base :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국가무형문화재(n=23)

6.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의향이 있다 국가무형 문화재는 23.4%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신규 자격취득자(31.1%)와 30대 (39.3%)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47]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

		사례수 (명)	그렇다		그렇지 않다		미정이다		참여조건이 되지 않는다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355)	(83)	23.4	(53)	14.9	(51)	14.4	(168)	47.3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310)	(69)	22.3	(44)	14.2	(45)	14.5	(152)	49.0
	신규 자격취득자	(45)	(14)	31.1	(9)	20.0	(6)	13.3	(16)	35.6
성별	남성	(151)	(34)	22.5	(26)	17.2	(23)	15.2	(68)	45.0
	여성	(204)	(49)	24.0	(27)	13.2	(28)	13.7	(100)	49.0
연령별	20대	(10)	(7)	70.0	(2)	20.0	(1)	10.0	(0)	0.0
	30대	(61)	(24)	39.3	(9)	14.8	(20)	32.8	(8)	13.1
	40대	(83)	(10)	12.0	(11)	13.3	(8)	9.6	(54)	65.1
	50대	(111)	(26)	23.4	(12)	10.8	(10)	9.0	(63)	56.8
	60대 이상	(90)	(16)	17.8	(19)	21.1	(12)	13.3	(43)	47.8
거주지별	수도권	(152)	(38)	25.0	(23)	15.1	(21)	13.8	(70)	46.1
	부산/경남권	(95)	(27)	28.4	(14)	14.7	(12)	12.6	(42)	44.2
	대구/경북권	(39)	(4)	10.3	(8)	20.5	(6)	15.4	(21)	53.8
	대전/충청권	(20)	(7)	35.0	(1)	5.0	(0)	0.0	(12)	60.0
	광주/전라권	(36)	(5)	13.9	(6)	16.7	(10)	27.8	(15)	41.7
	강원, 제주	(13)	(2)	15.4	(1)	7.7	(2)	15.4	(8)	61.5
학력별	고등학교졸업이하	(59)	(14)	23.7	(5)	8.5	(13)	22.0	(27)	45.8
	전문대졸업	(23)	(9)	39.1	(3)	13.0	(2)	8.7	(9)	39.1
	대학 졸업(학사)	(121)	(23)	19.0	(23)	19.0	(16)	13.2	(59)	48.8
	대학원졸업(석사)	(113)	(27)	23.9	(13)	11.5	(18)	15.9	(55)	48.7
	대학원졸업(박사)	(39)	(10)	25.6	(9)	23.1	(2)	5.1	(18)	46.2

※ base : 국가무형문화재 전체(n=355)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이 있는 국가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참여가 가능하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을 살펴본 결과, ‘서울’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기’(25.3%), ‘경남’(22.9%), ‘부산’(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8]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가능 또는 희망 지역(1)

		사례수 (명)	서울 %	경기 %	경남 %	부산 %	경북 %	충남 %	울산 %	강원 %	세종 %
전 체		(83)	32.5	25.3	22.9	16.9	7.2	6.0	4.8	4.8	3.6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69)	31.9	24.6	26.1	17.4	7.2	4.3	4.3	5.8	2.9
	신규 자격취득자	(14)	35.7	28.6	7.1	14.3	7.1	14.3	7.1	0.0	7.1
성별	남성	(34)	32.4	20.6	23.5	8.8	2.9	11.8	0.0	8.8	2.9
	여성	(49)	32.7	28.6	22.4	22.4	10.2	2.0	8.2	2.0	4.1
연령	20대	(7)	57.1	28.6	14.3	0.0	0.0	0.0	0.0	0.0	0.0
	30대	(24)	45.8	33.3	12.5	16.7	0.0	4.2	0.0	8.3	0.0
	40대	(10)	20.0	20.0	50.0	10.0	10.0	10.0	10.0	10.0	10.0
	50대	(26)	23.1	19.2	26.9	19.2	11.5	7.7	3.8	0.0	7.7
	60대 이상	(16)	25.0	25.0	18.8	25.0	12.5	6.3	12.5	6.3	0.0
거주 지별	수도권	(38)	57.9	50.0	2.6	0.0	0.0	0.0	0.0	5.3	2.6
	부산/경남권	(27)	7.4	0.0	66.7	48.1	11.1	0.0	14.8	0.0	0.0
	대구/경북권	(4)	25.0	0.0	0.0	25.0	75.0	0.0	0.0	0.0	0.0
	대전/충청권	(7)	14.3	14.3	0.0	0.0	0.0	71.4	0.0	0.0	28.6
	광주/전라권	(5)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강원,제주	(2)	50.0	50.0	0.0	0.0	0.0	0.0	0.0	100.0	0.0
학력 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4)	21.4	21.4	7.1	14.3	14.3	7.1	7.1	0.0	7.1
	전문대졸업	(9)	11.1	0.0	44.4	22.2	11.1	0.0	0.0	0.0	0.0
	대학 졸업(학사)	(23)	39.1	26.1	21.7	4.3	4.3	13.0	4.3	4.3	4.3
	대학원졸업(석사)	(27)	37.0	37.0	22.2	14.8	3.7	0.0	0.0	7.4	0.0
	대학원졸업(박사)	(10)	40.0	20.0	30.0	50.0	10.0	10.0	20.0	10.0	10.0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국가무형문화재(n=83), 복수응답

[표 249]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가능 또는 희망 지역(2)

		사례수 (명)	제주 %	대구 %	인천 %	광주 %	전북 %	전남 %	대전 %	충북 %
전 체		(83)	3.6	2.4	2.4	2.4	2.4	2.4	1.2	1.2
기존/ 신규	기존 자격소지자	(69)	4.3	1.4	1.4	0.0	2.9	1.4	0.0	0.0
	신규 자격취득자	(14)	0.0	7.1	7.1	14.3	0.0	7.1	7.1	7.1
성별	남성	(34)	2.9	0.0	2.9	2.9	5.9	0.0	0.0	2.9
	여성	(49)	4.1	4.1	2.0	2.0	0.0	4.1	2.0	0.0
연령	20대	(7)	0.0	0.0	0.0	0.0	0.0	0.0	0.0	14.3
	30대	(24)	8.3	0.0	4.2	4.2	0.0	0.0	0.0	0.0
	40대	(10)	10.0	0.0	0.0	10.0	0.0	10.0	10.0	0.0
	50대	(26)	0.0	7.7	0.0	0.0	7.7	3.8	0.0	0.0
	60대 이상	(16)	0.0	0.0	6.3	0.0	0.0	0.0	0.0	0.0
거주 지별	수도권	(38)	5.3	0.0	5.3	0.0	0.0	0.0	0.0	0.0
	부산/경남권	(27)	0.0	3.7	0.0	0.0	0.0	0.0	0.0	0.0
	대구/경북권	(4)	0.0	25.0	0.0	0.0	0.0	0.0	0.0	0.0
	대전/충청권	(7)	0.0	0.0	0.0	0.0	0.0	0.0	14.3	14.3
	광주/전라권	(5)	0.0	0.0	0.0	40.0	40.0	40.0	0.0	0.0
	강원, 제주	(2)	50.0	0.0	0.0	0.0	0.0	0.0	0.0	0.0
학력 별	고등학교졸업이하	(14)	0.0	0.0	0.0	7.1	7.1	7.1	0.0	7.1
	전문대졸업	(9)	0.0	0.0	11.1	0.0	0.0	0.0	0.0	0.0
	대학 졸업(학사)	(23)	0.0	4.3	0.0	4.3	0.0	4.3	0.0	0.0
	대학원졸업(석사)	(27)	7.4	0.0	3.7	0.0	3.7	0.0	0.0	0.0
	대학원졸업(박사)	(10)	10.0	10.0	0.0	0.0	0.0	0.0	10.0	0.0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국가무형문화재(n=83), 복수응답

7. 국가무형문화재의 경제활동 심층 분석

가. 경제활동자와 비활동자의 비교

국가무형문화재 중 경제활동자와 비활동자를 비교해보면, 성, 연령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 활동을 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중 93.2%는 과거에도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활동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 중 81.6%는 과거에도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0] [국가무형문화재] 경제활동자/비활동자 응답자 특성 비교

		전체	경제활동	비활동
사례수		(355)	(192)	(163)
성별	남성	42.5	38.5	47.2
	여성	57.5	61.5	52.8
연령별	20대	2.8	3.1	2.5
	30대	17.2	18.8	15.3
	40대	23.4	25.0	21.5
	50대	31.3	29.2	33.7
	60대 이상	25.4	24.0	27.0
과거 경제활동	있다	58.9	93.2	18.4
	없다	41.1	6.8	81.6

※ base : 국가무형문화재 전체(n=355)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자격 취득 동기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자는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 서’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가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자의 자격 취득 당시 희망 직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51] [국가무형문화재] 경제활동자/비활동자 자격증 관련 사항 비교

		전체	경제활동	비활동
사례수		(355)	(192)	(163)
구분	기존 자격소지자	87.3	86.5	88.3
	신규 자격취득자	12.7	13.5	11.7
이수 기관	문화예술교육원	2.8	3.6	1.8
	대학	5.4	7.3	3.1
	학점은행제	1.4	2.1	0.6
	국가무형문화재	95.2	96.4	93.9
	기본연수 과정을 이수한 예술강사	4.2	4.2	4.3
자격 취득 동기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43.7	45.8	41.1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51.0	51.6	50.3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19.7	24.0	14.7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29.6	<u>35.9</u>	22.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29.6	<u>35.9</u>	22.1
	문화예술 소양 및 향유를 위해서	22.5	24.0	20.9
	기타	4.8	5.2	4.3
취득 당시 희망 직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32.1	34.4	29.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27.6	<u>34.9</u>	19.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74.1	75.5	72.4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20.0	<u>26.0</u>	12.9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예술경영)	18.3	<u>26.6</u>	8.6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9.0	12.0	5.5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12.1	15.6	8.0
	기타	3.7	4.2	3.1

※ base : 국가무형문화재 전체(n=355)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나. 자격증 취득 시점 비교

국가무형문화재의 경제활동자 중 자격증 취득 시점에 대한 차이는 성,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표 252]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응답자 특성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192)	(36)	(156)
성별	남성	38.5	44.4	37.2
	여성	61.5	55.6	62.8
연령별	20대	3.1	2.8	3.2
	30대	18.8	19.4	18.6
	40대	25.0	27.8	24.4
	50대	29.2	30.6	28.8
	60대 이상	24.0	19.4	25.0
과거 경제활동	있다	93.2	91.7	93.6
	없다	6.8	8.3	6.4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는 국가무형문화재(n=19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자격 취득 동기를 살펴보면, 활동 전 취득자는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격 취득 당시 희망 직무는 활동 전 취득자와 활동 후 취득자 모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존 자격소지자는 활동 전에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53]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자격증 관련 사항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192)	(36)	(156)
구분	기존 자격소지자	86.5	<u>97.2</u>	84.0
	신규 자격취득자	13.5	2.8	16.0
이수 기관	문화예술교육원	3.6	-	4.5
	대학	7.3	2.8	8.3
	학점은행제	2.1	2.8	1.9
	국가무형문화재	96.4	100.0	95.5
	기본연수 과정을 이수한 예술강사	4.2	-	5.1
자격 취득 동기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45.8	47.2	45.5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51.6	38.9	54.5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24.0	33.3	21.8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35.9	<u>41.7</u>	34.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35.9	<u>41.7</u>	34.6
	문화예술 소양 및 향유를 위해서	24.0	27.8	23.1
	기타	5.2	2.8	5.8
취득 당시 희망 직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34.4	25.0	36.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34.9	33.3	35.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75.5	<u>75.0</u>	<u>75.6</u>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26.0	22.2	26.9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예술경영)	26.6	22.2	27.6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12.0	8.3	12.8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15.6	2.8	18.6
	기타	4.2	2.8	4.5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는 국가무형문화재(n=19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경제 활동 형태를 비교해 본 결과, 활동 전 취득자는 기관·시설·단체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54]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경제 활동 형태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192)	(36)	(156)
경제 활동 형태	기관·시설·단체 종사	41.7	47.2	40.4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58.3	52.8	59.6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는 국가무형문화재(n=19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종사 분야를 비교해보면, 활동 전 취득자는 타 분야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55]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종사 분야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80)	(17)	(63)
종사 분야	문화예술 관련 분야	93.8	88.2	95.2
	타 분야	6.3	11.8	4.8

※ base : 현재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국가무형문화재(n=8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프리랜서 중, 활동 전 취득자의 현재 담당 업무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56]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담당 업무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112)	(19)	(93)
담당 업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21.4	5.3	24.7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7.9	10.5	19.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79.5	63.2	82.8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8.0	10.5	7.5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예술경영)	15.2	10.5	16.1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5.4	5.3	5.4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5.4	5.3	5.4
	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	44.6	42.1	45.2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14.3	<u>21.1</u>	12.9
	기타	6.3	10.5	5.4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중 프리랜서(n=11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프리랜서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자의 경우, 활동 전 취득자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활동 후 취득자는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57]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활동 영역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89)	(12)	(77)
활동 영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	33.7	<u>75.0</u>	27.3
	민간영역에서 활동	77.5	41.7	<u>83.1</u>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 프리랜서(n=8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기관·시설·단체에서 종사자를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 활동 전 취득자는 정부부처/지자체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근무 형태별로는 활동 전 취득자는 비정규직, 활동 후 취득자는 정규직의 비율이 높았다.

담당업무별로는 활동 전 취득자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58]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른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업무/직무 비교

		경제활동자	활동 전 취득	활동 후 취득
사례수		(80)	(17)	(63)
종사 기관	국·공립·공공기관	25.0	17.6	27.0
	정부부처/지자체	11.3	<u>29.4</u>	6.3
	예술단체	31.3	23.5	33.3
	사기업	10.0	11.8	9.5
	초·중·고등학교	10.0	5.9	11.1
	대학교	3.8	5.9	3.2
	기타	8.8	5.9	9.5
근무 형태	정규직	31.3	17.6	34.9
	비정규직	68.8	<u>82.4</u>	65.1
문화예술 관련 분야 평균 종사 기간(개월)		196.9	109.7	220.4
담당 업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35.0	<u>41.2</u>	33.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38.8	23.5	42.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53.8	47.1	55.6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23.8	<u>29.4</u>	22.2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예술경영)	20.0	11.8	22.2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5.0	5.9	4.8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10.0	5.9	11.1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6.3	<u>17.6</u>	3.2
	기타	12.5	5.9	14.3

※ base : 현재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국가무형문화재(n=8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활동 전 취득자의 자격 취득 전 희망 직무와 현 업무의 일치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예술경영)’과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으로 나타났고, 활동 후 취득자의 일치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로 나타났다.

[표 259] [국가무형문화재] 활동 전 취득자의 희망 직무와 현재 업무 비교

현 담당 업무 자격취득 전 희망 직무	사 례 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단체 설립 및 운영 (예술경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컨설팅	문화예술 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문화예술 교육 관련 창작활동	문화예술 교육 자원조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9)	<u>50.0</u>	33.3	25.0	57.1	25.0	0.0	50.0	25.0	57.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2)	62.5	<u>50.0</u>	40.0	57.1	25.0	0.0	100.0	37.5	42.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27)	100.0	83.3	80.0	57.1	0.0	50.0	50.0	75.0	100.0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8)	50.0	50.0	25.0	<u>85.7</u>	50.0	50.0	50.0	25.0	28.6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 (예술경영)	(8)	0.0	16.7	20.0	28.6	<u>100.0</u>	50.0	0.0	12.5	28.6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3)	0.0	0.0	5.0	14.3	25.0	<u>100.0</u>	0.0	12.5	0.0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1)	12.5	16.7	5.0	14.3	0.0	0.0	<u>50.0</u>	12.5	14.3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표 260] [국가무형문화재] 활동 후 취득자의 희망 직무와 현재 업무 비교

현 담당 업무 자격취득 전 희망 직무	사 례 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단체 설립 및 운영 (예술경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컨설팅	문화예술 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문화예술 교육 관련 창작활동	문화예술 교육 자원조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57)	<u>68.2</u>	53.3	38.4	52.4	44.8	62.5	66.7	57.1	35.7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55)	54.5	<u>51.1</u>	34.8	47.6	41.4	50.0	66.7	50.0	28.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118)	70.5	66.7	<u>86.6</u>	66.7	65.5	50.0	75.0	78.6	85.7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42)	47.7	37.8	20.5	<u>66.7</u>	37.9	62.5	66.7	31.0	35.7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 (예술경영)	(43)	45.5	37.8	29.5	47.6	<u>65.5</u>	75.0	75.0	28.6	50.0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20)	22.7	11.1	14.3	19.0	24.1	<u>50.0</u>	33.3	23.8	35.7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29)	27.3	24.4	22.3	33.3	31.0	37.5	<u>58.3</u>	26.2	21.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다. 업무 도움 정도 비교

자격 취득 시점별로 자격증의 업무 도움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활동 전 취득자는 활동 후 취득자에 비해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기관·시설·단체 종사자가 프리랜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261] [국가무형문화재] 자격 취득 시점, 경제활동 형태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192)	47.4	24.5	28.1
자격 취득 시점	활동 전 취득	(36)	<u>55.6</u>	19.4	25.0
	활동 후 취득	(156)	45.5	25.6	28.8
경제활동 형태	기관·시설·단체 종사	(80)	<u>55.0</u>	18.8	26.3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112)	42.0	28.6	29.5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는 국가무형문화재(n=19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중 비정규직에서 정규직보다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표 262] [국가무형문화재] 종사 분야, 근무 형태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80)	55.0	18.8	26.3
종사 분야	문화예술 관련 분야	(75)	56.0	20.0	24.0
	타 분야	(5)	40.0	0.0	60.0
근무 형태	정규직	(25)	40.0	28.0	32.0
	비정규직	(55)	<u>61.8</u>	14.5	23.6

※ base :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국가무형문화재(n=8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기관·시설·단체 종사자별로 살펴보면, 정부부처/지자체, 사기업, 예술단체에서 업무 도움 정도가 높게, 대학교 종사자에서 낮게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263]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종사기관별 업무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75)	56.0	20.0	24.0
종사기관	국·공립·공공기관	(19)	42.1	31.6	26.3
	정부부처/지자체	(8)	75.0	12.5	12.5
	예술단체	(25)	60.0	20.0	20.0
	사기업	(8)	75.0	0.0	25.0
	초·중·고등학교	(7)	57.1	14.3	28.6
	대학교	(3)	33.3	0.0	66.7
	기타	(5)	40.0	40.0	20.0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국가무형문화재(n=75)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프리랜서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자의 경우, 민간영역 활동자가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 참여자보다 업무 도움 정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표 264]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 프리랜서의 업무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활동영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	(30)	40.0	40.0	20.0
	민간영역에서 활동	(69)	43.5	27.5	29.0

※ base : 활동 후 취득한 국가무형문화재 중 ‘문화예술교육 강의’ 담당 프리랜서(n=7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라.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자격증의 구직 시 도움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도움 정도가 프리랜서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265] [국가무형문화재] 경제활동 형태별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36)	63.9	13.9	22.2
경제활동 형태	기관·시설·단체 종사	(17)	70.6	5.9	23.5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19)	57.9	21.1	21.1

※ base : 현재 경제활동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중 활동 전 취득자(n=36)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중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자가 타 분야 종사자보다 구직 시 도움 정도를 높게 평가하였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266] [국가무형문화재]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종사 분야, 근무 형태별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17)	70.6	5.9	23.5
종사 분야	문화예술 관련 분야	(15)	73.3	6.7	20.0
	타 분야	(2)	50.0	0.0	50.0
근무 형태	정규직	(3)	33.3	33.3	33.3
	비정규직	(14)	78.6	0.0	21.4

※ base : 활동 전 취득한 국가무형문화재 중 기관·시설·단체 종사자(n=17)

문화예술 관련 분야 중 국·공립·공공기관, 정부부처/지자체 종사자에서 구직 시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종사자에서는 구직 시 도움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267]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15)	73.3	6.7	20.0
종사 기관	국·공립·공공기관	(2)	100.0	0.0	0.0
	정부부처/지자체	(5)	100.0	0.0	0.0
	예술단체	(4)	75.0	25.0	0.0
	사기업	(2)	50.0	0.0	50.0
	초·중·고등학교	(1)	0.0	0.0	100.0
	대학교	(1)	0.0	0.0	100.0
	기타	(0)	-	-	-

※ base : 활동 전 취득한 국가무형문화재 중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n=15)

프리랜서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자의 경우 민간영역 활동자가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 참여자에 비해 구직 시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268]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담당 프리랜서의 구직 시 도움 정도 비교

		사례수	도움 됨	보통	도움 안 됨
활동 영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	(9)	66.7	22.2	11.1
	민간영역에서 활동	(5)	80.0	0.0	20.0

※ base : 활동 전 취득한 국가무형문화재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담당’ 프리랜서(n=1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Ⅲ. 문화예술 관련 기관

1. 종합분석(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 관련 기관)
 2. 의무배치기관
 3. 문화예술 관련 기관
 4.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Ⅲ. 문화예술 관련 기관_종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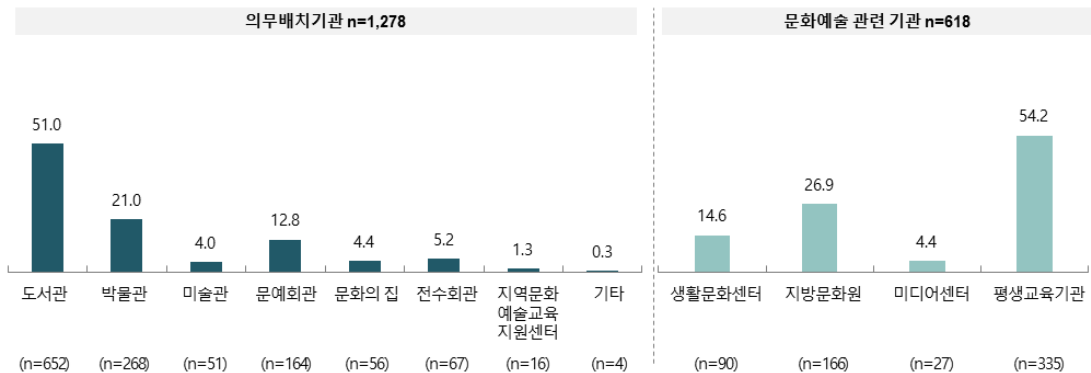
1. 종합분석(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 관련 기관)

가. 기관 유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의무배치기관은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기준으로 한 국·공립시설이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기타 법령상³⁰⁾ 의무배치기관에 해당하므로 전체 기관 구분에 포함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문화예술 관련 사업 및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그림 44] 문화예술 관련 기관 유형

(단위 : %)



3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9조 3항

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률은 의무배치기관이 74.7%,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 82.8%로 나타났다.

[표 26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비교 분석

	사례수 (곳)	예		아니오	
		사례수	%	사례수	%
의무배치기관	(1,278)	(955)	74.7	(323)	25.3
문화예술 관련 기관	(618)	(512)	82.8	(106)	17.2

1)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의무배치기관의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는 ‘1~5회’가 37.4%로 가장 높았고,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21회 이상’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7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비교 분석

	사례수 (곳)	1~5회		6~10회		11~20회		21회 이상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의무배치기관	(955)	(357)	37.4	(237)	24.8	(186)	19.5	(175)	18.3
문화예술 관련 기관	(512)	(71)	13.9	(88)	17.2	(91)	17.8	(262)	51.2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은 두 기관 모두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순이었다.

[표 27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비교 분석

	사례수 (곳)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기 타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의무배치기관	(955)	(627)	65.7	(548)	57.4	(254)	26.6	(187)	19.6	(3)	0.3
문화예술 관련 기관	(512)	(340)	66.4	(267)	52.1	(252)	49.2	(151)	29.5	(1)	0.2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복수응답

의무배치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은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가 79.7%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문화예술 교육강사’가 55.5%로 가장 많았다.

[표 27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비교 분석

	사례수 (곳)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비담당자		기관 외부 전문가		문화예술 교육강사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의무배치기관	(955)	(761)	79.7	(135)	14.1	(469)	49.1	(452)	47.3
문화예술 관련 기관	(512)	(236)	46.1	(139)	27.1	(164)	32.0	(284)	55.5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복수응답

※ 기타 : 의무배치기관 0.9%, 문화예술 관련 기관 0.6%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인력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율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의무배치기관은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15.4%),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문화예술 교육강사’(27.8%)의 소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7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율 비교 분석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비담당자			기관외부 전문가			문화예술 교육강사		
	전체	사례수	%	전체	사례수	%	전체	사례수	%	전체	사례수	%
의무배치기관	(761)	(117)	15.4	(135)	(12)	8.9	(469)	(32)	6.8	(452)	(61)	13.5
문화예술 관련 기관	(236)	(39)	16.5	(139)	(6)	4.3	(164)	(39)	23.8	(284)	(79)	27.8

※ base : 각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다. 문화예술교육사 인지도

문화예술교육사가 문화예술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도는 의무배치기관이 46.9%,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 46.1%로 나타났다.

[표 274] 문화예술교육사 인지 여부 비교 분석

	사례수 (곳)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사례수	%	사례수	%
의무배치기관	(1,278)	(600)	46.9	(678)	53.1
문화예술 관련 기관	(618)	(285)	46.1	(333)	53.9

라.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필요로 하는 역량으로 의무배치기관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51.4%)과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기획 및 예술행정’(43.5)을,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51.1%)과 ‘예술 전공분야의 전문성’(47.7%)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275]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비교 분석

	의무배치기관 (n=1,278)		문화예술 관련 기관 (n=618)	
	사례수	%	사례수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657)	51.4	(316)	51.1
수준 높은 교수(강의)	(359)	28.1	(217)	35.1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기획 및 예술행정	(556)	43.5	(273)	44.2
예술 전공분야의 전문성	(460)	36.0	(295)	47.7
타 장르 및 영역과의 융,복합 교육프로그램 기획	(492)	38.5	(254)	41.1
사업홍보 및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287)	22.5	(211)	34.1
기관의 특성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382)	29.9	(245)	39.6
귀 기관을 포함한 문화기반 시설의 최신 동향 이해도	(284)	22.2	(190)	30.7

※ 기타: 의무배치기관 0.1%, 모름/무응답 : 의무배치기관 1.0%, 문화예술 관련 기관 6.0%,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마. 자격증 소지자 배치 현황

1)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율은 의무배치기관이 16.3%,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 15.2%로 나타났다.

[표 27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비교 분석

	사례수 (곳)	예		아니오	
		사례수	%	사례수	%
의무배치기관	(1,278)	(208)	16.3	(1,070)	83.7
문화예술 관련 기관	(618)	(94)	15.2	(524)	84.8

2) 자격증 소지자 인력 현황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인원은 의무배치기관이 총 380명으로 그 중 정규직은 134명(35.3%), 비정규직은 246명(64.7%)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총 655명으로 그 중 정규직은 131명(20.0%), 비정규직은 524명(80.0%)로 나타났다.

[표 277]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인원 비교 분석

	사례수 (곳)	정규직		비정규직		총 배치인원	
		합계(명)	비율(%)	합계(명)	비율(%)	합계(명)	비율(%)
의무배치기관	(208)	134	35.3	246	64.7	380	100.0
문화예술 관련 기관	(94)	131	20.0	524	80.0	655	100.0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기관

3) 자격증 소지자 주 담당 업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의 주 담당 업무는 의무배치기관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 모두 ‘교육프로그램 강사’와 ‘교육프로그램 운영기획’으로 나타났다.

[표 278] 자격증 소지자 주 담당 업무 비교 분석

	사례수 (곳)	교육프로그램 강사		교육프로그램 운영기획		일반 행정 및 사무		공연 등 예술활동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의무배치기관	(208)	(104)	50.0	(139)	66.8	(89)	42.8	(37)	17.8
문화예술 관련 기관	(94)	(62)	66.0	(52)	55.3	(33)	35.1	(22)	23.4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기관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4) 자격증 소지자 업무 수행 만족도

자격증 비소지자 대비 소지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5점 만점 기준으로 의무배치기관이 평균 4.06점,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 4.19점으로 나타났다.

[표 279]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업무 수행 만족도 비교 분석

	사례수 (곳)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불만족합 (①+②)	만족합 (④+⑤)	평균 (5점)
		%	%	%	%	%	%	%	점
의무배치기관	(208)	1.9	2.9	22.6	32.2	40.4	4.8	72.6	4.06
문화예술 관련 기관	(94)	0.0	2.1	19.1	36.2	42.6	2.1	78.7	4.19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기관

바. 자격증 소지자 배치 계획

문화예술교육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기관의 향후 배치 의향을 살펴본 결과, 의무배치기관의 의향은 15.0%,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13.5%로 나타났다.

[표 280]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비교 분석

	사례수 (곳)	배치할 의향이 있다		배치할 의향이 없다	
		사례수	%	사례수	%
의무배치기관	(1,070)	(160)	15.0	(910)	85.0
문화예술 관련 기관	(524)	(71)	13.5	(453)	86.5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기관

1)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향이 있는 경우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있는 기관의 배치 형태를 살펴본 결과, 의무배치기관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 모두 ‘비상근’과 ‘기간제’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의무배치기관은 ‘전일제’(59.4%)를,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단시간’(53.5%)을 희망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표 281]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형태 비교 분석

	사례수 (곳)	상근/비상근				기간제/무기계약직				전일제/단시간			
		상근		비상근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일제		단시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의무배치기관	(160)	(76)	47.5	(84)	<u>52.5</u>	(106)	<u>66.3</u>	(54)	33.8	(95)	<u>59.4</u>	(65)	40.6
문화예술 관련 기관	(71)	(35)	49.3	(36)	<u>50.7</u>	(44)	<u>62.0</u>	(27)	38.0	(33)	46.5	(38)	<u>53.5</u>

※ base :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있는 기관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향후 배치 예상 시점으로 의무배치기관은 ‘2021년 이후’(43.8%)가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직원 결원 시’(36.6%)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282]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시점 및 배치 예상 인원 수 비교 분석

	사례수 (곳)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1년 이후	직원 결원시	미정	기관 사정에 따라	평균 (명)
의무배치기관	(160)	3.1	15.6	11.9	<u>43.8</u>	23.1	0.6	0.6	1.2
문화예술 관련 기관	(71)	2.8	11.3	9.9	29.6	<u>36.6</u>	7.0	2.8	1.6

※ base :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있는 기관

※ 모름/무응답 : 의무배치기관 1.3%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없는 경우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없는 기관의 이유를 살펴본 결과, 의무배치기관은 ‘배치 권한이 없어서(상급기관에서 인력관리)’(32.4%)와 ‘예산이 부족해서’(32.1%)가 높게 나타난 반면,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예산이 부족해서’(33.8%)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25.4%)가 높게 나타났다.

[표 283]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향이 없는 이유

	의무배치기관 (n=910)		문화예술 관련 기관 (n=453)	
	사례수	%	사례수	%
예산이 부족해서	(292)	<u>32.1</u>	(153)	<u>33.8</u>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167)	18.4	(92)	20.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	(157)	17.3	(115)	<u>25.4</u>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	(165)	18.1	(90)	19.9
코로나 19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여건이 안돼서	(36)	4.0	(52)	11.5
배치 권한이 없어서(상급기관에서 인력관리)	(295)	<u>32.4</u>	(54)	11.9

※ base :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없는 기관, 복수응답

※ 기타 : 의무배치기관 4.2%, 문화예술 관련 기관 10.4%, 모름/무응답 : 문화예술 관련 기관 3.3%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사. 종합분석

1)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는 의무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자의 주 담당 업무별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살펴본 결과, 현재 교육프로그램 운영기획(66.9%)과 공연 등 예술활동(75.7%)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경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량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행정 및 사무(67.4%)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표 284] [의무배치기관] 자격소지자 담당 업무별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사례 수 (곳)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육관련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타 장르/영역과의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기획	예술 전공 분야의 전문성	기관의 특성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수준 높은 교수	사업홍보 및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귀 기간을 포함한 문화기반 시설의 최신동향 이해
		%	%	%	%	%	%	%	%
전 체	(208)	51.4	43.5	38.5	36.0	29.9	28.1	22.5	22.2
주 담당 업무	일반행정 및 사무	(89)	64.0	67.4	56.2	47.2	50.6	34.8	34.8
	교육프로그램 강사	(104)	61.5	48.1	49.0	59.6	42.3	46.2	36.5
	교육프로그램 운영기획	(139)	66.9	61.9	53.2	47.5	46.8	39.6	36.7
	공연 등 예술활동	(37)	75.7	62.2	62.2	54.1	40.5	43.2	37.8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무배치기관(n=208), 복수응답

※ 기타 0.1%, 모름/무응답 0.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의무배치기관에서 배치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별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비소지자 대비 업무수행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교육프로그램 운영기획’에 만족한 경우가 66.8%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행정 및 사무’는 불만족한 경우(49.1%)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85] [의무배치기관] 자격소지자 담당 업무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비소지자 대비 업무수행 만족도

		사례수 (곳)	교육프로그램 운영기획	교육프로그램 강사	일반행정 및 사무	공연 등 예술활동
			%	%	%	%
전 체		(208)	66.8	50.0	42.8	17.8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³¹⁾	불만족	(57)	61.4	49.1	49.1	19.3
	만족	(151)	68.9	50.3	40.4	17.2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무배치기관(n=20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31)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만족(만족/매우 만족)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지 않은 의무배치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향을 살펴본 결과,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18.3%)을 운영하는 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간 ‘1~5회’(18.3%) 운영하는 기관에서의 향후 배치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86] [의무배치기관] 운영 중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향

		사례수 (곳)	배치할 의향이 있다		배치할 의향이 없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070)	(160)	15.0	(910)	85.0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유형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169)	(31)	18.3	(138)	81.7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 교육 프로그램	(118)	(26)	22.0	(92)	78.0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	(444)	(64)	14.4	(380)	85.6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	(555)	(76)	13.7	(479)	86.3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의무배치기관(n=1,07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표 287] [의무배치기관] 프로그램 운영 횟수별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향

		사례수 (곳)	배치할 의향이 있다		배치할 의향이 없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070)	(160)	15.0	(910)	85.0
프로그램 운영 횟수	1~5회	(273)	(50)	18.3	(223)	81.7
	6~10회	(195)	(29)	14.9	(166)	85.1
	11~20회	(160)	(23)	14.4	(137)	85.6
	21회 이상	(147)	(23)	15.6	(124)	84.4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의무배치기관(n=1,07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교육사 필요역량별로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향을 살펴본 결과, ‘예술 전공분야의 전문성’(22.6%)과 ‘사업홍보/관계자와의 네트워킹’(22.5%)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관에서의 향후 배치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88]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별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향

		사례수 (곳)	배치할 의향이 있다		배치할 의향이 없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070)	(160)	15.0	(910)	85.0
문화 예술 교육사 필요 역량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536)	(103)	<u>19.2</u>	(433)	80.8
	수준 높은 교수(강의)	(289)	(52)	<u>18.0</u>	(237)	82.0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기획 및 예술행정	(440)	(73)	16.6	(367)	83.4
	예술 전공분야의 전문성	(359)	(81)	<u>22.6</u>	(278)	77.4
	타 장르 및 영역과의 융·복합 프로그램 기획	(393)	(68)	17.3	(325)	82.7
	사업홍보/관계자와의 네트워킹	(218)	(49)	<u>22.5</u>	(169)	77.5
	기관의 특성/사업에 대한 이해도	(299)	(61)	<u>20.4</u>	(238)	79.6
귀 기관을 포함한 문화기반 시설의 최신 동향 이해도		(224)	(43)	<u>19.2</u>	(181)	80.8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의무배치기관(n=1,07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 자격증 소지자의 주 담당 업무별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살펴본 결과, 현재 교육프로그램 운영기획(76.9%)과 일반행정 및 사무(72.7%)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경우 ‘문화예술 교육 관련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역량이 높게 나타난 반면, 교육프로그램 강사(62.9%)는 ‘예술전공 분야의 전문성’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표 289] [문화예술 관련 기관] 자격소지자 담당 업무별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사례 수 (명)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술전공 분야의 전문성	문화예술 교육관련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타 장르 및 영역과의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기획	기관의 특성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수준 높은 교수 (강의)	사업홍보 및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귀 기관을 포함한 문화기반 시설의 최신동향 이해도
		%	%	%	%	%	%	%	%
전 체	(94)	51.1	47.7	44.2	41.1	39.6	35.1	34.1	30.7
주 담당 업무	일반행정 및 사무	(33)	69.7	60.6	72.7	54.5	69.7	39.4	63.6
	교육프로그램 강사	(62)	48.4	62.9	40.3	37.1	45.2	41.9	45.2
	교육프로그램 운영기획	(52)	73.1	61.5	76.9	55.8	61.5	38.5	48.1
	공연 등 예술활동	(22)	68.2	68.2	59.1	50.0	68.2	50.0	63.6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문화예술 관련 기관(n=94), 복수응답

※ 모름/무응답 6.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 배치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별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비소지자 대비 업무수행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교육프로그램 강사’가 만족률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프로그램 운영기획’(62.2%), ‘일반행정 및 사무’(39.2%), ‘공연등 예술활동’(27.0%)에서도 업무수행 만족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90] [문화예술 관련 기관] 자격소지자 담당 업무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비소지자 대비 업무수행 만족도

	사례 수 (명)	교육프로그램 강사	교육프로그램 운영기획	일반행정 및 사무	공연 등 예술활동
		%	%	%	%
전 체	(94)	66.0	55.3	35.1	23.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³²⁾	불만족	(20)	90.0	30.0	20.0
	만족	(74)	59.5	62.2	39.2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문화예술 관련 기관(n=9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32)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만족(만족/매우 만족)

Ⅲ. 문화예술 관련 기관_의무배치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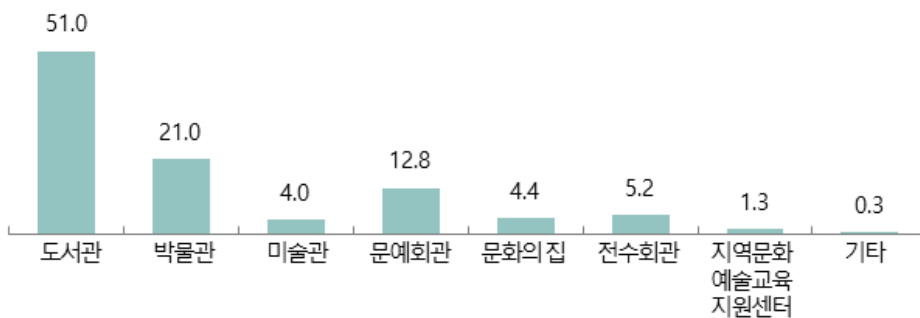
2. 의무배치기관

가. 기관유형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근거로 하여 의무배치기관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의무배치기관 중 응답률은 ‘도서관’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박물관’(21.0%), ‘문예회관’(12.8%), ‘전수회관’(5.2%), ‘문화의집’(4.4%), ‘미술관’(4.0%)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1.3%), 기타(0.3%)의 순이었다.

[그림 45] 소속기관 유형

(n=1,278, 단위 : %)



[표 291] [의무배치기관] 소속기관 유형

		사례수	%
전 체		(1,278)	100.0
기관유형	도서관	(652)	51.0
	박물관	(268)	21.0
	미술관	(51)	4.0
	문예회관	(164)	12.8
	문화의집	(56)	4.4
	전수회관	(67)	5.2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6)	1.3
	기 타	(4)	0.3

※ base : 전체(n=1,278)

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전체 응답기관 1,278곳 중에서 955곳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기관 대비 74.7%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서관’이 8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전수회관’(73.1%), ‘미술관’(72.5%), ‘박물관’(63.8%)등의 순이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16개 기관 중 75.0%인 12개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2]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사례수 (곳)	예		아니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278)	(955)	74.7	(323)	25.3
기관 유형	도서관	(652)	(564)	86.5	(88)	13.5
	박물관	(268)	(171)	63.8	(97)	36.2
	미술관	(51)	(37)	72.5	(14)	27.5
	문예회관	(164)	(86)	52.4	(78)	47.6
	문화의집	(56)	(34)	60.7	(22)	39.3
	전수회관	(67)	(49)	73.1	(18)	26.9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6)	(12)	75.0	(4)	25.0
	기 타	(4)	(2)	50.0	(2)	50.0

※ base : 전체(n=1,27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률은 2019년 대비 모든 기관에서 하락하였으며 특히, 문화의 집이 2019년 대비 31.4% 하락하여, 가장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2019년 응답한 16개 기관이 모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던 반면, 2020년에는 응답한 16개 기관 중 12개 기관만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3] [의무배치기관] 2019-202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비교 분석

		사례수 (곳)	예		아니오	
			%	GAP ³³⁾	%	GAP
전체	2019년	(946)	83.8		16.2	
	2020년	(1,278)	74.7	-9.1	25.3	9.1
도서관	2019년	(390)	92.8		7.2	
	2020년	(652)	86.5	-6.3	13.5	6.3
박물관	2019년	(191)	76.4		23.6	
	2020년	(268)	63.8	-12.6	36.2	12.6
미술관	2019년	(57)	87.7		12.3	
	2020년	(51)	72.5	-15.2	27.5	15.2
문예회관	2019년	(140)	57.9		42.1	
	2020년	(164)	52.4	-5.5	47.6	5.5
문화의 집	2019년	(63)	92.1		7.9	
	2020년	(56)	60.7	-31.4	39.3	31.4
전수회관	2019년	(64)	85.9		14.1	
	2020년	(67)	73.1	-12.8	26.9	12.8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2019년	(16)	100.0		0.0	
	2020년	(16)	75.0	-25.0	25.0	25.0
기타	2019년	(25)	100.0		0.0	
	2020년	(4)	50.0	-50.0	50.0	50.0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포함된 2020년 기준에 맞게 2019년 결과값을 재산출하였으며, 해당 2개년만 비교함

※ 기관구분 ‘기타’는 데이터를 집계하였으나, 2019년과 기관구분의 정의가 달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33)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와의 차이

1)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의무배치기관의 프로그램 운영횟수는 ‘1~5회’가 37.4%로 가장 많았고, ‘6~10회’(24.8%), ‘11~20회’(19.5%), ‘21회 이상’(18.3%) 순으로 나타났다.

박물관(48.5%), 미술관(73.0%), 전수회관(71.4%), 문예회관(41.9%)은 연간 ‘1~5회’ 운영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도서관은 ‘11~20회’(22.5%)와 ‘21회 이상’(22.7%)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94] [의무배치기관]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사례수 (곳)	1~5회		6~10회		11~20회		21회 이상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955)	(357)	37.4	(237)	24.8	(186)	19.5	(175)	18.3
기관 유형	도서관	(564)	(165)	29.3	(144)	25.5	(127)	22.5	(128)	22.7
	박물관	(171)	(83)	48.5	(44)	25.7	(23)	13.5	(21)	12.3
	미술관	(37)	(27)	73.0	(6)	16.2	(2)	5.4	(2)	5.4
	문예회관	(86)	(36)	41.9	(25)	29.1	(16)	18.6	(9)	10.5
	문화의집	(34)	(8)	23.5	(9)	26.5	(12)	35.3	(5)	14.7
	전수회관	(49)	(35)	71.4	(6)	12.2	(1)	2.0	(7)	14.3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12)	(2)	16.7	(3)	25.0	(5)	41.7	(2)	16.7
	기 타	(2)	(1)	50.0	(0)	0.0	(0)	0.0	(1)	50.0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무배치기관(n=955)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21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모든 기관에서 하락하였다. 특히, 전수회관에서 ‘21회 이상’ 운영하는 기관은 36.6% 하락하며 가장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도 2019년 16개 기관 중 87.5%가 ‘21회 이상’ 운영하던 것에 비해 2020년 16.7%만이 ‘21회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5] [의무배치기관] 2019-202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비교 분석

		사례수 (곳)	1~5회		6~10회		11~20회		21회 이상	
			%	GAP ³⁴⁾	%	GAP	%	GAP	%	GAP
전체	2019년	(793)	24.3		15.8		16.6		43.3	
	2020년	(955)	37.4	13.1	24.8	9.0	19.5	2.9	18.3	-25.0
도서관	2019년	(362)	18.0		15.2		18.5		48.3	
	2020년	(564)	29.3	11.3	25.5	10.3	<u>22.5</u>	4.0	<u>22.7</u>	-25.6
박물관	2019년	(146)	30.8		19.2		11.6		38.4	
	2020년	(171)	<u>48.5</u>	17.7	25.7	6.5	13.5	1.9	12.3	-26.1
미술관	2019년	(50)	34.0		18.0		18.0		30.0	
	2020년	(37)	<u>73.0</u>	39.0	16.2	-1.8	5.4	-12.6	5.4	-24.6
문예회관	2019년	(81)	33.3		9.9		13.6		43.2	
	2020년	(86)	<u>41.9</u>	8.6	29.1	19.2	18.6	5.0	10.5	-32.7
문화의 집	2019년	(58)	27.6		17.2		27.6		27.6	
	2020년	(34)	23.5	-4.1	26.5	9.3	35.3	7.7	14.7	-12.9
전수회관	2019년	(55)	21.8		12.7		14.5		50.9	
	2020년	(49)	<u>71.4</u>	49.6	12.2	-0.5	2.0	-12.5	14.3	-36.6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2019년	(16)	0.0		6.3		6.3		87.5	
	2020년	(12)	16.7	16.7	25.0	18.7	41.7	35.4	16.7	-70.8
기타	2019년	(25)	44.0		28.0		12.0		16.0	
	2020년	(2)	50.0	6.0	0.0	-28.0	0.0	-12.0	50.0	34.0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포함된 2020년 기준에 맞게 2019년 결과값을 재산출하였으며, 해당 2개년만 비교함

※ 기관구분 ‘기타’는 데이터를 집계하였으나, 2019년과 기관구분의 정의가 달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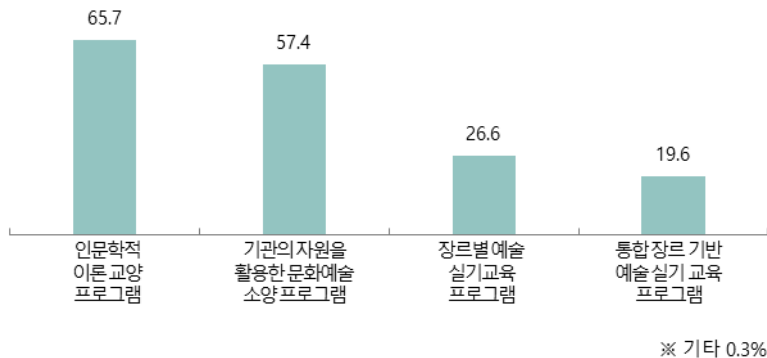
34)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와의 차이

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의무배치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유형을 살펴본 결과,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이 6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57.4%),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26.6%),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 교육 프로그램’(19.6%)의 순이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서관은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84.6%)을, 박물관은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78.9%)을 상대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과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 교육 프로그램’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n=955, 복수응답, 단위 : %)



[표 296]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사례수 (곳)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 교육 프로그램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955)	(627)	65.7	(548)	57.4	(254)	26.6	(187)	19.6
기관 유형	도서관	(564)	84.6	(319)	56.6	(94)	16.7	(82)	14.5
	박물관	(171)	45.6	(135)	78.9	(30)	17.5	(25)	14.6
	미술관	(37)	35.1	(12)	32.4	(21)	56.8	(10)	27.0
	문예회관	(86)	38.4	(34)	39.5	(60)	69.8	(42)	48.8
	문화의집	(34)	38.2	(10)	29.4	(21)	61.8	(10)	29.4
	전수회관	(49)	4.1	(25)	51.0	(21)	42.9	(9)	18.4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12)	75.0	(12)	100.0	(6)	50.0	(8)	66.7
	기 타	(2)	100.0	(1)	50.0	(1)	50.0	(1)	50.0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무배치기관(n=955), 복수응답, 기타 0.3%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이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라는 응답이 7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문화예술교육강사’(47.3%), ‘기관 외부 전문가’(49.1%),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비담당자’(14.1%)의 순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사서, 학예연구사, 평생교육사, 무대기계감독검임이 있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서관은 ‘기관 외부 전문가’(52.1%), 박물관은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88.3%)와 ‘기관 외부 전문가’(53.8%), 문예회관은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93.0%)와 ‘문화예술교육강사’(67.4%)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7]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사례수 (곳)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문화예술 교육강사		기관 외부 전문가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비담당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955)	(761)	79.7	(452)	47.3	(469)	49.1	(135)	14.1
기관 유형	도서관	(564)	(435)	77.1	(277)	49.1	(294)	52.1	(76)	13.5
	박물관	(171)	(151)	88.3	(64)	37.4	(92)	53.8	(28)	16.4
	미술관	(37)	(21)	56.8	(9)	24.3	(14)	37.8	(4)	10.8
	문예회관	(86)	(80)	93.0	(58)	67.4	(33)	38.4	(15)	17.4
	문화의집	(34)	(24)	70.6	(20)	58.8	(10)	29.4	(6)	17.6
	전수회관	(49)	(36)	73.5	(14)	28.6	(13)	26.5	(6)	12.2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12)	(12)	100.0	(9)	75.0	(12)	100.0	(0)	0.0
	기 타	(2)	(2)	100.0	(1)	50.0	(1)	50.0	(0)	0.0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무배치기관(n=955), 복수응답, 기타 0.9%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지에 살펴본 결과, ‘기관 내부 문화예술 교육 담당자’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율이 1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강사’(13.5%), ‘기관 내부 문화예술 교육 비담당자’(8.9%), ‘기관 외부 전문가’(6.8%)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예회관에서 ‘기관 내부 문화예술 교육 담당자’의 자격증 소지율은 40.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98]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율

		기관 내부 문화예술 교육 담당자			문화예술 교육강사			기관 내부 문화예술 교육 비담당자			기관 외부 전문가		
		전체	사례수	%	전체	사례수	%	전체	사례수	%	전체	사례수	%
전 체		(761)	(117)	15.4	(452)	(61)	13.5	(135)	(12)	8.9	(469)	(32)	6.8
기관 유형	도서관	(435)	(5)	1.1	(277)	(15)	5.4	(76)	(0)	0.0	(294)	(6)	2.0
	박물관	(151)	(27)	17.9	(64)	(15)	23.4	(28)	(4)	14.3	(92)	(14)	15.2
	미술관	(21)	(12)	57.1	(9)	(5)	55.6	(4)	(2)	50.0	(14)	(3)	21.4
	문예회관	(80)	(32)	40.0	(58)	(15)	25.9	(15)	(5)	33.3	(33)	(4)	12.1
	문화의집	(24)	(6)	25.0	(20)	(2)	10.0	(6)	(0)	0.0	(10)	(1)	10.0
	전수회관	(36)	(25)	69.4	(14)	(8)	57.1	(6)	(1)	16.7	(13)	(3)	23.1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12)	(9)	75.0	(9)	(0)	0.0	(0)	-	-	(12)	(1)	8.3
	기 타	(2)	(1)	50.0	(1)	(1)	100.0	(0)	-	-	(1)	(0)	0.0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인력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다. 문화예술교육사 인지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전수회관과 같은 국·공립 교육 시설에 최소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무배치기관의 46.9%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에 대한 인지율을 살펴보면, 미술관(86.3%), ‘전수회관’(76.1%), ‘문예회관’(63.4%), ‘박물관’(60.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서관은 인지하지 못한 비율이 7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99]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인지 여부

		사례수 (곳)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278)	(600)	46.9	(678)	53.1
기관 유형	도서관	(652)	(192)	29.4	(460)	70.6
	박물관	(268)	(163)	60.8	(105)	39.2
	미술관	(51)	(44)	86.3	(7)	13.7
	문예회관	(164)	(104)	63.4	(60)	36.6
	문화의집	(56)	(27)	48.2	(29)	51.8
	전수회관	(67)	(51)	76.1	(16)	23.9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6)	(16)	100.0	(0)	0.0
	기 타	(4)	(3)	75.0	(1)	25.0

※ base : 전체(n=1,27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에 대한 인지도는 2019년 대비 8.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술관과 문예회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에 대한 인지도가 하락하였다.

[표 300] [의무배치기관] 2019-2020 문화예술교육사 인지도부 비교 분석

		사례수 (명)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	GAP ³⁵⁾	%	GAP
전체	2019년	(946)	55.3		44.7	
	2020년	(1,278)	46.9	-8.4	53.1	8.4
도서관	2019년	(390)	37.7		62.3	
	2020년	(652)	29.4	-8.3	<u>70.6</u>	8.3
박물관	2019년	(191)	67.5		32.5	
	2020년	(268)	<u>60.8</u>	-6.7	39.2	6.7
미술관	2019년	(57)	82.5		17.5	
	2020년	(51)	<u>86.3</u>	3.8	13.7	-3.8
문예회관	2019년	(140)	50.0		50.0	
	2020년	(164)	<u>63.4</u>	13.4	36.6	-13.4
문화의 집	2019년	(63)	54.0		46.0	
	2020년	(56)	48.2	-5.8	51.8	5.8
전수회관	2019년	(64)	85.9		14.1	
	2020년	(67)	<u>76.1</u>	-9.8	23.9	9.8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2019년	(16)	100.0		0.0	
	2020년	(16)	100.0	0.0	0.0	0.0

-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포함된 2020년 기준에 맞게 2019년 결과값을 재산출하였으며, 해당 2개년만 비교함
 ※ 기관구분 ‘기타’는 데이터를 집계하였으나, 2019년과 기관구분의 정의가 다르고, 사례수가 적어 시계열 분석에서 제외함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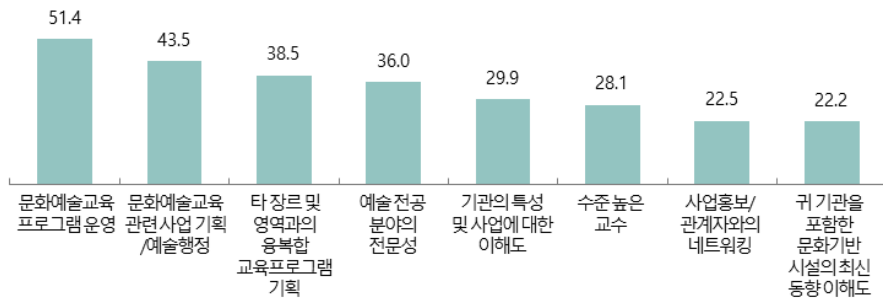
35)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와의 차이

라.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필요로 하는 역량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 관련 사업기획/예술행정’(43.5%), ‘타 장르 및 영역과의 융·복합 교육프로그램 기획’(38.5%), ‘예술 전공분야의 전문성’(36.0%) 등의 순이었다.

[그림 47]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n=618, 복수응답, 단위 : %)



※ 기타 0.1%, 모름/무응답 0.9%

[표 301]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사례수 (곳)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육 관련 사업기획/ 예술행정	타 장르 및 영역과의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기획	예술 전공 분야의 전문성	기관의 특성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수준 높은 교수	사업홍보/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귀 기관을 포함한 문화기반 시설의 최신 동향 이해도
		%	%	%	%	%	%	%	%
전 체	(1,278)	51.4	43.5	38.5	36.0	29.9	28.1	22.5	22.2
기 관 유 형	도서관	(652)	53.1	40.6	38.0	33.4	29.1	30.4	22.9
	박물관	(268)	51.9	39.2	38.4	34.7	32.5	24.6	19.8
	미술관	(51)	37.3	39.2	27.5	54.9	7.8	19.6	7.8
	문예회관	(164)	45.1	51.8	45.7	39.6	32.3	26.2	23.8
	문화의집	(56)	71.4	51.8	35.7	48.2	39.3	32.1	30.4
	전수회관	(67)	53.7	58.2	37.3	35.8	29.9	28.4	35.8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16)	6.3	81.3	43.8	12.5	31.3	0.0	0.0
	기타	(4)	50.0	0.0	0.0	75.0	25.0	25.0	0.0

※ base : 전체(n=1,278), 복수응답, 기타 0.1%, 모름/무응답 0.9%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마. 자격증 소지자 배치 현황

1)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전체 응답기관 1,278곳 중에서 208곳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기관 대비 16.3%로 조사되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수회관의 배치율이 62.7%로 가장 높았으며, 도서관의 배치율이 3.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02]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사례수 (곳)	예		아니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278)	(208)	16.3	(1,070)	83.7
기관 유형	도서관	(652)	(23)	3.5	(629)	96.5
	박물관	(268)	(52)	19.4	(216)	80.6
	미술관	(51)	(20)	39.2	(31)	60.8
	문예회관	(164)	(48)	29.3	(116)	70.7
	문화의집	(56)	(9)	16.1	(47)	83.9
	전수회관	(67)	(42)	62.7	(25)	37.3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6)	(13)	81.3	(3)	18.8
	기 타	(4)	(1)	25.0	(3)	75.0

※ base : 전체(n=1,27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율은 2019년 대비 1.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문화의 집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제외한 기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3] [의무배치기관] 2019-202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비교 분석

		사례수 (명)	예		아니오	
			%	GAP ³⁶⁾	%	GAP
전체	2019년	(946)	18.2		81.8	
	2020년	(1,278)	16.3	-1.9	83.7	1.9
도서관	2019년	(390)	2.6		97.4	
	2020년	(652)	3.5	0.9	96.5	-0.9
박물관	2019년	(191)	18.8		81.2	
	2020년	(268)	19.4	0.6	80.6	-0.6
미술관	2019년	(57)	33.3		66.7	
	2020년	(51)	39.2	5.9	60.8	-5.9
문예회관	2019년	(140)	21.4		78.6	
	2020년	(164)	29.3	7.9	70.7	-7.9
문화의 집	2019년	(63)	20.6		79.4	
	2020년	(56)	16.1	-4.5	83.9	4.5
전수회관	2019년	(64)	40.6		59.4	
	2020년	(67)	62.7	22.1	37.3	-22.1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2019년	(16)	93.8		6.3	
	2020년	(16)	81.3	-12.5	18.8	12.5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포함된 2020년 기준에 맞게 2019년 결과값을 재산출하였으며, 해당 2개년만 비교함
 ※ 기관구분 ‘기타’는 데이터를 집계하였으나, 2019년과 기관구분의 정의가 다르고, 사례수가 적어 시계열 분석에서 제외함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기

36)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와의 차이

2) 자격증 소지자 인력 현황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는 의무배치기관을 대상으로 배치인원을 살펴본 결과, 배치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는 총 38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비정규직이 246명(64.7%), 정규직이 134명(35.3%)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으로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4]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인원

		사례수 (곳)	정규직	비정규직	총 배치인원
			합계(명)	합계(명)	합계(명)
전 체		(208)	134	246	380
기관유형	도서관	(23)	6	32	38
	박물관	(52)	28	58	86
	미술관	(20)	26	18	44
	문예회관	(48)	44	49	93
	문화의집	(9)	0	10	10
	전수회관	(42)	13	66	79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3)	16	11	27
	기타	(1)	1	2	3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무배치기관(n=208)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총 배치인원은 2019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정규직은 소폭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배치인원이 크게 하락하였다. 특히, 전수회관에서의 비정규직 배치인원이 119명 하락하며, 가장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5] [의무배치기관] 2019-202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인원 비교 분석

		사례수 (곳)	정규직		비정규직		총 배치인원	
			합계(명)	GAP ³⁷⁾	합계(명)	GAP	합계(명)	GAP
전체	2019년	(172)	131		393		524	
	2020년	(208)	134	3	246	-147	380	-144
도서관	2019년	(10)	3		18		21	
	2020년	(23)	6	3	32	14	38	17
박물관	2019년	(36)	17		66		83	
	2020년	(52)	28	11	58	-8	86	3
미술관	2019년	(19)	15		13		28	
	2020년	(20)	26	11	18	5	44	16
문예회관	2019년	(30)	21		38		59	
	2020년	(48)	44	23	49	11	93	34
문화의 집	2019년	(13)	2		16		18	
	2020년	(9)	0	-2	10	-6	10	-8
전수회관	2019년	(26)	14		185		199	
	2020년	(42)	13	-1	66	-119	79	-120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2019년	(15)	44		24		68	
	2020년	(13)	16	-28	11	-13	27	-41

-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포함된 2020년 기준에 맞게 2019년 결과값을 재산출하였으며, 해당 2개년만 비교함
 ※ 기관구분 ‘기타’는 데이터를 집계하였으나, 2019년과 기관구분의 정의가 다르고, 사례수가 적어 시계열 분석에서 제외함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37) 조사년도에서 조사 직전년도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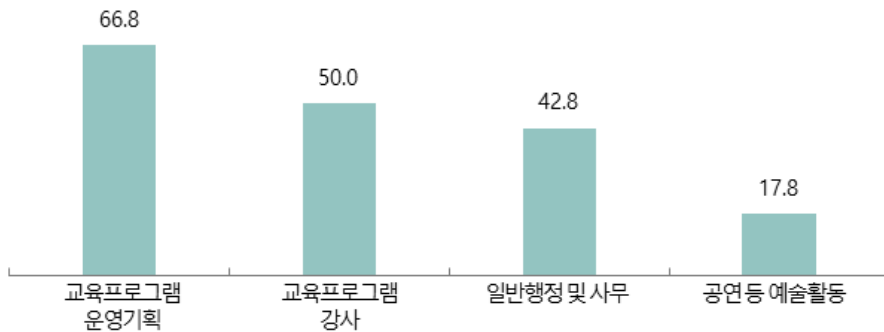
3) 자격증 소지자 주 담당 업무

의무배치기관에서 배치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의 주 담당 업무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기획’이 6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프로그램 강사’(50.0%), ‘일반행정 및 사무’(42.8%), ‘공연 등 예술활동’(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자격증 소지자의 주 담당 업무를 살펴보면, 문예회관은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획’(77.1%), 박물관은 ‘교육프로그램 강사’(65.4%)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48] [의무배치기관] 자격증 소지자 주 담당 업무

(n=208, 복수응답, 단위 : %)



[표 306] [의무배치기관] 자격증 소지자 주 담당 업무

		사례수 (곳)	교육프로그램 운영기획		교육프로그램 강사		일반행정 및 사무		공연 등 예술활동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208)	(139)	66.8	(104)	50.0	(89)	42.8	(37)	17.8
기관 유형	도서관	(23)	(8)	34.8	(17)	73.9	(3)	13.0	(0)	0.0
	박물관	(52)	(36)	69.2	(34)	65.4	(15)	28.8	(6)	11.5
	미술관	(20)	(15)	75.0	(10)	50.0	(5)	25.0	(1)	5.0
	문예회관	(48)	(37)	77.1	(18)	37.5	(28)	58.3	(11)	22.9
	문화의집	(9)	(6)	66.7	(3)	33.3	(6)	66.7	(2)	22.2
	전수회관	(42)	(29)	69.0	(21)	50.0	(20)	47.6	(17)	40.5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3)	(7)	53.8	(0)	0.0	(11)	84.6	(0)	0.0
	기 타	(1)	(1)	100.0	(1)	100.0	(1)	100.0	(0)	0.0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무배치기관(n=208),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의 주 담당 업무를 비교해본 결과, 2019년 대비 ‘교육프로그램 강사’와 ‘일반행정 및 사무’는 상승했으나, ‘교육프로그램 운영기획’과 ‘공연 등 예술활동’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7] [의무배치기관] 2019-202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주 담당 업무 비교 분석

		사례수 (곳)	교육프로그램 운영기획		교육프로그램 강사		일반행정 및 사무		공연 등 예술활동	
			%	GAP ³⁸⁾	%	GAP	%	GAP	%	GAP
전 체	2019년	(172)	72.1		48.3		40.7		20.9	
	2020년	(208)	66.8	-5.3	50.0	1.7	42.8	2.1	17.8	-3.1
도서관	2019년	(10)	80.0		40.0		20.0		20.0	
	2020년	(23)	34.8	-45.2	73.9	33.9	13.0	-7.0	0.0	-20.0
박물관	2019년	(36)	75.0		72.2		13.9		8.3	
	2020년	(52)	69.2	-5.8	<u>65.4</u>	-6.8	28.8	14.9	11.5	3.2
미술관	2019년	(19)	84.2		52.6		21.1		0.0	
	2020년	(20)	75.0	-9.2	50.0	-2.6	25.0	3.9	5.0	5.0
문예회관	2019년	(30)	73.3		20.0		73.3		13.3	
	2020년	(48)	<u>77.1</u>	3.8	37.5	17.5	58.3	-15.0	22.9	9.6
문화의집	2019년	(13)	53.8		30.8		38.5		0.0	
	2020년	(9)	66.7	12.9	33.3	2.5	66.7	28.2	22.2	22.2
전수회관	2019년	(26)	57.7		88.5		38.5		69.2	
	2020년	(42)	69.0	11.3	50.0	-38.5	47.6	9.1	40.5	-28.7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2019년	(15)	73.3		6.7		93.3		13.3	
	2020년	(13)	53.8	-19.5	0.0	-6.7	84.6	-8.7	0.0	-13.3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포함된 2020년 기준에 맞게 2019년 결과값을 재산출하였으며, 해당 2개년만 비교함
 ※ 기관구분 ‘기타’는 데이터를 집계하였으나, 2019년과 기관구분의 정의가 다르고, 사례수가 적어 시계열 분석에서 제외함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38)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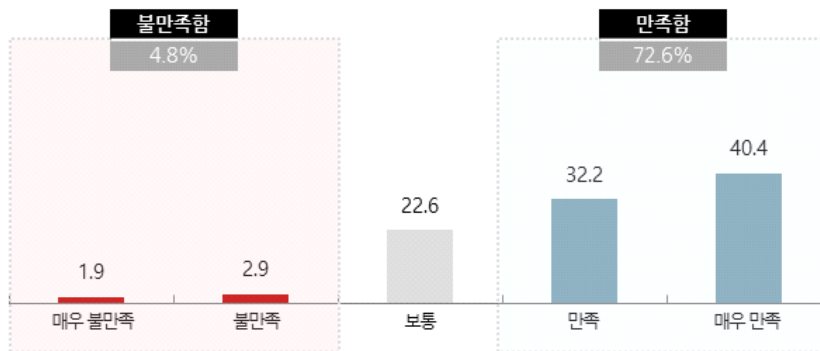
4) 자격증 소지자 업무 수행 만족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한 의무배치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자격증 비소지자와 비교해서 소지자의 관련 업무수행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2.6%(‘매우 만족한다’ 40.4% + ‘어느 정도 만족한다’ 32.2%)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문예회관의 문화예술교육사 소지자의 관련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4.19점(5점 만점 기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49]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소지자 업무 수행 만족도

(n=208, 단위 : %, 점(5점 만점))

평균:4.06점



[표 308]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소지자 업무 수행 만족도

		사례수 (곳)	①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② 별로 만족 하지 않는다	③ 보통 이다	④ 어느 정도 만족 한다	⑤ 매우 만족 한다	불만족함 (①+②)	만족함 (④+⑤)	5점 평균
			%	%	%	%	%	%	%	점
전 체		(208)	1.9	2.9	22.6	32.2	40.4	4.8	72.6	4.06
기관 유형	도서관	(23)	0.0	4.3	13.0	47.8	34.8	4.3	82.6	4.13
	박물관	(52)	1.9	1.9	25.0	25.0	46.2	3.8	71.2	4.12
	미술관	(20)	5.0	5.0	15.0	40.0	35.0	10.0	75.0	3.95
	문예회관	(48)	0.0	0.0	25.0	31.3	43.8	0.0	75.0	4.19
	문화의집	(9)	0.0	0.0	22.2	33.3	44.4	0.0	77.8	4.22
	전수회관	(42)	4.8	7.1	19.0	28.6	40.5	11.9	69.0	3.93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13)	0.0	0.0	38.5	38.5	23.1	0.0	61.5	3.85
	기 타	(1)	0.0	0.0	100.0	0.0	0.0	0.0	0.0	3.00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무배치기관(n=20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의 업무수행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2019년 대비 0.16점 상승하였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수회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자격증 소지자의 업무수행 만족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예회관에서 2019년 대비 0.52점 상승하여 가장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9] [의무배치기관] 2019-2020 문화예술교육사 소지자 업무 수행 만족도 비교 분석

		사례 수 (곳)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평 균 (5점 척도)	
			%	GAP ³⁹⁾	%	GAP	%	GAP	%	GAP	%	GAP	점	GAP
전 체	2019년	(172)	2.3		4.1		30.2		28.5		34.9		3.90	
	2020년	(208)	1.9	-0.4	2.9	-1.2	22.6	-7.6	32.2	3.7	40.4	5.5	4.06	0.16
도서관	2019년	(10)	0.0		10.0		40.0		20.0		30.0		3.70	
	2020년	(23)	0.0	0.0	4.3	-5.7	13.0	-27.0	47.8	27.8	34.8	4.8	4.13	0.43
박물관	2019년	(36)	0.0		2.8		19.4		47.2		30.6		4.06	
	2020년	(52)	1.9	1.9	1.9	-0.9	25.0	5.6	25.0	-22.2	46.2	15.6	4.12	0.06
미술관	2019년	(19)	0.0		0.0		42.1		26.3		31.6		3.89	
	2020년	(20)	5.0	5.0	5.0	5.0	15.0	-27.1	40.0	13.7	35.0	3.4	3.95	0.06
문예회관	2019년	(30)	3.3		0.0		46.7		26.7		23.3		3.67	
	2020년	(48)	0.0	-3.3	0.0	0.0	25.0	-21.7	31.3	4.6	43.8	20.5	4.19	0.52
문화의집	2019년	(13)	7.7		0.0		23.1		46.2		23.1		3.77	
	2020년	(9)	0.0	-7.7	0.0	0.0	22.2	-0.9	33.3	-12.9	44.4	21.3	4.22	0.45
전수회관	2019년	(26)	0.0		0.0		23.1		11.5		65.4		4.42	
	2020년	(42)	4.8	4.8	7.1	7.1	19.0	-4.1	28.6	17.1	40.5	-24.9	3.93	-0.49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2019년	(15)	0.0		20.0		33.3		40.0		6.7		3.33	
	2020년	(13)	0.0	0.0	0.0	-20.0	38.5	5.2	38.5	-1.5	23.1	16.4	3.85	0.52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포함된 2020년 기준에 맞게 2019년 결과값을 재산출하였으며, 해당 2개년만 비교함
 ※ 기관구분 ‘기타’는 데이터를 집계하였으나, 2019년과 기관구분의 정의가 다르고, 사례수가 적어 시계열 분석에서 제외함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39)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의 차이

바. 자격증 소지자 배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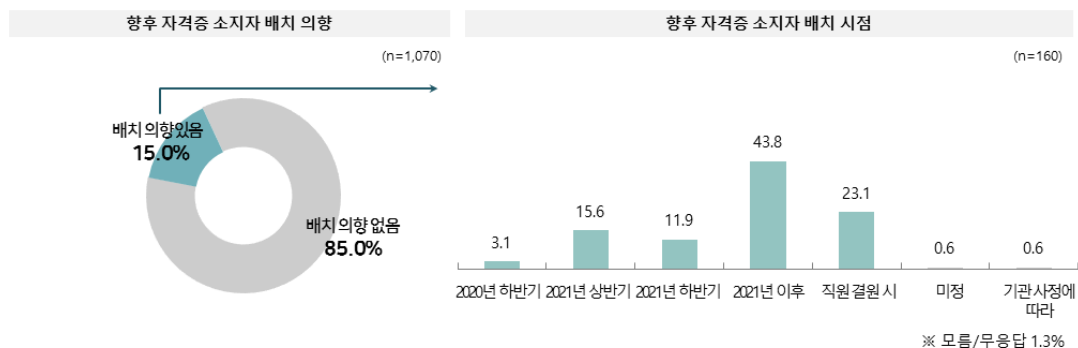
1)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있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지 않은 의무배치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15.0%가 ‘배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의사가 있는 의무배치기관의 대다수는 ‘1명’(81.9%)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자격증 소지자의 배치시점은 ‘2021년 이후’가 43.8%로 가장 높고, ‘직원 결원 시’(23.1%), ‘2021년 상반기’(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의향이 있는 기관의 배치 형태를 살펴본 결과, ‘기간제 근로자’(66.3%), ‘전일제 근로자’(59.4%), ‘비상근 근로자’(52.5%)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림 50] [의무배치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및 배치 시점

(단위 : %)



[표 310] [의무배치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사례수 (곳)	배치할 계획이 있다		배치할 계획이 없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070)	(160)	15.0	(910)	85.0
기관 유형	도서관	(629)	(68)	10.8	(561)	89.2
	박물관	(216)	(40)	18.5	(176)	81.5
	미술관	(31)	(14)	45.2	(17)	54.8
	문예회관	(116)	(16)	13.8	(100)	86.2
	문화의집	(47)	(13)	27.7	(34)	72.3
	전수회관	(25)	(8)	32.0	(17)	68.0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3)	(0)	0.0	(3)	100.0
	기 타	(3)	(1)	33.3	(2)	66.7

※ base : 2019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의무배치기관(n=1,07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표 311]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형태

		사례 수 (곳)	상근/비상근				기간제/무기계약직				전일제/단시간			
			상근		비상근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일제		단시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60)	(76)	47.5	(84)	52.5	(106)	66.3	(54)	33.8	(95)	59.4	(65)	40.6
기관 유형	도서관	(68)	(22)	32.4	(46)	67.6	(51)	75.0	(17)	25.0	(29)	42.6	(39)	57.4
	박물관	(40)	(19)	47.5	(21)	52.5	(27)	67.5	(13)	32.5	(28)	70.0	(12)	30.0
	미술관	(14)	(12)	85.7	(2)	14.3	(6)	42.9	(8)	57.1	(14)	100.0	(0)	0.0
	문예회관	(16)	(11)	68.8	(5)	31.3	(5)	31.3	(11)	68.8	(11)	68.8	(5)	31.3
	문화의집	(13)	(6)	46.2	(7)	53.8	(11)	84.6	(2)	15.4	(7)	53.8	(6)	46.2
	전수회관	(8)	(5)	62.5	(3)	37.5	(5)	62.5	(3)	37.5	(5)	62.5	(3)	37.5
	기타	(1)	(1)	100.0	(0)	0.0	(1)	100.0	(0)	0.0	(1)	100.0	(0)	0.0

※ base :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있는 의무배치기관(n=160)

[표 312] [의무배치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예상 인원 수

		사례수 (곳)	1명		2명		3명		평균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60)	(131)	81.9	(28)	17.5	(1)	0.6	1.2
기관 유형	도서관	(68)	(58)	85.3	(10)	14.7	(0)	0.0	1.1
	박물관	(40)	(34)	85.0	(5)	12.5	(1)	2.5	1.2
	미술관	(14)	(12)	85.7	(2)	14.3	(0)	0.0	1.1
	문예회관	(16)	(11)	68.8	(5)	31.3	(0)	0.0	1.3
	문화의집	(13)	(9)	69.2	(4)	30.8	(0)	0.0	1.3
	전수회관	(8)	(6)	75.0	(2)	25.0	(0)	0.0	1.3
	기타	(1)	(1)	100.0	(0)	0.0	(0)	0.0	1.0

※ base :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있는 의무배치기관(n=160)

[표 313] [의무배치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시점

		사례수 (곳)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1년 이후		직원 결원시		미정		기관 사정에 따라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	%
전 체		(160)	(5)	3.1	(25)	15.6	(19)	11.9	(70)	43.8	(37)	23.1	(1)	0.6	(1)	0.6
기 관 유 형	도서관	(68)	(0)	0.0	(8)	11.8	(11)	16.2	(27)	39.7	(20)	29.4	(0)	0.0	(1)	1.5
	박물관	(40)	(2)	5.0	(10)	25.0	(4)	10.0	(19)	47.5	(4)	10.0	(0)	0.0	(0)	0.0
	미술관	(14)	(1)	7.1	(4)	28.6	(1)	7.1	(7)	50.0	(1)	7.1	(0)	0.0	(0)	0.0
	문예회관	(16)	(1)	6.3	(0)	0.0	(0)	0.0	(8)	50.0	(7)	43.8	(0)	0.0	(0)	0.0
	문화의집	(13)	(1)	7.7	(1)	7.7	(1)	7.7	(5)	38.5	(5)	38.5	(0)	0.0	(0)	0.0
	전수회관	(8)	(0)	0.0	(2)	25.0	(2)	25.0	(4)	50.0	(0)	0.0	(0)	0.0	(0)	0.0
	기타	(1)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 base :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있는 의무배치기관(n=160), 모름/무응답 1.3%은 표에서 제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률은 2019년 대비 3.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문예회관에서의 배치 의향률이 2019년 대비 8.0% 하락하며, 가장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자격증 소지자를 미배치한 기관 3곳에서 모두 향후 배치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의무배치기관] 2019-2020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향 비교 분석

		사례수 (명)	배치할 의향이 있다		배치할 의향이 없다	
			%	GAP ⁴⁰⁾	%	GAP
전체	2019년	(774)	18.5		81.5	
	2020년	(1,070)	15.0	-3.5	85.0	3.5
도서관	2019년	(380)	9.5		90.5	
	2020년	(629)	10.8	1.3	89.2	-1.3
박물관	2019년	(155)	24.5		75.5	
	2020년	(216)	18.5	-6.0	81.5	6.0
미술관	2019년	(38)	44.7		55.3	
	2020년	(31)	45.2	0.5	54.8	-0.5
문예회관	2019년	(110)	21.8		78.2	
	2020년	(116)	13.8	-8.0	86.2	8.0
문화의 집	2019년	(50)	26.0		74.0	
	2020년	(47)	27.7	1.7	72.3	-1.7
전수회관	2019년	(38)	31.6		68.4	
	2020년	(25)	32.0	0.4	68.0	-0.4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2019년	(1)	100.0		0.0	
	2020년	(3)	0.0	-100.0	100.0	100.0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포함된 2020년 기준에 맞게 2019년 결과값을 재산출하였으며, 해당 2개년만 비교함
 ※ 기관구분 ‘기타’는 데이터를 집계하였으나, 2019년과 기관구분의 정의가 다르고, 사례수가 적어 시계열 분석에서 제외함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40)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와의 차이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계획 인원은 2019년과 동일한 평균 1.2명으로 나타났다.

[표 315] [의무배치기관] 2019-2020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계획 인원 수 비교 분석

		사례수 (곳)	1명		2명		3명		평 균	
			%	GAP ⁴¹⁾	%	GAP	%	GAP	명	GAP
전 체	2019년	(143)	82.5		14.0		2.1		1.2	
	2020년	(160)	81.9	-0.6	17.5	3.5	0.6	-1.5	1.2	0.0
도서관	2019년	(36)	88.9		8.3		2.8		1.1	
	2020년	(68)	85.3	-3.6	14.7	6.4	0.0	-2.8	1.1	0.0
박물관	2019년	(38)	76.3		13.2		5.3		1.4	
	2020년	(40)	85.0	8.7	12.5	-0.7	2.5	-2.8	1.2	-0.2
미술관	2019년	(17)	52.9		47.1		0.0		1.5	
	2020년	(14)	85.7	32.8	14.3	-32.8	0.0	0.0	1.1	-0.4
문예회관	2019년	(24)	95.8		4.2		0.0		1.0	
	2020년	(16)	68.8	-27.0	31.3	27.1	0.0	0.0	1.3	0.3
문화의집	2019년	(13)	100.0		0.0		0.0		1.0	
	2020년	(13)	69.2	-30.8	30.8	30.8	0.0	0.0	1.3	0.3
전수회관	2019년	(12)	83.3		16.7		0.0		1.2	
	2020년	(8)	75.0	-8.3	25.0	8.3	0.0	0.0	1.3	0.1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2019년	(1)	100.0		0.0		0.0		1.0	
	2020년	(0)	-	-	-	-	-	-	-	-

-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포함된 2020년 기준에 맞게 2019년 결과값을 재산출하였으며, 해당 2개년만 비교함
 ※ 기관구분 ‘기타’는 데이터를 집계하였으나, 2019년과 기관구분의 정의가 다르고, 사례수가 적어 시계열 분석에서 제외함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41)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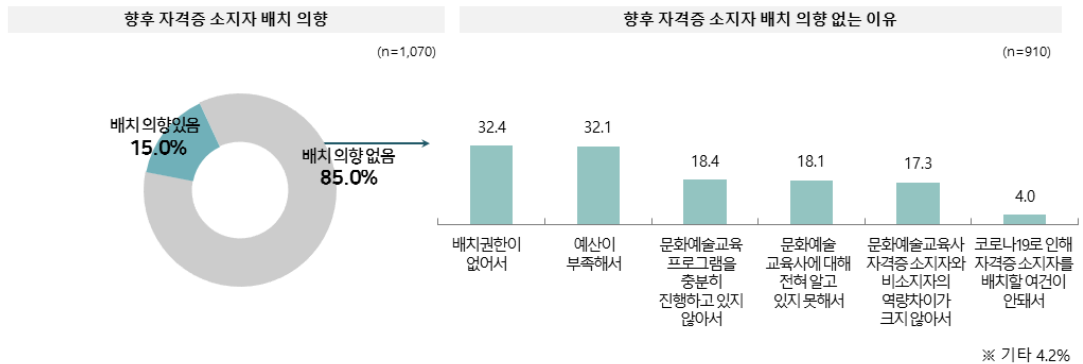
2)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향이 없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지 않은 의무배치기관의 85.0%는 향후에도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로 ‘배치 권한이 없어서’가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예산이 부족해서’(32.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18.4%),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18.1%) 등의 순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문화예술교육사의 필요성이 떨어져서’ 등이 있었다.

[그림 51] [의무배치기관] 배치의향이 없는 이유

(복수응답, 단위 : %)



[표 316] [의무배치기관] 배치의향이 없는 이유

		사례 수 (곳)	배치 권한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문화예술 교육사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		코로나 19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여건이 안돼서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910)	(295)	32.4	(292)	32.1	(167)	18.4	(165)	18.1	(157)	17.3	(36)	4.0
기관 유형	도서관	(561)	(190)	33.9	(185)	33.0	(81)	14.4	(134)	23.9	(102)	18.2	(25)	4.5
	박물관	(176)	(58)	33.0	(50)	28.4	(42)	23.9	(13)	7.4	(37)	21.0	(6)	3.4
	미술관	(17)	(0)	0.0	(11)	64.7	(3)	17.6	(1)	5.9	(0)	0.0	(1)	5.9
	문예회관	(100)	(34)	34.0	(27)	27.0	(33)	33.0	(10)	10.0	(8)	8.0	(1)	1.0
	문화의집	(34)	(12)	35.3	(11)	32.4	(4)	11.8	(6)	17.6	(3)	8.8	(1)	2.9
	전수회관	(17)	(0)	0.0	(8)	47.1	(2)	11.8	(1)	5.9	(6)	35.3	(2)	11.8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3)	(1)	33.3	(0)	0.0	(1)	33.3	(0)	0.0	(1)	33.3	(0)	0.0
	기 타	(2)	(0)	0.0	(0)	0.0	(1)	50.0	(0)	0.0	(0)	0.0	(0)	0.0

※ base :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없는 의무배치기관(n=910), 복수응답, 기타 4.2%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019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를 이유로 향후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20년에는 ‘배치 권한이 없어서’가 2019년 대비 12.0% 상승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는 소폭 하락하였고,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는 소폭 상승하여 2019년 대비 배치의향이 없는 이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의무배치기관] 2019-2020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의향 없는 이유 비교 분석

		사례수 (곳)	배치 권한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 하고 있지 않아서		문화예술 교육사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		코로나 19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여건이 안돼서	
			%	GAP	%	GAP	%	GAP	%	GAP	%	GAP	%	GAP
전 체	2019년	(631)	20.4		35.7		23.8		15.5		21.1			
	2020년	(910)	32.4	12.0	32.1	-3.6	18.4	-5.4	18.1	2.6	17.3	-3.8	4.0	-
도서관	2019년	(344)	27.9		36.6		15.7		19.2		20.6			
	2020년	(561)	33.9	6.0	33.0	-3.6	14.4	-1.3	<u>23.9</u>	4.7	18.2	-2.4	4.5	-
박물관	2019년	(117)	9.4		31.6		33.3		16.2		23.1			
	2020년	(176)	33.0	23.6	28.4	-3.2	<u>23.9</u>	-9.4	7.4	-8.8	<u>21.0</u>	-2.1	3.4	-
미술관	2019년	(21)	33.3		47.6		4.8		4.8		28.6			
	2020년	(17)	0.0	-33.3	64.7	17.1	17.6	12.8	5.9	1.1	0.0	-28.6	5.9	-
문예회관	2019년	(86)	9.3		31.4		45.3		7.0		15.1			
	2020년	(100)	34.0	24.7	27.0	-4.4	33.0	-12.3	10.0	3.0	8.0	-7.1	1.0	-
문화의집	2019년	(37)	13.5		37.8		18.9		13.5		24.3			
	2020년	(34)	<u>35.3</u>	21.8	32.4	-5.4	11.8	-7.1	17.6	4.1	8.8	-15.5	2.9	-
전수회관	2019년	(26)	7.7		42.3		38.5		3.8		26.9			
	2020년	(17)	0.0	-7.7	47.1	4.8	11.8	-26.7	5.9	2.1	35.3	8.4	11.8	-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2019년	(0)	-		-		-		-		-		-	
	2020년	(3)	33.3	-	0.0	-	33.3	-	0.0	-	33.3	-	0.0	-

-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포함된 2020년 기준에 맞게 2019년 결과값을 재산출하였으며, 해당 2개년만 비교함
- ※ ‘배치 권한이 없어서’는 보기에는 없으나 응답 비율이 높아 기타에서 제외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여건이 안돼서’는 2020년 조사에서 새로 추가된 보기임
- ※ 기관구분 ‘기타’는 데이터를 집계하였으나, 2019년과 기관구분의 정의가 다르고, 사례수가 적어 시계열 분석에서 제외함
-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사.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⁴²⁾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13.5%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 23.2%, ‘미정이다’ 63.3%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서관을 제외한 의무배치기관에서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응답한 16개 기관 중 10개 기관(62.5%)이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318]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

		사례수 (곳)	그렇다		그렇지 않다		미정이다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278)	(173)	13.5	(296)	23.2	(809)	63.3
기관 유형	도서관	(652)	(33)	5.1	(172)	26.4	(447)	68.6
	박물관	(268)	(47)	17.5	(48)	17.9	(173)	64.6
	미술관	(51)	(17)	33.3	(9)	17.6	(25)	49.0
	문예회관	(164)	(28)	17.1	(45)	27.4	(91)	55.5
	문화의집	(56)	(11)	19.6	(7)	12.5	(38)	67.9
	전수회관	(67)	(26)	38.8	(12)	17.9	(29)	43.3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6)	(10)	62.5	(2)	12.5	(4)	25.0
	기 타	(4)	(1)	25.0	(1)	25.0	(2)	50.0

※ base : 전체(n=1,27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42) 문화시설이 청년 문화예술교육사(만 39세 미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후 3년 이하인 자)를 문화시설에 배치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현장 실무경험 확대 및 경력 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1) 원활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을 위한 필요사항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본 사업 운영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별 협력체계 강화’(18.5%), ‘컨설팅 강화’(12.1%), ‘대외 홍보 지원’(6.9%)이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박물관(63.8%)과 도서관(63.6%)에서 ‘본 사업 운영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과 ‘기본적 교육 이수’가 있었다.

[표 319] [의무배치기관] 원활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을 위한 필요사항

		사례수 (곳)	본 사업 운영인력 지원		지역별 협력 체계 강화		컨설팅 강화		대외 홍보 지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73)	(104)	60.1	(32)	18.5	(21)	12.1	(12)	6.9
기관 유형	도서관	(33)	(21)	63.6	(8)	24.2	(3)	9.1	(1)	3.0
	박물관	(47)	(30)	63.8	(8)	17.0	(6)	12.8	(2)	4.3
	미술관	(17)	(13)	76.5	(2)	11.8	(0)	0.0	(1)	5.9
	문예회관	(28)	(15)	53.6	(4)	14.3	(5)	17.9	(2)	7.1
	문화의집	(11)	(2)	18.2	(5)	45.5	(3)	27.3	(1)	9.1
	전수회관	(26)	(17)	65.4	(4)	15.4	(2)	7.7	(3)	11.5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10)	(6)	60.0	(1)	10.0	(2)	20.0	(1)	10.0
	기 타	(1)	(0)	0.0	(0)	0.0	(0)	0.0	(1)	100.0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 있는 의무배치기관(n=173), 기타 2.3%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이 없는 이유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 ‘본 사업 운영인력이 없어서’(43.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34.8%), ‘문화예술교육사 모집이 힘들 것 같아서’(23.6%)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본 사업 운영인력이 없어서’는 도서관(52.9%)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는 문예회관(44.4%)과 박물관(41.7%)에서, ‘문화예술교육사 모집이 힘들 것 같아서’는 문예회관(2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응답으로는 ‘현재 인력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사업참여 결정권한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 이전/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휴관중이라서’가 있었다.

[표 320]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이 없는 이유

		사례수 (곳)	본 사업 운영인력이 없어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문화예술교육사 모집이 힘들 것 같아서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296)	(130)	43.9	(103)	34.8	(70)	23.6
기관 유형	도서관	(172)	(91)	52.9	(55)	32.0	(42)	24.4
	박물관	(48)	(14)	29.2	(20)	41.7	(12)	25.0
	미술관	(9)	(7)	77.8	(2)	22.2	(0)	0.0
	문예회관	(45)	(12)	26.7	(20)	44.4	(12)	26.7
	문화의집	(7)	(5)	71.4	(3)	42.9	(2)	28.6
	전수회관	(12)	(1)	8.3	(1)	8.3	(2)	16.7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2)	(0)	0.0	(1)	50.0	(0)	0.0
	기 타	(1)	(0)	0.0	(1)	100.0	(0)	0.0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 없는 의무배치기관(n=296), 기타 11.8%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아. 의무배치기관의 배치율 및 배치의향률 심층 분석

의무배치기관의 배치율 및 배치의향률을 여러 변수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술관, 문예회관, 전수회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배치율과 배치의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기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치율과 배치의향률이 높았으며, 프로그램 횟수별로 살펴보면,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1~5회’인 기관에서 배치율과 배치의향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운영 횟수가 적을수록 배치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321] [의무배치기관] 배치율 및 배치의향률

		배치율		배치의향률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278)	16.3	(1,070)	15.0
기관 유형	도서관	(652)	3.5	(629)	10.8
	박물관	(268)	19.4	(216)	18.5
	미술관	(51)	<u>39.2</u>	(31)	<u>45.2</u>
	문예회관	(164)	<u>29.3</u>	(116)	13.8
	문화의집	(56)	16.1	(47)	<u>27.7</u>
	전수회관	(67)	<u>62.7</u>	(25)	<u>32.0</u>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6)	<u>81.3</u>	(3)	0.0
	기 타	(4)	25.0	(3)	33.3
프로그램 유형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254)	<u>33.5</u>	(169)	18.3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187)	<u>36.9</u>	(118)	<u>22.0</u>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	(548)	19.0	(444)	14.4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	(627)	11.5	(555)	13.7
	기타	(3)	33.3	(2)	100.0
프로그램 운영 횟수	1~5회	(357)	<u>23.5</u>	(273)	<u>18.3</u>
	6~10회	(237)	17.7	(195)	14.9
	11~20회	(186)	14.0	(160)	14.4
	21회 이상	(175)	16.0	(147)	15.6

※ base : 전체(n=1,27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기관유형별로 프로그램 유형을 살펴보면 자격소지자 배치율과 배치의향률이 높게 나타난 미술관, 문예회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실기교육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응답한 의무배치기관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도서관과 박물관은 ‘소양/교양 프로그램’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프로그램에서 자격소지자의 배치율과 배치의향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미술관, 문예회관, 전수회관은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1~5회’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주로 ‘실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자격소지자 배치율과 배치의향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2] [의무배치기관] 기관유형별 운영중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사례수	장르별 예술 실기 교육 프로그램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
전 체		(955)	26.6	19.6	57.4	65.7
기관 유형	도서관	(564)	16.7	14.5	56.6	84.6
	박물관	(171)	17.5	14.6	78.9	45.6
	미술관	(37)	56.8	27.0	32.4	35.1
	문예회관	(86)	69.8	48.8	39.5	38.4
	문화의집	(34)	61.8	29.4	29.4	38.2
	전수회관	(49)	42.9	18.4	51.0	4.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2)	50.0	66.7	100.0	75.0
	기 타	(2)	50.0	50.0	50.0	100.0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n=955)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표 323] [의무배치기관] 기관유형별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횟수

		사례수	1~5회	6~10회	11~20회	21회 이상
전 체		(955)	37.4	24.8	19.5	18.3
기관 유형	도서관	(564)	29.3	25.5	22.5	22.7
	박물관	(171)	48.5	25.7	13.5	12.3
	미술관	(37)	73.0	16.2	5.4	5.4
	문예회관	(86)	41.9	29.1	18.6	10.5
	문화의집	(34)	23.5	26.5	35.3	14.7
	전수회관	(49)	71.4	12.2	2.0	14.3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2)	16.7	25.0	41.7	16.7
	기 타	(2)	50.0	0.0	0.0	50.0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n=955)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도서관은 84.6%가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인지율은 29.4%로 나타났다. 향후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의향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가 23.9%로 나타났다.

박물관은 78.9%가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인지율은 60.8%로 나타났다. 향후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의향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23.9%),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21.0%)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24] [의무배치기관] 기관유형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인지율

		사례수	인지	비인지
전 체		(1,278)	46.9	53.1
기관 유형	도서관	(652)	29.4	70.6
	박물관	(268)	60.8	39.2
	미술관	(51)	86.3	13.7
	문예회관	(164)	63.4	36.6
	문화의집	(56)	48.2	51.8
	전수회관	(67)	76.1	23.9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6)	100.0	0.0
	기 타	(4)	75.0	25.0

※ base : 전체(n=1,27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표 325] [의무배치기관] 기관유형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없는 이유

		사례수	배치 권한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문화예술 교육사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	코로나 19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여건이 안돼서
전 체		(910)	32.4	32.1	18.4	18.1	17.3	4.0
기관 유형	도서관	(561)	33.9	33.0	14.4	23.9	18.2	4.5
	박물관	(176)	33.0	28.4	23.9	7.4	21.0	3.4
	미술관	(17)	0.0	64.7	17.6	5.9	0.0	5.9
	문예회관	(100)	34.0	27.0	33.0	10.0	8.0	1.0
	문화의집	(34)	35.3	32.4	11.8	17.6	8.8	2.9
	전수회관	(17)	0.0	47.1	11.8	5.9	35.3	11.8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3)	33.3	0.0	33.3	0.0	33.3	0.0
	기 타	(2)	0.0	0.0	50.0	0.0	0.0	0.0

※ base :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기관 중 향후 배치 의향 없는 기관(n=91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Ⅲ. 문화예술 관련 기관_문화예술 관련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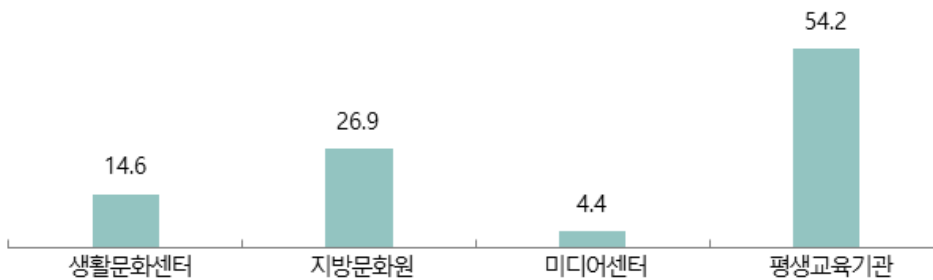
3. 문화예술 관련 기관

가. 기관유형

문화예술 관련 기관 중 응답률은 ‘평생교육기관’(54.2%), ‘지방문화원’(26.9%), ‘생활문화센터’(14.6%), ‘미디어센터’(4.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2] [문화예술 관련 기관] 소속기관 유형

(n=618, 단위 : %)



[표 326] [문화예술 관련 기관] 소속기관 유형

		사례수	%
전 체		(618)	100.0
기관유형	생활문화센터	(90)	14.6
	지방문화원	(166)	26.9
	미디어센터	(27)	4.4
	평생교육기관	(335)	54.2

※ base : 전체(n=618)

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전체 응답기관 618곳 중에서 512곳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기관 대비 82.8%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평생교육기관’이 8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지방문화원’(84.3%), ‘생활문화센터’(66.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7]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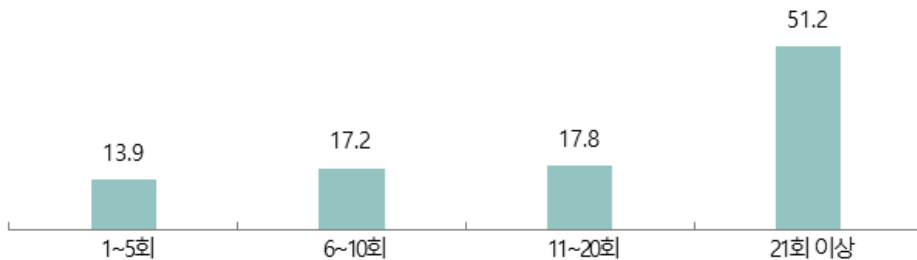
		사례수 (곳)	예		아니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618)	(512)	82.8	(106)	17.2
기관 유형	생활문화센터	(90)	(60)	66.7	(30)	33.3
	지방문화원	(166)	(140)	84.3	(26)	15.7
	미디어센터	(27)	(22)	81.5	(5)	18.5
	평생교육기관	(335)	(290)	86.6	(45)	13.4

※ base : 전체(n=618)

1)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21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11~20회’(17.8%), ‘6~10회’(17.2%), ‘1~5회’(13.9%)의 순이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문화센터는 연간‘1~5회’(20.0%), 지방문화원은 연간 ‘11~20회’(24.3%)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53] [문화예술 관련 기관]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횟수
(n=512, 단위 : %)



[표 328] [문화예술 관련 기관]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횟수

		사례수 (곳)	1~5회		6~10회		11~20회		21회 이상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12)	(71)	13.9	(88)	17.2	(91)	17.8	(262)	51.2
기관 유형	생활문화센터	(60)	(12)	20.0	(10)	16.7	(9)	15.0	(29)	48.3
	지방문화원	(140)	(20)	14.3	(21)	15.0	(34)	24.3	(65)	46.4
	미디어센터	(22)	(3)	13.6	(5)	22.7	(2)	9.1	(12)	54.5
	평생교육기관	(290)	(36)	12.4	(52)	17.9	(46)	15.9	(156)	53.8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관련 기관(n=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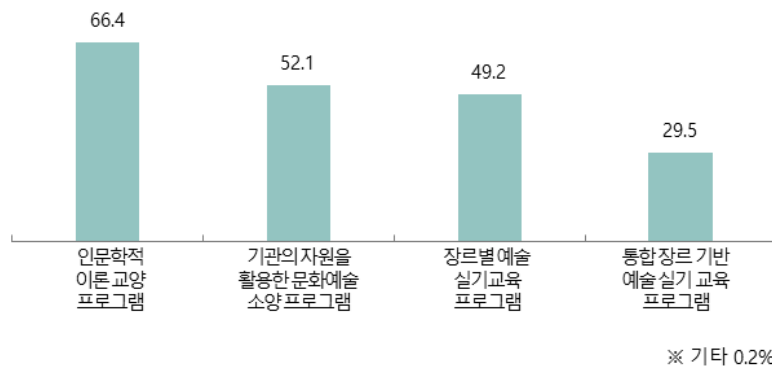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유형을 살펴본 결과,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이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52.1%),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49.2%),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29.5%)의 순이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문화센터는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 예술 소양 프로그램’(56.7%), ‘장르별 예술 실기 교육 프로그램’(56.7%), ‘통합 장르 기반 예술실기교육 프로그램’(36.7%), 평생교육기관은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78.6%)을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54]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n=512, 복수응답, 단위 : %)



[표 329]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사례 수 (곳)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12)	(340)	66.4	(267)	52.1	(252)	49.2	(151)	29.5
기 관 유 형	생활문화센터	(60)	(29)	48.3	(34)	<u>56.7</u>	<u>56.7</u>	(22)	<u>36.7</u>
	지방문화원	(140)	(78)	55.7	(70)	50.0	<u>54.3</u>	(41)	29.3
	미디어센터	(22)	(5)	22.7	(17)	77.3	45.5	(6)	27.3
	평생교육기관	(290)	(228)	<u>78.6</u>	(146)	50.3	45.5	(82)	28.3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관련 기관(n=512), 복수응답, 기타 0.2%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이 ‘문화예술교육강사’라는 응답이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46.1%), ‘기관 외부 전문가’(32.0%),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비담당자’(27.1%) 등의 순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평생교육사가 있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예술 교육강사’(61.7%),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53.3%), ‘기관 외부 전문가’(50.0%), 지방문화원은 ‘문화예술교육강사’(60.7%)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330]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사례 수 (곳)	문화예술 교육강사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기관 외부 전문가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비담당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12)	(284)	55.5	(236)	46.1	(164)	32.0	(139)	27.1
기 관 유 형	생활문화센터	(60)	(37)	61.7	(32)	53.3	(30)	50.0	(18)	30.0
	지방문화원	(140)	(85)	60.7	(56)	40.0	(44)	31.4	(37)	26.4
	미디어센터	(22)	(13)	59.1	(13)	59.1	(9)	40.9	(2)	9.1
	평생교육기관	(290)	(149)	51.4	(135)	46.6	(81)	27.9	(82)	28.3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관련 기관(n=512), 복수응답, 기타 0.6%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기관 외부 전문가’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율이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강사’(27.8%),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16.5%),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비담당자’(4.3%)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문화센터는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40.6%)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31]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율

	기관 외부 전문가			문화예술교육강사			기관 내부 문화예술 교육 담당자			기관 내부 문화예술 교육 비담당자		
	전 체	사례수	%	전 체	사례수	%	전 체	사례수	%	전 체	사례수	%
전 체	(164)	(39)	23.8	(284)	(79)	27.8	(236)	(39)	16.5	(139)	(6)	4.3
생활문화센터	(30)	(8)	26.7	(37)	(12)	32.4	(32)	(13)	40.6	(18)	(2)	11.1
지방문화원	(44)	(16)	36.4	(85)	(33)	38.8	(56)	(10)	17.9	(37)	(2)	5.4
미디어센터	(9)	(1)	11.1	(13)	(3)	23.1	(13)	(3)	23.1	(2)	(0)	0.0
평생교육기관	(81)	(14)	17.3	(149)	(31)	20.8	(135)	(13)	9.6	(82)	(2)	2.4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인력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다. 문화예술교육사 인지도

문화예술교육사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46.1%가 알고 있었으며, 53.9%는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지율을 살펴보면, 생활문화센터가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지방문화원’(54.8%), ‘평생교육기관’(38.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2]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인지 여부

		사례수 (곳)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618)	(285)	46.1	(333)	53.9
기관 유형	생활문화센터	(90)	(50)	55.6	(40)	44.4
	지방문화원	(166)	(91)	54.8	(75)	45.2
	미디어센터	(27)	(16)	59.3	(11)	40.7
	평생교육기관	(335)	(128)	38.2	(207)	61.8

※ base : 전체(n=61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라. 자격증 소지자 배치 현황

1)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전체 응답기관 618곳 중에서 94곳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기관 대비 15.2%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지방문화원 42곳, 생활문화센터 23곳, 평생교육기관 23곳으로 나타났다.

[표 333]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사례수 (곳)	예		아니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618)	(94)	15.2	(524)	84.8
기관 유형	생활문화센터	(90)	(23)	25.6	(67)	74.4
	지방문화원	(166)	(42)	25.3	(124)	74.7
	미디어센터	(27)	(6)	22.2	(21)	77.8
	평생교육기관	(335)	(23)	6.9	(312)	93.1

※ base : 전체(n=61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 자격증 소지자 인력 현황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배치인원을 살펴본 결과, 배치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는 총 655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비정규직이 524명(80.0%), 정규직이 131명(20.0%)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으로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인원

		사례수 (곳)	정규직	비정규직	총 배치인원
			합계(명)	합계(명)	합계(명)
전 체		(94)	131	524	655
기관유형	생활문화센터	(23)	19	67	86
	지방문화원	(42)	70	161	231
	미디어센터	(6)	7	84	91
	평생교육기관	(23)	35	212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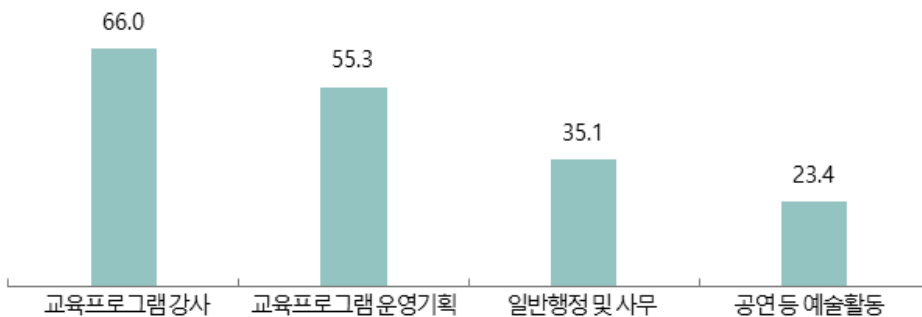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문화예술 관련 기관(n=94)

3) 자격증 소지자 주 담당 업무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 배치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의 주 담당 업무는 ‘교육프로그램 강사’가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기획’(55.3%), ‘일반행정 및 사무’(35.1%), ‘공연 등 예술활동’(23.4%)의 순이었다. 기관유형별로 자격증 소지자의 주 담당 업무를 살펴보면, 지방문화원은 ‘교육프로그램 강사’(71.4%)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5] [문화예술 관련 기관] 자격증 소지자 주 담당 업무

(n=94, 복수응답, 단위 : %)



[표 335] [문화예술 관련 기관] 자격증 소지자 주 담당 업무

		사례수 (곳)	교육프로그램 강사		교육프로그램 운영기획		일반행정 및 사무		공연 등 예술활동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94)	(62)	66.0	(52)	55.3	(33)	35.1	(22)	23.4
기 관 유 형	생활문화센터	(23)	(11)	47.8	(15)	65.2	(14)	60.9	(7)	30.4
	지방문화원	(42)	(30)	71.4	(20)	47.6	(10)	23.8	(13)	31.0
	미디어센터	(6)	(3)	50.0	(5)	83.3	(3)	50.0	(0)	0.0
	평생교육기관	(23)	(18)	78.3	(12)	52.2	(6)	26.1	(2)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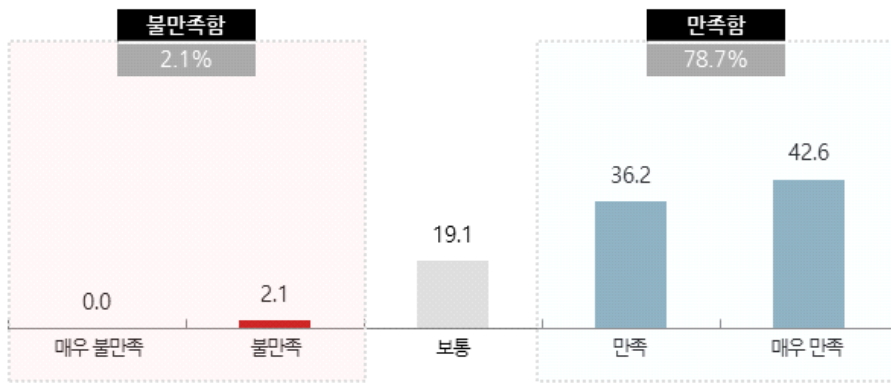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문화예술 관련 기관(n=94), 복수응답

4) 자격증 소지자 업무 수행 만족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자격증 비소지자와 비교해서 소지자의 관련 업무수행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8.7%(‘매우 만족한다’ 42.6% + ‘어느 정도 만족한다’ 36.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6]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소지자 업무 수행 만족도
(n=94, 단위 : %, 점(5점 만점))

평균: 4.19점



[표 336]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소지자 업무 수행 만족도

		사례 수 (곳)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불만족함 (①+②)	만족함 (④+⑤)	5점 평균
			%	%	%	%	%	%	%	점
전 체		(94)	0.0	2.1	19.1	36.2	42.6	2.1	78.7	4.19
기관 유형	생활문화센터	(23)	0.0	4.3	21.7	43.5	30.4	4.3	73.9	4.00
	지방문화원	(42)	0.0	2.4	19.0	28.6	50.0	2.4	78.6	4.26
	미디어센터	(6)	0.0	0.0	16.7	33.3	50.0	0.0	83.3	4.33
	평생교육기관	(23)	0.0	0.0	17.4	43.5	39.1	0.0	82.6	4.22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문화예술 관련 기관(n=94)

마. 자격증 소지자 배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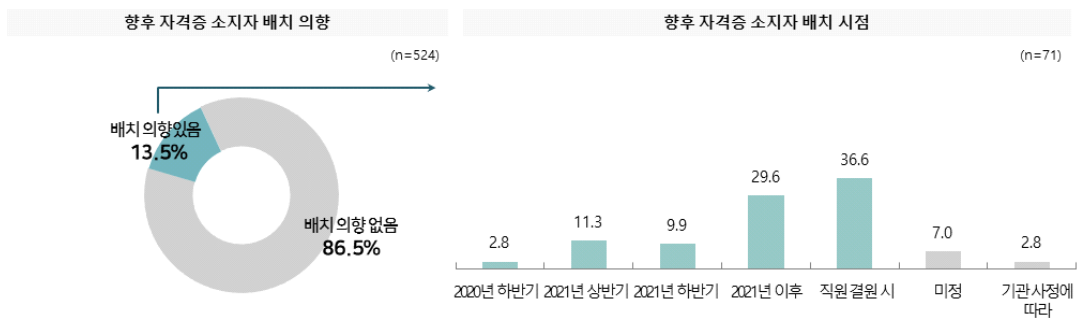
1)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향이 있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지 않은 문화예술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의향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13.5%가 ‘배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의사가 있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다수는 ‘1명’(59.2%)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자격증 소지자의 배치시점은 ‘직원 결원 시’가 36.6%로 가장 높고, ‘2021년 이후’(29.6%), ‘2021년 상반기’(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형태로는 ‘기간제 근로자’(62.0%)와 ‘단시간 근로자’(53.5%), ‘비상근 근로자’(50.7%)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57] [문화예술 관련 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및 배치 시점

(단위 : %)



[표 337] [문화예술 관련 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사례수 (곳)	배치할 계획이 있다		배치할 계획이 없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24)	(71)	13.5	(453)	86.5
기관 유형	생활문화센터	(67)	(21)	31.3	(46)	68.7
	지방문화원	(124)	(22)	17.7	(102)	82.3
	미디어센터	(21)	(5)	23.8	(16)	76.2
	평생교육기관	(312)	(23)	7.4	(289)	92.6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문화예술 관련 기관(n=52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표 338]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형태

		사례수 (곳)	상근/비상근				기간제/무기계약직				전일제/단시간			
			상근		비상근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일제		단시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71)	(35)	49.3	(36)	50.7	(44)	62.0	(27)	38.0	(33)	46.5	(38)	53.5
기 관 유 형	생활문화센터	(21)	(11)	52.4	(10)	47.6	(14)	66.7	(7)	33.3	(8)	38.1	(13)	61.9
	지방문화원	(22)	(13)	59.1	(9)	40.9	(13)	59.1	(9)	40.9	(13)	59.1	(9)	40.9
	미디어센터	(5)	(2)	40.0	(3)	60.0	(5)	100.0	(0)	0.0	(3)	60.0	(2)	40.0
	평생교육기관	(23)	(9)	39.1	(14)	60.9	(12)	52.2	(11)	47.8	(9)	39.1	(14)	60.9

※ base :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있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n=71)

[표 339] [문화예술 관련 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예상 인원 수

		사례수 (곳)	1 명		2 명		3 명 이상		미정		평균 명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71)	(42)	59.2	(17)	23.9	(4)	5.6	(7)	9.9	1.6
기 관 유 형	생활문화센터	(21)	(10)	47.6	(6)	28.6	(4)	9.5	(2)	9.5	1.7
	지방문화원	(22)	(16)	72.7	(4)	18.2	(0)	9.1	(0)	0.0	1.9
	미디어센터	(5)	(5)	100.0	(0)	0.0	(0)	0.0	(0)	0.0	1.0
	평생교육기관	(23)	(11)	47.8	(7)	30.4	(0)	0.0	(5)	21.7	1.4

※ base :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있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n=71), 모름/무응답 1.4% 표에서 제외

[표 340] [문화예술 관련 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시점

		사례수 (곳)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1년 이후		직원 결원시		미정		기관 사정에 따라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71)	(2)	2.8	(8)	11.3	(7)	9.9	(21)	29.6	(26)	36.6	(5)	7.0	(2)	2.8
기 관 유 형	생활문화센터	(21)	(0)	0.0	(2)	9.5	(4)	19.0	(6)	28.6	(7)	33.3	(1)	4.8	(1)	4.8
	지방문화원	(22)	(1)	4.5	(3)	13.6	(1)	4.5	(6)	27.3	(10)	45.5	(1)	4.5	(0)	0.0
	미디어센터	(5)	(0)	0.0	(0)	0.0	(1)	20.0	(2)	40.0	(2)	40.0	(0)	0.0	(0)	0.0
	평생교육기관	(23)	(1)	4.3	(3)	13.0	(1)	4.3	(7)	30.4	(7)	30.4	(3)	13.0	(1)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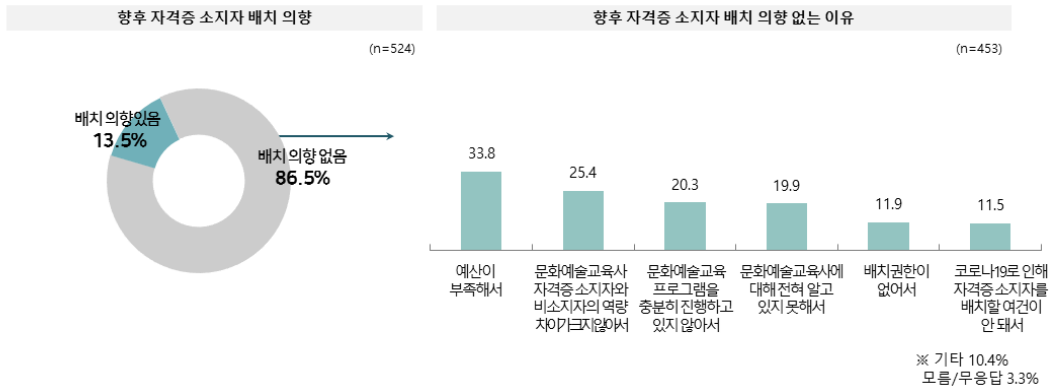
※ base :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있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n=71)

2)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향이 없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지 않은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86.5%는 향후에도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로 ‘예산이 부족해서’가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25.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2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현 인원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해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필요성이 떨어져서’가 있었다.

[그림 58]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배치의향이 없는 이유

(복수응답, 단위 : %)



[표 341]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배치의향이 없는 이유

		사례 수 (곳)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문화예술 교육사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		배치 권한이 없어서		코로나 19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여건이 안 돼서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453)	(153)	33.8	(115)	25.4	(92)	20.3	(90)	19.9	(54)	11.9	(52)	11.5
기 관 유 형	생활문화센터	(46)	(17)	37.0	(11)	23.9	(15)	32.6	(11)	23.9	(3)	6.5	(5)	10.9
	지방문화원	(102)	(58)	56.9	(32)	31.4	(20)	19.6	(17)	16.7	(12)	11.8	(15)	14.7
	미디어센터	(16)	(2)	12.5	(6)	37.5	(4)	25.0	(3)	18.8	(5)	31.3	(0)	0.0
	평생교육기관	(289)	(76)	26.3	(66)	22.8	(53)	18.3	(59)	20.4	(34)	11.8	(32)	11.1

※ base :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없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n=453), 복수응답

※ 기타 10.4%, 없음, 모름/무응답 3.3%는 표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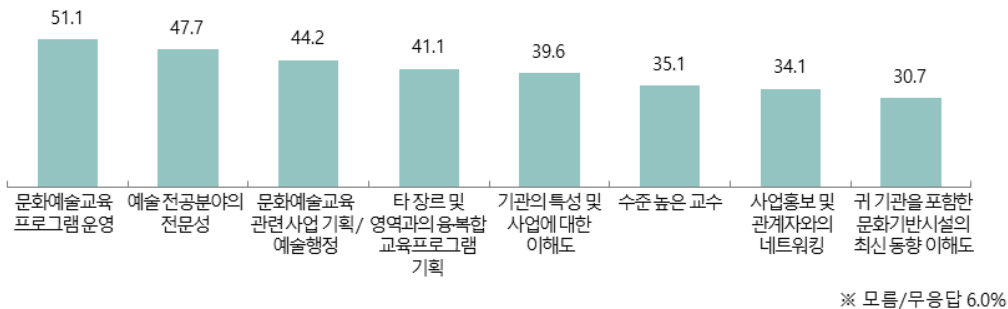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바.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필요로 하는 역량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그다음으로는 ‘예술 전공분야의 전문성’ (47.7%),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기획/예술행정’(44.2%), ‘타 장르 및 영역과의 융·복합 교육프로그램 기획’(41.1%), ‘기관의 특성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39.6%), ‘수준 높은 교수’(35.1%) 등의 순이었다.

[그림 59]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n=618, 복수응답, 단위 : %)



[표 342]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사례수 (곳)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술 전공 분야의 전문성	문화예술 교육 관련 사업기획/ 예술행정	타 장르 및 영역과의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기획	기관의 특성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수준 높은 교수	사업홍보/ 관계자 와의 네트워킹	귀 기관을 포함한 문화기반 시설의 최신 동향 이해도
			%	%	%	%	%	%	%	%
전 체		(618)	51.1	47.7	44.2	41.1	39.6	35.1	34.1	30.7
기 관 유 형	생활문화센터	(90)	57.8	40.0	36.7	41.1	41.1	30.0	35.6	28.9
	지방문화원	(166)	59.0	49.4	53.6	36.7	38.0	34.9	34.9	29.5
	미디어센터	(27)	55.6	70.4	33.3	33.3	48.1	51.9	40.7	40.7
	평생교육기관	(335)	45.1	47.2	42.4	43.9	39.4	35.2	32.8	31.0

※ base : 전체(n=618), 복수응답, 모름/무응답 6.0%은 표에서 제외

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배치율 및 배치의향률 심층 분석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배치율 및 배치의향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문화센터와 지방문화원에서 배치율과 배치의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기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치율과 배치의향률이 높았다.

[표 343]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배치율 및 배치의향률

		배치율		배치의향률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618)	15.2	(524)	13.5
기관 유형	생활문화센터	(90)	<u>25.6</u>	(67)	<u>31.3</u>
	지방문화원	(166)	<u>25.3</u>	(124)	17.7
	미디어센터	(27)	<u>22.2</u>	(21)	<u>23.8</u>
	평생교육기관	(335)	6.9	(312)	7.4
프로그램 유형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252)	<u>20.2</u>	(201)	<u>15.9</u>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151)	<u>19.9</u>	(121)	14.0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	(267)	18.0	(219)	15.5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	(340)	15.6	(287)	11.8
	기타	(1)	0.0	(1)	0.0
프로그램 운영 횟수	1~5회	(71)	15.5	(60)	<u>16.7</u>
	6~10회	(88)	<u>20.5</u>	(70)	12.9
	11~20회	(91)	15.4	(77)	<u>19.5</u>
	21회 이상	(262)	18.3	(214)	13.1

※ base : 전체(n=61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기관유형별로 프로그램 유형을 살펴보면 자격소지자 배치율과 배치의향률이 높게 나타난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은 ‘실기교육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배치율과 배치의향률이 낮게 나타난 평생교육기관은 ‘교양/소양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344]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사례 수 (곳)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12)	(340)	66.4	(267)	52.1	(252)	49.2	(151)	29.5
기 관 유 형	생활문화센터	(60)	(29)	48.3	(34)	56.7	(34)	56.7	(22)	36.7
	지방문화원	(140)	(78)	55.7	(70)	50.0	(76)	54.3	(41)	29.3
	미디어센터	(22)	(5)	22.7	(17)	77.3	(10)	45.5	(6)	27.3
	평생교육기관	(290)	(228)	78.6	(146)	50.3	(132)	45.5	(82)	28.3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n=51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Ⅲ. 문화예술 관련 기관_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4.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기타 법령상⁴³⁾ 의무배치기관에 포함되어 의무배치기관으로 포함해 전반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로도 기술하였다.

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조사에 응답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6곳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12곳(75.0%)로 나타났다.

[표 345]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사례수 (곳)	예		아니오	
		사례수	%	사례수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전체	(16)	(12)	75.0	(4)	25.0

※ base : 전체(n=16)

1)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횟수를 살펴보면 ‘11~20회’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10회’가 25.0%, ‘21회 이상’과 ‘1~5회’가 각각 16.7%로 나타났다.

[표 346]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횟수

	사례수 (곳)	1~5회		6~10회		11~20회		21회 이상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2)	(2)	16.7	(3)	25.0	(5)	41.7	(2)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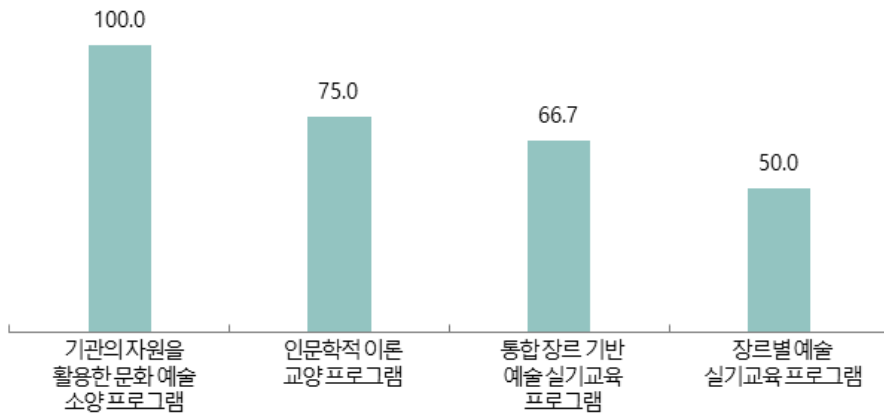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n=12)

4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1항3호

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모든 센터에서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100.0%)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75.0%),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66.7%),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5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0]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n=12, 복수응답, 단위 : %)



[표 347]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사례수 (곳)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2)	(12)	100.0	(9)	75.0	(8)	66.7	(6)	50.0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n=12), 복수응답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은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와 ‘기관 외부 전문가’가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교육강사’는 75.0%로 나타났다.

[표 348]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사례수 (명)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기관 외부 전문가		문화예술교육강사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2)	(12)	100.0	(12)	100.0	(9)	75.0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n=12), 복수응답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율은 75.0%, ‘기관 외부 전문가’는 8.3%로 나타났다.

[표 349]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율

	사례수 (명)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소지여부를 알 수 없다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12)	(9)	75.0	(3)	25.0	(0)	0.0
기관 외부 전문가	(12)	(1)	8.3	(6)	50.0	(5)	41.7
문화예술교육강사	(9)	(0)	0.0	(5)	55.6	(4)	44.4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복수응답

나. 문화예술교육사 인지도

문화예술교육사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16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모두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0]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사 인지 여부

	사례수 (명)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사례수	%	사례수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전체	(16)	(16)	100.0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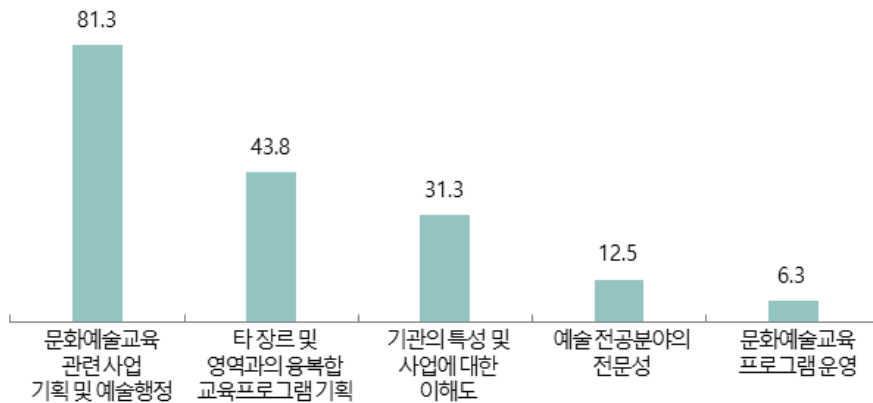
※ base : 전체(n=16)

다.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필요로 하는 역량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이 8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타 장르 및 영역과의 융·복합 교육프로그램 기획’(43.8%), ‘기관의 특성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31.3%), ‘예술 전공분야의 전문성’(12.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6.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n=16, 복수응답, 단위 : %)



[표 35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사례수 (곳)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기획 및 예술행정		타 장르 및 영역과의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기획		기관의 특성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예술 전공분야의 전문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6)	(13)	81.3	(7)	43.8	(5)	31.3	(2)	12.5	(1)	6.3

※ base : 전체(n=16)

라. 자격증 소지자 배치 현황

1)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전체 16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중 13개(81.3%)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지 않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3곳 모두 향후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352]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사례수 (곳)	예		아니오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6)	(13)	81.3	(3)	18.8

※ base : 전체(n=16)

2) 자격증 소지자 인력 현황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배치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는 총 27명이며, 이 중 비정규직이 11명(40.7%), 정규직이 16명(59.3%)으로 나타났다.

[표 353]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인원

	사례수 (곳)	정규직	비정규직	계
		합계(명)	합계(명)	(명)
전체	(13)	16	11	27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n=13)

3) 자격증 소지자 주 담당 업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배치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의 주 담당 업무는 ‘일반행정 및 사무’가 84.6%, ‘교육프로그램 운영기획’이 53.8%로 나타났다.

[표 354]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자격증 소지자 주 담당 업무

	사례수 (곳)	일반행정 및 사무		교육프로그램 운영기획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3)	(11)	84.6	(7)	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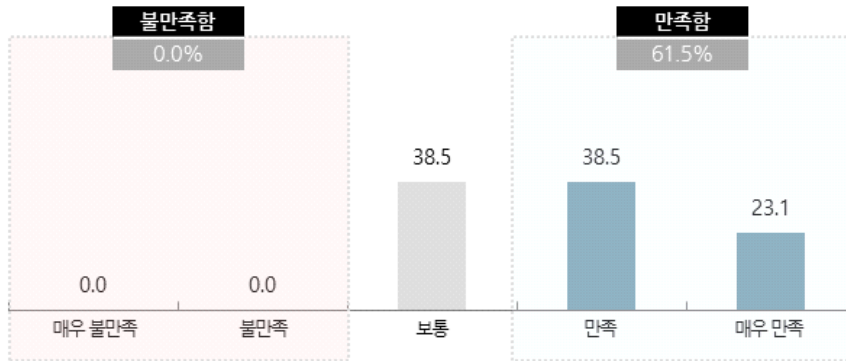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n=13), 복수응답

4) 자격증 소지자 업무 수행 만족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배치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의 업무수행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자격증 비소지자와 비교해서 소지자의 관련 업무수행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61.5%(‘매우 만족한다’ 23.1% + ‘어느 정도 만족한다’ 38.5%)로 높게 나타난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2]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사 소지자 업무 수행 만족도
(n=13, 단위 : %, 점(5점 만점))

평균: 3.85점



[표 355]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사 소지자 업무 수행 만족도

	사례수 (곳)	①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② 별로 만족 하지 않는다	③ 보통 이다	④ 어느 정도 만족 한다	⑤ 매우 만족 한다	불만족함 (①+②)	만족함 (④+⑤)	5점 평균
		%	%	%	%	%	%	%	점
전 체	(13)	0.0	0.0	38.5	38.5	23.1	0.0	61.5	3.85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n=13)

IV. 결론 및 제언

IV. 결론 및 제언

[자격소지자]

- (경제활동) 2020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의 현재 경제활동 참가율은 44.8%로 2019년 경제활동 참가율(65.9%)보다 21.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기존 자격소지자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48.6%로 나타난 반면, 신규 자격취득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6.9%에 불과함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자격소지자의 61.5%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38.5%는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자격소지자 82.4%가 과거에도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반면,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격소지자의 78.0%가 과거에도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이 기존 경제활동자의 역량 강화 등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신규 자격 취득이 곧바로 취업과 연계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됨. 한편, 경제 비활동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항목의 부재로 경제활동자와 비활동자 간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기는 어려움. 특히 자격증 도움 정도에 대한 항목이 경제 활동자에게만 국한되어있어 비활동자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 방향성을 찾을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음. 차년도 조사에서는 경제 비활동자의 자격증 도움 정도에 대한 조사항목이 필요해 보임
- (자격증 취득) 경제 활동 전과 활동 후에 자격증을 취득한 문화예술교육사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활동 전 취득자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예술행정 업무 등을 희망하며 취업을 목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주로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사기업 등의 취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 활동 후 취득자는 초/중/고나 예술단체에서 이미 경제활동을 하는 자들이(예술강사 등) 본인의 업무 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의 목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본인들의 희망(프로그램 강의)대로 실제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프리랜서 예술강사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자격증 취득의 목적이 경제활동 전/후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음. 따라서 취득 희망 대상자의 특성(취업 목적, 역량 강화 등)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해 보임

-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자격증이 현업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50.6%,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25.8%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남
 -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낮아서’,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커리큘럼이 부족해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이론 중심이어서’의 순임
 - ▶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예술단체 종사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 예술강사’ 등에서 자격증이 현업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높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의 취지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 ‘예술강사’ 등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 취득을 하는 ‘경제활동 후 취득자’에서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낮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격소지자 중 ‘경제활동 후 취득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대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커리큘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격증 구직 시 도움 정도) 자격증이 구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57.4%,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23.2%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남
 - 구직 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의무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 조건이 불안정한 곳이 많아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 예술강사’ 등에서 자격증이 구직 시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높음. 단, 문화예술 관련 분야 중 초/중/고와 예술단체 종사자의 경우 자격증이 현업에는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우세했는데 구직 시에는 도움이 안 되었다는 엇갈린 평가가 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해당 두 개 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외에 더욱더 엄격한 취업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학교와 예술단체의 구직 활동에도 자격 취득이 도움이 되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의무배치기관]

- 의무배치기관의 74.7%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46.9%로 나타남. 자격소지자 배치율은 16.3%이었으며, 미배치 기관의 향후 배치의향률은 15.0%로 나타남
 - 기관 유형별로 보면, 기관유형별로 보면 미술관, 문예회관, 전수회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배치율과 배치의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배치기관의 90%를 차지하는 도서관과 미술관의 배치율과 배치의향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 ▶ 의무배치기관의 배치율과 배치의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배치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서관과 박물관의 배치율 및 배치의향률이 증가해야 함. 하지만 ‘소양/교양 프

로그램’ 운영 비중이 높은 이 두 기관은 운영 프로그램의 특성상 구조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격소지자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자격소지자의 배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서관과 박물관에서도 ‘실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소양/교양 프로그램’ 운영 시에도 자격소지자의 수요를 높일 수 있도록 자격증 소지자 대상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운영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자격증 소지자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미술관, 문예회관, 전수회관 등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인력 충원의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의무배치기관의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의향이 없는 주요 원인이 ‘배치 권한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등이 높게 나타나 자격증 소지자 개인의 문제보다는 기관의 구조적/상황적 문제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배치인원 중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나 불안정한 근무 형태 관련 한계점이 확인되었으나, 이는 문화예술현장의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비정규직으로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력의 고용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문화예술 관련 기관]

-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문화예술교육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자격증 소지자의 업무 수행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의무배치기관이 4.06점,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 4.19점으로 높은 수준임
-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자격소지자 배치율(15.2%)과 배치의향률(13.5%) 모두 낮은 수준임
 - ▶ 의무배치기관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율과 배치의향률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원에는 ‘실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방문화원 등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등 기관 성격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방안이 필요해 보임

참고문헌

참고문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6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 권영임·차수정(2015),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가치와 발전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7), 602-617
- 남기현(2014), 문화예술교육사(Arts and Culture Education Instructor) 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석사논문
- 권정숙(2013), 문화예술교육사 양성에 관한 교육학적 고찰, 「미디어와 공연예술연구」, 8(3), 2-24
- 강성룡·이경화(2012),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과 창의성, 「창의력교육연구」, 12(3), 5-27
- 임학순·선결(2012),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역량 개발방향 모색, 「디지털콘텐츠와 문화정책」, 6권, 169-223
- 임학순 외(201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도입방안 연구, 서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이미경(2011), 미국의 예술통합교육과 한국교육에서의 시사점, 「한국교육」, 38(3), 33-52
- 한겨레신문(2015-09-01), “수백만원짜리 ‘장롱 자격증’ 문화예술교육사”
- 머니투데이(2014-10-07), “우려가 현실로...시행 1년, 신규채용 전무한 문화예술교육사”
- 양현미 외(200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 록

1. 의무배치기관 관련 법령
2. 조사 참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
3.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문화예술 관련 기관
4.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의향 문화예술 관련 기관
5. 설문지

부록 1. 의무배치기관 관련 법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5. 5. 18.>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③ 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③ 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①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17.>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을 것
2.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가 상근할 것

②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8. 17.>

1. 지역센터의 운영계획서
2. 최근 2년간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을 기재한 서류
3.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
4. 상근 문화예술교육사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지역센터의 명칭
2. 지역센터의 대표자
3. 지역센터의 소재지

제13조(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17.>

1.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2.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또는 교육자료
4. 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사

제1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17.>

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2.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자료
3.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4. 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사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전문개정 2012. 8. 17.]

부록 2. 조사 참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

1. 의무배치기관

(재)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	강서기적의도서관	경북대학교자연사박물관
2.28민주운동기념회관(도서관)	강서길꽃어린이도서관	경산시립도서관
3·15 아트센터	강서꿈꾸는어린이도서관	경산시립박물관
5·18기념문화관	강서영어도서관	경산시립장산도서관
6.25전쟁체험기념관	강서푸른들청소년도서관	경산시민회관
DTC섬유박물관	강원경찰박물관	경산자인단오제전수관
GS칼텍스 예울마루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경상남도 산림박물관
가수원도서관	강원도디엠제트박물관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가양도서관	강원도산림박물관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가평군문화예술회관	강원문화재단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가평군중앙도서관	강원전통도자전수관	경상남도교육청 남지도서관
각화문화의집	개봉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갈마도서관	거마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지혜의바다분관
갈산도서관(인천)	거제문화예술회관	
갈현1동문화의집	거제시립수양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감곡도서관	거제시립옥포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사천도서관
감골박물관	거제시립장평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양산도서관
감포도서관	거제어촌민속전시관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
강남구립못골도서관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강내도서관	거창박물관	경상남도교육청 하동도서관
강동구립강일도서관	검단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강동구립성내도서관	검단선사박물관	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강동구립암사도서관	검재정선미술관	경상대학교부속박물관
강동구립천호도서관	경기도문화의전당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
강동구립해공도서관	경기도미술관	경상북도교육청 봉화도서관
강동문화복지회관	경기도박물관	경상북도교육청 상주도서관
강동아트센터	경기도자박물관	경상북도교육청 외동도서관
강릉농악전수교육관	경기문화재단	경상북도교육청 울릉도서관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
강릉시립미술관	경기소리전수회관	경상북도교육청 점촌도서관
강릉시립중앙도서관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경상북도교육청 점촌도서관가은분관
강릉아트센터	경기평택교육도서관	경상북도교육청 청도도서관
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	경기포천교육도서관	경상북도교육청 칠곡도서관
강북문화예술회관	경기화성교육도서관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
강북문화정보도서관	경남대표도서관	경주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강서구립 곰달래도서관	경남도립미술관	경주솔거미술관
강서구립 등빛도서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주시립도서관
강서구립우장산숲속도서관	경북대학교박물관	경주예술의전당

경화문화의집	공주시 시립도서관 강북관	구로꿈나무도서관
계림꿈나무도서관	공주시 시립도서관 웅진관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계양도서관	과천시문원도서관	구리시교문도서관
계양문화회관	과천시민회관	구리시인창도서관
고남패총박물관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	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고산윤선도유물전시관	관교어린이도서관	구미발깁이들소리전수관
고성공룡박물관	관아갤러리	구미시립민속관
고성교육도서관	관악문화관도서관	구미시립상모정수도서관
고성군립도서관	관저문예회관	구미시립인동도서관
고성농요전수교육관	관평도서관	구미시립중앙도서관
고성문화의집	광명문화의집	구수산도서관
고성박물관	광명시 광명도서관	구암도서관
고성수석전시관	광명시소하도서관	구죽도서관
고성오광대전수교육관	광명시철산도서관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고성탈박물관	광명시하안도서관	국립경주박물관
고양문화의집	광산문화예술회관	국립경찰박물관
고양시립가좌도서관	광양공공도서관	국립공주박물관
고양시립대화도서관	광양공시전수교육관	국립관세박물관
고양시립덕이도서관	광양문화예술회관	국립광주박물관
고양시립삼송도서관	광양시립중마도서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고양시립식사도서관	광양시립중앙도서관	국립김해박물관
고양시립아람누리도서관	광양용강도서관	국립나주박물관
고양시립한뫼도서관	광양장도전수교육관	국립대구박물관
고양시립행신도서관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	국립등대박물관
고양시립행신어린이도서관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고양시립화정어린이도서관	광주광역시립사직도서관	국립부여박물관
고양시문예회관	광주광역시립산수도서관	국립산악박물관
고양아람누리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박물관	국립여성사전시관
고운동도서관	광주김치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고창고인돌박물관	광주남구문화예술회관	국립제주박물관
고창군립도서관	광주남구문화정보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고창문화의전당	광주남구푸른길도서관	국립진주박물관
고향의봄도서관	광주문화재단	국립춘천박물관
고흥갑재민속전시관	광주북구일곡도서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해양유물전시관
고흥군립북부도서관	광주송정도서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고흥군립중앙도서관	광주중앙도서관	국립해양박물관
곡성교육문화회관	광진정보도서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
곡성돌실나이전수교육관	광천공공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수장센터(청주)
곡성죽동농악전수교육관	괴산교육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서울)
곤지암도서관	구례공공도서관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공연예술박물관	구례군매천도서관	국회도서관
공주대학교박물관	구로구립 온누리도서관	군산교육문화회관
공주문예회관	구로구민회관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나주반전수교육관	단원미술관
군산대학교 박물관	나주배박물관	달빛마루도서관
군산시립도서관	난계국악박물관	달서가족문화도서관
군위송덕박물관	난고 김삿갓 문학관	달서구립성서도서관
군포부곡도서관	남가좌 새름 어린이도서관	달서어린이도서관
군포시 당동도서관	남구 청소년도서관	달성문화센터
군포시 대야도서관	남구도서관	담양공공도서관
군포시 산본도서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담양문화회관
군포시 어린이도서관	남동소래아트홀	당진문의예전당
군포시 중앙도서관	남사당전수관	당진시립중앙도서관
궁동어린이도서관	남사도서관	대가야문화누리
글빛정보도서관	남양주시립박물관	대가야박물관
금나래아트홀	남양주시와부도서관	대관령 박물관
금산기적의도서관	남양주시진건도서관	대구광역시립남부도서관
금산다락원	남양주시진접도서관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금산문화의집	남양주시진접푸른숲도서관	대구교육박물관
금산인삼고을도서관	남원교육문화회관 운봉분관	대구근대역사관
금산인삼관	남원농악전수교육관	대구문화예술회관
금왕교육도서관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대구문화재단
금일공공도서관	남원시립도서관	대구미술관
금천구립금나래도서관	남원향토박물관	대구오페라하우스
기계문화의집	남해유배문학관	대구콘서트하우스
기장도서관	내서문화의집	대덕문화회관
기장디지털도서관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대륜문화의집
기지사찰다리기 박물관	노원문화예술회관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기지사찰다리기전수교육관(기지사찰다리기박물관)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대성동고분박물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노화공공도서관	대잠홀
김만덕기념관	녹청자박물관	대전동구가오도서관
김시습기념관	논산강경도서관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김제교육문화회관	논산문화예술회관	대전문화재단
김제문화예술회관	논현도서관	대전선사박물관
김중업건축박물관	농성문화의집	대전시립박물관
김천문화예술회관	농소1동도서관	대전예술가의집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	늘푸른도서관	대전예술의전당
김천시립문화회관	능산리고분군전시관	대전전통나래관
김포아트홀	능평도서관	대평동도서관
김해목재문화체험장	다누리도서관	대한민국슬테마박물관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다대도서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해민속박물관	다대포민속예술관	독도박물관
김해분청도자박물관	다산아트홀	독정골어린이도서관
김해올하도서관	단석도서관	동강사진박물관
꿈벗도서관	단양문화예술회관	동강생태정보센터
나주문화예술회관	단양문화의집	동구도서관

동구문화센터	무주형설지공도서관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동대문구 답십리 도서관	무지개도서관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문경도자기박물관	부산광역시립반송도서관
동두천꿈나무정보도서관	문경무형문화재전수관	부산광역시립사하도서관
동두천시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문경문화예술회관	부산광역시립서동도서관
동두천시립도서관	문경시립모전도서관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분관부산영어도서관
동두천시민회관	문경시립중앙도서관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
동래문화회관	문래정보문화도서관	부산근대역사관
동래읍성도서관	문산행복센터	부산대학교박물관
동부도서관	문화예술원	부산문화재단
동삼동패총전시관	미감도서관	부산민속예술관
동작상도국주도서관	미아문화정보도서관	부산박물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미원교육도서관	부산북구디지털도서관
동해문화의집	민주공원 중극장	부산어촌민속관
동해시립발한도서관	밀양백중놀이전수관	부산예술회관
동해시립북삼도서관	밀양시립도서관	부산전통예술관
두석장전수교육관	밀양시립박물관	부산진구어린이청소년도서관
둘리도서관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둘리뮤지엄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부산현대미술관
마도갈방아소리전수관	박동진판소리전수관	부안교육문화회관
마산가곡전수관	반석아트홀	부안군립도서관
마산합포도서관	반여도서관	부안예술회관
마포중앙도서관	방배도서관	부안청자박물관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방아다리문학도서관	부여국악의전당
마한박물관	방짜유기전수교육관	부천교육박물관
매곡도서관	백동연죽장전수교육관	부천로보파크 전시관
매포도서관	법원도서관	부천시립꿈빛도서관
명곡도서관	벽천미술관	부천시립동화도서관
명성향후기념관	보람동도서관	부천시립북부도서관
명춘어린이도서관	보령공공도서관	부천시립상동도서관
목마도서관	보령문화예술회관	부천시립송내도서관
목포공공도서관	보령주산도서관	부천시립심곡도서관
목포근대역사관	보성농어촌도서관	부천시립오정도서관
목포대학교박물관	보성판소리전수교육관	부천시립원미도서관
목포문화예술회관	보은교육도서관	부천시립책마루도서관
목포생활도자박물관	복사골문화센터	부천시립한울빛도서관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본오도서관	부천시민회관
목포영어도서관	봉개동문화의집	부천옹기박물관
목포옥장전수관	봉산문화회관	부천필벽기념관
무릉문화의집	부산강서도서관	부천활박물관
무안공공도서관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도서관	부평기적의도서관
무안군오승우미술관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부평아트센터
무안문화의집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	부평역사박물관

북구문화의집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	성남문화의집
북삼도서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성남시구미도서관
불암도서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성남시무지개도서관
비봉어린이도서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성남시분당도서관
빛고을시민문화관	서라벌문화회관	성남시수정도서관
사당출발도서관	서북전시관	성남시운중도서관
사랑샘도서관	서산시 대산도서관	성남시중앙도서관
사북공공도서관	서산시립도서관	성남시판교어린이도서관
사상생활사박물관	서산시문화회관	성남아트센터
사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서운도서관	성남아트센터 성남큐브미술관
산청군문화예술회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	성동구립무지개도서관
산청목조각장전수관(목아전수관)	서울교육박물관	성동구립성수도서관
산청박물관	서울대학교 미술관	성동구립용답도서관
삼각산어린이도서관	서울대학교박물관	성북구립미술관
삼성문화의집	서울문화재단	성북선잠박물관
삼성현역사문화관	서울상상나라	성산도서관
삼척교육문화관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성산일출문화의집
삼척도계도서관	서울역사박물관	성산패총전시관
삼척문화예술회관	서울특별시교육청강남도서관	성음무형문화재전수관
삼척시립박물관	서울특별시교육청강동도서관	성현동작은도서관
삼척원덕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개포도서관	성호기념관
삼천문화의집	서울특별시교육청구로도서관	세미원연꽃박물관
삼호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남산도서관	세종국악당
상남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동대문도서관	세종대왕역사문화관
상록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마포평생학습관	세종문화예술회관
상림마을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세종시립민속박물관
상북어린이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세종시문화재단
상주문화회관	서울특별시교육청용산도서관	소나무언덕2호작은도서관
상주민요전수관	서울특별시교육청종로도서관	소담동도서관
상주박물관	서창도서관	소래도서관
상주자전거박물관	서천문예의전당	소래역사관
새롬동도서관	서천장항공공도서관	소암기념관
생거진천혁신도시도서관	서현문화의집	소양도서관
서구 비산도서관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속초교육도서관
서구문화센터	석남도서관	속초문화예술회관
서구문화회관	석장리박물관	속초시립도서관
서구어린이도서관(대구)	선부도서관	속초시립박물관
서구어린이도서관(대전)	선산문화의집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서귀포기적의도서관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솔향공원 소나무전시관
서귀포도서관	선학별빛도서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서귀포시동부도서관	설림도서관	송림도서관
서귀포시서부도서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송악도서관
서귀포예술의전당	설악도서관	송촌문화의집

송파글마루도서관	신평면 생활사박물관	양구돌산령지계놀이전수관
송파어린이영어작은도서관	실학박물관	양구백자박물관
송파위례도서관	아리랑박물관	양구인문학박물관
송화도서관	아산미술문화재단(전남 도립미술관)	양림미술관
수성구립 물망이도서관	아산시 둔포도서관	양산도서관
수성구립 용학도서관	아산시 배방도서관	양산문화예술회관
수성구립 파동도서관	아산시 중앙도서관	양산시립도서관
수성아트피아	아산시 탕정온샘도서관	양산시립박물관
수암도서관	아산시 평생학습관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수영구도서관	아양아트센터	양양문화복지회관
수영구도서관 망미분관	아중도서관	양원숲속도서관
수영민속예술관	아트센터 인천	양주농악전수관
수원광교박물관	안동강남어린이도서관	양주문화예술회관
수원박물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양주별산대놀이전수관
수원시광교푸른숲도서관	안동문화의집	양주소놀이굿전수회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안동민속박물관	양주시 고읍도서관
수원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	안동차전놀이전수교육관	양주시 남면도서관
수원시버드내도서관	안락누리도서관	양주시 덕계도서관
수원시북수원도서관	안산단원어린이도서관	양주시덕정도서관
수원시서수원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양주시립꿈나무도서관
수원시선경도서관	안산시 부곡도서관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수원시영통도서관	안산시 일동도서관	양주희망도서관
수원시일월도서관	안산시 성포도서관	양천문화회관
수원시태장마루도서관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양평 양서친환경도서관
수원시한림도서관	안산향토사 박물관	양평곤충박물관
수원시호매실도서관	안성맞춤아트홀	양평어린이도서관
수원시화서다산도서관	안성시립공도도서관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순창공립미술관	안성시립보개도서관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순천기적의도서관	안성시립중앙도서관	어울아트센터
순천대학교박물관	안성시립진사도서관	어진박물관
순천문화예술회관	안양시립관양도서관	어촌민속전시관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안양시립비산도서관	염사도서관
순천시립신대도서관	안양시립삼덕도서관	여수민속전시관
순천시립조례호수도서관	안양시박달도서관	여수시립돌산도서관
술샘박물관(젊은달 와이파크)	안양시별말도서관	여수시립쌍봉도서관
술사랑홍보관	안양시호계도서관	여수시립환경도서관
슬기샘어린이도서관	안양아트센터	여주박물관
승달문화예술회관	안양어린이도서관	여초서예관
시흥시능곡도서관	애월도서관	연동문화의집
시흥시대야어린이도서관	약수도서관	연수어린이도서관
신석도서관	양곡도서관	연수청학도서관
신안군립도서관	양구교육도서관	연제도서관
신탄진문화의집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연지아트홀

연천수레울아트홀	완주군립 둔산영어도서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염포양정도서관	완주군립삼례도서관	유엔군 초전기념관
영광공공도서관	완주군립중앙도서관	육군박물관
영광군립도서관	왕인박사기념관	윤봉길의사기념관
영광법성포단오제전수교육관	외암민속관	은평구립도서관
영광예술의전당	용산 꿈나무도서관	은평문화예술회관
영덕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용인문화유적전시관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영도도서관	용인시 기흥도서관	을숙도문화회관
영도어린이영어도서관	용인시 동백도서관	음성교육도서관
영동교육도서관	용인시 청덕도서관	의령군민문화회관
영동문화의집	용인시구성도서관	의성군립도서관
영암공공도서관	용인시디지털정보도서관	의성조문국박물관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용인시문화회관	의암 류인석 기념관
영암도기박물관	용인시포곡도서관	의왕문화의집
영암삼호문화의집	우도농악전수교육관	의왕시글로벌도서관
영양 문화체육센터	운강이강년기념관	의왕시내손도서관
영월동굴생태관	운남어린이도서관	의왕시중앙도서관
영월문화예술회관	울산남구도산도서관	의왕향토사료관
영인산산림박물관	울산남구신북도서관	의정부예술의전당
영종역사관	울산농소3동도서관	의창도서관
영주문화예술회관	울산동부도서관	이강하 미술관
영주시민회관	울산문화예술회관	이도2동문화의집
영천시립도서관	울산문화재단	이동꿈틀도서관
영천시민회관	울산북구기적의도서관	이서문화의집
예산군립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이야기꽃도서관
예산군문화회관	울주도서관	이응노미술관
예주문화예술회관	울주문화의집	이중섭미술관
예천군문화회관	울주선바위도서관	이천 어울림 도서관
예천박물관	울진문화예술회관	이천세계도자센터
오산시 중앙도서관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	이천시 어린이도서관
오산시 청학도서관	웃는얼굴아트센터	이천시립도서관
오산시립 햇살마루 도서관	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	이천시립마장도서관
오산시립미술관	웅천도요지전시관	이천시립효양도서관
오죽헌박물관	원고개도서관	이천시청미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원고잔도서관	이천아트홀
옥과공공도서관	원주시립도서관	익산시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수교육관
옥산도서관	원통도서관	익산시립황등도서관
옥진각	월계문화정보도서관	익산예술의전당미술관
옥천교육도서관	월계어린이도서관	인삼박물관
옥천군민도서관	월곡꿈그림도서관	인제교육도서관
옥현어린이도서관	월곡도서관	인제산촌민속박물관
웅기전수교육관(영덕웅기장)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인제히늘내린센터
완도군립도서관	위미문화의집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전라북도교육청임실도서관	제주돌문화공원
인천광역시립수봉도서관	전라북도교육청장수도서관	제주목 관아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전라북도교육청진안도서관	제주문화예술재단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	전라북도립미술관	제주시기적의도서관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제주추사관
인천광역시서구도서관	전라북도예술회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	전북교육문화회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인천광역시주안도서관	전북도청도서관	제주향일기념관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전북산림박물관	제천문화의집
인천광역시화도진도서관	전주덕진예술회관	제천시문화회관
인천도지역사관	전주소리문화관	제천유물전시관
인천문화예술회관	전주시립건지도서관	제천학생회관
인천문화재단	전주시립인후도서관	조원도서관
인천서구문화회관	전주시립쪽구름도서관	종로구립 고학동 미술자료관
인후문화의집	전주시립평화도서관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일곡문화의집	전주시립효자도서관	종암동새날도서관
일도1동문화의집	전주역사박물관	죽변면도서관
일도2동문화의집	전주전통술박물관	중구문화의전당
임실군립도서관	전주한벽문화관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임피채만식도서관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중천철학도서관
입점리고분전시관	점동도서관	즐거운도서관
자양제4동도서관	정관박물관	중도갯벌생태전시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정관어린이도서관	중평교육도서관
장덕도서관	정기룡장군유물전시관	중평군립도서관
장산도들노래전수관	정다운도서관	지리산빨지산토벌전시관
장성군립중앙도서관	정림사지박물관	지산민속전수관
장성문화예술회관	정산도서관	지혜샘어린이도서관
장수군립도서관	정선교육도서관	진도공공도서관
장수한누리전당	정선군문화예술회관	진도군무형문화재전수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정선아리랑전수관	진도역사관
저산팔읍길쌈놀이전수관	정왕어린이도서관	진도향토문화회관
적성도서관	정읍기적의도서관	진보공공도서관
전남대학교박물관	정읍문화의집	진북문화의집
전남장애인문화의집	정읍사예술회관	진산도서관
전라남도농업박물관	정읍시립미술관	진안가위박물관
전라남도립도서관	정읍시립박물관	진안문화의집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정읍시립중앙도서관	진안역사박물관
전라남도옥과미술관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	진영한빛도서관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제8대유엔사무총장반기문 평화기념관	진접문화의집
전라북도교육청고창도서관	제남도서관	진주교육대학교박물관
전라북도교육청무주도서관	제주 삼양동 유적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전라북도교육청순창도서관	제주4.3평화기념관	진주시어린이전문도서관
전라북도교육청완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진주연암도서관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청주문화의집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공주도서관
진천교육도서관	청주배첩전수교육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유구도서관
진천군립광혜원도서관	청주상당도서관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진천문화의집	청주서원도서관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
진천중박물관	청주시립도서관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진해구민회관	청주시립미술관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진해기적의도서관	청주시립미술관 분관(대청호미술관)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금산도서관
진해도서관	청주시립오송도서관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당진도서관
짜장면박물관	청주시한국공예관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보령도서관
창녕 비봉리 패총전시관	청주신울봉어린이도서관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웅천도서관
창녕군 영산도서관	청주아트홀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부여도서관
창녕박물관	청주예술의전당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해미도서관
창원대학교박물관	청주오창도서관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서천도서관
창원시립마산박물관	청주흥덕도서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아산도서관
창원역사민속관	청천도서관	충청남도역사박물관
채상장전수교육관	청파도서관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예산도서관
천안박물관	초월도서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성환도서관
천안시문화도서관사업소 도솔도서관	최북 미술관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청양도서관
천안시문화도서관사업소 두정도서관	최용신기념관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태안도서관
천안시문화도서관사업소 성거도서관	추부도서관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홍성도서관
천안시문화도서관사업소 신방도서관	추부문화의집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천안시문화도서관사업소 쌍용도서관	춘성교육도서관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천안시문화도서관사업소 중앙도서관	춘천교육문화관	충청북도농업과학관
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 성환문화회관	춘천동내도서관	치악예술관
천안시시민문화여성회관 신부문화회관	춘천문화예술회관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도서관	춘천시립도서관	칠곡군립도서관
천안예술의전당미술관	춘천시립분관서면도서관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천안청수도서관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칠백의총관리소(기념관)
천안흥타령관(휴관)	춘천신사우동도서관	칠암도서관
철마도서관	춘향문화예술회관	칠평도서관
철원교육도서관	충남도서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철원김화도서관	충남문화재단	탄현도서관
청계천박물관	충렬사 유물전시관	탐라도서관
청담도서관	충무공이순신기념관	태백교육도서관
청도박물관	충무아트센터	태백문화예술회관
청도어린이도서관	충북교육박물관	태백석탄박물관
청라호수도서관	충북대학교 박물관	태백시립도서관
청량산박물관	충북문화재단	태안군립중앙도서관
청송문화예술회관	충재박물관	태안군문화예술회관
청양군백제문화체험박물관	충주박물관	태안안면도서관
청운문화도서관	충주세계무술박물관	토성공공도서관
청주고인쇄박물관	충주시 태권원	통영문화의집
청주기적의도서관	충주시문화회관	통영시립도서관

통영시립박물관	하남시 덕풍도서관	해룡농어촌도서관
통영시립산양도서관	하남시세미도서관	해맞이도서관
통영시립육지도서관	하늘도서관	해밀도서관
통영시민문화회관	하동문화예술회관	해솔도서관
트라이볼	하동야생차박물관	해오름도서관(경기)
파로호 안보전시관	하북문화의집	해오름도서관(서울)
파주시립중앙도서관문산분관	하안문화의집	해운대도서관 우동분관
파주시립중앙도서관법원분관	하의3도농민운동기념관	해운대문화회관
파주시민회관	하회별신굿탈놀이전수교육관	해운대인문학도서관
판소리홍보가전수관	학나래도서관	행복어린이도서관
평창교육도서관	학마을도서관	향토예술문화회관
평창군립대학도서관	한경도서관	허준박물관
평창군립봉평도서관	한국대나무박물관	홍도도서관
평창군립진부도서관	한국만화박물관	홍산공공도서관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	한국민화뮤지엄	홍주성 역사관
평창둔전평농악전수회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홍천교육도서관
평촌아트홀	한국시집박물관	홍천문화예술회관
평택농악전수교육관	한국영화박물관	홍천연봉도서관
평택시립 진위도서관	한국이민사박물관	홍천향토자료관
평택시립도서관 평성분관	한국자박물관	화랑도서관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한국천연염색박물관	화명도서관
평택시립세교도서관	한내지혜의 숲 도서관	화성시 진안도서관
평택시립안중도서관	한빛도서관	화성시남양도서관
평택시립오성도서관	한산모시짜기전수관	화성시삼피도서관
평택시립장당도서관	한산소곡주무형문화재복합전수관	화성시태안도서관
평택시립청북도서관	한솔동도서관	화순군립석봉미술관
포천 역사문화관	한수폴도서관	화순열린도서관
포천반월아트홀	한아름도서관 (수원청소년문화센터내)	화전도서관
포천시립가산도서관	한지체험박물관	화천교육도서관
포천시립소흘도서관	함안군립칠원도서관	화천문화예술회관
포천시립영북도서관	함안박물관	화천박물관
포천시립영중꿈나무도서관	함양박물관	화천어린이도서관
포천시립중앙도서관	함평공공도서관	횡성원문학관
포항문화예술회관	함평군립미술관	회덕문화의집
포항시립대잠도서관	함덕수리민속박물관	횡성교육도서관
포항시립미술관	함천박물관	횡성군립도서관
포항시립영암도서관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기념관	횡성문화예술회관
포항시립오천도서관	해남공공도서관	효성도서관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	해남군립도서관	흑산자산문화도서관
표선도서관	해남문화예술회관	홍덕문화의집
표선문화의집	해남문화의집	희망샘도서관
풍기문화의집	해녀박물관	
하귀문화의집	해돋이도서관	

2. 문화예술 관련 기관

(사)한국예술진흥회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40계단문화관 생활문화센터	경상북도립영덕공공도서관	광주향교
가평군청	경상북도립영일공공도서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가평문화원	경상북도립외동공공도서관	광진문화원
감전 생활문화센터	경상북도립울릉공공도서관	광진청소년수련관
강남문화원	경상북도립울진공공도서관	괴산도서관
강동구 평생학습관	경상북도립의성공공도서관	괴산문화원
강동도서관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	구례공공도서관
강릉교육문화관	경상북도립청송공공도서관	구례문화원
강릉시 평생학습센터	경상북도립칠곡공공도서관	구로도서관
강북노인종합복지관	경주문화원	구로문화원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경주시청	구로평생학습관제1관
강서구청	경주시평생학습센터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강서문화원(부산)	계곡생활문화센터	구리문화원
강서평생학습관	계양구청	구리시 평생학습관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계양도서관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강진군청	고령문화원	구리시청소년수련관
강진문화원	고성교육도서관	구미문화원
강화교육지원청	고성도서관	구미시평생교육원
강화문화원	고성문화원(강원)	구이 생활문화센터
개포도서관	고성문화원(경남)	군산교육문화회관
개항장 문화마당 생활문화센터	고양문화원	군산문화원
거제도서관	고창공공도서관	군산시평생학습관
거제문화원	고창문화원	군위 생활문화센터
거창군청	고흥문화원	군위문화원
거창문화원	공주문화원	군포문화원
경기도립광주도서관	공주유구도서관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경기도립김포도서관	과천문화원	군포시청
경기도립발안도서관	관악문화원	군포시평생학습원
경기도립성남도서관	광명문화원	금산 어깨동무 생활문화센터
경기도립여주도서관	광산 생활문화센터	금산도서관
경기도립포천도서관	광산문화원	금산문화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금양도서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동구장애인복지관	금정구청
경산 생활문화센터	광주북구평생학습관	금정구평생학습관
경산시청	광주서구청	금정문화원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광주송정도서관	금천구평생학습관
경상북도립고령공공도서관	광주시청	금천문화원
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	광주중앙도서관	금호평생교육관
경상북도립봉화공공도서관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기장군청
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기장문화원

김제 생활문화센터	당진도서관	마포문화원
김제교육문화회관	당진시 평생학습관	마포청소년수련관
김제문화원	당진시청	마한교육문화회관
김천문화원	대구MBC시청자미디어센터	목동청소년수련관
김천시청	대구광역시립달성도서관	목포공공도서관
김포문화원	대구남구평생학습관	목포문화원
김해도서관	대구북구청	목포시청
김해문화원	대구평생교육진흥원	무등종합사회복지관
김해시청	대덕구청	무안공공도서관
김해영상미디어센터	대전시립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무안군청
깡깡이 생활문화센터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무안문화원
나름청소년활동센터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무주공공도서관
나주문화원	대전평생학습관	무주문화원
낙동문화원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무척사랑 생활문화센터
남구 생활문화센터	덕산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문경문화원
남구문화원(광주)	덕포 생활문화센터	문내 생활문화센터
남구청	도봉도서관	문막교육도서관
남구평생학습관	동구 생활문화센터	미추홀구청
남동구평생학습관	동구문화원(대전)	밀양도서관
남산도서관	동구문화원(울산)	밀양문화원
남양주문화원	동구영상미디어센터	밀양시청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동구청	배방 생활문화센터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동구청소년수련관	백산마을 생활문화센터
남양주시청	동구평생교육센터	범일 생활문화센터
남양주시평생학습센터	동구평생학습관	보령웅천도서관
남원교육문화회관	동구평생학습원	보성문화원
남원문화원	동대문문화원	보은문화원
남원시청	동대신3동 생활문화센터	보정역 생활문화센터
남해군청	동두천문화원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남해도서관	동두천시평생교육원	봉화문화원
남해문화원	동면 생활문화센터	부강 생활문화센터
노원구청	동상 생활문화센터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동작도서관	부산 생활문화센터 (한성1918)
노원문화원	동해문화원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
논산문화원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립반송도서관
다산서당	동해시 평생학습관	부산광역시립사하도서관
단양군청	동해시청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단양군평생학습센터	두드림서구평생학습관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단양도서관	두송 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서구평생학습관
단양문화원	둔산종합사회복지관	부산남구청
달빛 생활문화센터	마산도서관	부산동구청
달서구문화원	마산문화원	부산북구청
달서구평생학습센터	마이학습장	부산진구 평생학습관
담양군평생학습관	마포구평생학습센터	부산진구청

부산진문화원	서산해미도서관	시흥시청
부안문화원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부여 생활문화센터	서울시청차미디어센터	신안마을 생활문화센터
부여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덕평생학습관	신안문화원
부천문화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노원평생학습관	신호학습장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영등포평생학습관	심곡종합사회복지관
부천시청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아리랑정보도서관
부천시평생학습센터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 "소풍"	아산도서관
부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서천도서관	아산시 평생학습관
부평구평생학습관	서초문화원	아산시청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악양 생활문화센터
북구 생활문화센터(광주)	성남문화원	안동문화원
북구문화원(광주)	성남미디어센터	안동시청
북구평생학습센터	성남시청	안산문화원
북도면 생활문화센터	성남시평생학습관	안산시청
비산5동 생활문화센터	성동문화원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사상문화원	성북구 평생학습관	안산시평생학습관
사천문화원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안성시평생학습관
사하문화원	성주 생활문화센터	안양YMCA
산청군청	성주문화원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산청도서관	성호 생활문화센터	안양시청
삼국유사군위도서관	세종문화원	압구정평생학습관
삼례 생활문화센터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삼척교육문화관	세종특별자치시청	양구교육도서관
삼척문화원	속초교육문화관	양산문화원
삼척시청	속초문화원	양산시청
삼천문화의집 삼천생활문화센터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양산영상미디어센터
삼천포도서관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양양교육도서관
상주 생활문화센터	송파도서관	양양문화원
상주문화원	송파문화원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서구 평생학습관	수성구청	양정1동 생활문화센터
서구도서관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양주문화원
서구문화원(광주)	수영문화원	양주시청
서구문화원(대전)	수원 생활문화센터	양주시평생학습관
서구문화원(부산)	수원문화원	양천도서관
서귀포문화원	수원미디어센터	양천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수원시평생학습관	양평군청
서대문구평생학습관	수원제일평생학교	양평문화원
서대문도서관	수정노인종합복지회관	어린이도서관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순창문화원	엠마우스복지관
서산 생활문화센터	순천문화원	여수 예술인촌 생활문화센터
서산문화원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	여주시청
서산시 평생학습센터	순천시청	여주문화원
서산시청	시흥문화원	여주시평생학습센터

연수구청(평생학습관)	우도 생활문화센터	장성문화원
연수도서관	우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장수문화원
연수문화원	울릉문화원	장흥공공도서관
연제구청	울산남부도서관	장흥문화원
연제문화원	울산동부도서관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영광공공도서관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전일 생활문화센터
영광군청	울주도서관	전주문화원
영덕 생활문화센터	울주문화원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영덕문화원	울주생활문화센터	전주시청
영도구청	울진문화원	전포 생활문화센터
영도구평생학습관	웅천 생활문화센터	정선문화원
영도문화원	원주 생활문화센터	정양종합사회복지관
영동도서관	원주교육문화관	정읍문화원
영동문화원	원주문화원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모두"	정읍시청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월곶 생활문화센터	정읍시평생학습관
영암공공도서관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제주문화원
영암군청	유성구청	제주시평생학습관
영암문화원	유성문화원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영월교육도서관	은평 생활문화센터	제천시평생학습센터
영월문화원	은평뉴타운 미디어라이브러리센터	제천학생회관
영주문화원	은평문화원	조성면 생활문화센터
영주시청	음성군청	조치원 생활문화센터
영천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음성도서관	종로도서관
예산군청	의령문화원	종로문화원
예산문화원	의성군청	주안도서관
예주 생활문화센터	의성문화원	중구 생활문화센터
예천문화원	의왕문화원	중구문화원(대전)
오산문화원	의왕청계종합사회복지관	중구문화원(서울)
옥천군영상미디어센터	의정부노성야간학교	중구문화원(울산)
옥천군청	의정부문화원	중구평생학습관
옥천문화원	이천문화원	중랑구청
온양문화원 온양생활문화센터	익산문화원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완도군청	익산시청	중랑문화원
완도문화원	인애종합사회복지관	중앙 생활문화센터
완주공공도서관	인제문화원	증평문화원
완주공동체미디어센터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지동 창룡마을 창작센터
완주군청	인천광역시남구평생학습관	진도공공도서관
완주문화원	인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진도문화원
용산구평생학습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진동도서관
용산문화원	임당생활문화센터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용인문화원	임실문화원	진안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장성공공도서관	진안군청(평생학습도시)

진안문화원	춘천시청	하남시청
진양도서관	충무동 생활문화센터	하남시평생학습관
진영도서관	충주 생활문화센터	하동군청
진주문화원	충주문화원	학산 생활문화센터 마당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충주시평생학습관	함안문화원
진천문화원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함양문화원
진해문화원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합천문화원
창녕도서관	충청남도평생교육원	해남문화원
창녕문화원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해운대문화원
창원문화원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행복북구 생활문화센터
창원시청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홍성군청
창전청소년문화의집	칠곡문화원	홍천군청
천안성환도서관	태백교육도서관	화도진도서관
천안시동남구문화원	태백문화원	화도진문화원
천안시서북구문화원	태안 생활문화센터	화성문화원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비채"	태안군청	화성시 생활문화센터
철원군청	태안도서관	화성시미디어센터
철원문화원	태안문화원	화성시평생학습센터
첨단종합사회복지관	통영도서관	화순공공도서관
청도문화원	통영문화원	화순군청
청송문화원	통영시평생학습관	화순문화원
청양도서관	파주문화원	화천 생활문화센터
청양문화원	파주시중앙도서관	화천군청
청원도서관	파주시청	화천문화원
청주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화천생태영상센터
청주문화원	평창군청	횡성교육도서관
청주시청	평택시청	횡성군청
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포천문화원	횡성문화원
체부동 생활문화센터	포천시립중앙도서관	효자문화의집 효자생활문화센터
춘성교육도서관	포항시 평생학습원	흰돌종합사회복지관
춘천교육문화관	하남도서관	
춘천문화원	하남문화원	

3.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부산문화재단)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대구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천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광주문화재단)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대전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강원문화재단)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충북문화재단)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충남문화재단)	세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세종시문화재단)
전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전남문화예술재단)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울산문화재단)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전북문화관광재단)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금주문화예술마을)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부록 3.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문화예술 관련 기관

1. 의무배치기관

연번	구 분	기관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인원(명)
1	도서관	거제시립옥포도서관	0	1	1
2	도서관	검단도서관	0	1	1
3	도서관	고양시립아람누리도서관	0	10	10
4	도서관	관평도서관	0	2	2
5	도서관	대구광역시립남부도서관	0	1	1
6	도서관	동대문구 답십리 도서관	1	0	1
7	도서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1	0	1
8	도서관	동두천꿈나무정보도서관	0	1	1
9	도서관	둘리도서관	1	1	2
10	도서관	매포도서관	0	2	2
11	도서관	선학별빛도서관	0	1	1
12	도서관	소래도서관	0	1	1
13	도서관	속초교육도서관	1	0	1
14	도서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0	1	1
15	도서관	수원시한림도서관	0	3	3
16	도서관	시흥시능곡도서관	0	1	1
17	도서관	연수청학도서관	0	2	2
18	도서관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0	1	1
19	도서관	장성군립중앙도서관	1	0	1
20	도서관	전라북도교육청고창도서관	1	0	1
21	도서관	청주기적의도서관	0	1	1
22	도서관	학나래도서관	0	1	1
23	도서관	효성도서관	0	1	1
24	박물관	DTC섬유박물관	0	1	1
25	박물관	거제어촌민속전시관	1	0	1
26	박물관	경기도박물관	1	0	1
27	박물관	경기도자박물관	2	2	4
28	박물관	고성탈박물관	0	1	1
29	박물관	공연예술박물관	0	1	1
30	박물관	공주대학교박물관	1	0	1
31	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1	0	1

연번	구 분	기관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인원(명)
32	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1	0	1
33	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1	3	4
34	박물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1	0	1
35	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1	0	1
36	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0	1	1
37	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1	0	1
38	박물관	기지사족다리기 박물관	0	1	1
39	박물관	김시습기념관	1	0	1
40	박물관	나주배박물관	0	1	1
41	박물관	둘리뮤지엄	1	3	4
42	박물관	문경도자기박물관	1	0	1
43	박물관	밀양시립박물관	0	3	3
44	박물관	부산근대역사관	0	1	1
45	박물관	부천혈박물관	0	1	1
46	박물관	부평역사박물관	1	0	1
47	박물관	서울상상나라	2	0	2
48	박물관	세미원연꽃박물관	1	1	2
49	박물관	속초시립박물관	1	0	1
50	박물관	솔향공원 소나무전시관	0	1	1
51	박물관	수원박물관	0	1	1
52	박물관	안동민속박물관	1	0	1
53	박물관	안산어촌민속박물관	0	3	3
54	박물관	양구백자박물관	1	3	4
55	박물관	양구인문학박물관	1	6	7
56	박물관	양평곤충박물관	0	1	1
57	박물관	여주박물관	1	0	1
58	박물관	영종역사관	1	5	6
59	박물관	용인문화유적전시관	0	2	2
60	박물관	용천도요지전시관	1	0	1
61	박물관	의성조문국박물관	0	1	1
62	박물관	의암 류인석 기념관	0	1	1
63	박물관	이천세계도자센터	0	1	1
64	박물관	인삼박물관	0	1	1
65	박물관	인제산촌민속박물관	0	1	1
66	박물관	정관박물관	0	2	2
67	박물관	제주돌문화공원	0	1	1

연번	구 분	기관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인원(명)
68	박물관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0	1	1
69	박물관	창녕 비봉리 패총전시관	1	0	1
70	박물관	천안박물관	0	1	1
71	박물관	최용신기념관	2	2	4
72	박물관	충북교육박물관	0	1	1
73	박물관	충주박물관	0	1	1
74	박물관	한국민화뮤지엄	0	1	1
75	박물관	한국천연염색박물관	0	1	1
76	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2	0	2
77	미술관	경주슬거미술관	0	1	1
78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서울)	0	1	1
79	미술관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1	0	1
80	미술관	대구미술관	0	1	1
81	미술관	무안군오송우미술관	1	1	2
82	미술관	부산광역시립미술관	3	1	4
83	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0	4	4
84	미술관	성남아트센터 성남큐브미술관	6	5	11
85	미술관	성북구립미술관	1	0	1
86	미술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1	0	1
87	미술관	오산시립미술관	1	0	1
88	미술관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	3	0	3
89	미술관	전라남도옥곡미술관	1	0	1
90	미술관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0	3	3
91	미술관	천안예술의전당미술관	2	0	2
92	미술관	청주시한국공예관	0	1	1
93	미술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2	0	2
94	미술관	함평군립미술관	1	0	1
95	미술관	아산미술문화재단(전남 도립미술관)	1	0	1
96	문예회관	강릉아트센터	1	1	2
97	문예회관	경기도문화의전당	0	2	2
98	문예회관	경주예술의전당	1	0	1
99	문예회관	관악문화관도서관	2	3	5
100	문예회관	광산문화예술회관	1	0	1
101	문예회관	금산다락원	1	0	1
102	문예회관	남동소래아트홀	1	0	1
103	문예회관	노원문화예술회관	1	1	2

연번	구 분	기관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인원(명)
104	문예회관	다산아트홀	1	0	1
105	문예회관	당진문예의전당	0	2	2
106	문예회관	대가야문화누리	1	0	1
107	문예회관	대구문화예술회관	1	0	1
108	문예회관	대구오페라하우스	1	0	1
109	문예회관	대덕문예회관	1	0	1
110	문예회관	대전예술가의집	0	2	2
111	문예회관	목포문화예술회관	0	1	1
112	문예회관	문화예술원	1	0	1
113	문예회관	밀양아리랑아트센터	1	2	3
114	문예회관	복사골문화센터	1	1	2
115	문예회관	부산예술회관	0	1	1
116	문예회관	부안예술회관	0	5	5
117	문예회관	부평아트센터	2	1	3
118	문예회관	서구문화센터	1	0	1
119	문예회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2	0	2
120	문예회관	성남아트센터	2	0	2
121	문예회관	수성아트피아	0	1	1
122	문예회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0	1	1
123	문예회관	어울아트센터	1	0	1
124	문예회관	연천수레울아트홀	1	0	1
125	문예회관	영월문화예술회관	0	1	1
126	문예회관	울산문화예술회관	0	1	1
127	문예회관	은평문화예술회관	0	1	1
128	문예회관	의정부예술의전당	2	8	10
129	문예회관	이천아트홀	1	0	1
130	문예회관	인제하늘내린센터	1	0	1
131	문예회관	인천서구문화회관	3	0	3
132	문예회관	전라북도예술회관	8	0	8
133	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1	0	1
134	문예회관	중구문화의전당	0	1	1
135	문예회관	진해구민회관	0	1	1
136	문예회관	충무아트센터	0	1	1
137	문예회관	파주시민회관	0	4	4
138	문예회관	포천반월아트홀	0	1	1
139	문예회관	포항문화예술회관	0	1	1

연번	구 분	기관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인원(명)
140	문예회관	하동문화예술회관	0	2	2
141	문예회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1	0	1
142	문예회관	전주소리문화관	2	2	4
143	문예회관	(재)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	0	1	1
144	문화의집	각화문화의집	0	1	1
145	문화의집	광명문화의집	0	1	1
146	문화의집	금산문화의집	0	2	2
147	문화의집	농성문화의집	0	1	1
148	문화의집	북구문화의집	0	1	1
149	문화의집	서현문화의집	0	1	1
150	문화의집	성남문화의집	0	1	1
151	문화의집	제천문화의집	0	1	1
152	문화의집	통영문화의집	0	1	1
153	전수회관	강릉농악전수교육관	0	1	1
154	전수회관	경산자인단오제전수관	0	1	1
155	전수회관	고성농요전수교육관	0	22	22
156	전수회관	고성오광대전수교육관	1	0	1
157	전수회관	광양궁시전수교육관	1	0	1
158	전수회관	광양장도전수교육관	1	0	1
159	전수회관	기지사줄다리기전수교육관(기지사줄다리기박물관)	1	0	1
160	전수회관	나주반전수교육관	3	3	6
161	전수회관	남원농악전수교육관	0	2	2
162	전수회관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0	1	1
163	전수회관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1	0	1
164	전수회관	대전전통나래관	1	2	3
165	전수회관	마도갈방아소리전수관	0	1	1
166	전수회관	마산가곡전수관	0	1	1
167	전수회관	박동진판소리전수관	0	1	1
168	전수회관	방짜유기전수교육관	0	1	1
169	전수회관	백동연죽장전수교육관	1	0	1
170	전수회관	보성판소리전수교육관	0	2	2
171	전수회관	부산민속예술관	1	0	1
172	전수회관	사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0	1	1
173	전수회관	산청목조각장전수관(목아전수관)	0	1	1
174	전수회관	성읍무형문화재전수관	0	1	1
175	전수회관	안동차전놀이전수교육관	0	1	1

연번	구 분	기관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인원(명)
176	전수회관	양주별산대놀이전수관	0	1	1
177	전수회관	양주소놀이굿전수회관	0	2	2
178	전수회관	우도농악전수교육관	0	1	1
179	전수회관	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	0	1	1
180	전수회관	익산시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수교육관	0	1	1
181	전수회관	장산도들노래전수관	0	1	1
182	전수회관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	1	0	1
183	전수회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0	1	1
184	전수회관	채상장전수교육관	0	1	1
185	전수회관	청주배접전수교육관	1	0	1
186	전수회관	충주시 택견원	0	3	3
187	전수회관	판소리흥보가전수관	0	1	1
188	전수회관	평택농악전수교육관	0	2	2
189	전수회관	하회별신굿탈놀이전수교육관	0	2	2
190	전수회관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0	2	2
191	전수회관	부산전통예술관	0	1	1
192	전수회관	진도군무형문화재전수관	0	2	2
193	전수회관	영광법성포단오제전수교육관	0	1	1
194	전수회관	경주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0	1	1
195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서울문화재단	0	1	1
196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부산문화재단	1	3	4
197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대구문화재단	0	1	1
198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천문화재단	2	0	2
199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광주문화재단	0	1	1
200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대전문화재단	1	0	1
20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울산문화재단	1	1	2
202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세종시문화재단	1	0	1
203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충북문화재단	1	2	3
204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충남문화재단	2	0	2
205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2	2	4
206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4	0	4
207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1	0	1
208	기타		1	2	3
합 계 (208개 의무배치기관)			134	246	380

2. 문화예술 관련 기관

연번	구 분	기 관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인원(명)
1	생활문화센터	광산 생활문화센터	3	2	5
2	생활문화센터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0	1	1
3	생활문화센터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1	0	1
4	생활문화센터	금산 어깨동무 생활문화센터	3	2	5
5	생활문화센터	깡깡이 생활문화센터	1	1	2
6	생활문화센터	두송 생활문화센터	0	4	4
7	생활문화센터	무척사랑 생활문화센터	0	8	8
8	생활문화센터	문내 생활문화센터	0	5	5
9	생활문화센터	배방 생활문화센터	0	1	1
10	생활문화센터	백산마을 생활문화센터	1	3	4
11	생활문화센터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0	1	1
12	생활문화센터	북구 생활문화센터(광주)	0	1	1
13	생활문화센터	비산5동 생활문화센터	0	5	5
14	생활문화센터	삼례 생활문화센터1	1	7	8
15	생활문화센터	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0	1	1
16	생활문화센터	성주 생활문화센터	5	0	5
17	생활문화센터	성호 생활문화센터	0	3	3
18	생활문화센터	인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0	10	10
19	생활문화센터	전일 생활문화센터	0	3	3
20	생활문화센터	중앙 생활문화센터	2	0	2
21	생활문화센터	학산 생활문화센터 마당	0	5	5
22	생활문화센터	행복북구 생활문화센터	2	0	2
23	생활문화센터	효자문화의집 효자생활문화센터	0	4	4
24	지방문화원	광산문화원	3	2	5
25	지방문화원	광진문화원	8	1	9
26	지방문화원	괴산문화원	0	1	1
27	지방문화원	구례문화원	0	1	1
28	지방문화원	구미문화원	4	1	5
29	지방문화원	금산문화원	0	20	20
30	지방문화원	김천문화원	0	3	3
31	지방문화원	김포문화원	1	0	1

연번	구 분	기 관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인원(명)
32	지방문화원	김해문화원	4	0	4
33	지방문화원	나주문화원	0	5	5
34	지방문화원	낙동문화원	0	6	6
35	지방문화원	남구문화원(광주)	0	2	2
36	지방문화원	동구문화원(대전)	0	20	20
37	지방문화원	동구문화원(울산)	1	0	1
38	지방문화원	마산문화원	3	0	3
39	지방문화원	문경문화원	0	6	6
40	지방문화원	밀양문화원	3	0	3
41	지방문화원	사천문화원	0	8	8
42	지방문화원	서구문화원(광주)	0	1	1
43	지방문화원	서구문화원(대전)	0	1	1
44	지방문화원	서귀포문화원	0	1	1
45	지방문화원	속초문화원	0	5	5
46	지방문화원	송파문화원	6	0	6
47	지방문화원	수원문화원	16	0	16
48	지방문화원	순천문화원	2	0	2
49	지방문화원	영도문화원	0	10	10
50	지방문화원	영암문화원	0	1	1
51	지방문화원	예산문화원	7	3	10
52	지방문화원	울진문화원	3	0	3
53	지방문화원	의령문화원	0	8	8
54	지방문화원	전주문화원	0	2	2
55	지방문화원	정선문화원	0	5	5
56	지방문화원	진도문화원	0	1	1
57	지방문화원	진주문화원	0	1	1
58	지방문화원	진천문화원	0	7	7
59	지방문화원	함안문화원	2	1	3
60	지방문화원	함양문화원	3	1	4
61	지방문화원	해운대문화원	0	15	15
62	지방문화원	화도진문화원	3	1	4
63	지방문화원	화천문화원	0	12	12
64	지방문화원	횡성문화원	0	8	8

연번	구 분	기 관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인원(명)
65	지방문화원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1	1	2
66	미디어센터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0	80	80
67	미디어센터	김해영상미디어센터	4	0	4
68	미디어센터	부천시민미디어센터	1	1	2
69	미디어센터	수원미디어센터	1	0	1
70	미디어센터	진주시민미디어센터	1	0	1
71	미디어센터	화성시미디어센터	0	3	3
72	평생교육기관	가평군청	0	5	5
73	평생교육기관	강릉시 평생학습센터	0	5	5
74	평생교육기관	강서구청	0	25	25
75	평생교육기관	경기도립발안도서관	1	0	1
76	평생교육기관	광주평생교육진흥원	1	0	1
77	평생교육기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0	30	30
78	평생교육기관	김해도서관	0	7	7
79	평생교육기관	남구평생학습관	0	3	3
80	평생교육기관	동두천시평생교육원	1	0	1
81	평생교육기관	두드림서구평생학습관	0	5	5
82	평생교육기관	목동청소년수련관	2	60	62
83	평생교육기관	신호학습장	2	0	2
84	평생교육기관	안산시평생학습관	10	0	10
85	평생교육기관	안양YMCA	1	3	4
86	평생교육기관	양산시청	2	0	2
87	평생교육기관	양양교육도서관	0	1	1
88	평생교육기관	여주시청	0	40	40
89	평생교육기관	연수문화원	1	1	2
90	평생교육기관	완도군청	0	5	5
91	평생교육기관	완주공공도서관	0	10	10
92	평생교육기관	울산동부도서관	0	5	5
93	평생교육기관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14	2	16
94	평생교육기관	충청남도평생교육원	0	5	5
합 계 (94개 문화예술 관련 기관)			131	524	655

부록 4.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의향 문화예술 관련 기관

1. 의무배치기관

연번	구 분	기 관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의향 인원(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계획시점
1	도서관	강릉시립중앙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2	도서관	강서푸른들청소년도서관	1	2021년 이후
3	도서관	거마도서관	1	2021년 하반기
4	도서관	경기화성교육도서관	1	모름/무응답
5	도서관	경상북도교육청 상주도서관	1	2021년 이후
6	도서관	경상북도교육청 점촌도서관가은분관	1	2021년 하반기
7	도서관	경주시립도서관	1	2021년 하반기
8	도서관	곡성교육문화회관	1	2021년 이후
9	도서관	관교어린이도서관	1	2021년 이후
10	도서관	광명시소하도서관	2	2021년 이후
11	도서관	광양시립중앙도서관	1	2021년 이후
12	도서관	구례공공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13	도서관	구미시립중앙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14	도서관	구암도서관	1	2021년 상반기
15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	2021년 상반기
16	도서관	군산시립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17	도서관	금산인삼고을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18	도서관	남구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19	도서관	남사도서관	2	2021년 이후
20	도서관	남양주시진접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21	도서관	남양주시진접푸른숲도서관	1	2021년 하반기
22	도서관	남원시립도서관	2	2021년 이후
23	도서관	논산강경도서관	2	2021년 이후
24	도서관	대림정보문화도서관	1	2021년 이후
25	도서관	독정골어린이도서관	1	2021년 이후
26	도서관	마포중앙도서관	1	2021년 상반기
27	도서관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2	2021년 이후
28	도서관	새롬동도서관	1	2021년 하반기
29	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30	도서관	성남시무지개도서관	1	2021년 상반기
31	도서관	성남시분당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연번	구 분	기 관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의향 인원(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계획시점
32	도서관	성동구립성수도서관	1	2021년 하반기
33	도서관	송악도서관	1	2021년 하반기
34	도서관	송파위례도서관	1	2021년 이후
35	도서관	수성구립 물망이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36	도서관	신석도서관	1	2021년 이후
37	도서관	아산시 탕정온샘도서관	1	2021년 이후
38	도서관	안산시 부곡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39	도서관	안성시립공도도서관	1	2021년 이후
40	도서관	안성시립중앙도서관	1	2021년 이후
41	도서관	안양시별말도서관	1	2021년 이후
42	도서관	안양시호계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43	도서관	양산도서관	1	2021년 이후
44	도서관	양주희망도서관	1	2021년 이후
45	도서관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1	2021년 이후
46	도서관	염사도서관	1	2021년 하반기
47	도서관	여수시립돌산도서관	1	2021년 이후
48	도서관	여수시립쌍봉도서관	1	2021년 상반기
49	도서관	여수시립환경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50	도서관	영동교육도서관	1	2021년 이후
51	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1	2021년 이후
52	도서관	옥산도서관	1	2021년 이후
53	도서관	완도군립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54	도서관	울산농소3동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55	도서관	원통도서관	1	2021년 하반기
56	도서관	이야기꽃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57	도서관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2	2021년 상반기
58	도서관	임피재만식도서관	1	2021년 상반기
59	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2	직원 결원 시
60	도서관	전라북도교육청순창도서관	1	2021년 상반기
61	도서관	전주시립인후도서관	2	2021년 하반기
62	도서관	전주시립쪽구름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63	도서관	전주시립평화도서관	2	2021년 하반기
64	도서관	제천학생회관	1	직원 결원 시
65	도서관	중랑숲어린이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66	도서관	진도공공도서관	1	기관 사정에 따라
67	도서관	춘천시립분관서면도서관	1	2021년 이후

연번	구 분	기 관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의향 인원(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계획시점
68	도서관	포천시립소홀도서관	1	2021년 이후
69	박물관	감굴박물관	2	2021년 이후
70	박물관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박물관	1	2021년 상반기
71	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1	2020년 하반기
72	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1	직원 결원 시
73	박물관	국립여성사전시관	1	2021년 이후
74	박물관	김해민속박물관	1	2021년 이후
75	박물관	대전시립박물관	1	2021년 이후
76	박물관	마한박물관	1	직원 결원 시
77	박물관	명성황후기념관	2	직원 결원 시
78	박물관	성북선잠박물관	1	2021년 이후
79	박물관	세종대왕역사문화관	1	2021년 하반기
80	박물관	세종시립민속박물관	2	2021년 하반기
81	박물관	소래역사관	1	2021년 이후
82	박물관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1	2021년 하반기
83	박물관	술샘박물관(젊은달 와이파크)	3	2020년 하반기
84	박물관	숲사랑홍보관	1	2021년 상반기
85	박물관	양산시립박물관	1	직원 결원 시
86	박물관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2	2021년 상반기
87	박물관	어진박물관	1	2021년 이후
88	박물관	여초서예관	1	2021년 상반기
89	박물관	운강이강년기념관	1	2021년 상반기
90	박물관	유엔군 초전기념관	1	2021년 이후
91	박물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1	2021년 이후
92	박물관	전라남도농업박물관	1	2021년 상반기
93	박물관	창녕박물관	1	2021년 이후
94	박물관	창원대학교박물관	1	2021년 이후
95	박물관	창원시립마산박물관	1	2021년 상반기
96	박물관	창원역사민속관	1	2021년 상반기
97	박물관	청주고인쇄박물관	1	2021년 이후
98	박물관	충주세계무술박물관	1	모름/무응답
99	박물관	충청남도역사박물관	1	2021년 이후
100	박물관	충청북도농업과학관	1	2021년 상반기
101	박물관	태백석탄박물관	1	2021년 이후
102	박물관	통영시립박물관	1	2021년 이후
103	박물관	파로호 안보전시관	1	2021년 하반기

연번	구 분	기 관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의향 인원(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계획시점
104	박물관	하동야생차박물관	1	2021년 이후
105	박물관	한국시집박물관	1	2021년 상반기
106	박물관	한지체험박물관	1	2021년 이후
107	박물관	해녀박물관	1	2021년 이후
108	박물관	홍주성 역사관	2	2021년 이후
109	미술관	강릉시립미술관	1	2021년 상반기
110	미술관	검재정선미술관	1	직원 결원 시
111	미술관	경기도미술관	1	2021년 이후
112	미술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2	2021년 이후
113	미술관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1	2021년 상반기
114	미술관	소암기념관	1	2021년 이후
115	미술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1	2020년 하반기
116	미술관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1	2021년 이후
117	미술관	전라북도립미술관	1	2021년 이후
118	미술관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1	2021년 상반기
119	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	2	2021년 이후
120	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 분관 (대청호미술관)	1	2021년 상반기
121	미술관	최북 미술관	1	2021년 하반기
122	미술관	포항시립미술관	1	2021년 이후
123	문예회관	3·15 아트센터	1	직원 결원 시
124	문예회관	GS칼텍스 예술마루	1	2021년 이후
125	문예회관	동구문화센터	1	2021년 이후
126	문예회관	문경문화예술회관	1	2021년 이후
127	문예회관	민주공원 증극장	1	2021년 이후
128	문예회관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1	2021년 이후
129	문예회관	삼척문화예술회관	1	2021년 이후
130	문예회관	서귀포예술의전당	1	2020년 하반기
131	문예회관	세종국악당	2	2021년 이후
132	문예회관	순천문화예술회관	2	2021년 이후
133	문예회관	양산문화예술회관	1	직원 결원 시
134	문예회관	양주문화예술회관	2	직원 결원 시
135	문예회관	예산군문예회관	1	직원 결원 시
136	문예회관	용인시문예회관	2	직원 결원 시
137	문예회관	울진문화예술회관	1	직원 결원 시
138	문예회관	의령군민문화회관	2	직원 결원 시

연번	구 분	기 관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의향 인원(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계획시점
139	문화의집	갈현1동문화의집	1	2021년 이후
140	문화의집	경화문화의집	2	2020년 하반기
141	문화의집	삼천문화의집	1	2021년 이후
142	문화의집	이서문화의집	1	2021년 상반기
143	문화의집	인후문화의집	1	직원 결원 시
144	문화의집	일곡문화의집	2	직원 결원 시
145	문화의집	일도1동문화의집	2	직원 결원 시
146	문화의집	진북문화의집	1	직원 결원 시
147	문화의집	표선문화의집	1	2021년 이후
148	문화의집	풍기문화의집	1	2021년 하반기
149	문화의집	하귀문화의집	1	2021년 이후
150	문화의집	하안문화의집	2	직원 결원 시
151	문화의집	회덕문화의집	1	2021년 이후
152	전수회관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1	2021년 이후
153	전수회관	다대포민속예술관	1	2021년 이후
154	전수회관	밀양백중놀이전수관	2	2021년 상반기
155	전수회관	수영민속예술관	2	2021년 하반기
156	전수회관	용기전수교육관(영덕용기장)	1	2021년 하반기
157	전수회관	자산팔읍길쌈놀이전수관	1	2021년 이후
158	전수회관	자산민속전수관	1	2021년 상반기
159	전수회관	평창둔전평농악전수회관	1	2021년 이후
160	기타		1	미정
합 계 (160개 의무배치기관)			합계 190명, 평균 1.2명	

2. 문화예술 관련 기관

연번	구 분	기 관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의향 인원(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계획시점
1	생활문화센터	계곡생활문화센터	1	직원 결원 시
2	생활문화센터	군위 생활문화센터	모름/무응답	2021년 이후
3	생활문화센터	남구 생활문화센터	1	직원 결원 시
4	생활문화센터	대전시립미술관 생활문화센터	1	기관 사정에 따라
5	생활문화센터	덕포 생활문화센터	1	2021년 이후
6	생활문화센터	동구 생활문화센터	2	2021년 하반기
7	생활문화센터	동면 생활문화센터	1	2021년 하반기
8	생활문화센터	동상 생활문화센터	1	2021년 상반기
9	생활문화센터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미정	2021년 이후
10	생활문화센터	북도면 생활문화센터	5	2021년 이후
11	생활문화센터	영덕 생활문화센터	1	직원 결원 시
12	생활문화센터	영천문화원 생활문화센터	1	2021년 상반기
13	생활문화센터	예주 생활문화센터	1	미정
14	생활문화센터	조치원 생활문화센터	2	직원 결원 시
15	생활문화센터	지동 창룡마을 창작센터	미정	직원 결원 시
16	생활문화센터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1	직원 결원 시
17	생활문화센터	청주 생활문화센터	2	직원 결원 시
18	생활문화센터	화성시 생활문화센터	2	2021년 이후
19	생활문화센터	화천 생활문화센터	2	2021년 하반기
20	생활문화센터	강진문화원	3	2021년 하반기
21	생활문화센터	강화문화원	2	2021년 이후
22	지방문화원	광명문화원	1	2020년 하반기
23	지방문화원	남양주문화원	1	2021년 상반기
24	지방문화원	남해문화원	2	2021년 상반기
25	지방문화원	동대문문화원	2	2021년 상반기
26	지방문화원	동해문화원	1	미정
27	지방문화원	북구문화원(광주)	2	직원 결원 시
28	지방문화원	서구문화원(부산)	1	2021년 하반기
29	지방문화원	성주문화원	10	2021년 이후
30	지방문화원	안동문화원	1	직원 결원 시
31	지방문화원	안산문화원	1	직원 결원 시
32	지방문화원	양양문화원	1	2021년 이후
33	지방문화원	양주문화원	1	2021년 이후
34	지방문화원	여주문화원	1	2021년 이후
35	지방문화원	옥천문화원	8	직원 결원 시

연번	구 분	기 관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의향 인원(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계획시점
36	지방문화원	울주문화원	1	직원 결원 시
37	지방문화원	원주문화원	1	2021년 이후
38	지방문화원	인재문화원	1	직원 결원 시
39	지방문화원	중구문화원(대전)	1	직원 결원 시
40	지방문화원	중구문화원(울산)	1	2021년 이후
41	지방문화원	청송문화원	2	직원 결원 시
42	지방문화원	태안문화원	1	직원 결원 시
43	지방문화원	하남문화원	1	직원 결원 시
44	미디어센터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 "소풍"	1	2021년 하반기
45	미디어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트"	1	2021년 이후
46	미디어센터	옥천군영상미디어센터	1	직원 결원 시
47	미디어센터	완주공동체미디어센터	1	2021년 이후
48	미디어센터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1	직원 결원 시
49	평생교육기관	(사)한국예술진흥회	2	직원 결원 시
50	평생교육기관	강동도서관	미정	2021년 상반기
51	평생교육기관	경기도립성남도서관	1	2020년 하반기
52	평생교육기관	광주북구평생학습관	1	직원 결원 시
53	평생교육기관	광주서구청	1	2021년 이후
54	평생교육기관	구리시장예인종합복지관	2	2021년 이후
55	평생교육기관	구리시청소년수련관	2	직원 결원 시
56	평생교육기관	군산시평생학습관	1	직원 결원 시
57	평생교육기관	금정구청	1	2021년 이후
58	평생교육기관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1	2021년 이후
59	평생교육기관	남양주시평생학습센터	1	미정
60	평생교육기관	남원교육문화회관	2	2021년 상반기
61	평생교육기관	대덕구청	1	직원 결원 시
62	평생교육기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2	기관 사정에 따라
63	평생교육기관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1	2021년 하반기
64	평생교육기관	영암공공도서관	미정	미정
65	평생교육기관	영암군청	미정	2021년 상반기
66	평생교육기관	영주시청	미정	2021년 이후
67	평생교육기관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2	2021년 이후
68	평생교육기관	의성군청	미정	미정
69	평생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2	2021년 이후
70	평생교육기관	진양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71	평생교육기관	하동군청	1	직원 결원 시
합 계 (71개 문화예술 관련 기관)			합계 102명, 평균 1.6명	

부록 5. 설문지

ID				
----	--	--	--	--

2020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2급 자격 소지자)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문화예술교육사>자격제도 업무를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자의 경제 활동 현황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의 자격취득자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020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사의 활용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향후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합니다.

저희가 여쭙는 질문은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이러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몇 %”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만 사용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답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34조(통계작성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준하여 귀하의 응답내용은 그 비밀이 보장되며, 주요 조사 자료의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0 년 9 월

☐ 수 행 : 글로벌알앤씨(주) 정현혜 연구원(☎ 02-3456-1733) / e-mail : hhjeong@globalri.co.kr

☐ 주 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연수센터 / e-mail : aci@arte.or.kr

Part A. 일반사항

문1) 귀하가 문화예술교육사를 취득하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①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 ②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 ③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 ④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 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예. 예술강사 지원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등)
- ⑥ 문화예술 소양 및 향유를 위해서
- ⑦ 기타()

문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당시**, 귀하께서 **희망했던 직무**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 | |
|---------------------------|----------------------|
| 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 ③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 ④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
| ⑤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예술경영) | ⑥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
| ⑦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 ⑧ 기타() |

문3) 귀하는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어느 곳에서 이수**하셨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① 문화예술교육원 (☞ 문3-1로 이동)
- ② 대학 (☞ 문4로 이동)
- ③ 학점은행제 (☞ 문4로 이동)
- ④ 국가무형문화재 (☞ 문4로 이동)
- ⑤ 기본연수 과정을 이수한 예술강사(교육과정 이수요건 다, 라목에 해당하여 취득한 자_16년 1차 교부대상자까지 적용) (☞ 문4로 이동)

문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어느 문화예술교육원에서 이수**하셨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 | |
|-------------------|-------------------|
| ① 경일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② 계명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 ③ 대구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④ 부산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 ⑤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⑥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 ⑦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⑧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 ⑨ 전북문화예술교육원 | ⑩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 ⑪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⑫ 한서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 ⑬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⑭ 대진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 ⑮ 기타() | |

Part B. 경제활동

문4) 귀하께서는 **현재 보수를 받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활동을 하지 않고(구직 중 포함)** 계십니까?

- ① 활동하고 있다(프리랜서 포함) (☞ 문5-1로 이동) ② 활동하지 않고 있다 (☞ 문5-2로 이동)

문5-1)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과거에도 보수를 받고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 ① 활동한 적 있었다(프리랜서 포함) (☞ 문5-3로 이동) ② 활동한 적 없었다 (☞ 문6으로 이동)

문5-2) **[문4의 ②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과거에는 보수를 받고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 ① 활동한 적 있었다(프리랜서 포함) (☞ 문5-3로 이동) ② 활동한 적 없었다 (☞ 문13으로 이동)

설문 로직

문4의 ①번 응답자 → 문5-1로 이동 → 문5-1의 ①번 응답자 → 문5-3으로 이동 → 문6으로 이동
 문4의 ①번 응답자 → 문5-1로 이동 → 문5-1의 ②번 응답자 → 문6으로 이동
 문4의 ②번 응답자 → 문5-2로 이동 → 문5-2의 ①번 응답자 → 문5-3으로 이동 → 문13으로 이동
 문4의 ②번 응답자 → 문5-2로 이동 → 문5-2의 ②번 응답자 → 문13으로 이동

문5-3) [문5-1 또는 문5-2의 ①번 응답자만] 과거 귀하의 직업 혹은 소속기관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수응답]

- | | | |
|-----------------|-------------|--------|
| ① 국·공립·공공기관 | ② 정부부처, 지자체 | ③ 예술단체 |
| ④ 사기업 | ⑤ 초·중·고등학교 | ⑥ 대학교 |
| ⑦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 ⑧ 기타 () | |

문6) [문4의 ①번 응답자만] 현재 귀하는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십니까?

- ① 기관·시설·단체 종사 (☞ 문7로 이동) ②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 문9-1로 이동)

문7) [문6의 ①번 응답자만] 현재 귀하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타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 ①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 문7-1로 이동)
 ② 문화예술 관련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 문7-4로 이동)

문7-1) [문7의 ①번 응답자] 귀하의 소속 기관·시설·단체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 | | |
|-------------|-------------|----------|-------|
| ① 국·공립·공공기관 | ② 정부부처, 지자체 | ③ 예술단체 | ④ 사기업 |
| ⑤ 초·중·고등학교 | ⑥ 대학교 | ⑦ 기타 () | |

문7-2) [문7의 ①번 응답자] 귀하께서는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 ①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②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문7-3) [문7의 ①번 응답자] 귀하께서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신 총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년 () 개월 (☞ 문8로 이동)

① 국·공립·공공기관 ② 정부부처, 지자체 ③ 사기업
④ 초·중·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기타 ()

①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②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 년 () 개월 ( 문8로 이동)

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④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⑤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예술경영) ⑥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⑦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⑧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⑨ 기타 ()

- 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 문10으로 이동)
-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문10으로 이동)
- ③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 문9-2로 이동)
- ④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및 예술행정 (☞ 문10으로 이동)
- ⑤ 문화예술교육 단체 설립 및 운영(예술경영) (☞ 문10으로 이동)
- ⑥ 문화예술교육 평가 및 컨설팅 (☞ 문10으로 이동)
- ⑦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 문10으로 이동)
- ⑧ 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 (☞ 문10으로 이동)
- ⑨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 문10으로 이동)
- ⑩ 기타 () (☞ 문10으로 이동)

문9-2) [문9-1의 ③번 응답자] 현재 귀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이십니까?
 혹은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이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문9-3) [문9-2의 ①② 응답자] 귀하께서 예술강사로 활동한 기간은 전체 얼마나 되십니까?

구 분	문9-2	문9-3
1)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	①	① 지원사업 참여 ()년 ()개월
2) 민간영역(문화센터,기관,학원 등)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	②	② 민간영역 참여 ()년 ()개월

 문9-3 응답 후, 문10으로 이동

문10)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문10-1) [문10의 ①,②번 응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 ②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낮아서
- ③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론 중심 이어서
- ④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커리큘럼이 부족해서
- ⑤ 기타()

문10-2) [문10의 ③번 응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0-3) [문10의 ④,⑤번 응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높아서
- ②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
- ③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내용으로 현재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
- ④ 예술가와 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 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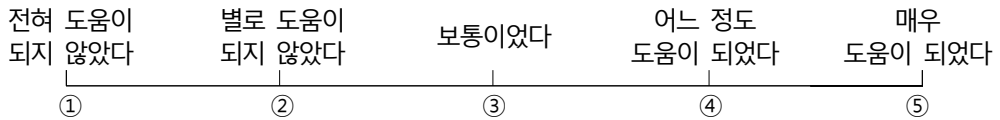
 문10-1, 문10-2, 문10-3 응답 후, 문11로 이동

Part C. 구직 시 도움여부

문11)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것은 활동하기 이전입니까? 아니면 취업한 이후입니까?

- ① 활동하기 전 자격증 취득 (☞ 문12로 이동)
- ② 활동한 뒤 자격증 취득 (☞ 문13으로 이동)

문12) [문11의 ①번 응답자] 귀하에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구직 시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문12-1) [문12의 ①,②번 응답자]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 ②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서
- ③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 ④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단체)의 고용조건이 불안정(비정규직)한 곳이 많아서
- ⑤ 코로나 19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단체)이 줄어들어서
- ⑥ 기타 ()

문12-2) [문12의 ③번 응답자]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었는데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2-3) [문12의 ④,⑤번 응답자]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아서
- ②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아서
- ③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서
- ④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단체)의 고용조건이 안정적(정규직)인 곳이 많아서
- ⑤ 기타 ()

☞ 문12-1, 문12-2, 문12-3 응답 후, 문13으로 이동

Part D.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문1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은 청년 문화예술교육사(만 39세 이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후 3년 이하인 자)를 문화시설에 배치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현장 실무경험 확대 및 경력 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① 그렇다 (☞ 문13-1로 이동) ② 그렇지 않다 (☞ DQ1로 이동)
- ③ 미정이다 (☞ DQ1로 이동)
- ④ 참여조건(만 39세 이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후 3년 이하인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DQ1로 이동)

문13-1) [문13의 ①번 응답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 응답자 기본 현황

D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DQ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DQ3) 귀하의 거주 지역은 다음 중 어느 곳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DQ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 졸업 ③ 대학 졸업(학사)
④ 대학원 졸업(석사) ⑤ 대학원 졸업(박사) ⑥ 기타()

☐ 귀하의 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2020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의무배치 기관)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문화예술교육사>자격제도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자의 경제활동 현황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의 자격취득자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020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사의 활용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향후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합니다.

저희가 여쭙는 질문은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이러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몇 %"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만 사용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답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34조(통계작성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준하여 귀하의 응답내용은 그 비밀이 보장되며, 주요조사 자료의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0 년 10월

■ 수 행 : 글로벌알앤씨(주) 정현혜 연구원(☎ 02-3456-1733) / e-mail : hhjeong@globalri.co.kr

■ 주 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연수센터 / e-mail : aci@arte.or.kr

Part A. 일반사항

문1) 귀 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 | | |
|----------------|----------|--------|
| ① 도서관 | ② 박물관 | ③ 미술관 |
| ④ 문예회관(공연장) | ⑤ 문화의집 | ⑥ 전수회관 |
| ⑦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⑧ 기타 () | |

문2) 귀 기관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2-1로 이동) ② 아니오 (☞ 문3으로 이동)

문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연간 몇 회입니까?

- ① 1~5회 ② 6~10회 ③ 11~20회 ④ 21회 이상

문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①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 ②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 ③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
- ④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
- ⑤ 기타 ()

문2-3)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은 다음 중

누구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문2-4)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구 분	문2-3	문2-4		
1)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①	①	②	③
2)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비담당자	②	①	②	③
3) 기관 외부 전문가	③	①	②	③
4) 문화예술교육강사	④	①	②	③
5) 기타 ()	⑤	①	②	③

문2-4의 보기항목

- 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②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
- ③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소지여부를 알 수 없다

문3) 다음은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과 같은 국·공립 교육 시설은 최소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혹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 ① 알고 있었다 ② 모르고 있었다

Part C.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계획

문8) [문5의 ②번 응답자만] 귀 기관은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배치할 의향이 있다 (☞ 문8-1로 이동) ② 배치할 의향이 없다 (☞ 문8-4로 이동)

문8-1) [문8의 ①번 응답자만]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를 활용한다면 배치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구 분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형태	
8-1-1) 상근 / 비상근 여부	① 상근 근로자	② 비상근 근로자
8-1-2) 기간제 / 무기계약 여부	① 기간제 근로자	② 무기계약직 근로자
8-1-3) 전일제 / 단시간여부	① 전일제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문8-2) [문8의 ①번 응답자만] 몇 명을 배치할 계획입니까? () 명

문8-3) [문8의 ①번 응답자만] 배치 시점은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 ① 2020년 하반기 ② 2021년 상반기 ③ 2021년 하반기
④ 2021년 이후 ⑤ 직원 결원 시 ⑥ 기타()

☞ 문8-3 응답 후, 문9로 이동

문8-4) [문8의 ②번 응답자만]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① 예산이 부족해서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③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
④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
⑤ 코로나 19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여건이 안 돼서
⑥ 기타()

☞ 문8-4 응답 후, 문9로 이동

Part D.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문9) 귀 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은 문화시설이 청년 문화예술교육사(만 39세 이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후 3년 이하인 자)를 배치해 현장 실무경험 및 경력 개발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임

- ① 그렇다 (☞ 문9-1로 이동) ② 그렇지 않다 (☞ 문9-2로 이동)
③ 미정이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로 이동)

2020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문화예술 관련 기관)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문화예술교육사>자격제도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자의 경제활동 현황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의 자격취득자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020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동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사의 활용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향후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합니다.

저희가 여쭙는 질문은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이러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몇 %"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만 사용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답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34조(통계작성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준하여 귀하의 응답내용은 그 비밀이 보장되며, 수요조사 자료의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 수 행 : 글로벌알앤씨(주) 정현혜 연구원(☎ 02-3456-1733) / e-mail : hhjeong@globalri.co.kr

■ 주 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연수센터 / e-mail : aci@arte.or.kr

Part A. 일반사항

문1) 귀 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① 생활문화센터 ② 지방문화원 ③ 미디어센터 ④ 평생교육기관
⑤ 기타()

문2) 귀 기관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2-1로 이동) ② 아니오 (☞ 문3으로 이동)

문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연간 몇 회
입니까?

- ① 1~5호 | ② 6~10호 | ③ 11~20호 | ④ 21호 이상

문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①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 ②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 ③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
- ④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
- ⑤ 기타()

문2-3)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은 다음 중 누구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문2-4)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구 분	문2-3	문2-4		
1)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①	①	②	③
2)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비담당자	②	①	②	③
3) 기관 외부 전문가	③	①	②	③
4) 문화예술교육강사	④	①	②	③
5) 기타 ()	⑤	①	②	③

문2-4의 보기항목

- 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②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
- ③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소지여부를 알 수 없다

문3) 다음은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귀 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혹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 ① 알고 있었다 ② 모르고 있었다

문7-2) [문7의 ①번 응답자만] 몇 명을 배치할 계획입니까? () 명

문7-3) [문7의 ①번 응답자만] 배치 시점은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 | | | |
|-------------|-------------|------------------------------|
| ① 2020년 하반기 | ② 2021년 상반기 | ③ 2021년 하반기 |
| ④ 2021년 이후 | ⑤ 직원 결원 시 | ⑥ 기타() |

 문7-3 응답 후, 문8로 이동

문7-4) [문7의 ②번 응답자만]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① 예산이 부족해서
-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 ③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
- ④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
- ⑤ 코로나 19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여건이 안 돼서
- ⑥ 기타()

 문7-4 응답 후, 문8로 이동

문8)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필요로 하는 역량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 | |
|-------------------------------|---------------------|
| 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② 수준 높은 교수(강의) |
| ③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기획 및 예술행정 | ④ 예술 전공분야의 전문성 |
| ⑤ 타 장르 및 영역과의 융·복합 교육프로그램 기획 | ⑥ 사업홍보 및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
| ⑦ 기관의 특성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 |
| ⑧ 귀 기관을 포함한 문화기반시설의 최신 동향 이해도 | |
| ⑨ 기타() | |

□ 귀 기관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